연구보고 2023-23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 방안 연구(II)

최은영·김은영·김태우·윤정환·이영애·박희현·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3-23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 방안 연구(Ⅱ)

저 자 최은영, 김은영, 김태우, 윤정환, 이영애, 박희현, 최윤경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최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태 우**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공동연구자 **윤 정 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 영 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박 희 현** (동신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최 윤 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기타 기여자

연구협력기관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경 옥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남 현 주 (덕성여자대학교 박사수료)
윤 제 현 (덕성여자대학교 석사과정)
연구보조원 **김 은 혜** (경희대학교 박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3-23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 방안 연구(II)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세일포커스 02-2275-6894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073-2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리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익숙하게 사용된 용어는 '위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일 것이다. 어느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4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은 이미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은 희미한 과거의 언어로 인식하게 되기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낳은 중요한 사회적 결과로 주목할 만한 것은 '불평등 문제와 불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고, 가정이라는 낯설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규제 하에 생애초기 단절을 경험한 영유아들이 있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맥락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누적된 2022년 시점에서 영유아기에 팬데믹을 경험한 취학 전-후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발달, 학습 및 자녀 양육 가구의 돌봄과 교육·보육 현황과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으며(1차년도), 2차년도(2023년) 연구의 목적은 2년에 걸쳐 종단적으로 추적·조사하여 영유아에게 미치는 누적적인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에서의 적응에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주말시간을 내어 2차년도 연구에 참여해주신 우리의 아이들과 부모님이 있기에 본 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기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또한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해 민감한 시기였음에도 연구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밝혀둔다.

2023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요약 1

Ⅰ.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 내용 17
3. 연구 방법 18
4.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35

Ⅱ. 국내외 연구 동향 39
1. 아동발달 및 학습 격차 관련 연구 동향 41
2. 발달 및 학습 격차의 영향요인 관련 연구 동향 45
3.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 등)과 학교 전이와 적응 관련 연구 동향 51
4.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관련 국외연구 동향 57

Ⅲ.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의 발달 및 학습 변화: 심층 분석 69
1.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전반적인 발달 변화: 면담내용 분석 71
2.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인지 및 언어발달 변화: 임상사례 분석 89
3.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 변화: 임상사례 분석 111

Ⅳ. 2차년도 참여자의 발달 및 학습 현황 139
1.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발달 및 학습에 대한 인식 141
2.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발달검사 결과 187
3.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제 특성별 발달 비교 191
4. 소결 202

Ⅴ. 1, 2차년도 연구결과의 종단 비교 207
1. 1차년도 결과와의 종단 비교 ····· 209
2. 한국아동패널의 코호트 집단 비교 ····· 263
3. 소결 ····· 287

Ⅵ. 논의 및 제언 289
1. 요약 및 논의 ····· 291
2. 제언 ····· 295

참고문헌 307

Abstract 327

부록 331
부록 1. 부모용 설문지 ····· 331
부록 2. 교사용 설문지 ····· 340
부록 3. 1차년도 주요 결과에 대한 카드 뉴스 ····· 345
부록 4. 분석사용 변수 설명 ····· 347

표 목차

〈표 Ⅰ-3-1〉 심층면담 참여자 일반 정보 ····· 18
〈표 Ⅰ-3-2〉 심층면담 면담내용 ····· 18
〈표 Ⅰ-3-3〉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 ····· 20
〈표 Ⅰ-3-4〉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 내용 ····· 21
〈표 Ⅰ-3-5〉 키워드(주요 주제어) 및 네크워크 분석의 전처리 주요 내용 ····· 24
〈표 Ⅰ-3-6〉 만 3세반 유아 부모 응답자 특성 ····· 25
〈표 Ⅰ-3-7〉 초등 1학년 아동 부모 응답자 특성 ····· 26
〈표 Ⅰ-3-8〉 응답자 특성: 교사 ····· 27
〈표 Ⅰ-3-9〉 부모 대상 설문조사 내용 ····· 28
〈표 Ⅰ-3-10〉 교사 대상 설문조사 내용 ····· 28
〈표 Ⅰ-3-11〉 2차년도 발달검사 참여자의 일반 특성 ····· 29
〈표 Ⅰ-3-12〉 발달검사 진행 과정(안) ····· 29
〈표 Ⅰ-3-13〉 K-WPPSI-Ⅳ 소검사 구성 및 내용 ····· 31
〈표 Ⅰ-3-14〉 바인랜드 적응행동(K-Vineland-2) 영역별 구성 및 내용 ····· 32
〈표 Ⅰ-3-15〉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현황 ····· 33
〈표 Ⅲ-2-1〉 전체 참여자 그룹의 빈도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 ····· 91
〈표 Ⅲ-2-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임상 사례에서 나타나는 언어발달의 변화 ·· 92
〈표 Ⅲ-2-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임상 사례에서 나타나는 인지발달의 변화 ·· 97
〈표 Ⅲ-2-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임상 사례에서 나타나는 인지 및 언어발달의 영향요인 ····· 100
〈표 Ⅲ-2-5〉 인지 및 언어발달 격차 해소 지원 방안 ····· 105
〈표 Ⅲ-2-6〉 아이겐벡터 중심성 기반 네트워크 분석: 인지 및 언어발달 변화 ·· 107
〈표 Ⅲ-3-1〉 빈도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 ····· 112
〈표 Ⅲ-3-2〉 정서 영역의 변화 ····· 113
〈표 Ⅲ-3-3〉 사회성 영역의 변화 ····· 117
〈표 Ⅲ-3-4〉 적응행동 변화 ····· 120
〈표 Ⅲ-3-5〉 영향요인 ····· 126
〈표 Ⅲ-3-6〉 아이겐벡터 중심성 기반 네트워크 분석: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 변화 ····· 133

〈표 Ⅳ-1-1〉 만 3세반 유아 월평균 가구 총 지출 ····· 141
〈표 Ⅳ-1-2〉 만 3세반 유아 월평균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지출 ····· 142
〈표 Ⅳ-1-3〉 만 3세반 유아 월평균 사교육비(사교육 이용 가구만) 지출 ····· 143
〈표 Ⅳ-1-4〉 만 3세반 유아 일상: 父의 자녀와 보내는 시간
(주당 평균 양육시간) ····· 143
〈표 Ⅳ-1-5〉 만 3세반 유아 일상: 母의 자녀와 보내는 시간
(주당 평균 양육시간) ····· 144
〈표 Ⅳ-1-6〉 만 3세반 유아 일상: 자녀의 TV/미디어 이용시간
(주당 평균 시간) ····· 144
〈표 Ⅳ-1-7〉 만 3세반 유아 일상: 야외 활동 시간(주당 평균 시간) ····· 145
〈표 Ⅳ-1-8〉 만 3세반 유아 일상: 자녀의 수면시간(일 평균 시간) ····· 145
〈표 Ⅳ-1-9〉 초등 1학년 아동 월평균 가구 총 지출 ····· 146
〈표 Ⅳ-1-10〉 초등 1학년 아동 월평균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 146
〈표 Ⅳ-1-11〉 초등 1학년 아동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 147
〈표 Ⅳ-1-12〉 초등 1학년 아동 일상: 父의 자녀와 보내는 시간
(주당 평균 양육시간) ····· 147
〈표 Ⅳ-1-13〉 초등 1학년 아동 일상: 母의 자녀와 보내는 시간
(주당 평균 양육시간) ····· 148
〈표 Ⅳ-1-14〉 초등 1학년 아동 일상: 자녀의 TV/미디어 이용시간
(주당 평균 시간) ····· 148
〈표 Ⅳ-1-15〉 초등 1학년 아동 일상: 야외 활동 시간(주당 평균 시간) ····· 149
〈표 Ⅳ-1-16〉 초등 1학년 아동: 자녀의 수면시간(일 평균 시간) ····· 149
〈표 Ⅳ-1-17〉 만 3세반 유아의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이용 육아·보육기관
(반일제 이상 학원 세분화) ····· 150
〈표 Ⅳ-1-18〉 만 3세반 유아의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기관 평균 이용 기간 ·· 151
〈표 Ⅳ-1-19〉 만 3세반 유아의 현재 이용 기관 ····· 152
〈표 Ⅳ-1-20〉 만 3세반 유아의 현재 이용 중인 사교육 교과목 ····· 152
〈표 Ⅳ-1-21〉 만 3세반 유아의 현재 이용 중인 사교육 프로그램 수 ····· 153
〈표 Ⅳ-1-22〉 만 3세반 유아의 현재 이용 교육서비스 ····· 154
〈표 Ⅳ-1-23〉 만 3세반 유아의 교육서비스 일주일 평균 이용시간 ····· 154
〈표 Ⅳ-1-24〉 초등 1학년 아동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이용 육아·보육기관
(반일제 이상 학원 세분화) ····· 155
〈표 Ⅳ-1-25〉 초등 1학년 아동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기관 평균 이용 기간(개월) ·· 156

〈표 Ⅳ-1-26〉 초등 1학년 아동 현재 이용 학교 유형 ····· 156
〈표 Ⅳ-1-27〉 초등 1학년 아동 현재 이용 중인 사교육 교과목 ····· 157
〈표 Ⅳ-1-28〉 초등 1학년 아동 현재 이용 중인 사교육 프로그램 수 ····· 158
〈표 Ⅳ-1-29〉 초등 1학년 아동 현재 이용 교육서비스 ····· 158
〈표 Ⅳ-1-30〉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 159
〈표 Ⅳ-1-31〉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전반적인 행복감 ····· 160
〈표 Ⅳ-1-32〉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 ····· 160
〈표 Ⅳ-1-33〉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아주 행복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 ····· 161
〈표 Ⅳ-1-34〉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아주 불행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 ····· 161
〈표 Ⅳ-1-35〉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부부갈등 ····· 162
〈표 Ⅳ-1-36〉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 162
〈표 Ⅳ-1-37〉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인식: 대한민국 ·· 163
〈표 Ⅳ-1-38〉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인식: 지역사회나 공동체(직장, 교회, 친인척 일가, 친구, 동호회 등) ····· 164
〈표 Ⅳ-1-39〉 만 3세반 유아의 키 ····· 164
〈표 Ⅳ-1-40〉 만 3세반 유아의 몸무게 ····· 165
〈표 Ⅳ-1-41〉 만 3세반 유아의 체질량 지수(BMI) ····· 165
〈표 Ⅳ-1-42〉 만 3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 166
〈표 Ⅳ-1-43〉 만 3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 166
〈표 Ⅳ-1-44〉 만 3세반 유아의 적응 ····· 167
〈표 Ⅳ-1-45〉 만 3세반 유아의 적응: 사회정서적응 ····· 167
〈표 Ⅳ-1-46〉 만 3세반 유아의 적응: 또래적응 ····· 168
〈표 Ⅳ-1-47〉 만 3세반 유아의 적응: 자아적응 ····· 168
〈표 Ⅳ-1-48〉 만 3세반 유아의 적응: 일과적응 ····· 169
〈표 Ⅳ-1-49〉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 170
〈표 Ⅳ-1-50〉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전반적인 행복감 ····· 170
〈표 Ⅳ-1-51〉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 ····· 171
〈표 Ⅳ-1-52〉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아주 행복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 ····· 171

〈표 Ⅳ-1-53〉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아주 행복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 ····· 172
〈표 Ⅳ-1-54〉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부부갈등 ····· 172
〈표 Ⅳ-1-55〉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 173
〈표 Ⅳ-1-56〉 초등 1학년 아동 사회경제적 지위(SES): 대한민국 ····· 174
〈표 Ⅳ-1-57〉 초등 1학년 아동 사회경제적 지위(SES): 지역사회나 공동체 (직장, 교회, 친인척 일가, 친구, 동호회 등) ····· 175
〈표 Ⅳ-1-58〉 초등 1학년 아동 키 ····· 175
〈표 Ⅳ-1-59〉 초등 1학년 아동 몸무게 ····· 176
〈표 Ⅳ-1-60〉 초등 1학년 아동 체질량 지수(BMI) ····· 176
〈표 Ⅳ-1-61〉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 집행기능 ····· 177
〈표 Ⅳ-1-62〉 초등 1학년 아동 인지 및 언어발달: 집행기능 ① 계획 -조직화 곤란 ····· 177
〈표 Ⅳ-1-63〉 초등 1학년 아동 인지 및 언어발달: 집행기능 ② 행동통제 곤란 ·· 178
〈표 Ⅳ-1-64〉 초등 1학년 아동 인지 및 언어발달: 집행기능 ③ 정서통제 곤란 ·· 179
〈표 Ⅳ-1-65〉 초등 1학년 아동 인지 및 언어발달: 집행기능 ④ 부주의 ····· 180
〈표 Ⅳ-1-66〉 초등 1학년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 181
〈표 Ⅳ-1-67〉 초등 1학년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 181
〈표 Ⅳ-1-68〉 초등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 ····· 182
〈표 Ⅳ-1-69〉 초등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 학업수행 적응 ····· 182
〈표 Ⅳ-1-70〉 초등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 또래적응 ····· 183
〈표 Ⅳ-1-71〉 초등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 교사 적응 ····· 183
〈표 Ⅳ-1-72〉 초등 1학년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 184
〈표 Ⅳ-1-73〉 초등 1학년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국어 ····· 184
〈표 Ⅳ-1-74〉 초등 1학년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수학 ····· 184
〈표 Ⅳ-1-75〉 만 3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비교 ·· 185
〈표 Ⅳ-1-76〉 초등 1학년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비교 ····· 186
〈표 Ⅳ-2-1〉 만 3세반 유아 참여 현황 ····· 187
〈표 Ⅳ-2-2〉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수준 ····· 187
〈표 Ⅳ-2-3〉 만 3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 188
〈표 Ⅳ-2-4〉 초등 1학년 아동 참여 현황 ····· 189
〈표 Ⅳ-2-5〉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수준 ····· 189

〈표 Ⅳ-2-6〉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 ····· 190
〈표 Ⅳ-3-1〉 성별에 따른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 191
〈표 Ⅳ-3-2〉 성별에 따른 만 3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 192
〈표 Ⅳ-3-3〉 맞벌이 여부에 따른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 193
〈표 Ⅳ-3-4〉 맞벌이 여부에 따른 만 3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 194
〈표 Ⅳ-3-5〉 가구소득(2집단)에 따른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 195
〈표 Ⅳ-3-6〉 가구소득(2집단)에 따른 만 3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 196
〈표 Ⅳ-3-7〉 성별에 따른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 ····· 197
〈표 Ⅳ-3-8〉 성별에 따른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 ····· 198
〈표 Ⅳ-3-9〉 맞벌이 여부에 따른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 ····· 199
〈표 Ⅳ-3-10〉 맞벌이 여부에 따른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 ····· 200
〈표 Ⅳ-3-11〉 가구소득(2집단)에 따른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 ····· 201
〈표 Ⅳ-3-12〉 가구소득(2집단)에 따른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 ····· 202
〈표 Ⅴ-1-1〉 인지발달 총점별 집단 구분: 만 2세반 영아 ····· 217
〈표 Ⅴ-1-2〉 인지발달 점수의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부모 학력별 차이: 만 2세반 영아 ····· 218
〈표 Ⅴ-1-3〉 인지발달 점수의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맞벌이여부에 따른 차이: 만 2세반 영아 ····· 218
〈표 Ⅴ-1-4〉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시간의 변화에 대한 인지발달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 만 2세반 영아 ····· 219
〈표 Ⅴ-1-5〉 인지발달 상 집단과 하 집단의 가구소득 차이: 만 2세반 영아 ·· 219
〈표 Ⅴ-1-6〉 긴급 돌봄 이용에 따른 인지발달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 만 2세반 영아 ····· 220
〈표 Ⅴ-1-7〉 적응행동 조합점수 집단 구분: 만 2세반 영아 ····· 220
〈표 Ⅴ-1-8〉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부모 학력별 차이: 만 2세반 영아 ··· 221
〈표 Ⅴ-1-9〉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 만 2세반 영아 ····· 221
〈표 Ⅴ-1-10〉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시간의 변화에 대한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 만 2세반 영아 ····· 222
〈표 Ⅴ-1-11〉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가구소득 차이: 만 2세반 영아 ·· 223
〈표 Ⅴ-1-12〉 긴급 돌봄 이용에 따른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 만 2세반 영아 ····· 223
〈표 Ⅴ-1-13〉 인지발달 총점별 집단 구분: 만 5세반 유아 ····· 224

〈표 Ⅴ-1-14〉 인지발달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부모 학력별 차이: 만 5세반 유아 ·· 224
〈표 Ⅴ-1-15〉 맞벌이 여부에 따른 인지발달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 만 5세반 유아 ····· 225
〈표 Ⅴ-1-16〉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시간의 변화에 대한 인지발달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 만 5세반 유아 ····· 225
〈표 Ⅴ-1-17〉 인지발달 상 집단과 하 집단의 가구소득 차이: 만 5세반 유아 ·· 226
〈표 Ⅴ-1-18〉 긴급 돌봄 이용에 따른 인지발달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 만 5세반 유아 ····· 226
〈표 Ⅴ-1-19〉 적응행동 조합점수 집단 구분: 만 5세반 유아 ····· 227
〈표 Ⅴ-1-20〉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부모 학력별 차이: 만 5세반 유아 ·· 227
〈표 Ⅴ-1-21〉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 만 5세반 유아 ····· 228
〈표 Ⅴ-1-22〉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시간의 변화에 대한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 만 5세반 유아 ····· 228
〈표 Ⅴ-1-23〉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가구소득 차이: 만 5세반 유아 ·· 229
〈표 Ⅴ-1-24〉 긴급 돌봄 이용에 따른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 만 5세반 유아 ····· 229
〈표 Ⅴ-1-25〉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1, 2차년도 (만 2세반, 만 3세반 시기) 비교 ····· 230
〈표 Ⅴ-1-26〉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1, 2차년도 (만 5세반, 초등 1학년 시기) 비교 ····· 231
〈표 Ⅴ-1-27〉 기관 적응: 1, 2차년도(만 2세와 만 3세 시기) 비교 ····· 232
〈표 Ⅴ-1-28〉 추적 연구대상 ····· 233
〈표 Ⅴ-1-29〉 만 3세반 유아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인지발달 차이 ····· 234
〈표 Ⅴ-1-30〉 만 3세반 유아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적응행동 차이 ····· 235
〈표 Ⅴ-1-31〉 만 3세반 유아의 성별과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 236
〈표 Ⅴ-1-32〉 만 3세반 유아의 성별과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 237
〈표 Ⅴ-1-33〉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 239
〈표 Ⅴ-1-34〉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 240
〈표 Ⅴ-1-35〉 만 3세반 유아의 가구소득과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 242
〈표 Ⅴ-1-36〉 만 3세반 유아의 가구소득과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 243
〈표 Ⅴ-1-37〉 초등 1학년 아동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인지발달 차이 ····· 245
〈표 Ⅴ-1-38〉 초등 1학년 아동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적응행동 차이 ····· 246

〈표 Ⅴ-1-39〉 초등 1학년 아동의 성별과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 247
〈표 Ⅴ-1-40〉 초등 1학년 아동의 성별과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 249
〈표 Ⅴ-1-41〉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 251
〈표 Ⅴ-1-42〉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 253
〈표 Ⅴ-1-43〉 초등 1학년 아동의 가구소득과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 255
〈표 Ⅴ-1-44〉 초등 1학년 아동의 가구소득과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 256
〈표 Ⅴ-1-45〉 연령과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 259
〈표 Ⅴ-1-46〉 연령과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 261
〈표 Ⅴ-2-1〉 한국아동패널과 1차년도(2022년) 참여 부모의 우울감 비교 ····· 263
〈표 Ⅴ-2-2〉 한국아동패널과 2차년도(2023년) 부모의 부부갈등 비교 ····· 264
〈표 Ⅴ-2-3〉 한국아동패널과 2차년도(2023년) 참여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 ·· 264
〈표 Ⅴ-2-4〉 한국아동패널과 2차년도(2023년) 참여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비교 ·· 265
〈표 Ⅴ-2-5〉 한국아동패널과 2차년도(2023년) 참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인식 비교 ····· 266
〈표 Ⅴ-2-6〉 한국아동패널과 2차년도(2023년) 참여 만 3세반 유아의 키, 몸무게, BMI ····· 266
〈표 Ⅴ-2-7〉 한국아동패널과 2차년도(2023년) 참여 초등 1학년 아동의 키, 몸무게, BMI ····· 267
〈표 Ⅴ-2-8〉 한국아동패널과 1차년도(2022년) 참여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비교 ····· 267
〈표 Ⅴ-2-9〉 한국아동패널과 2차년도(2023년) 참여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 집행기능 비교 ····· 268
〈표 Ⅴ-2-10〉 한국아동패널과 1차년도(2022년) 참여 초등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 비교 ····· 268
〈표 Ⅴ-2-11〉 한국아동패널과 1차년도(2022년) 참여 초등 1학년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비교 ····· 269
〈표 Ⅴ-2-12〉 신체·언어적 발달에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 ····· 271
〈표 Ⅴ-2-13〉 학습에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 ····· 272
〈표 Ⅴ-2-14〉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275
〈표 Ⅴ-2-15〉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동의 정서 및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276
〈표 Ⅴ-2-16〉 양육 행태가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 278
〈표 Ⅴ-2-17〉 양육 행태가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 279
〈표 Ⅴ-2-18〉 양육 행태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281

〈표 Ⅴ-2-19〉 사회경제적 배경이 양육지원 인식과 노동 양태에 미치는 영향 ·· 283
〈표 Ⅴ-2-20〉 사회경제적 배경이 양육 행태 변수에 미치는 영향 ····· 285
〈표 Ⅵ-2-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터의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 ····· 295
〈표 Ⅵ-2-2〉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내용 ····· 305
〈표 Ⅵ-2-3〉 드림스타트 사업 내용 ····· 305

그림 목차

[그림 Ⅰ-1-1] 2개년도 연구 내용 ····· 17
[그림 Ⅰ-3-1] 발달검사 진행 절차 ····· 30
[그림 Ⅰ-3-2] 세미나 안내장 ····· 34
[그림 Ⅰ-3-3] 연구의 흐름도 ····· 35
[그림 Ⅲ-1-1] 부모의 자녀 발달에 대한 인식 내용분석 코드 클라우드 ····· 71
[그림 Ⅲ-1-2] 부모의 자녀 발달에 대한 인식 내용분석 차트 ····· 72
[그림 Ⅲ-1-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영유아 발달 및 학습 변화 내용분석 코드 네트워크 분석결과 ····· 75
[그림 Ⅲ-1-4]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돌봄 형태 네트워크 분석결과 ····· 77
[그림 Ⅲ-1-5]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 네트워크 분석결과 ····· 81
[그림 Ⅲ-1-6]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격차 인식 네트워크 분석결과 ····· 85
[그림 Ⅲ-2-1] 전체 참여자 그룹의 워드 클라우드 ····· 91
[그림 Ⅲ-2-2] 아이겐벡터 중심성 기반 네트워크 분석: 인지 및 언어발달 변화 ··· 107
[그림 Ⅲ-3-1] 워드 클라우드 ····· 112
[그림 Ⅲ-3-2] 아이겐벡터 중심성 기반 네트워크 분석: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 변화 ····· 134
[그림 Ⅳ-1-1]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비교 ····· 186
[그림 Ⅴ-1-1]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과 적응행동 점수분포 비교: 성별과 소득 ····· 211
[그림 Ⅴ-1-2]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 하위항목별 점수분포 비교: 가구소득 ····· 212
[그림 Ⅴ-1-3]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하위항목별 점수분포 비교: 가구소득 ····· 213
[그림 Ⅴ-1-4]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과 적응행동 점수분포 비교: 성별과 소득 ····· 214
[그림 Ⅴ-1-5]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하위항목별 점수분포 비교: 가구소득 ····· 215
[그림 Ⅴ-1-6]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하위항목별 점수분포 비교:

가구소득 ····· 216
[그림 Ⅴ-1-7]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1, 2차년도 (만 2세반, 만 3세반 시기) 비교 ····· 231
[그림 Ⅴ-1-8]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1, 2차년도 (만 5세반, 초등 1학년 시기) 비교 ····· 232
[그림 Ⅴ-1-9] 기관 적응: 1, 2차년도(만 2세반, 만 3세반 시기) 비교 ····· 233
[그림 Ⅴ-1-10] 표현에서 성별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 238
[그림 Ⅴ-1-11] 적응행동 조합점수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 245
[그림 Ⅴ-1-12] 대처기술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 245
[그림 Ⅴ-1-13] 대근육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 245
[그림 Ⅴ-1-14] 상식에서 성별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 249
[그림 Ⅴ-1-15] 대인관계에서 성별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 251
[그림 Ⅴ-1-16] 모양맞추기에서 맞벌이 여부와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 253
[그림 Ⅴ-1-17] 생활기술 영역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 258
[그림 Ⅴ-1-18] 개인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 258
[그림 Ⅴ-1-19] 가정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 258
[그림 Ⅴ-1-20] 대근육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 258
[그림 Ⅴ-1-21] 공간지표에서 연령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 260
[그림 Ⅴ-1-22] 양맞추기에서 연령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 260
[그림 Ⅴ-1-23] 위치찾기에서 연령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 260
[그림 Ⅴ-1-24] 대근육에서 연령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 262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팬데믹 자체는 모두의 동등한 재난이지만 취약계층은 사용 가능한 자원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에 노출되며, 이러한 문제가 자녀의 발달 및 학습격차를 유발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영유아의 성장·발달과 교육·보육·돌봄의 운영 측면에서 2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 및 추적 관찰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미치는 누적적인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영유아의 발달 및 학습 격차 관련 국내외 연구를 고찰함.

□ 1차년도 발달검사 참여자(만 3세반 유아,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발달 및 학습, 기관 이용의 연속성과 전이(적응) 현황을 분석함.

□ 영유아 가정 및 지역사회 양육과 교육·보육·돌봄 환경 변화를 심층 분석함.

□ 1차년도와 2차년도 결과의 종단 비교, 한국아동패널과의 코호트 비교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발달 및 학습 격차 요인을 규명하고,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영유아기 발달 및 학습 격차 관련 현황 및 요인, 영유아의 기관 전이 및 적응 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함.

□ 심층면담

- 대상: 발달검사(만 3세반 유아,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참여자의 부모
- 내용: 영유아의 일상생활 변화,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및 학습 변화, 코로

나19 팬데믹 이후 격차 체감 등

- 분석 방법: ATLAS.ti.를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론 내용분석을 수행함.

□ 임상사례 분석

- 참여자: 서울·경기 지역 아동 임상 전문가 중 최소 경력 5년 이상으로 공인된 자격증을 소지한 7명
- 연구 절차: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사용한 심층면담
- 자료 분석: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 온라인 설문조사

- 대상: 2차년도 발달검사에 참여한 아동(만 3세반 유아,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부모와 교사
- 내용: 아동 신체 특성(키와 몸무게), 집행기능, 발달 상황, 학업 수행 능력, 학교 및 시설 적응,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부부 갈등, 양육 스트레스, 자녀 이용기관, 사교육 과목, 자녀 교육 서비스 이용시간 등

□ 발달 검사

- 대상: 1차년도 발달검사에 참여한 아동(만 3세반 유아, 초등학교 1학년 아동)
- 검사도구: K-WPPSI-Ⅳ(아동수행), K-Vineland-2(보호자평정)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라.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 용어의 정의

- 만 3세반 유아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을 추적하는 것으로 1차년도 연구와 마찬가지로 발달과 학습을 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되, 초등 1학년의 경우, 학교 적응, 학업 수행능력을 포함함.

□ 연구의 제한점

- 1차년도 연구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를 추적 조사하였으나, 만 5세반 유아는 초등 1학년이 되어 연속 참여 거부율이 높았으며,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슈로 인해 응답률이 더욱 저조하였음.
- 초등 1학년 아동의 추적률이 상당히 낮아 집단 간 비교가 불가하여 전체 분

포에 대해서만 서술하였기에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외 연구 동향

가. 아동발달 및 학습 격차 관련 연구 동향

□ 선행연구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돌봄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가족특성 및 성별과 연령과 같은 아동의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함.

나. 발달 및 학습 격차의 영향요인 관련 연구 동향

□ 주양육자의 양육방식과 행동, 양육환경은 영유아의 언어발달, 사회적 행동, 놀이 상호작용 등 영유아의 인지/비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다.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 등)과 학교 전이와 적응 관련 연구 동향

□ 영유아기 전이와 적응에는 영유아의 기질, 정서지능, 놀이성, 기본생활습관, 또래유능성, 언어능력, 자기조절능력, 또래상호작용 등 유아의 능력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부모의 상호작용, 교사들의 지지가 영향을 미침.

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관련 국외연구 동향

□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는 가정, 기관(학교), 정부의 노력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가 상쇄되기도 하지만 급격한 디지털로의 전환에 따른 계층, 지역, 국가 간 격차로 아동의 발달과 학습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의 발달 및 학습 변화: 심층 분석

가.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전반적인 발달 변화: 면담내용 분석

□ 주요 코드에 기반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한 결과, 발달검사 참여 아동의 가정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함.

- 3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하였고, 이에 2022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점차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돌봄은 육아휴직, 재택근무, 필요시 조퇴 등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돌보거나 조부모 돌봄, 민간육아 돌봄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긴급돌봄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긴급돌봄 이외에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학원, 가정방문교육, 지역사회 전달체계(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기관 이용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형태로 기관을 이용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를 아동, 가정, 사회 변화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아동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활동량이 감소하고, 과도한 미디어의 활용으로 다양한 자극을 접하지 못하여 소근육 운동이 제한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됨.
- 가정의 변화로는 집에서의 생활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의 주양육자의 영향력이 증가하였고, 가족 중심의 사고, 아이 중심의 가정 분위기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설명함.
- 사회적 변화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 자극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외부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공간적 제약은 아동의 놀이기회 부족, 이로 인한 운동(활동)의 감소로 나타났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는 또래 상호작용의 기회를 감소시켰다고 언급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발달 및 학습에 대한 우려로 기초생활습관, 또래관계, 언어발달, 운동발달지연이 언급되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기관에서의 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습관에 있어서는 특히 자조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언급되었으며, 또래관계에서의 배려 부족,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의 단절로 인한 걱정, 운동기능 중 특히, 소근육 발달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발달 및 학습 지원 내용으로는 책 읽어주기, 도서와 장난감 구입, 인터넷을 활용한 '엄마표' 학습 지원, 퍼즐맞추기 등 소근육 발달 지원, 학습지, 학원 등 사교육을 활용한 한글, 수학 등 기초학습 지원이

언급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발달과 학습의 격차에 대해서는 세대 특성이라는 의견, 특히 영어학습에 있어서 학원 이용에 따른 격차, 담임교사에 따른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이 언급됨.
- 전반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영유아 시기의 특성상 현재 자녀들의 또래관계 등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도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

나.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인지 및 언어발달 변화: 임상사례 분석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 임상 전문가의 임상 사례를 통해 인식된 언어발달 변화는 '전반적 언어발달 지연의 지속', '표현 언어발달 지연과 부조화', '수용언어와 표현 언어의 발달 부조화', '읽기와 쓰기의 어려움', '상호작용의 질 저하'와 '임상 장면에서 재활·상담의 효과'의 여섯 가지 주제로 분류됨.

- 임상 전문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최근까지 전반적인 언어발달 지연을 호소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발달 시기에 따라 영유아기 언어발달 지체 호소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학령기 이후에는 언어발달 지연은 덜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함.

□ 인지발달 측면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 임상 전문가의 임상 사례를 통해 인식된 발달 변화는 '지능과 부조화된 행동 양상', '상위 인지기능의 미숙', '기초학력 저하에 따른 어려움', '사회 인지능력의 미발달'과 '디지털 매체 활용의 역기능'의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됨.

- 지능의 발달에 있어 정상 수준의 분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지능과 맞지 않는 행동 양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고, 상위 인지기능에서 자기 통제와 조절 능력이 떨어지며 문제해결과 대처 능력이 미숙하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최근까지 지속되는 것을 지적함.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초등학교를 입학했던 저학년 아동들은 학년 상승에 따른 기초학력의 부족으로 최근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그 이후에 학업 우수아와 부진아의 격차가 커지고, 학업의 평균 수준의 분포가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함.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 임상 전문가의 임상 사례를 통해 인식된 언어 및 인지 발달 변화의 영향요인은 '코로나19 관련 건강과 안전', '가족배경', '부모 역할 및 양육태도', '아동 개인 특성', '보육 및 교육환경', '디지털 매체'와 '악순환 구조' 요인 등의 일곱 가지 주제로 분류됨.

- 오랜 기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소통과 모방의 기회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관계 단절과 고립된 환경으로 인한 소통 기회 부족을 지적하였으며, 맞벌이 가정이나 조부모의 돌봄 가정 등 가족 배경 또한 발달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함.
- 부모의 양육태도 측면에서도 지적 자극의 결여와 제한, 관심 부족, 과잉보호, 잘못된 양육 정보(인터넷 자료, 카페의 비전문적 지식, 선택적 정보 취득 등)로 인한 문제를 발달과 학습의 저해 요인으로 인식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이후에도 우수한 발달을 보이는 경우 양육자(특히 어머니)의 관심과 교육 열의를 긍정적 요인으로 언급하기도 함.

□ 아동 임상 전문가들은 정확한 발달을 진단하고 발달지연을 영아기부터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전문적 개입이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원 방안으로 설명하였으며,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책과 부모의 역할과 양육환경요인은 아동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 교육과 양육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함.

- 표현 언어의 지연과 인지기능 미숙의 문제가 정서 및 대인관계 문제로 확대되지 않기 위한 예방 차원의 놀이 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기도 함.

다.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 변화: 임상사례 분석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서 영역의 변화에서는 건강염려, 불안, 신체화, 선택적 함묵증상 및 무기력의 5개 범주가 추출됨.

- 본 연구결과에서 2023년이 되면서 정서문제 중 세분화되어 보고된 증상은 섭식 및 배변과 관련된 신체화 증상과 선택적 함묵 증상으로 외부 생활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견이 되지 않다가 최근 일상성이 회복되면서 문제가 표면화된 것으로 파악됨.

□ 사회성 영역의 변화에서는 사회적 맥락 파악 어려움, 자기주장 어려움, 대처

어려움, 또래관계 형성 어려움의 4개 범주가 추출됨.

- 의사소통에 필요한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고,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함.
- 또한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양육자 및 교사에게 이른다거나, 학폭위로 신고를 하는 등의 대처를 하는 경우도 증가함.

□ 적응행동 영역의 변화에서는 자율성 부족, 좌절인내력 부족, 등원(교) 거부, 조절 어려움, 산만, 충동적 행동 증가, 반항적 행동 증가, 온라인 매체 사용 증가, 관계 갈등 증가, 학폭위 개최 증가의 9개 범주가 추출됨.

- 사회적 고립, 감염 예방을 위한 많은 규제, 운동시간의 감소, 생활습관의 변화, 불규칙한 등원(교), 미디어 사용의 증가 등으로 불균형적인 생활이 반복되면서 임상에서의 아동들은 의존적, 수동적 태도가 증가하여 앞서 논의한 사회성 발달을 포함한 적응행동에서도 전반적으로 연령보다 2~3년 정도 미숙한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요인에서는 경험부족, 기질 특성 및 발견 시기, 연령, 시기, 경제적 상태, 모의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 증가, 모의 불안 및 대처 부족, 양육태도 변화, 양육자의 객관성 부족의 9개 범주가 추출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다양한 경험이 차단된 것은 발달 시기에 있는 유아와 아동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신체 활동 뿐 아니라 외부경험의 차단은 아동의 통합적 발달과 적응을 방해함.

4. 2차년도 참여자의 발달 및 학습 현황

가.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발달 및 학습에 대한 인식

□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 가구의 지출을 조사한 결과, 만 3세반 유아 가구의 총지출은 월평균 423.8만 원이었으며, 기관(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교육비 지출은 41.0만 원, 사교육비는 26.9만 원으로 나타남. 한편 초등 1학년 가구의 총지출은 월평균 452.5만 원이었고, 교육비 지출은 40.4만 원, 사교육비 지출은 81만 원으로 응답됨.

- 사례 수가 충분치 않아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초등 1학년 아동의 사교육비 지출은 만 3세반 유아의 2.5배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가정에서의 일상을 조사한 결과, 초등 1학년 아동이 맞벌이 부와 보내는 주당 평균 시간은 25.3시간으로 외벌이 부가 자녀와 보내는 주당 평균 시간인 16.7시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만 3세반 유아 자녀와 부가 보내는 시간이 28.9시간에 비하면 약 3시간 정도 짧음.

- 초등 1학년 아동의 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만 3세반 유아가 모와 보내는 시간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외벌이 가구의 만 3세반 유아 모가 57.0시간인 반면 초등 1학년 아동 모는 48.7시간으로 차이를 보임.

□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기관 이용 특성을 조사한 결과, 만 3세반 유아가 현재 이용 중인 사교육 프로그램 수는 2.42개, 초등 1학년 아동은 4.35개로 초등 1학년 시기의 사교육 이용이 증가함.

- 만 3세반 유아에 비해 초등 1학년 아동의 사교육 이용률이 대체로 높으며, 만 3세반 유아는 사교육 교과목 이용이 없는 비중이 43.2%인 반면, 초등 1학년 아동은 대부분의 교육 서비스 이용률이 만 3세반 유아에 비해 높은데, 특히, 학원 이용률이 만 3세반 유아의 19.3%에 비해 초등 1학년 아동은 81.8%로 크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비교하면, 만 3세반 유아는 전반적으로 부모의 인식이 높은 경향을 보임.

- 정서발달에서 부모와 교사 간 인식의 격차가 다른 영역보다 크게 나타난 반면, 초등 1학년 아동은 부모와 교사 간의 인식 차이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으나 신체발달에 대해서는 부모보다 교사의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남.

나.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발달검사 결과

□ 2차년도 발달검사 결과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점수는 1차년도와 동일하게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도 평균 수준이었으나 생활기술 영역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임.

-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은 평균 수준이었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 또한 운동기술 영역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평균 수준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제 특성별 발달 비교

□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과 적응행동 점수를 제 특성(성별, 부모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선택하기(비정렬, 정렬) 소검사, 인지효율성 지표에서 여아가 높게 나타난 것 외에 소검사 항목과 지표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도 주영역과 하위영역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음.
-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인지발달 전체 평균은 차이가 없었으나 공통성, 그림명명, 선택하기(비정렬)에서 맞벌이 가구 유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주영역과 하위영역 모두 차이가 없었음.
- 가구소득에 따라 분석한 인지발달 점수는 소검사와 지표 점수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적응행동 점수는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적응행동 조합점수와 일부 하위영역(수용, 표현, 대인관계), 주영역(의사소통 영역과 사회성 영역)은 600만 원 이상의 가구 유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과 적응행동 점수를 제 특성(성별, 부모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인지발달 점수의 기본지표와 추가지표, 소검사 점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영역인 대근육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음.
-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인지발달 전체 평균은 차이가 없었으나 소검사인 모양맞추기와 기본지표 중 시공간지표에서만 외벌이 가구 유아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주영역과 하위영역 모두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인지발달의 전체 평균, 소검사와 지표 점수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도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5. 1, 2차년도 연구결과의 종단 비교

가. 1차년도 결과와의 종단 비교

□ 연구참여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주관적 인식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모의 인식이 교사보다 높은 경향을 보임.

- 만 2세반 영아 시기(1차년도)와 만 3세반 유아 시기(2차년도)의 부모와 교사 간 정서발달에 대한 인식 차는 2차년도에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 3세반 유아 시기의 언어발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1차년도와는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함.
- 만 5세반 유아 시기(1차년도)와 초등 1학년 아동(2차년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은 만 5세반 유아 시기의 정서발달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높았으나 초등 1학년 아동 시기에는 신체발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임.

□ 1, 2차년도 참여자의 인지발달과 적응행동을 비교한 결과, 인지발달은 전반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 1학년 아동은 언어이해지표에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적응행동은 전반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유의한 점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 생활기술 영역, 사회성 영역에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짐. 반면에 수용, 표현 하위영역과 의사소통 영역은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 모두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만 3세반 유아의 1, 2차년도 결과를 비교하면, 인지발달의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그림명명 소검사 점수가 2차년도에 상승하였으며, 적응행동은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졌는데 특히 생활기술과 사회성 영역의 점수가 상승함.

- 성별에 따른 인지발달의 1, 2차년도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적응행동의 조합점수, 생활기술과 사회성 영역의 점수가 상승했고, 표현 하위영역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남.
-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도 인지발달은 1, 2차년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 생활기술과 사회성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인지발달은 1, 2차년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적응행동 조합점수와 대처기술, 대근육 하위영역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남.

□ 초등 1학년 아동의 1, 2차년도 결과를 비교한 결과, 인지발달 전체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언어이해지표 점수가 다소 하락하였으며, 적응행동 조

합점수, 생활기술과 사회성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인지발달 점수는 차이가 없었으나 상식 소검사 점수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고, 적응행동 조합점수, 생활기술과 사회성 영역에서 차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하위영역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남.
-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도 인지발달은 1, 2차년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양맞추기 소검사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남. 적응행동 조합점수, 생활기술과 사회성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인지발달은 1, 2차년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적응행동 조합점수, 생활기술 영역에서의 차이가 유의했으며, 개인, 가정, 대근육 하위영역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남.

나. 한국아동패널의 코호트 집단 비교

□ 본 연구 집단의 비교군으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모의 경제활동 참가와 아동의 시간 사용 사이의 일관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음.

- 한편 아버지의 경제활동은 아동의 보육기관 및 교육활동을 높이는 반면, 보호자 혹은 또래와 어울리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어머니의 경제활동은 보육기관, 교육활동, 성인과 또래와의 시간을 모두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어머니 등 주양육자의 실직으로 인해 보호자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아동의 언어발달 등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밀접 접촉을 기반으로 한 학습 기회가 제한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경기 부진으로 인해 가정 내 이차적 노동자(secondary worker)까지 생업 전선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 대안적 학습 기회는 매우 축소되어 학습 격차를 심화시켰을 수 있음.

6. 논의 및 제언

□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발달 영역별 지원, 가정환경요인으로써의 부모 지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영향 추적 및 지원, 생애 초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세대의 중장기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구분하여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표 1〉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

영역	과제
아동의 발달 영역별 지원	- 언어발달의 종단 추적 - 또래관계(사회성 발달) 기회 확대 - 아동의 정서발달 우선 지원 - 신체활동(운동) 기회 제공
부모 지원	-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 아동발달 시기별 맞춤형 지원 -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 주양육자의 심리적 소진 완화 지원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 및 기초학습 지원 강화 - 취약계층 중점 지원 예산 확대 - 삶의 질 전반에 대한 격차 완화
코로나19 팬데믹 세대의 발달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영유아 건강검진과 연계한 발달 모니터링 - 시·도 교육청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 드림스타트 센터 등과의 영유아 발달 연계 지원 - 발달 및 학습에서의 지역 격차 요인 등을 고려한 후속연구 추진

I

서 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 내용
03 연구 방법
04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각 집단이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으며, 재난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는 재해가 일어난 사회의 시스템이나 불평등, 부패 정도 등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J.Mutter, 2016; 박미희, 2020: 114에서 재인용). 재난의 위협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다가갈 수 있으나, 재난의 고통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취약층은 코로나19 팬데믹 감염을 피하는 것도 힘겹지만, 대유행이 몰고 온 경제적 충격에는 더 약하였다(구인회, 2021). 재난 상황에서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화된 격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모두가 함께 겪는 재난이지만 재난에 대처하는 방식과 개인이 처한 환경, 사용 가능한 자원의 차이로 인해 재난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이정연, 2021). 가정배경의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의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 등장한 문제는 아니지만, 온라인교육 상황이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가정으로 고스란히 옮겨온 것이 앞서 살펴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격차의 실태를 만들었다(이정연, 2021)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거주환경의 차이에 따른 초등학생의 시간 사용을 분석한 결과(이시효, 2020),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학습시간은 증가한 경우가 더 많고,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학습시간이 감소한 경우가 더 많았으나 게임시간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게임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2020)의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공부시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학습시간의 변화가 사회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연구들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학교 폐쇄와 원격교육의 진행이 학습 격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교사와 부모의 역량 차이, 가정의 물리적 자원 차이, 부모의 시간 제약,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은 원격교육에서 아동 간 차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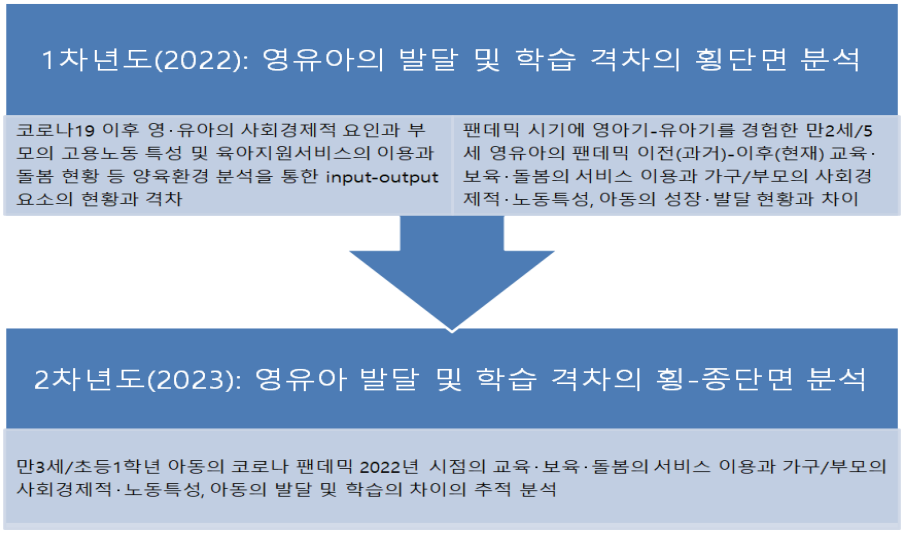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박미희, 2020)되고 있다. 또한 김지우, 김나영, 남재현(2021)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아동 가구의 교육에 대한 지출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전반적으로 디지털 장치에 대한 지출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중 비빈곤 가구만 유의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장시간 가정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들은 가정에서의 교육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이나 환경적 자극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유아들에게 장기간의 가정 보육은 교육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최혜영, 유준호, 권수정, 장경은, 2021).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부모의 실직과 부부갈등 등의 위험 요인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은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Prime, Wade, & Browne, 2020).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증가한 실업률은 빈곤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한 아동의 영양 결핍을 유발하여 아동의 건강 악화와 발달지연을 유발한다(Fegert, Vitiello, Plener, & Clemens, 2020)는 지적도 있다(최윤경, 김근진, 정익중, 최영, 송신영, 2021: 71-72에서 재인용).

1차년도 연구에서는 특정 발달에 민감한 시기인 영유아(만 2세반, 만 5세반)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발달 격차를 파악하였다. 그러나 계층이나 지역별 격차 발생의 실태 파악만으로는 격차의 결정 요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어렵다. 교육격차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교육이나 부모의 교육적 지원 등과 같은 요인들을 매개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유한구, 2006: 9). 본 연구는 약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누적된 2022년 시점에서 영유아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취학 전-후 영유아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과 성장 · 발달, 학습 및 자녀양육가구의 돌봄과 교육 · 보육 현황과 변화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해 드러난 사회경제적 영향 및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의 격차에 대해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실제적인 격차 해소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에 2차년도(2023년) 연구는 영유아의 성장 · 발달과 교육 · 보육 · 돌봄의 운영의 측면

에서 2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 및 추적 관찰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미치는 누적적인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그림 Ⅰ-1-1] 2개년도 연구 내용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영유아의 발달 및 학습 격차 관련 국내외 연구를 고찰한다.

둘째, 1차년도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의 발달 및 학급 격차 현황과 요인에 관해 추적 조사한다. 1차년도 발달검사 참여자(만 3세반 유아, 초등 1학년 아동)의 발달 및 학습, 기관 이용의 연속성과 전이(적응)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영유아 가정 및 지역사회 양육과 교육 · 보육 · 돌봄 환경 변화를 심층 분석한다.

넷째, 1차년도와 2차년도 결과의 종단 비교, 한국아동패널과의 코호트 비교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발달 및 학습 격차 요인을 규명하고,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영유아기 발달 및 학습 격차 관련 현황 및 요인, 영유아의 기관 전이 및 적응 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나. 심층면담

1) 대상 및 내용

1차년도 발달검사 참여자(만 3세반 부모, 초등 1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및 지역사회 교육 · 보육 · 돌봄 환경의 변화를 조사하고, 영유아 발달검사와 설문조사의 분석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한 질적 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1차년도 결과를 공유하고, 2차년도 연구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고(부록3 참조), 면담 신청자를 모집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발달검사 참여시 부모에게 동의를 받아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부모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Ⅰ-3-1〉 심층면담 참여자 일반 정보

일자	일련번호	성별	연령대	취업여부	자녀수	첫째자녀	둘째자녀
8월 9일	A	남	40대	취업	1	만7세	-
	B	여	30대	취업	1	만4세	-
	C	남	40대	취업	1	만7세	-
8월 30일	D	여	30대	취업	2	만4세	만0세
	E	여	30대	취업	2	만7세	만3세
	F	여	40대	취업	2	만7세	만3세
9월 12일	G	여	30대	-	2	만7세	만4세
	H	여	40대	취업	2	만7세	만2세
	I	여	30대	미취업	2	만6세	만3세

〈표 Ⅰ-3-2〉 심층면담 면담내용

구분	내용
일반적 배경	- 응답자 연령 - 취업여부 - 자녀 수 및 연령 - 현재 이용 기관(기관 유형 및 이용 기간) - 사교육 이용(과목 및 이용시간)

구분	내용
주요 질문	- 영유아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은 어떻게 변화했다고 느끼십니까? - 1차년도 발달검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달검사 결과에 따라 영유아에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측면에서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영유아의 학습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사교육 이용 횟수, 이용시간 등)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의 학습 측면에서 걱정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른 영유아들에 비해 격차가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분석 방법

연구참여자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및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 중 하나인 내용분석을 활용하였는데, 내용분석은 텍스트 속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추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의사전달 기록물의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양적 자료로 전환하는 방법이다(Rubin & Babbie, 2007; 권순애, 강주원, 2021: 56에서 재인용). 내용분석 결과는 ATLAS. ti. 23을 활용하였는데, ATLAS. ti.는 텍스트 내용을 코딩하고, 코딩된 자료들의 의미를 부여하여 텍스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로 이 프로그램은 코딩군집을 통해 코드에 대한 분류가 용이하고, 복잡한 코드의 개념과 연관 관계를 시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영천, 김진희, 2008).

자료분석 과정은 ATLAS. ti. 23을 사용하여 개방 코딩 방법으로 자료수집 단위인, 구, 절, 단어, 문장 등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는 작업을 실시하여 최종 74개 코드(code)와 184개의 인용구(quotation)가 도출되었다. 이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돌봄 형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격차 및 우려사항으로 분류하고, 코딩 범주가 상호 관련성을 가진 것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임상사례 분석

1) 연구참여자

아동 임상 사례 경험에서 임상적 증상 및 영향요인의 확인을 위한 주제분석과 내용분석 연구에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연구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 임상 현장에서 아동의 상담 및 치료, 발달 재활 서비스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아동 임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도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참여 의뢰를 진행하고 선정하였다.

표집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 아동 임상 전문가 중 최소 경력 5년 이상으로 공인된 아동 임상 및 발달 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임상적 증상 비교에 대한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3년 이상 및 이후 2년 이상의 연간 10사례 이상의 아동 임상 사례 경력을 지닌 아동 임상 전문가 7명을 최종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표 Ⅰ-3-3〉과 같다. 발달 영역별 추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최종 자료 분석 대상 선정에 있어 인지 및 언어발달 영역에서 연구참여자 7명(1~7번) 전체로,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 영역에서는 연구참여자 5명(3~7번)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표 Ⅰ-3-3〉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

구분	성별	연령	임상 경력	주요 활동 지역	상담 분야
연구참여자 1	여	50대 후반	20년 이상	서울·경기	언어치료
연구참여자 2	여	40대 초반	10년 이상	서울	언어치료
연구참여자 3	여	40대 후반	5년 이상	경기	놀이치료
연구참여자 4	여	40대 후반	20년 이상	서울	놀이치료
연구참여자 5	여	40대 후반	20년 이상	서울	놀이치료
연구참여자 6	여	30대 후반	10년 이상	서울	놀이치료
연구참여자 7	여	40대 중반	15년 이상	인천	놀이치료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와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승인 번호 1040708-202309-SB-035). 자료수집을 위한 모집 공고문에는 이 연구의 목적과 취지 등이 설명되어 있으며 녹음 및 비밀보장과 보상 등의 내용이 전달되며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면담 방식(줌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과 소요 시간(60분)을 명시하였다. 또한 최종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기 전 아동 임상 기관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아래 항목과 연구참여 동의서를 포함한 구조화된 사전 면담 조사 질문지를 작성하고 배부하여 사전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참여 대상자는 아래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서울·경기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아동 임상 전문가 중 최소 경력 5년 이상으로 공인된 아동 임상 관련 전문자격증(놀이심리상담사, 언어재활사, 아동상담사 등) 1개 이상 소지자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3년 이상과 이후 2년 이상 아동상담 사례 실시 경력을 지니고 해당 경력 기간 동안 연간 10 사례 이상의 아동상담 사례를 실시한 자

본 연구는 아동 상담 장면에서 임상 사례 경험을 통한 이해된 증상과 그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심층 면담기법의 자료수집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참여자에게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동안에 아동 상담의 경험을 언어로 이야기하는 심층 면담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동 임상 전문가들의 경험에 대해 깊이 있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받고자 인터뷰 가이드를 활용하되 질문 방식에 자율성을 가지는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사용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은영 등(2022)[1]의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지 및 언어발달과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표 Ⅰ-3-4〉와 같이 구조화하였다.

〈표 Ⅰ-3-4〉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 내용

영역	사전 질문 내용
인지 및 언어발달	1.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이후에(2023년에 들어서) 유아(3세~학령전) 및 아동(초등 3학년까지)의 인지·언어적 특성은 무엇인가요? 1-1. 임상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행동(증상)은 무엇인가요? 1-2. 이러한 증상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1-3.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개인, 가정, 또래, 보육 혹은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 등 측면에서) 2.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2)와 현재 2023년 유아(3세~학령전) 및 아동(초등 3학년까지)의 인지·언어적 특성 중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1. 임상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행동(증상)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2-2.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문제행동(증상)을 돕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	1.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이후에(2023년에 들어서) 유아(3세~학령전) 및 아동(초등 3학년까지)의 사회·정서적 특성은 무엇인가요? 1-1. 임상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행동(증상)은 무엇인가요? 1-2. 이러한 증상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1-3.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개인, 가정, 또래, 보육 혹은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 등 측면에서)

1) 최은영·김은영·구자연·조혜주·정윤경·심영규(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Ⅰ)

영역	사전 질문 내용
	2.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2)와 현재 2023년 유아(3세~학령전) 및 아동(초등 3학년까지)의 사회·정서적 특성 중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1. 임상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행동(증상)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2-2.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문제행동(증상)을 돕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반구조화된 질문지의 1번의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2번 질문의 답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3번의 질문에 답하면서 도움과 해결 방법을 생각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인터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인터뷰 전 질문지를 배부하여 미리 답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면담 상황에서 가치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느끼거나,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부담감 등 연구참여자가 인터뷰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김영천, 2012)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심층 면담은 연구참여자 7인 모두 1회에 걸쳐 60분 이상 실시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가능한 바로 전체 필사하여 면담의 생생한 내용과 의미를 참여자 언어적 표현의 그대로(verbatim)를 옮겼고, 면담 도중 작성한 연구자들의 메모를 함께 기록하여 면담 자료의 용어 및 의미 전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녹음된 자료의 필사 도중 용어의 혼동이나 연구자들 간 이해도가 일치되지 않을 시 추후 보충 연락으로 내용을 명료화하고자 하였다.

3) 자료 분석

아동 상담 장면에서 임상 사례 경험을 통한 이해된 증상과 그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심층 면담에 따른 서술적 현상학적 연구와 더불어 내용분석을 통한 연구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질적연구의 분석방법 중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에 따른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과 질적 자료를 수량화시켜 분석할 수 있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언어 그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의 자료분석 절차에 맞춰 연구참여자들이 심층면담을 통해 진술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 녹음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사하여 축어록으로 자료를 작성하였고 이후 심층면담의 내용을 문장 단위로 끊

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이 함께 교차분석 해나가면서 의미 단위를 파악하고 구분하는 절차를 가졌다. 주제분석방법을 통해 자료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고, 유목과 범주를 구성하는 방법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연구자들은 녹음된 자료의 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유목과 하위 범주에 맞춰 코딩하는 내용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제분석방법 실시 후 내용분석법을 실시한 이유는 경험된 질적 자료 분석 방법으로 내용분석법이 지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박희현, 노복순, 2015). 첫째, 심리적 변수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둘째, 자료수집과 분석 시 연구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셋째, 개방형 질문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여 처리하는데 유용하다. 이러한 내용분석의 절차는 자료의 분석단위를 결정하고, 내용의 범주를 분류하고 정의하여 이에 따라 부호화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모두 질적연구 및 내용분석 연구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나 연구자 간 교차분석 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과 최종 분석 자료의 하위 범주와 상위 유목 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질적연구 및 내용분석법 전문가의 자문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주제분석과 내용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결과의 엄격성을 수립하였다. 또한 내용분석을 하는 데 있어 그 결과에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 외 상담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2인 등 총 4인의 평정자(corder)가 참여하였으며, 두 차례의 평정자 간 일치계수(coefficient of agreement)를 산출하여 안정적임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구성된 각 하위 범주와 상위 유목 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아동상담을 전공하고 질적연구와 내용분석법을 통한 연구를 시행해 본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 2인과 아동 상담 전공 박사 학위소지자 1인 등 총 3인의 전문가가 검토하는 절차를 가졌다.

주제분석과 내용분석 시행 전 이를 돕기 위해 키워드(주요 주제어) 분석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시행하였다. 키워드 분석은 참여자들의 텍스트를 시각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키워드 분석의 특징은 주요 단어나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키워드 분석 후에는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s)를 생성하였다. 워드 클라우드는 단어의 중요도와 빈도에 따라서 크기나 색을 달리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하며(Bromley, 2012), 분석 프로세스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텍스트 마이닝과 워드 클라우드 생성 순으로 진행된

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Network Text Analysis, NTA)은 개체들(Nords)이 상호 간 맺고 있는 관계성과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다. 텍스트에 나타나는 단어 사이의 관계를 링크로 표시하고 이를 통해 현상과 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 기법이다(Popping, 2000).

본 연구의 키워드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는 사회연결망 프로그램인 넷마이너 4(NetMiner 4.4.3)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의 1차 전처리 과정으로 필요한 오탈자 교정, 정제, 유의어 구분 과정을 거친 후 분석을 통해 얻은 자료와 데이터를 함께 검토하며 전처리 과정을 반복하였다. 전처리 과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Ⅰ-3-5〉와 같다. 키워드 분석 후 빈도수를 기준으로 크기에 따라 직관적으로 주요 주제어를 보여줄 수 있는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결과표에는 주요 주제어 빈도수는 상위 10위까지, 워드 클라우드는 총 150개의 단어를 선정하여 시각화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단어 간 연결 구조를 통해 자료의 핵심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출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그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한다(Anderson, Neumann, & Perelson, 1993). 네트워크의 개체 및 구조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심성(centrality) 분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Bhat & Milne, 2008). 중심성 지표로는 아이겐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이 가장 많이 사용되므로 본 연구는 아이겐벡터 중심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Ⅰ-3-5〉 키워드(주요 주제어) 및 네크워크 분석의 전처리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정제	- 코로나, 코로나19 제외 - 개인적 배경 내용 삭제 - 의미 없는 접미사, 관형사, 접속사 등을 제외 - 참여자 그룹에 따라 '부모'를 제외하거나 포함
유의어 구분 예시	- 스마트폰, 동영상, 게임, 핸드폰 등은 '온라인 매체'로 통일 - 영아, 유아, 학령 전, 영유아기 등은 같은 의미이므로 '영유아'로 통일 - 초등학생, 저학년, 8세, 9세 등은 같은 의미이므로 '초등'으로 통일 - 구강 움직임, 구강운동, 구강근육 등은 '구강'으로 통일 - 함묵증, 선택 함묵, 선택적 함묵, 선택함묵 증상 등은 '선택적 함묵증'으로 통일 - 줌 수업, 줌 등은 온라인 수업으로 통일 - 부, 모, 어머님, 아버님 등은 같은 의미이므로 '부모'로 통일

라. 온라인 설문조사

2차년도 발달검사에 참여한(만 3세반 유아,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 기관 및 가구 환경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에 참여한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 3세반 유아 부모 응답자는 총 88명이었으며, 자녀가 2명 이상이 59.1%, 1명이 40.9%를 차지하였다. 만 3세반 유아자녀가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은 어린이집이 80.7%로 가장 많았으며, 11.4%는 유치원, 8.0%는 반일제 이상 학원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40세 미만이 71.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40세 이상은 28.4%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취업상태는 정규직이 54.5%로 절반 이상이었고, 비취업이 27.3%, 자영업 15.9%, 비정규직은 2.3%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정이 맞벌이인 경우가 68.2%, 외벌이인 경우가 31.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배우자 취업상태는 정규직이 77.3%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13.6%, 비정규직과 비취업이 각각 4.5%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600만 원 이상이 65.9%이고, 600만 원 미만이 34.1%를 차지하였다.

〈표 Ⅰ-3-6〉 만 3세반 유아 부모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전 체		(88)	100.0
자녀수	1명	(36)	40.9
	2명 이상	(52)	59.1
자녀 현재 이용 기관	유치원	(10)	11.4
	어린이집	(71)	80.7
	반일제 이상 학원	(7)	8.0
연령	40세 미만	(63)	71.6
	40세 이상	(25)	28.4
취업상태	정규직	(48)	54.5
	비정규직	(2)	2.3
	자영업	(14)	15.9
	비취업	(24)	27.3
맞벌이 여부	맞벌이	(60)	68.2
	외벌이	(28)	31.8

구분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배우자) 취업상태	정규직	(68)	77.3
	비정규직	(4)	4.5
	자영업	(12)	13.6
	비취업	(4)	4.5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 원 미만	(30)	34.1
	600만 원 이상	(58)	65.9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응답자 55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구가 67.3%, 자녀가 1명인 가구가 32.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40세 이상이 67.3%를 차지하였으며, 40세 미만이 32.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취업상태는 정규직이 43.6%, 비취업 40.0%, 비정규직 9.1%, 자영업 7.3%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는 맞벌이가 58.2%를 차지하였고, 외벌이는 41.8%를 차지하였다. 배우자의 취업상태는 정규직이 76.4%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18.2%, 비정규직 3.6%, 비취업이 1.8%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600만 원 이상이 80.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600만 원 미만이 20.0%를 차지하였다.

〈표 Ⅰ-3-7〉 초등 1학년 아동 부모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전 체		(55)	100.0
자녀수	1명	(18)	32.7
	2명 이상	(37)	67.3
연령	40세 미만	(18)	32.7
	40세 이상	(37)	67.3
취업상태	정규직	(24)	43.6
	비정규직	(5)	9.1
	자영업	(4)	7.3
	비취업	(22)	4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2)	58.2
	외벌이	(23)	41.8
(배우자) 취업상태	정규직	(42)	76.4
	비정규직	(2)	3.6
	자영업	(10)	18.2
	비취업	(1)	1.8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 원 미만	(11)	20.0
	600만 원 이상	(44)	80.0

2차년도 발달검사에 참여한 아동(만 3세반 유아, 초등 1학년 아동)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응답한 37명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의 〈표 Ⅰ-3-8〉과 같다. 교사의 연령은 40세 이상이 48.6%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 32.4%, 20~29세 18.9%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9.5%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이상 24.3%, 전문대 졸업이 16.2%,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은 없었다. 현재 근무 중인 기관은 어린이집 45.9%, 초등학교 40.5%, 유치원 13.5%로 나타났으며 반일제 이상 기관의 교사 응답자는 없었다. 유치원 경력을 가진 교사 12명의 경력은 5~10년 미만이 33.3%, 3~5년 미만과 3년 미만 25.0%, 10년 이상도 16.7%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경력을 가진 교사 19명의 경력은 3~5년 미만과 10년 이상이 31.6%로 가장 많았으며, 3년 미만 21.1%, 5~10년 미만 15.8%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근무 중인 15명의 교사 경력은 10년 이상이 93.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5~10년 미만은 6.7%로 나타났다. 교사 중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력을 가진 3명의 경력을 살펴보면 3~5년 미만이 66.7%, 3년 미만이 33.3%로 나타났다.

〈표 Ⅰ-3-8〉 응답자 특성: 교사

단위: %(명)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37)	100.0
연령	20~29세	(7)	18.9
	30~39세	(12)	32.4
	40세 이상	(18)	48.6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	-
	전문대 졸업	(6)	16.2
	대학교 졸업	(22)	59.5
	대학원 이상	(9)	24.3
현재 근무기관	유치원	(5)	13.5
	어린이집	(17)	45.9
	반일제 이상 기관	-	-
	초등학교	(15)	40.5
유치원 경력	3년 미만	(3)	25.0
	3~5년 미만	(3)	25.0
	5~10년 미만	(4)	33.3
	10년 이상	(2)	16.7
어린이집 경력	3년 미만	(4)	21.1
	3~5년 미만	(6)	31.6
	5~10년 미만	(3)	15.8
	10년 이상	(6)	31.6

구분		사례 수	비율
초등학교 경력	3년 미만	-	-
	3~5년 미만	-	-
	5~10년 미만	(1)	6.7
	10년 이상	(14)	93.3
반일제 이상 학원 경력	3년 미만	(1)	33.3
	3~5년 미만	(2)	66.7
	5~10년 미만	-	-
	10년 이상	-	-

분석한 결과를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해 설문조사 내용은 한국아동패널의 척도를 활용하여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기관 적응과 관련된 변인을 조사하였다. 관련 척도는 전문가 자문회의,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의 원내 멘토링을 거쳐 선정하였다. 부모와 교사 대상 설문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록 1, 2 참조).

〈표 Ⅰ-3-9〉 부모 대상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한국아동패널 척도
일반 배경	- 성별, 부모 연령, 부모 최종학력, 부모 취업상태, 자녀수, 가구 소득 및 지출 수준, 부모 양육시간, 부모 근로시간, 자녀 미디어 이용시간, 야외활동 시간 등	-
아동 특성	- 아동 체중, 아동 신장, 아동 집행기능, 주관적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 등	- 집행기능 곤란(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Screening Questionnaire),
부모 특성	-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부부 갈등, 양육 스트레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등	-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 부부갈등 척도, 양육 스트레스(Parenting Stress Scale),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기관 이용 특성	- 자녀의 이용기관 및 기간, 사교육 과목, 자녀의 교육 서비스 이용시간 등	-

〈표 Ⅰ-3-10〉 교사 대상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한국아동패널 척도
일반 배경	- 교사 성별, 교사 연령, 교사 최종 학력, 교사 경력, 교사 근무 기관	-
아동 특성	- 아동 학업 수행 능력, 아동 학교적응 척도, 영유아 보육시설 적응,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 등	- 학업 수행 능력, 학교적응 척도(School Adjustment Inventory), 영유아 보육시설 적응(The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PAQ)

마. 발달 검사

1) 검사 대상

1차년도에 참여한 만 3세반 유아, 초등 1학년 아동 각각 100명을 추적하여 발달검사를 수행하였다. 2차년도 발달검사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인지발달 검사(K-WPPSI-Ⅳ)에 참여한 전체 129명 중 만 3세반 유아는 69.0%, 초등 1학년 아동은 31.0%였으며, 남아 52.7%로, 여아 47.3%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만 3세반 유아 89명 중 남아는 51.7%, 여아 48.3%였으며, 초등 1학년 아동 40명 중 남아는 55.0%, 여아는 45.0%로 나타났다.

바인랜드 적응행동(K-Vineland-2) 검사에 참여한 152명 중 만 3세반 유아는 62.5%, 초등 1학년 아동은 37.5%였으며, 이 중 남아는 55.3%, 여아 44.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3세반 유아 95명 중 남아는 53.7%, 여아 46.3%였으며, 초등 1학년 아동 57명 중 남아 57.9%, 여아 42.1%로 나타났다.

〈표 Ⅰ-3-11〉 2차년도 발달검사 참여자의 일반 특성

단위: %(명)

구분		남	여	전체	월령 M(SD)
인지 발달	만 3세반	51.7(46)	48.3(43)	100.0(89)	49.0(3.4)
	초등 1학년	55.0(22)	45.0(18)	100.0(40)	86.2(3.2)
	전체	52.7(68)	47.3(61)	100.0(129)	-
적응 행동	만 3세반	53.7(51)	46.3(44)	100.0(95)	49.1(3.4)
	초등 1학년	57.9(33)	42.1(24)	100.0(57)	86.2(3.1)
	전체	55.3(84)	44.7(68)	100.0(152)	-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발달검사를 위해서 한국 Wechsler 유아지능검사(K-WPPSI-Ⅳ)와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K-Vineland-2)를 실시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Ⅰ-3-12〉 발달검사 진행 과정(안)

기간	내용	비고
~ 5월말	IRB 연구계획서 승인	
6월 초~7월 초	검사 참여자 모집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QR코드)
7월 초~7월 중순	검사자 교육	3차에 걸쳐 교육

기간	내용	비고
7월 중순~	기관별 발달검사 실시 (K-WPPSI-Ⅳ, K-Vineland-2)	

발달검사 참여자 모집과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Ⅰ-3-1] 발달검사 진행 절차



2) 검사 도구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 결과를 추적·비교하기 위해 1차년도 검사와 동일 도구로 측정하였다. 인지발달과 적응행동은 한국 Wechsler 유아지능검사(K-WPPSI-Ⅳ)와 바인랜드 적응행동(K-Vineland-2) 검사를 실시하였다.

가) 한국 Wechsler 유아지능검사 4판(K-WPPSI-Ⅳ)

영유아의 발달 현황 및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 Wechsler 유아지능검사(K-WPPSI-Ⅳ)와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K-Vineland-2)를 실시한다. 한국 Wechsler 유아지능검사 4판(박혜원, 이경옥, 안동현, 2015)은 총 15개 소검사로 구성되며, 전체 지능지표 점수와 더불어 시공간, 작업기억, 언어이해, 유동추론, 처리속도 지표점수를 제공해 준다. 이 검사의 적용 대상 연령은 2세 6개월부터 7세 7개월까지이며, 영아(2:6-3:11개월)는 시공간, 작업기억, 언어이해지표에 해당되는 소검사를 실시하며, 유아(4:0-7:7개월)는 시공간, 작업기억, 언어이해, 유동추론, 처리속도 지표에 해당되는 소검사를 실시한다.

언어이해는 언어적 개념 형성,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 언어적 추론을 통해 얻은 지식 등 언어적 능력을 측정하고, 시공간은 시각정보 조직화, 부분-전체 관계의 이해, 시각적 세부사항에 대한 주의, 비언어적 개념 형성, 시각-운동 협응 능력 등을 측정하며, 유동추론은 귀납 추론, 광범위한 시각지능, 동시적 사고, 개념적 사고, 분류 능력 등을 측정한다(박혜원, 이경옥, 안동현, 2015: 170-171). 한편 작업기억은 주의력, 집중력, 정신적 통제력 등 상위 인지기능의 필수 요소를 평가하며, 처리속도는 간단한 시각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탐색하고 변별하는 능력으로 시각-운동 협응, 인지적 유연성, 시각 변별, 주의와 검사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유아의 전체 지능을 통해 포괄적인 인지능력을 평가한다(박혜원, 이경옥, 안동현, 2015: 170-171).

영유아 지능검사는 영유아와 검사자 일대일로 검사가 이루어지며, 영유아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에서 주위의 놀잇감이 배제된 조용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각 문항당 수행 정도에 따라 0, 1, 2점으로 채점되며, 검사 시간은 만 3세 유아의 경우 40분, 초등 1학년 아동의 경우 1시간 정도 소요된다.

〈표 Ⅰ-3-13〉 K-WPPSI-Ⅳ 소검사 구성 및 내용

기본지표	소검사	문항수	내 용
언어이해	그림명명	24	언어적 개념 형성,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 언어적 추론을 통해 얻은 지식을 측정
	수용어휘	31	
	상식	29	
	공통성*	23	
	어휘*	23	
	이해*	22	
시공간	토막짜기	17	시각정보 조직화, 부분-전체 관계의 이해, 시각적 세부사항에 대한 주의, 비언어적 개념 형성, 시각-운동 협응 능력 등을 측정
	모양맞추기	13	
유동추론**	행렬추리**	26	귀납 추론, 광범위한 시각 지능, 동시적 사고, 개념적 사고, 분류 능력 등을 측정
	공통그림찾기**	27	
작업기억	그림기억	35	주의력 집중력, 정신적 통제력 등을 측정. 특히 시각적 작업기억, 시공간 작업기억, 순행기억간섭을 극복하는 능력 등 상위 인지기능의 필수 요소를 평가함
	위치찾기	20	
처리속도**	동형찾기**	66	간단한 시각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탐색하고 변별하는 능력. 시각-운동 협응, 인지적 유연성, 시각 변별, 주의와 검사소요시간을 측정
	선택하기**	2	
	동물짝짓기*	72	

주: 1) * 공통성, 어휘, 이해, 동물짝짓기 소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2) ** 행렬추리, 공통그림찾기, 동형찾기, 선택하기 소검사는 4세 이상만 실시하며, 유동추론, 처리속도 기본지표는 4세 이상만 산출됨

자료: 박혜원, 이경옥, 안동현(2015). K-WPPSI-Ⅳ 기술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pp.33-40, pp.170-171.

나) 바인랜드 적응행동척도 2판(K-Vineland-2)

K-Vineland-2는 Sparrow, Cicchetti, Balla(2005)가 개발한 바인랜드 적응행동척도 2판(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Ⅱ; Vineland-Ⅱ)의 한국판으로, 의사소통, 일상생활기술, 사회화, 운동기술 영역 4개의 주 영역과 11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황순택, 김지혜, 홍상화, 배성훈, 조성우, 2015). 주 영역별 하위영역으로는 의사소통 영역은 수용, 표현, 쓰기, 생활기술 영역은 개인, 가정, 지역사회, 사회화영역은 대인관계, 놀이와 여가, 대처기술, 운동기술 영역은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이며,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부적응행동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433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0, 1, 2점으로 채점된다(황순택 외, 2015).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영역, 생활기술 영역, 사회화영역, 운동기술 영역의 문항을 실시한다.

이 검사의 적용 대상 연령은 0세부터 90세까지이며, 0세부터 만 6세 11개월까지는 4개 주 영역의 점수로 적응행동을 측정하고, 만 7세부터는 운동기술 영역을 제외한 3개의 주 영역의 점수로 적응행동을 측정한다. 부적응행동 영역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대상자의 적응행동을 방해하는 부적응적 행동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K-Vineland-2는 두 가지 양식(면담형과 보호자평정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양식은 동일한 문항과 순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평정형으로 부모와 교사에게 평정 질문지를 제공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선정하였으며, 평정 질문지의 응답시간은 대체로 20분 정도 소요된다.

〈표 Ⅰ-3-14〉 바인랜드 적응행동(K-Vineland-2) 영역별 구성 및 내용

주영역	하위영역	문항수	내 용
의사소통	수용	20	개인이 얼마나 듣고 주의를 집중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해했는지
	표현	47	개인이 말한 것, 정보를 제공하고 모으기 위해 단어와 문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읽기·쓰기*	32	글자로 단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개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개인이 읽고 쓰는 것
생활기술	개인	41	어떻게 먹고, 입고, 개인위생 관리하는지
	가정	24	개인이 수행하는 집안일
	지역사회*	44	시간, 돈, 전화, 컴퓨터 직업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회화	대인관계	38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주영역	하위영역	문항수	내 용
	놀이와 여가	31	어떻게 놀고, 여가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처기술	30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과 세심함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운동기술	대근육운동	41	개인이 움직이고 조정하기 위해 어떻게 팔과 다리를 사용하는지
	소근육운동	36	개인이 사물을 조정하기 위해 손과 손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적응행동 (신체적)**	부적응행동**	49	개인의 적응적 기능을 방해하는 내현화, 외현화 문제와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
	결정적행동**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다 심각한 수준의 부적응적 행동들

주: 1) * 읽기·쓰기, 지역사회 하위영역은 실시하지 않음
2) ** 부적응행동, 결정적행동 하위영역은 실시하지 않으며, 부적응행동(신체적) 주영역은 산출되지 않음
자료: 황순택 외(2015). 바인랜드 적응행동 척도 2판(K-Vineland-Ⅱ) 표준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4), 851-876. p. 858.

바.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선행 연구자와 아동발달 관련 전문가, 정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 내용 및 방법, 정책 제언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연구에 환류하고, 정책 기여도를 제고한다.

〈표 Ⅰ-3-15〉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현황

회차	일시	참석자	주요 자문 내용
1회	3. 9	국책연구기관 석좌연구위원, 놀이치료학과 교수	연구 설계에 관한 자문
2회	3. 16	아동발달센터 박사	연구 설계에 관한 자문
3회	3. 16	원내 선행연구자 2인	연구 설계 및 추가/대체 척도 논의
4회	3. 17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연구 설계에 관한 자문
5회	4. 13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연구 설계에 관한 자문
6회	5. 17	원내 선행연구자 2인	아동패널 데이터 격차 요인 분석 논의
7회	8. 22	기타 공공기관 담당자	저소득가구 발달검사 참여 관련 협의
8회	10. 23 ~ 10. 26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위원	발달 및 학습 상태 횡·종 비교 검토(서면)
9회	11. 13 ~ 11. 20	중앙부처 담당자 2인, 유관학과 교수 4인, 국책연구기관 석좌연구위원 1인	연구결과 및 정채제언 검토(서면)
10회	11. 16	원내 선행연구자 3인	한국아동패널 비교 관련 의견 수렴

사. 세미나 개최

1, 2차년도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그림 Ⅰ-3-2] 세미나 안내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유아 가구 및 발달 변화 진단 및 대응과제」 세미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유아 가구 및 발달 변화

일시 2023년 12월 15일(금), 14:00~17:00

장소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프로그램

사회 |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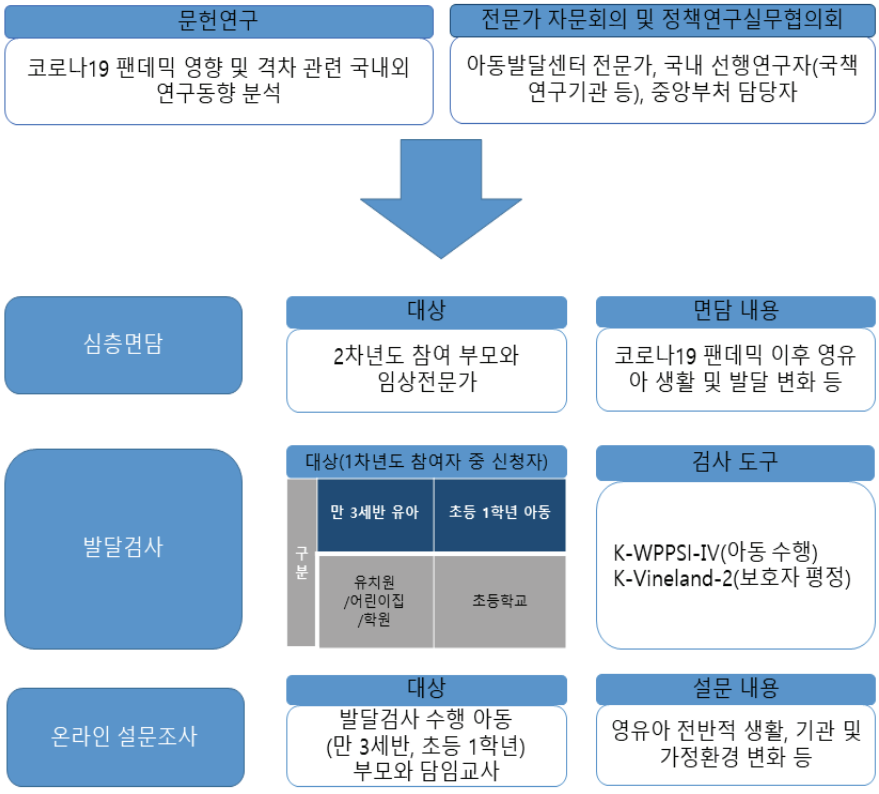
일정	세부 내용
14:00	개회(참석자 소개)
14:00 ~ 14:10	인사말 **박상희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1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유아 가구의 변화
14:10 ~ 14:30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이용 변화 **최효미**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14:30 ~ 14:50	코로나19가 영유아 가구의 소비와 노동공급에 미친 효과 **우석진** 교수 (명지대학교)
14:50 ~ 15:00	휴식
	2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유아 발달 변화
15:00 ~ 15:30	임상 사례를 통해 분석한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변화 **이영애**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박희현** 교수 (동신대학교)
15:30 ~ 15:50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변화 **최은영**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15:50 ~ 16:30	종합 토론 좌장 : **박혜원** 명예교수 (울산대학교) **윤정환** 부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고영우**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이경옥**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정윤경** 교수 (가톨릭대학교)
16:30 ~ 17:0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7:00	폐회

주관·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아. 연구 절차

연구의 전반적인 진행을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Ⅰ-3-3] 연구의 흐름도



4.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가. 용어의 정의

1) 발달과 학습

학습과 발달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발달수준에 이르러야만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발

달과 학습은 병행된다고 볼 수 있다(유안진, 2004: 20).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전반적인 발달이 급속히 일어나는 영유아 시기의 발달과 학습을 통합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에 초등학교 이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격차[2]와 학습격차[3]와는 달리 영유아기 발달과 학습을 유기적인 관계로 상정하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을 추적하는 것으로 1차년도 연구와 마찬가지로 발달과 학습을 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되, 초등 1학년 아동의 경우, 학교 적응, 학업 수행능력을 포함하였다.

2) 교육 및 학습 격차

교육격차는 학문적 용어가 아니라 일상적인 용어로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표현하는 것이며, 특히 교육결과의 불평등을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으로 학교에서 교육받은 결과가 학생에 따라 차이가 나며, 특히 이러한 차이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하지 않고, 학교, 지역, 가정배경 등의 요인에 의하여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한다(유한구, 2006: 3). 박경호, 김지수, 김창환, 남궁지영, 백승주, 양희준, 김성식, 김위정, 하봉운(2017: 4)에 의하면, 교육격차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에 따라 사회적 보상을 배분하는 자녀의 교육적 성취가 결정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내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교육에 매개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격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류방란, 김성식, 2006; 박병영, 김미란, 김기헌, 류기락, 2011; 여유진, 2008; 이혜영, 김미란, 한준, 2006).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에 대한 우려와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했던 시점에서 교육의 양극화 즉,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차이의 정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극단화되는 현상, 심화하는 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이 교육격차라 할 수 있다(류방란, 김성식, 2006). 만 2세 영아와 만 5세 유아를 종단 추적하는 2차년도 연구에서는

2) 교육격차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격차,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과정의 격차, 그리고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의 격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김경근, 2005: 3)

3) 교육적인 성취를 인지적인 성취인 학업 성적과 같은 결과에만 국한하지 않고, 교육의 과정적인 측면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접근(권유진, 박준홍, 우연경, 이재진, 정연준, 홍미영, 김미지, 2021: 37)

기관 간 전이, 적응, 학교준비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학습 격차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접근하였다.

나. 연구의 제한점

영유아 시기는 인간 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 포괄적으로 급속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로 출생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기의 발달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영유아 발달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영유아 발달검사를 위한 제한된 예산과 기간으로 인해 1차년도 연구에서는 만 2세반, 만 5세반 영유아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에 참여한 연구대상을 추적하여 만 3세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발달 변화, 기관 적응 등을 분석하였으나 초등 1학년 아동은 학교생활 등을 이유로 2차년도 연속 참여에 대한 거부률이 높았고, 교사 응답의 경우에도 최근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이슈로 교사와 부모 모두 아동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초등 1학년 아동의 추적률은 상당히 낮아 집단 간 비교가 불가하여 전체 분포에 대해 서술하였다.

Ⅱ

국내외 연구 동향

01 아동발달 및 학습 격차 관련 연구 동향

02 발달 및 학습 격차의 영향요인 관련 연구 동향

03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 등)과 학교 전이와 적응 관련 연구 동향

04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관련 국외연구 동향

Ⅱ. 국내외 연구 동향

본 장에서는 아동발달 및 학습 격차와 관련 선행연구를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구분하여 격차 요인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고, 특성별 교육 및 학습 격차의 요인을 검토하였다. 또한 1차년도 연구결과,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의 적응의 어려움이 논의된바, 2차년도의 변수 검토를 위해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적응의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발달의 영향요인을 밝힌 국외 논문들을 분석하여 국내외의 동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1. 아동발달 및 학습 격차 관련 연구 동향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후로 나누어 아동발달의 차이, 격차의 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아동발달 격차 관련 연구결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없었던 이와 무관한 일상상황에서 이루어진 아동발달의 격차와 차이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비빈곤가정과 빈곤가정 유아의 문제행동 발달궤적과 학습준비도, 학교적응을 비교한 연구에서(이완정, 김미나, 2018), 빈곤가정에서 아동이 경험한 가난이 아동의 취학 전 학교 준비와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빈곤 가정 유아와 빈곤경험 유아의 유아기 문제행동, 취학전 학습준비도, 초등 입학후 학교적응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문제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집단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취학 전 학습준비도와 초등 입학후 학교적응은 비빈곤 유아보다 빈곤경험이 있는 유아에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완정, 김미나, 2018).

가정형태에 따른 유아의 발달수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7개의 하위영역별로 다

문화, 저소득 가정과 일반가정의 유아 176명의 발달수준을 비교한 연구(방소영, 황혜정, 2011)에서는 인성과 사회성 발달, 언어와 읽기/쓰기 능력, 과학적·수리적 사고, 사회학습, 예술, 신체발달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다문화 가정 및 저소득 가구의 유아들이 일반가정 유아보다 발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보다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발달수준이 더 낮았는데, 이는 두 가구형태에 작용하는 사회심리적 요인이 다르게 아동의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방소영, 황혜정, 2011).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통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김진미, 홍세영, 2017), 개인요인에서 유아의 성별과 외현화 문제행동은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남아보다 여아가, 그리고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을수록 학교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환경과 교수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같은 기관의 과정적 질이 학교준비도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아동 수와 같은 구조적 질은 학교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기관요인 중 교실환경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진미, 홍세영, 2017). 한편 영유아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에 조기개입 프로그램 드림스타트에 참여하게 한 결과, 영유아 발달과 양육자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김정화, 송미령, 2014) 프로그램에 참여한 영아가 참여하지 않은 영아보다 대근육과 소근육 운동, 문제해결, 의사소통, 개인-사회성 등에서 발달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부모를 위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이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확인하였다.

취업모의 근로특성도 아동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권소정, 이강이, 2018),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직·간접 돌봄지원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문기술직, 사무관리직, 판매서비스직의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집단에서는 간접돌봄의 지원 역시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로써 취업모가 자녀와 양질의 상호작용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근무 유연성의 확보 등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권소정, 이강이, 2018). 또한 초등학생의 고강도 운동은 뇌파를 활성화하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규, 한은상, 유기범, 2016). 초등 저학년(2, 3학년) 시기의 읽기부진 아동을 2년 추적 관찰한 결과, 학년이 올라가면서 보이는 변화량에 차이가 있었으며 읽기부진 아동 10명 중 6명이 2차 검사에서 평균 혹은 그 이상의 읽기능력을 성취하였고 4명은 읽기 어려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읽기능력의 경로에 차이를 보였다(정부자, 2011). 천희영(2014)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초1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초등 입학후 3년간 방과후 보호자 부재의 변화와 방과후 돌봄, 가정환경(가구소득, 부모감독)과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입학후 3년의 방과후 보호에 따라 가구소득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남녀 모두에서, 부모감독은 여아, 정서·행동문제는 주로 남아에 차이를 보였다. 남녀 모두에서 가정환경은 자기조절학습능력, 정서·행동문제와 유의한 관계가 있고,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방과후 보호와 가정환경의 상대적 영향은 차이가 있어, 남녀 아동 성별의 유의한 차이를 보고하였다(천희영, 2014).

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발달 격차 연구결과

우선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경험을 고려하여 영유아기 아동발달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아동 권리와 발달 관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빈곤가구 여부와 일상균형에 따라 아동의 행복감의 변화를 다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2020 아동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정익중, 이수진, 정수정, 유다영, 2022).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아동의 행복감은 빈곤가구 여부와 아동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채로운 경험과 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동일한 가구소득 집단(비빈곤, 빈곤) 내에서는 일상이 균형적인 아이들의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외, 2022). 즉 수면과 공부, 미디어, 운동시간이 고르게 경험되는 일상균형을 갖춘 비빈곤 가정 아동의 방과후 생활과 비교하여, 빈곤가정 아동의 방과후 생활은 균형적이지 못하고 단조로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아동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정신건강이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2017~2020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4년간의 부모 우울감의 변화궤적과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노혜진, 2022), 부모의 우울감

은 4년의 기간 동안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우울감 초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빈곤,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 부모학력과 (막내)자녀의 나이로 나타났다. 즉 빈곤할수록 부모의 초기우울감이 높고,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 부모 학력 수준과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우울감이 감소했으며 빈곤가구 부모가 느끼는 우울감의 증가 속도(기울기)가 더 빨라, 빈곤이 우울감의 변화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 2022). 이로써 부모 개인특성과 근로여건, 빈곤과 같은 가구특성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일상의 삶의 균형과 다양한 활동경험의 차이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복감과 같은 결과 변인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경 등(2021)의 연구에서는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경험한 아동 돌봄 및 교육 현황과 아동의 적응과 발달 상황에 대해 부모와 교직원(유치원·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대면접촉과 상호작용 등 부모-자녀 관계 빈도와 횟수가 (약간+매우) 증가 28.2%, 변화없음 62.3%, 감소 9.6%로 5점 척도에서 평균 3.22점으로 나타났다(최윤경 외, 2021: 92). 한편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자녀(막내자녀 기준)의 성장·발달과 심리정서적 건강에서 지연과 결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자녀의 발달에 늦어진 부분이 (어느정도+상당히) 있다 30.6%,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 29.9%로 긍-부정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나, 5점 척도에서 평균 2.97점으로 3점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최윤경 외, 2021: 92).

상기한 결과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성별과 연령과 같은 아동 개인특성과 부모특성(근로지위, 학력, 우울감 등), 가구특성(소득, 맞벌이/취업모, 다문화 등), 기관/학교변인(서비스의 질, 방과후돌봄 등)에 따른 아동발달의 유의한 영향은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연구결과를 통해 유사하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아동의 연령 및 학령의 변화에 따라 이전의 발달지연과 격차가 이후 성장하면서 완화 또는 회복되는 경향과 지속되는 등의 발달 경로상의 차이도 보고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돌봄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상기한 가족특성 및 성별과 연령과 같은 아동의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임도 보고되었다. 해외연구를 통해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주요 변인의 영향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2. 발달 및 학습 격차의 영향요인 관련 연구 동향

가. 교육 및 학습 격차의 주영향 요인

교육격차의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 등장한 문제는 아니지만, 온라인 교육 상황이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가정으로 고스란히 옮겨온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격차의 실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이정연,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교육격차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아직 부재하고, 몇몇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실태와 인식 조사를 한 결과와 인터뷰 등을 통해서 관련 문제를 다룬 언론기사 등이 있을 뿐이다(김위정, 2020). 이정연, 박미희, 소미영, 안수현(2020)이 경기도 내 800개 초·중·고 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경험과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한 결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원격수업 환경에서의 차이, 원격수업에 대한 이해도와 학습과정의 차이, 돌봄 공백의 차이로 인해 학습 결손이 발생하고, 교육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초중고 교사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의 약 79%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 간 학습격차가 더 커졌다고 응답하였다(계보경, 김혜숙, 이용상, 김상운, 손정은, 백송이, 2020: 42). 정용주(2021)는 일상이 재난이었던 이들에게 코로나19 팬데믹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맺어진 관계들이 구조화됨으로써 일상의 재난을 더욱 고착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했음을 지적하였다.

김경근, 강영혜(2005: 740)도 아버지의 학력, 가계 소득, 보호자 직업 위계가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유한구(2006)는 사회계층이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면서 사회계층에 내재되어 있는 사교육 이외의 다른 요인, 즉, 가정의 사회문화적 분위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 등과 같은 요인이 학업성취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고학력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높고, 자녀의 학습에 대한 높은 관심, 자녀교육에 대해 열의를 가진다는 점에서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중요하다고 분석되기도 한다(박창남, 도종수, 2005). 사회계층 효과가 매개요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자본과 문

화자본이 축적된 결과로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생애의 전 과정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유한구, 2006: 90-91).

한편 박미희(2020)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육격차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육적 차이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에서 교육 불평등 문제로 연계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박주호, 백종면(2019)도 교육격차는 사교육 참여,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거주 지역,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과 관여, 학교특성 등 8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교육격차의 가장 결정적 원인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임을 밝혔다. 학령기 아동의 인적자본 투자는 주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투자 비용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Becker & Tomes, 1986, 박주호, 백종면, 2019: 217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선행 연구들도 가구 소득이 아동의 교육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저소득층과 빈곤층에서 더 크다고 하였다(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2006; 김미숙, 배화옥, 2007). 또한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나 낮은 소득은 부모의 정서적 상태나 자녀와의 상호작용 관계와 같은 비금전적 능력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자녀의 인지적 또는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Yeung, Linver, & Brooks-Gunn, 2002). 이 외에도 개인의 성향, 자질, 사고, 행동방식과 같은 문화자본은 개인의 누적적 경험과 학습에 따라 양과 질에서 차이가 있으며, 문화자본을 얼마나 소유하는지가 학업성취에 영향을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박주호, 백종면, 2019).

교육격차는 무엇을 교육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어떤 차이에 주목할 것인가에 따라 해결의 지점이 달라지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학계와 정부 및 교육계를 중심으로‘교육=학업성취’에 집중하는‘학력(學歷)’ 개념을 해체하고,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역량 중심의 새로운 기초학력관으로 재개념화하며, 이에 포함되는 내용 요소들을 바꾸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주정훈, 2021). 코로나19 팬데믹에 기인한 교육격차는 당장 확인하기 어렵고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박인우, 2021: 36), 학습 격차 또한 마찬가지로 학습은 지식을 습득하는 학(學)의 시간과 그것을 체화시키는 습(習)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주정훈, 2021: 16)는 지적은 생애 초기 결정적 시기이자 탄력성이 높은 영유아 시기의 발달과 학습 격차를 성급하게 예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지원해야 함을 다시금 상기하게 한다.

나. 영유아기 발달 격차의 주영향 요인

영유아기의 발달 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를 토대로 발달 격차의 주요 영향요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경제적 배경

한희진, 양정호(2016)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단 분석한 결과, 아동의 성별이 여아일수록,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 소득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사회, 경제적 차이로 인해 점차 발달 격차가 커짐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임영신, 최성수(2022)는 초기 아동기 인지능력 발달에서 나타나는 가족배경 격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부모의 학력, 직업, 가구소득을 종합한 가족배경수준에 따른 인지능력에서의 발달 격차는 3세 이전에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3세에는 이미 그 격차가 유의미한 수준이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배경수준이 높은 아이들의 인지능력 발달이 유의미하게 빠른 속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3세부터 7세 사이에도 이어져 발달격차는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학생의 인지능력 수준을 평가한 결과 가족배경 지수에 따라 인지능력에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3세 이전에 가족배경에 따른 인지능력 발달격차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하였다(임영신, 최성수, 2022).

한편 임아름과 최영(2021)의 연구에서는 영아기 돌봄유형과 유아기 행동발달에 관해 살펴보았는데, 유아의 출생순서가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저소득일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특성에서는 아버지의 연령이 높고, 부모의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재화 문제수준이 증가했다. 이처럼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3세 시기의 의사소통,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시기까지 지속되며, 비인지적 측면에서도 내재화 문제 수준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2) 개인 특성

유아의 성별, 자아개념, 인지발달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자녀상호작용에 대한 유아의 수용, 표현언어발달 차이를 살펴본 임현주, 최항준(2017)의 연구에서는 자아개념과 인지발달을 상, 중, 하집단으로 구분하여 언어발달 점수를 살펴보았으며, 상집단이 중, 하집단에 비해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점수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백윤희와 정경희(2017)의 연구에서도 영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성격, 양육태도에 따른 영유아의 언어발달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중간기질 영유아가 까다로운 기질의 영유아보다 전반적인 언어발달수준이 높았으며, 수용언어와 표현언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유아의 자아개념에 따른 발달 차이에 대해 더 알아본 임현주(2017)의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의 상집단 유아는 수용언어점수 60.3점, 표현언어점수 68.8점으로 하집단 유아(55.5점, 63.6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인지발달에서도 자아개념 상집단의 유아가 하집단에 비해 또래상호작용 점수가 높았으며, 놀이단절 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만 2~3세 영유아의 기질, 발달수준과 교사와의 상호작용 간의 관련성을 보면, 영아는 사회성 기질이 높을수록 교사와 상황적 대화를 하거나 요구에 따른 행동을 시도하였으며, 신체발달수준이 낮을수록 놀이동참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감염병 확산 위기에 대응하여 기존의 대그룹 중심, 동적 놀이 유형에서 개별중심, 정적 놀이 유형으로 개편됨에 따라 정적놀이를 선호하는 영아들의 놀이동참 요구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더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서소정, 송지연, 2021).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만 3세 유아보다 만 2세 유아가 교사에게 더 빈번한 상호작용을 시도하였으며 언어적, 행동적 상호작용에서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유아반에 비해 영아반의 두드러진 등원율 감소가 교사 대 영아 비율을 감소시켜 영아반의 개별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유아반에 비해 증가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서소정, 송지연, 2021). 한편 윤민종(2018)은 만 3세 유아의 어휘력과 학습태도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언어발달 및 학업수행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는데, 유아의 어휘력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가정 내 교육지원이었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 유아의 출생순위, 가정 내 언어발달 지원은 유아의 표현 어휘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기초 언어발달과 학습태도의 영향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초 어휘력과 학습태도의 결여는 학교 진학 이후 학업 태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윤민종, 2018).

놀이행동(4점 척도)과 사회적 유능감(3점 척도)을 의미하는 사회정서발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수준의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래 놀이행동 중 놀이상호작용에서 남아는 3.04점이고 여아는 3.16점으로 여아가 더 높았으며, 놀이방해는 남아가 2.05점, 여아가 1.80점으로 여아가 낮게 나타나 또래 놀이행동 수준이 여아가 더 높은 발달을 보였다(오새니, 이상희, 2019: 140). 사회적 유능감에서 협력성, 자기통제의 경우 남아가 각각 2.59점, 2.35점으로 여아의 2.77점과 2.50점보다 낮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오새니, 이상희, 2019: 140). 한편 취학 전후 아동의 체질량 지수의 변화에 따라 사회, 정서발달에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한 연구(은선민, 박영아, 김충일, 이강이, 2019)에서는 집단 간 사회, 정서발달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체질량 지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잠재적 비만형' 아동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정상 유지형' 아동은 취학 후 전반전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적응에서도 '잠재적 비만형' 아동보다 '정상 유지형', '비만 완화형' 아동의 또래적응이 더 유의하게 높았고 또래문제에서는 '잠재적 비만형'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김영미(2021)는 유아의 행복감을 '높은 행복감', '보통 행복감', '낮은 행복감'으로 구분하여 집단유형에 따른 사회적 유능감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높은 행복감' 유형은 '낮은 행복감' 유형의 유아에 비해 주장성과 자기통제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행복감이 높은 유아는 긍정적인 정서와 행복한 경험을 근간으로 놀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적 상황에 대해 수용적이며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유아의 성별, 기질, 자아개념 등과 같은 개인 특성은 인지발달, 언어발달, 교사/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며,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언어, 학업 수행에도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3) 양육 특성 및 태도

어머니의 양육방식 유형을 상, 하집단으로 구분하여 유아의 언어발달과 또래와

의 상호작용 차이에 대해 연구한 임현주, 최항준, 이대균(2014)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과 한계설정 양육방식이 상집단에 해당하면 하집단에 비해 유아의 표현언어발달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임현주(2014)의 다른 연구에서도 영아의 의사소통, 대근육, 소근육, 문제행동, 사회성 영역 발달의 총점을 상, 하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영아 특성과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영아의 발달 상, 하집단간 어머니의 양육특성 중 부모됨의 태도(정서적), 자녀의 미래기대(정서적), 양육방식(반응성, 온정성)에서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평균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양육스트레스는 유의미하게 낮았다. 백윤희와 정경희(2017)의 연구에서도 24개월 이하의 영유아 집단에서 어머니의 애정적, 통제적 양육태도와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 간 영아의 수용, 표현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임현주, 최항준(2017)도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방식과 자녀상호작용에서도 상집단에 해당하는 유아의 언어발달이 하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사회적 지원이 우수한 집단의 유아가 하집단에 비해 수용언어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은선민, 권소정, 이강이(2018)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가정 및 기관에서의 사회적 행동 격차에 따라 구분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 군집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남아는 '전반적 저하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여아는 '가정-유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아버지가 따뜻하고 애정적인 양육을 제공하지 않을 때 남아의 사회적 행동이 가정 및 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저하된 것과 달리, 여아의 사회적 행동은 기관 맥락에서만 감소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남아는 '기관-유능형'에 속할 가능성이 커졌으나 여아에게는 이러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온정적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낮을수록 남아와 여아 모두 '기관-유능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은선민, 권소정, 이강이, 2018). 또한 임현주, 최항준, 이대균(2014)은 어머니의 양육방식 유형을 상, 하집단으로 구분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 차이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긍정적, 한계설정 양육방식이 상집단에 속하는 경우 하집단에 비해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하집단은 유아의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의 점수가 상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홍예지(2022)는 어머니가 인식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어머니의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의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대한 인식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이고, 높아진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김성현(202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스트레스,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해당 연구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적대-공격성, 걱정-불안, 과잉행동-산만의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코로나19 팬데믹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하였다(김성현, 2022).

한편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과 가정문해환경 수준의 각 집단에 따른 언어발달의 차이를 살펴본 강민아, 이영신(2020)은 만 1세의 미디어 일일 평균 이용시간과 가정문해환경 수준에 따라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점수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영아의 미디어 이용시간이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가정문해환경의 영향력도 간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주양육자의 양육방식과 행동, 양육환경은 영유아의 언어발달, 사회적 행동, 놀이 상호작용 등 영유아의 인지/비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 등)과 학교 전이와 적응 관련 연구 동향

가. 영유아의 기관 적응의 영향요인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사설 학원으로, 유치원에서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관의 전이는 영유아에게는 중요한 변화이다. 기관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를 토대로 주요 영향요인을 개인 특성과 가구 특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특성

최항준(2021)은 유아의 성별, 출생순위와 학습준비도의 차이를 연구하였는데, 남아의 학습준비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0점이었으며, 여아는 3.57점으로 여아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유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학습준비도의 차이에서는 학습에 대한 태도에서 둘째가 셋째 이상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사회-정서발달, 의사소통, 인지발달-일반적 지식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영아의 기질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교사-영아관계의 질은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초기적응 간 관계를 조절한다(이상순, 이완정, 2019: 32).

한편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3세 유아는 유치원에 더 잘 적응하며, 유아의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와 유치원 적응의 하위요인 중 '친사회성'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강세미, 엄정애, 2007: 16). 놀이성과 기본생활습관은 3세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박은영, 조은정, 정주선, 2015: 195), 놀이성 중에서는 정서놀이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그다음은 인지놀이, 사회놀이, 언어놀이, 운동놀이 순이었고, 기본생활습관 중에는 예절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그다음은 청결, 절제, 질서 순이었다(박은영, 조은정, 정주선, 2015: 210, 211). 또래유능성은 유치원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놀이성이 유치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장영숙, 2018: 203).

4세 유아의 언어능력이 높으면 유치원 적응 중 친사회적 행동과 자아강도 점수가 높았으며,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으면 유치원 적응 중 친사회적 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순환, 조해연, 김민정, 2013: 115). 또한 자기조절능력과 또래상호작용은 5세 유아의 유치원 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박유영, 홍지명, 2010: 291). 정혜린(2018: 241)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가정환경의 지위변인이 작용하며, 자녀에 대한 교육적 상호작용과 유치원에서 잘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2) 부모 특성

임진유와 심숙영(2023)은 어머니의 코로나19 팬데믹 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대해 검증하였는데, 어머니의 코로나19 팬데믹 스트레스는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코로나19 팬데믹 스트레스는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코로나19 팬데믹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코로나19 팬데믹 스트레스가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통해 더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임진유, 심숙영, 2023).

정연아와 박해미(2022)는 취학 전 유아의 가정환경자극,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살펴보았는데, 유아의 학습준비도는 '긍정적 양육태도/높은 가정환경자극'에 속하는 유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유아의 학습준비도를 높이기 위해 유아의 가정환경자극 외에도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중요한 것으로 인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만 6세 유아와 부모의 행복감을 '높은', '보통', '낮은'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학교준비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김영미(2021)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학업준비도의 하위요인인 사회정서발달, 학습태도, 의사소통, 인지발달에서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유아는 가정에서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가치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타인의 감정, 생각을 이해하고 이러한 사회, 정서적 능력은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로 확장되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김영미, 2021).

3) 기관 및 교사 특성

유치원에서 1학년으로의 전이경험은 아동들의 이후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으로, 각 교육 주체는 아동의 성공적인 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이윤미, 2007: 117). OECD는 영유아기 전이와 관련하여 학교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OECD, 2017: 16).

정광순과 박채형(2017: 128)은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 생태 환경 변화에 따른 관계 및 심리변화, 유-초 간 징검다리는 놓는 일로 정의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전이를 유치원에서의 준비활동, 유 ·

초 연계를 장치하는 것, 초등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일의 3가지 관점에서 탐색하였으며(정광순, 박채형, 2017: 128-130), 생활기술, 정서적 리듬, 심리적 탄력성 등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잇는 징검다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정광순, 박채형, 2017: 138). 한편 부모는 초등학교 적응을 위해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1학년 교사들은 어른들의 지시를 따르고 귀를 기울이는 능력, 도움 없이 과업을 시작하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아이들과 협동적으로 작업하고, 줄을 서고, 차례를 기다리는 등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보고되었다(이윤미, 2007: 119).

유아들은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유치원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하며,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사의 칭찬과 인정, 또래 유아와의 갈등관계에서 공정한 평가 등도 유치원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김태동, 2016: 19).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아 단계 교육 경험과 발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업수행 수준의 차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성식, 2019: 15).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유아기 전이와 적응에는 영유아의 기질, 정서지능, 놀이성, 기본생활습관, 또래유능성, 언어능력, 자기조절능력, 또래상호작용 등 유아의 능력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 상호작용, 교사들의 지지가 영향을 미친다.

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 적응의 영향요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를 토대로 주요 영향을 요인을 개인 특성과 가구 특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특성

오새니와 이상희(2019: 140)는 유아기 발달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적응(5점 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유아의 성별에 따른 발달 점수를 보면 유아의 신체발달 중 대근육 점수는 남아가 6.88점으로 여아의 7.01점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소근육 발달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유아의 언어발달은 남아가 3.59점, 여아가 3.98

점으로 여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인지발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여아가 인지발달과 소근육 발달을 제외한 대근육 발달과 언어발달에서 남아에 비해 높은 수준의 발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새니, 이상희, 2019: 140).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개인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연구(장혜진, 김은설, 송신영, 2014)에서는 학교적응을 일상생활, 학습수행, 또래관계, 교사관계로 구분하여 변인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남아와 여아의 학교적응 점수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남아가 3.67점, 여아가 4.09점으로 남아에 비해 여아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하위요인별 성별에 따른 점수에서도 일상생활에서 0.64점, 학습수행에서 0.31점, 또래관계에서 0.42점, 교사관계에서 0.16점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점수 차가 가장 두드러졌다. 또한 아동의 기질을 접근 및 회피성, 적응성, 주의집중 및 지속성으로 구분한 뒤, 각 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누어 학교 적응을 살펴본 결과, 접근 및 회피성이 높은 집단은 학습수행과 교사관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적응을 보여주었으며, 낮은 집단은 일상생활과 또래관계에서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것에 쉽게 다가가는 기질의 경우 교사에게도 스스럼없이 다가가고 학습동기나 자신감이 높을 수 있는 반면, 천천히 탐색하고 관찰하기 좋아하는 기질은 또래관계에서도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학교에서 질서, 규칙을 보다 잘 내면화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장혜진, 김은설, 송신영, 2014).

한편 유리향과 김세훈(2022)은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최우수', '고책임성/저자기통제'에 속한 유아가 '고자기통제/저책임성', '보통'에 속한 유아보다 학교적응 수준이 높게 나타나 사회적 기술이 높은 집단은 학교적응도 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구자는 유아의 과도한 '자기통제'가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아의 '책임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유아의 학교준비도, 또래놀이행동과 학교적응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정연아와 유준호(2022)의 연구에서는 학습준비도와 또래놀이행동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 학교적응 전체점수에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연아와 김수정(2019)의 유아 학교준비도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에서 '학교준비도가 높은' 유형과 '학교준비도가 낮은' 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초등학교 2학년 시기에는 '학교준비도가 높은' 유형의 학교생활적응, 교사적응, 학업수행적응이 다른 두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시기에는 '학습준비도가 높은' 유형이 '학습준비도가 낮은' 유형에 비해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학습준비도의 수준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학교생활적응, 교사적응, 학업수행적응에서 차이가 보이는 종단적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정연아, 김수정, 2019).

한편 연은모와 최효식(2020)은 부모와 교사가 인식한 유아의 학교준비도 및 초등학교 학교적응의 평정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공존한다는 것을 밝히며, 집단을 유형별로 '일치된 하집단(9.0%)', '부모가 교사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19.2%)', '교사가 부모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25.6%)', '일치된 상집단(46.1%)'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일치된 상집단'과 '교사가 부모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에 속한 아동의 경우 학교적응의 학교생활적응, 학업수행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의 모든 요인에서 '일치된 하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대한 부모 및 교사의 낮은 평정은 초등학교 1~3학년 시기의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예측한다고 보고하였고, '일치된 상집단'과 '교사가 부모보다 더 높게 지각한 집단'은 '일치된 하집단'에 비해 학업수행능력, 자존감, 행복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행동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연은모, 최효식, 2020).

2) 가구 특성

배한진과 허청아(2019)의 유아기의 가정환경과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는 '관계우수-자극보통'이 가장 높은 수준의 학교적응을 보여주었고, '관계취약-자극보통'에 속한 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부모요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질 높은 부부관계가 가족 안정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며 아동의 학교적응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장혜진, 김은설, 송신영(2014)은 아동의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학교적응을 살펴본 결과, 대도시 거주 아동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아동보다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

구소득이 낮을수록, 부모의 학력과 어머니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4.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관련 국외연구 동향

가. 신체·건강 발달에의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아동의 신체건강 발달에 관련한 연구(Ashikkali, Carroll & Johnson, 2020)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동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동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의 가정 내에서 미디어 및 스크린 사용 시간이 증가하고 수면 루틴에서 변화가 생겼으며, 가정 내에서 높은 열량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Moore와 연구진(2020)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캐나다 아동과 청소년의 움직임과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여 5~11세 아동과 12~17세 청소년 1,472명을 대상으로 운동과 놀이, 휴식, 수면과 부모 요인을 수집한 결과, 아동과 청소년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모든 신체활동에서 현저한 감소를 나타냈다. 일상의 집안일을 제외한 야외 신체활동 및 스포츠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에 비해 줄어든 수치를 보였지만 스크린 활용과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은 모두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Paterson 등(2021)은 코로나19 팬데믹이 5~17세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 활동, 좌식 활동, 수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을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아동들의 신체 활동 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스크린 사용 시간을 포함한 좌식 활동은 증가하였고, 수면에서는 취침과 기상 시간이 늦어졌으며 하루의 전체 수면 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신체 활동은 감소하고 좌식 활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 활동이 감소하고 스크린 사용이 증가하는 일관된 결과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부언하였다(Paterson et al., 2021).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 아동의 신체 활동 및 좌식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Dunton, Do, & Wang, 2020)에 따르면, 미국의 5~13세 아동 21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초기 사이에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신체 활동

과 좌식 활동의 수준을 수집한 결과, 부모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아동의 신체 활동은 감소했으며 좌식 활동은 증가했다고 인식했고, 9~13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그 차이를 더 뚜렷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의 생활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Xiang, Zhang과 Kuwahara(2020)은 무작위로 선정된 상하이의 5개 학교에 재학 중인 6~17세 아동 2,42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장기간의 휴교와 격리는 신체 활동 및 좌식 행동과 같은 아동의 생활습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신체적으로 비활동적인 학생의 유병률이 이전의 21.3%에서 65.6%로 증가하였으며 스크린 사용 시간은 주당 평균 30시간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신체활동 감소와 지속적인 좌식 행동의 증가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건강 상태 악화는 다시 신체 활동을 감소시키고 좌식 행동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효과적인 개입을 즉시 시행할 것을 강조하였다(Xiang et al., 2020).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좌식생활의 증가와 신체 활동의 감소는 비만과 유병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An(2020)이 체육 활동 부재와 자택 격리로 인한 신체 활동 감소가 유치원생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한 유치원생 비만 유병률을 살펴본 결과, 2개월의 휴교만으로도 미국 유치원생의 비만율이 0.64% 증가할 수 있다고 나타나 휴교령으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가 비만율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Jenssen 등(2021)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비만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라델피아의 어린이 병원 네트워크에 등록된 2~17세 아동을 대상으로 BMI를 측정했는데, 전체 비만 유병률은 12.7%에서 15.4%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으며, 5~9세 사이의 아동의 경우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일 때 증가폭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의 유치원생 12만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휴교령에 따른 아동의 체중과 신장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Wen, Zhu, & Ji, 2021)에 따르면, 휴교 기간 식사, 수면, 일상 활동에 좋지 않은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고하였

다. 휴교를 경험한 12만여 명의 코로나19 팬데믹 휴교기간, 휴교 전 작년 같은 기간, 재작년 같은 기간의 세 기간의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아동의 비만율은 휴교 전 10.47%에서 휴교 후 12.28%로 증가하였으며, 휴교 기간 키의 평균 증가는 작년과 재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cm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Wen et al., 2021). 아동과 청소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에 따른 체중 증가에 대해 57편의 연구문헌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는 봉쇄 조치는 아동과 청소년의 체중 증가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으며(Chang et al., 2021), 팬데믹 전후로 하여 비만이 있는 아동의 BMI는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일반 아동의 BMI는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고, BMI 증가뿐 아니라 비만과 과체중의 유병률도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임산부와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른 아동의 발달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Osendarp와 연구진(2021)은 팬데믹에 따른 아동 발육부진, 영양실조, 사망률, 산모 빈혈, 체질량지수(BMI)가 낮은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세 가지 모델링 도구를 사용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는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930만 명의 아동과 260만 명의 발육부진 아동, 6만 8천 명의 추가 아동 사망, 210만 명의 산모 빈혈 사례, 210만 명의 아동은 저 체질량지수(BMI)를 가진 여성에게서 태어날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과도한 발육부진과 아동 사망률은 향후 297억 달러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Akseer, Kandru, Keats와 Bhutta(2020)도 팬데믹으로 인한 빈곤, 영양 식품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모-자 영양실조율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모-자 보건 및 영향에 대한 완화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모-자 영양실조의 위험 요인으로는 불안한 식량 제공, 질 낮은 식단, 수입 감소, 제한된 재정 자원을 언급하였으며,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산모 관리와 영양 공급의 제한이 지속적일 경우 조산, 저체중아, 개월 수에 비해 작은 신생아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Akseer et al., 2020).

코로나19 팬데믹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장단기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Yoshikawa et al., 2020)에서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1/3 이상이 의료서비스 방문을 미룬다고 응답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염병과 무관한 질병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감소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모-자 사망률과 이환율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육과 교육 시설이 문을 닫아 아동은 사회적, 인지적 자극을 박탈당했으며,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와 아동 행동 문제가 증가했다고 보고하였으며, 격리 또는 이동 제한이 끝나더라도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적인 수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Yoshikawa et al., 2020).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가구의 재정적 여건이 반영되어 기존의 교육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음을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캐나다의 254개의 가정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건강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가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식습관과 식사 루틴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고, 가족 스트레스가 증가한 요인으로 일과 육아 및 가정 내 학습의 불균형과 재정적 불안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Carroll et al., 2020). Hayre(2023)도 영국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과 아동의 교육 및 건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휴교령으로 인한 전반적인 결과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으며 저소득층 아동들이 가장 큰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존의 교육 불평등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더욱 악화시켰으며 아동 건강 및 건강의 불평등에 이어지며 위험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조치로 인한 장기간의 학교 결석은 아동에게 영양 공급의 불안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정신건강 서비스가 완전히 중단되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복지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설명하였다(Hayre, 2023).

이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신체 활동의 감소, 좌식 생활과 미디어 이용시간의 증가, 불규칙한 수면과 식사 루틴의 변화는 비만율과 과체중의 유병률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출산과 임신을 경험한 모-자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연구들은 과도한 발육부진, 아동 사망률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빈곤 상태의 악화는 영양 실조율의 증가와 연결된다는 우려로 나타나기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단기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인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 언어·인지 발달에의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이 유아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단 연구(Deoni, Beauchemin, Volpe, D'Sa, & Resonance Consortium, 2021)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유아는 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자극, 창의적 놀이가 줄었으며 이로 인해 유아의 인지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는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아동의 인지발달에 대한 대규모 종단 연구를 활용하여 2020년과 2021년 유아의 일반적인 인지 점수와 이전 10년간의 인지 점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태어난 유아는 이전에 태어난 유아에 비해 언어, 비언어, 신체, 인지 및 수행 능력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였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유아는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질병에 감염 경험이 없더라도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환경 변화가 유아의 발달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하였다(Deoni et al, 2021).

Read, Gaffney, Chen과 Imran(2021)이 2~5세의 자녀를 둔 부모 85쌍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정 내 문해력 실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스크린을 매개로 한 독서 참여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ECEC 돌봄 시설이 광범위하게 폐쇄되어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스크린을 매개로 한 독서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작과 그에 따른 변화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의 일상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독서를 통한 문해력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고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한 결과는 독서가 다른 교육활동에 비해 가정에서 유지하거나 대체하기에 더 용이한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시사한다(Read et al., 2021).

Wheeler와 Hill(2021)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유아의 독서습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2~4세 유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더 자주 책을 읽었으며 부모들은 독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Gusti(2021)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급격하게 확산된 온라인 수업은 교사가 자료를 학습 맥락에 맞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지니며 궁극적

으로 아동의 언어 능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타인 및 주변과의 상호작용의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가 아이의 발달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아의 언어발달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Sihombing, Fithri, & Wilyanita, 2021). 미국에서는 여름방학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아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을 두고 '서머 슬라이드(summer slide)'라고 표현하는데(George, Dilworth-Bart, & Herringa, 2021), 연구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휴교령으로 인해 아동에게 발생한 학습 결손을 서머 슬라이드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종합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미디어를 활용한 자녀와의 독서가 증가하였으며, 부모들은 문해력의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고, 독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은 교사가 자료를 맥락에 맞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여 주변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 언어발달이 지연, 이후의 학습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다. 사회·정서발달에의 영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보육 및 교육의 부재가 아동의 사회-정서에 미치는 영향(Egan, Pope, Moloney, Hoyne, & Beatty, 2021)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일랜드의 1~10세 아동을 둔 506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기 놀이와 학습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부모들은 ECEC 폐쇄와 휴교령 기간 자녀의 짜증, 불안, 집착, 지루함, 자극 부족이 발생했다고 보고하였으나 일부 부모는 봉쇄 조치로 인해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일상의 시간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했다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Save the Children(2020)의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 참여 아동 중 56%에 해당하는 아동이 친구와 연락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이전보다 덜 행복하고 걱정은 더 많아졌다고 응답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보고했다(Egan et al., 2021).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16편의 연구를 고찰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의 유병률이 높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측정한

우울, 불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mji et al., 2022). 이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사회적 격리를 경험한 아동은 가족 중심의 생활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지만, 아동의 불안, 짜증과 같은 정서적인 증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일반적인 증상을 넘어서는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연구에서 공통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로 Yeasmin 등(2020)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봉쇄를 겪은 방글라데시에서 5-15세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아동의 정신건강으로 우울, 불안 및 수면 장애 점수를 평균 군집화하여 낮은 점수부터 기준치 미만, 경증, 중등도, 중증의 4그룹으로 분류한 결과, 전체 아동 중 43%의 아동이 기준치 미만에 해당하였으며, 경증이 30.5%, 중증도가 19.3%이고 가장 심각한 장애를 겪는 중증 그룹은 7.2%였다. 연구에서는 부모가 직장에 가야 할 필요성, 실직 가능성, 흡연 습관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아동이 만화를 자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부모님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우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Yeasmin et al., 2020). 또한 영국의 Urbina-Garcia(2020) 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린이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팬데믹 기간으로 인해 어린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집에 머물렀어야 했고 사회적 고립은 어린이들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적 발달은 아동발달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전 생애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사회적 고립의 잠재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의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Urbina-Garcia, 2020).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격리 조치는 아동과 부모 모두가 경험한 것으로 부모의 스트레스 상황이 아동의 우울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을 고찰한 결과(Courtney, Watson, Battaglia, Mulsant, & Szatmari, 2020) 아동은 학교 내외에서의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신체활동 등 일상의 많은 활동을 갑작스럽게 상실하는 경험을 하였고,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의 전반적인 교육 및 활동을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하는 새로운 역할이 생기고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으며 부모 자신의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손실까지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포함한 전염병 발병에 따른 사회적 제한이 부모와 0~18세 아동의 정신 및 건강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 조사 결과(Araújo, Veloso, Souza, Azevedo, & Tarro, 2021) 휴교령과 같은 사회적 제한은 부모와 자녀의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외에도 신종 인플루엔자, 에이즈, 에볼라 등 전염병으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력은 부모의 심각한 우울, 불안,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이 있었으며 아동의 우울증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초중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교육 성취도의 변화에 관해 고찰한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 아동의 스트레스는 증가했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아동의 경우 스트레스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Fegert et al., 2020; Lee, 2020; Zhou et al., 2020).

이와 관련하여 Fegert와 연구진(2020)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개인적 성장과 가족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불안, 또래와의 접촉 부족, 스트레스 조절 기회 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이점보다 단점이 더 크다고 강조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각종 조치로 인해 부모의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가정 폭력 및 아동학대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우려하였다. Imran, Zeshan과 Pervaiz(2020)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아동들은 두려움, 불확실성, 일상의 상당한 변화, 신체적, 사회적 고립과 함께 높은 수준의 부모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며, 특히 전 세계 모든 아동이 팬데믹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장애가 있거나 빈민가, 격리시설, 분쟁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많은 가정의 부모는 고립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파키스탄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부모가 건강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과 걱정은 아이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Imran et al., 2020).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이 독일 아동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7~17세 자녀를 둔 1,586가족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Ravens-Sieberer et al., 2022)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70.7%가 팬데믹으로 인

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했고, 39.3%의 아동은 친구와의 관계가 손상되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낮은 삶의 질을 경험하는 아동의 비율이 15.3%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40.2%로 나타나 자기 삶의 질이 낮아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팬데믹으로 인한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이후 명백한 정신 장애로 발전하지 않도록 표적화된 조기 예방 및 개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Ravens-Sieberer et al., 2022). 이상의 연구들은 예측하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감내해야 했던 스트레스 상황이었으나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환경이 아동에게 더 큰 스트레스 요인을 작동했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초점을 둔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발달 및 학습의 격차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아동의 학습과 발달 측면에서의 우려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가정 분위기, 부모와의 상호작용, 부모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가 상쇄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Glynn, Davis, Luby, Baram과 Sandman(2021)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유아의 행동 문제가 증가했으나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더 많이 하는 가정에서는 아동의 우울 증상과 외현화 행동에서 수준이 낮게 나타나며 부정적인 결과를 상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고하였다. Liu와 연구진(2021)도 4~6세의 미취학 아동 1,619명의 수면 습관을 살펴본 결과, 수면 장애 유병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경우가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식단이 불규칙할수록, 가족 분위기가 덜 화목할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감소할수록 수면 장애와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Zartler, Dafert와 Dirnberger(2022)은 오스트리아에서 봉쇄조치를 실시한 첫 주(2020년 3월)부터 이후 반복적으로(12월까지 9차례) 인터뷰를 진행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자녀에게 미친 영향에 관해 조사한 결과 부모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정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격리 조치는 부모와 자녀의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의 비대면 학습으로 인한 교육 진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였으며 이러한 우려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아동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우려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장기간의 봉쇄로 인해 자녀가 '정상적인' 가족 구조와 일상을 잃어버릴까 봐 우려했으며, 나이가 많은 자녀를 둔 경우에는 사생활 보호 및 사회적 활동에 대한 선택권이 부족해지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였다(Zartler et al., 2022). 한편 부모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협과 어려움에 대처하는 동시에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어려운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Zartler et al., 2022).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 역사상 교육 시스템에 가장 큰 혼란을 야기했는데(Pokhrel & Chhetri, 2021),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17억 2500만 명의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과 학습 공간의 폐쇄로 전 세계의 학습 인구 중 98.6% 이상이 영향을 받았다(United Nations, 2020).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학습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을 닦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학생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비대면, 디지털 학습은 모든 가정에 균일하게 제공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okhrel & Chhetri, 2021). 실제로 부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휴교령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특히 청각 장애나 시각 장애 등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 학생들은 추가적인 지원과 안내가 포함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Pokhrel & Chhetri, 2021).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Gupta와 Jawanda(2020)는 휴교령으로 인해 디지털 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학습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특히 세계적으로 가난한 지역이나 시골 지역은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인터넷 시설이 없거나 속도가 느린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해 광대역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교육에서 최악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및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Whitley, Beauchamp, & Brown, 2021)에서는 거리두기, 휴교,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축소 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는 아동의 학습과 발달에 필요한 지원 시스템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아동들은 만성적인 출석 문제, 학업 성취도 저하, 학점 취득이 감소했고, 이미 위험에 처한 아동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하게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2020년 학교 폐쇄 전후의 측정된 학생 성적을 비교한 결과,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음을 밝히고 있다(Engzell, Frey, & Verhagen, 2021; Kuhfeld et al., 2020). 이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는 가정, 기관(학교), 정부의 노력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가 상쇄되기도 하지만 급격한 디지털로의 전환에 따른 계층, 지역, 국가 간 격차로 아동의 발달과 학습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III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의 발달 및 학습 변화: 심층 분석

01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전반적인 발달 변화: 면담내용 분석

02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인지 및 언어발달 변화: 임상사례 분석

03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 변화: 임상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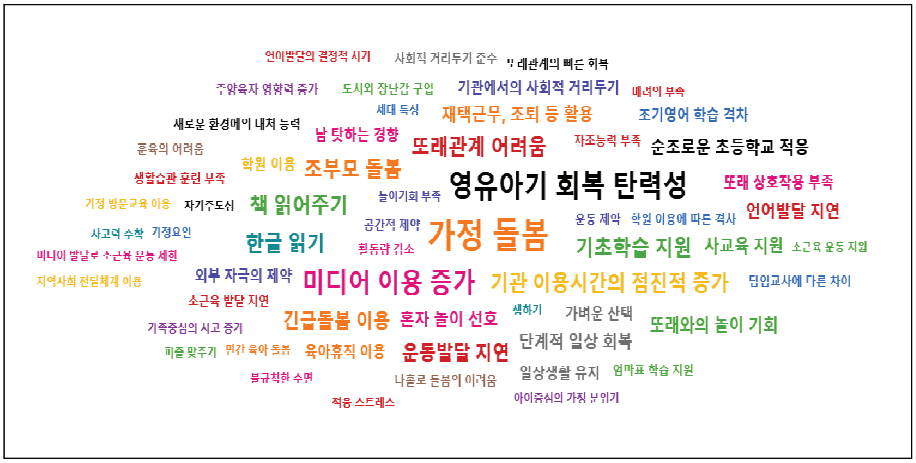
Ⅲ.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의 발달 및 학습 변화: 심층 분석

본 장에서는 1, 2차년도 발달검사 참여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한 결과를 분석하여 가정의 배경 요인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달상의 문제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임상 사례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언어, 인지, 사회, 정서, 적응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와 영향요인들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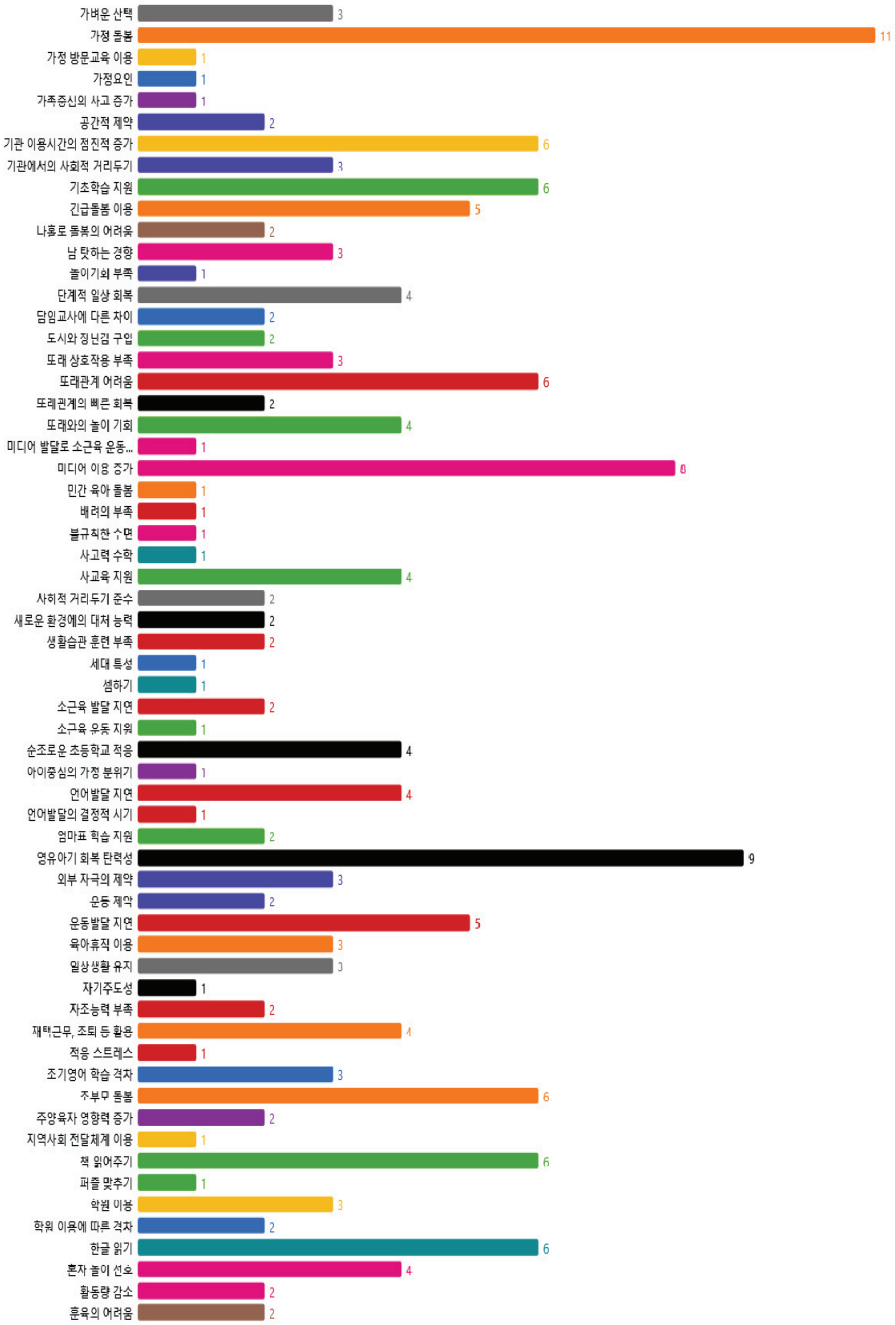
1.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전반적인 발달 변화: 면담내용 분석

먼저 본 절에서는 1, 2차년도 발달검사에 참여한 가구의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한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ATLAS. ti. 23을 활용하여 개방형 코딩으로 추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74개의 코드가 추출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코드 클라우드(code cloud)와 차트(bar chart)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1-1] 부모의 자녀 발달에 대한 인식 내용분석 코드 클라우드



[그림 Ⅲ-1-2] 부모의 자녀 발달에 대한 인식 내용분석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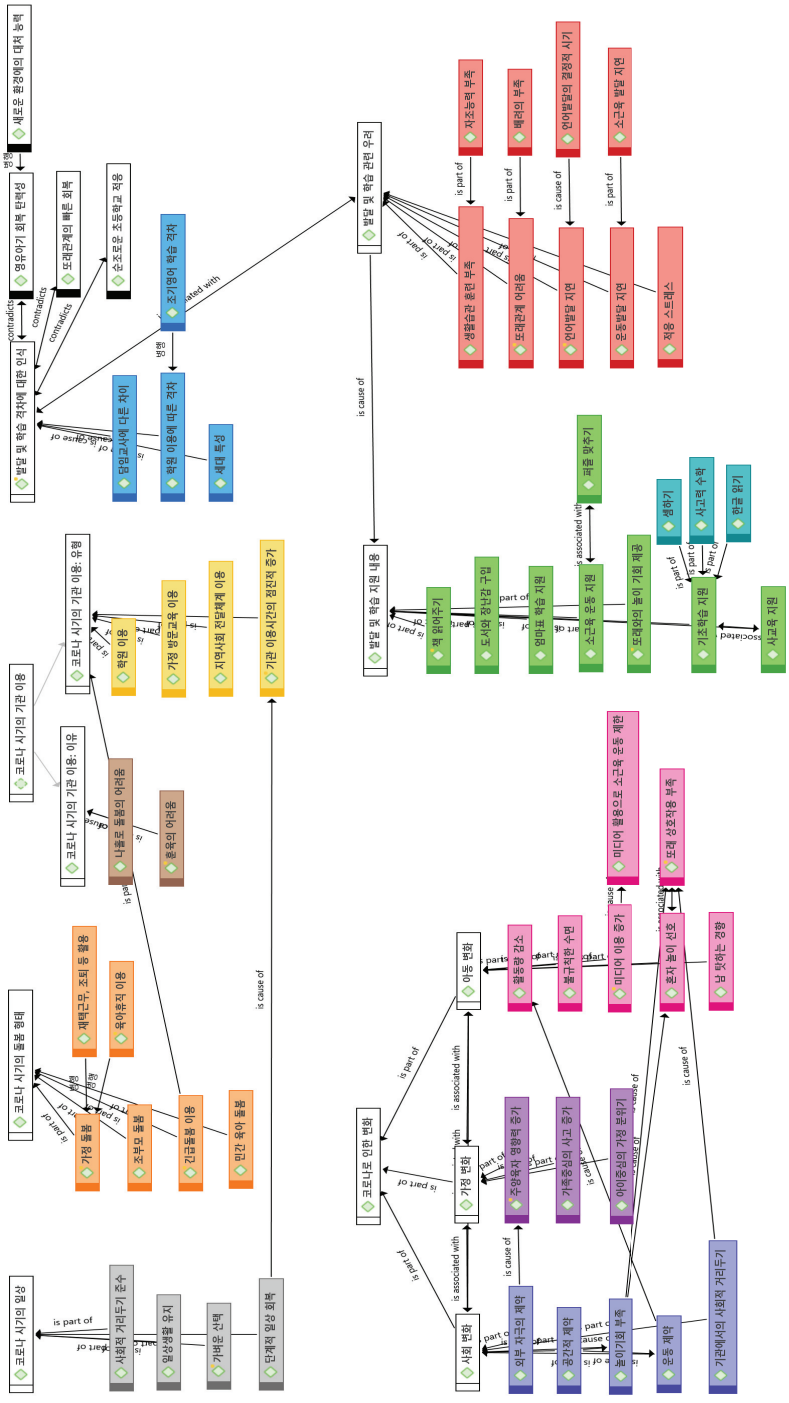


다음은 주요 코드에 기반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한 결과, 발달검사 참여 아동의 가정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집 근처 놀이터나 공원에서의 가벼운 산책 등이 유일한 외부 활동의 공간으로 언급되었다. 3년간의 팬데믹 기간 중,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하였고, 이에 2022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일상으로 점차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시기의 돌봄은 육아휴직, 재택근무, 필요시 조퇴 등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돌보거나 조부모 돌봄, 민간육아 돌봄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긴급돌봄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긴급돌봄 이외의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학원, 가정 방문교육, 지역사회 전달체계(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기관 이용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형태로 기관을 이용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팬데믹 기간 중, 기관을 이용한 이유로는 나홀로 돌봄의 어려움, 기본생활습관 등 훈육의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를 아동, 가정, 사회 변화로 구분한 결과,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아동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활동량이 감소하고,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규칙한 수면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과도한 미디어의 활용으로 다양한 자극을 접하지 못하여 소근육 운동이 제한되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사회적 격리로 인한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 부족은 혼자놀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남 탓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고 언급되었다. 가정의 변화로는 집에서의 생활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정에서의 주양육자의 영향력이 증가하였고, 가족 중심의 사고, 아이 중심의 가정 분위기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사회적 변화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부 자극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외부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공간적 제약은 아동의 놀이기회 부족, 이로 인한 운동(활동)의 감소로 나타났으며,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는 또래 상호작용의 기회를 감소시킨 것으로 언급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발달 및 학습에 대한 우려로 기초생활습관, 또래관계, 언어발달, 운동발달지연이 언급되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기관에서의 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습관에 있어서는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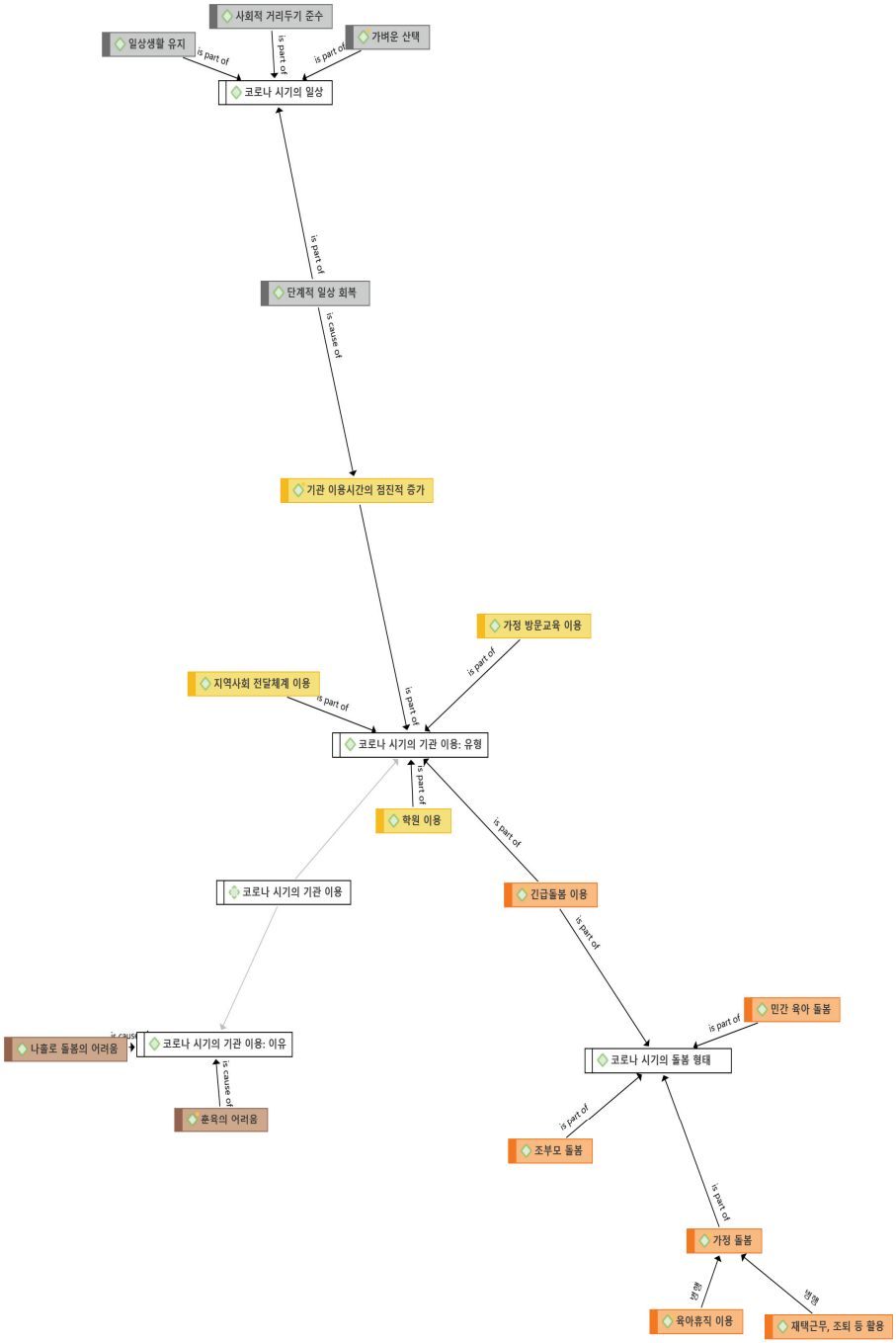
자조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언급되었으며, 또래관계에서의 배려 부족,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의 단절로 인한 걱정, 운동기능 중 특히, 소근육 발달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지원하는 발달 및 학습 지원 내용으로는 책 읽어주기, 도서와 장난감 구입, 인터넷을 활용한 '엄마표' 학습 지원, 퍼즐맞추기 등 소근육 발달 지원, 학습지, 학원 등 사교육을 활용한 한글, 수학 등 기초학습 지원이 언급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발달과 학습의 격차에 대해서는 세대 특성이라는 의견, 특히 영어학습에 있어서 학원 이용에 따른 격차, 담임교사에 따른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영유아 시기의 특성상 현재 자녀들이 또래관계 등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도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의 일상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일상생활 유지
거북한 산택
단계적 일상 회복
is part of
is cause of
코로나 시기의 돌봄 형태
가정 돌봄
조부모 돌봄
긴급돌봄 이용
민간 육아 돌봄
재택근무, 조퇴 등 활용
육아휴직 이용
코로나 시기의 기관 이용: 이유
나홀로 돌봄의 어려움
돌봄의 어려움
코로나 시기의 기관 이용: 유형
혼합 이용
가정 방문교육 이용
지역사회 전담체계 이용
기관 이용시간의 탄력적 증가
코로나 시기의 기관 이용
발달 및 학습 격차에 대한 인식
담임교사에 다른 차이
학원 이용에 따른 격차
세대 특성
영향
영향
contradicts
contradicts
contradicts
영향
영향
영향

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일상과 돌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일상과 돌봄의 코드 분류 및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일상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가벼운 산책을 하는 정도의 외부 활동만을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급적 이전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언급하였다. 22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점차적으로 기관의 이용시간과 학원 등 사교육의 이용을 확대해나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돌봄의 형태는 육아휴직의 사용, 재택근무와 조퇴 등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돌보는 형태, 조부모 돌봄, 민간육아 돌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긴급돌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이용 유형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외 기관으로 학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전달체계, 학습지 등 가정 방문교육이었으며, 이와 같은 기관의 이용 이유로 '나홀로 돌봄'의 어려움, 훈육의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는 가정 내의 돌봄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시간의 확대와 더불어 학원, 방문교육 등과 같은 사교육의 이용도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1-4]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돌봄 형태 네트워크 분석결과



1)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일상

먼저 팬데믹 시기의 일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집 근처의 공간을 활용하여 가벼운 산책을 하는 정도로 일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가정은 개인 공간을 이용하여 외부활동을 제한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거나 사람이 없는 공간을 활용하여 외부활동을 유지한 경우도 있었다.

"집 밖을 아예 안 나왔어요. 병원 가는 것도 사실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애들은, 신생아는 마스크를 못하니까 뭐 진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서 꼭 가야 되는 것만 이제 활동을 하고," 심층면담_2차(20230830)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하다 보면 외출 자체가 굉장히 많이 90% 이상 줄었고요. 외식 자체도 거의 하지 않았고. 20년에는 아예 하지 않았던 거 같고, 21년도에는 룸을 빌려서 단독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아니면 그것도 뭐 거의 분기에 한 번 정도" 심층면담_2차(20230830)

"집 근처 공원 같은 데는 있어서 사람 없을 때 나갔다 온다던가 그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심층면담_2차(20230830)

"산책하고 그 정도로 놀았어요." 심층면담_1차(20230809)

"코로나이지만 좀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여행도 많이 했어요. 외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심층면담_2차(20230830)

"저희는 사실 크게 영향을 안 받고 돌아다녔던 타입이라서 야외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타입이라서" 심층면담_3차(20230921)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일상으로의 회복은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감염이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3년차인 2022년 하반기부터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활동들을 시작한 것으로 언급되었다.

"20년 하고 21년을 생각하면 20년은 정말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신생아가 있기도 하고." 심층면담_2차(20230830)

"22년 3월달에 온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려서 그 이후부터는 좀 더 자유롭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심층면담_2차(20230830)

"2022년 8월부터 피아노 선생님이 이제 집에 오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한 7월경부터 발레를 다니고, 10월에 한국 무용을 다닌다거나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이제 수영을 올해 여름

부터 이제 수영을 다니고" 심층면담_2차(20230830)

"사교육이라고 하는 학원에 보내거나 이런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는 시작을 했거든요. 2022년 하반기부터." 심층면담_2차(20230830)

2)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돌봄

팬데믹 시기의 주된 돌봄 형태로는 육아휴직, 재택근무, 필요시 휴가 등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시간은 별도의 민간육아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퇴를 하기도 하고, 이제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심층면담_1차(20230809)

"육아휴직하면서 아기 보육공간 안 보내고 거의 두 살 때까지는 제가 봤었고 이제 그냥 밖에 그냥 잠깐 공원 정도만 가고 사람 많은 곳은 거의 갈 생각도 못하니까 집에서 그냥 아기랑 거의 노는 정도로 있었어요." 심층면담_1차(20230809)

"재택 플러스 오피 출근을 좀 번갈아가면서 하는 형태였고" 심층면담_2차(20230830)

"오후에는 이모님 오셔가지고 이모님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뭐 외부 활동을 못했죠." 심층면담_1차(20230809)

주양육자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 인근에 거주하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긴급돌봄을 활용하였는데, 조부모가 돌봐주는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완화되면서 긴급돌봄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도 있었다.

"둘째가 태어나서 계속 제가 수유하고 이제 케어를 해야 되니까 큰 애는 이제 엄마 쪽에서 많이 봐주셨어요." 심층면담_2차(20230830)

"긴급 돌봄을 이용했고요. 처음에는 그것도 이제 무서워서 안 하고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한테 맡겨놓고 했는데요." 심층면담_1차(20230809)

"저희가 다닌 유치원은 일단은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운영을 했어요." 심층면담_1차(20230809)

"저희도 코로나가 있어도 저희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어린이집은 10시까지 다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마지막까지 10시, 10시 반까지 제가 바쁜 날은 있기도 하고 그랬었거

든요." 심층면담_3차(20230921)

3)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기관 이용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기관 이용 유형과 이유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긴급돌봄은 이용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형태로 이용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방과후 프로그램까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간헐적으로 가정 방문교육을 활용하기도 하고, 시간제로 이용하는 학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상관없이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오전만 했다가 오후도 그냥 오전만 갔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오후도 좀 있자 그래서 처음에는 오전. 오전에 데리고 오고 그리고서는 오후는 안 했다가 나중에 점점 늘려서" 심층면담_1차(20230809)

"21년에 큰아이 같은 경우는 유치원 9시부터 2시까지 하고 방과후도 하나 정도는 했었어요." 심층면담_2차(20230830)

"코로나 터지면서 가정에 와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아기 3개월, 6개월 이렇게 크는 거 이렇게 그나마 선생님 오셔서 봐주시니까 조금 아기 부족한 점이나 좀 더 이렇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점 알려주셔서" 심층면담_1차(20230809)

"제가 직접 가르치고 학원도 많이 다녔어요." 심층면담_1차(20230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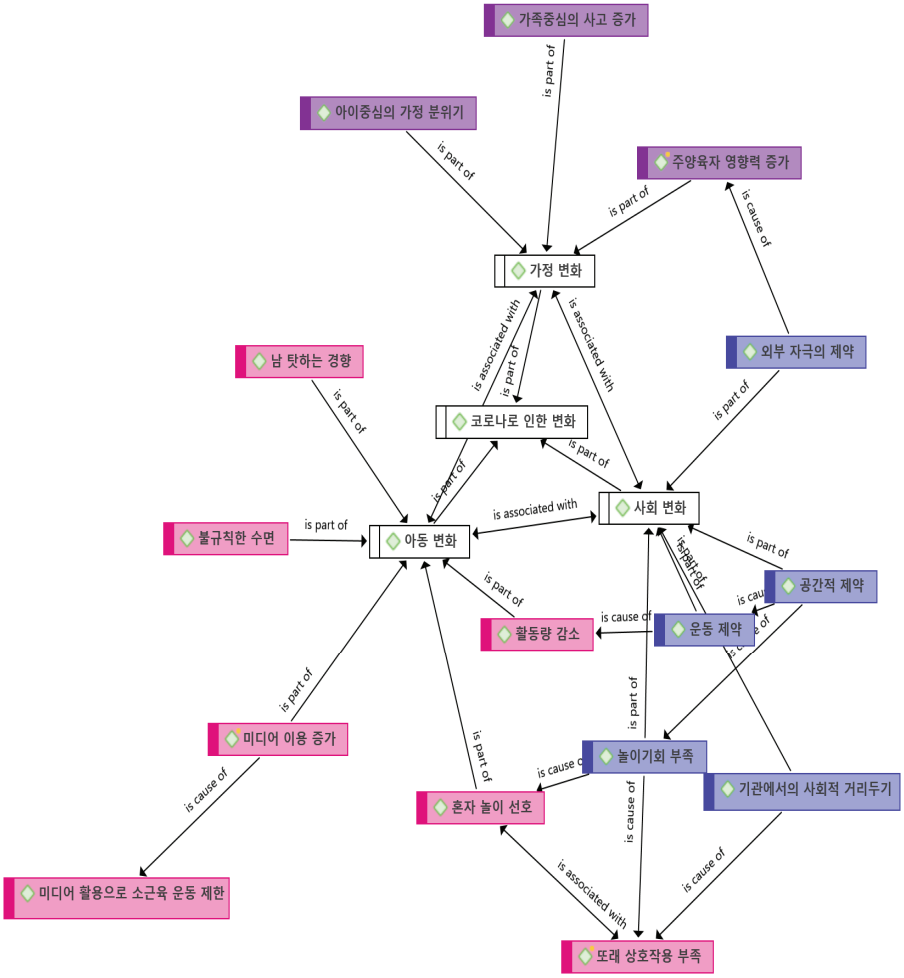
"영어학원, 수학학원 뭐 그런 거는 계속 보냈었어요. 그래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 공백을 갖지 않았던 것 같고요." 심층면담_1차(20230809)

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체감하는 변화 요인을 사회, 가정, 아동의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이용의 제약과 더불어 긴급돌봄을 이용한 경우에도 기관 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준수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제한으로 이어졌으며, 공간적 제약은 운동(활동) 시간의 부족과 놀이기회의 부족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외부 자극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의 증가는 주양육자의 영향, 긍정과 부정의 요소가 공존하는 가족 중심의 사고를 증가시켰고, 아이중심의 가정 분위기로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처

럼 사회 전반의 변화로 인한 가정의 변화와 연계되어 아동의 일상부터 전반적인 발달에 미쳤는데, 활동(운동) 공간의 제약으로 실내에서의 좌식활동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활동량이 감소하였고 불규칙한 수면이 증가하였으며, 미디어 이용의 증가는 다양한 자료들을 접할 기회를 감소시켜 소근육 운동의 제약을 가져왔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의 부족은 혼자 놀이를 선호하거나 남 탓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되었다.

[그림 Ⅲ-1-5]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 네트워크 분석결과



1) 사회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단절은 아동발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인식하였는데, 특히 공간적 제약으로 아동의 놀 공간과 기회가 상실되었고,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외부 자극이 부재한 상태가 되었다는 인식이 있었다.

"요즘은 근데 또 놀이터 이런 데서도 많이 못 노니까 아기들이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줄었잖아요. 심층면담_1차(20230809)

"자전거 타기라든가 이런 거를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니까 지금쯤이면 집에서도 가르치고 했을 텐데 그런 거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던가." 심층면담_2차(20230830)

"둘째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나가질 않아서 외부 자극이라는 게 진짜 아예 0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집에만 있었고" 심층면담_2차(20230830)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긴급돌봄을 이용한 경우에도 기관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는 또래 상호작용의 기회마저 차단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다.

"어린이집에서도 애들끼리 못 모이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심층면담_1차(20230809)

"저는 좀 밥 먹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가림막 치는 게 되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많이. 왜냐하면 식사 시간은 즐거워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고 친구들이 뭐 먹나 보고 이렇게 하는데 가림막해서 사실 잘 보이지도 않고 말도 아예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밥 먹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야 되는데 꼭 아이들끼리 그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좀 그게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심층면담_3차(20230921)

2) 가정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정의 변화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양육자의 영향이 커졌다는 점, 긍정적 의미에서 가족 중심의 분위기가 이전보다 강화되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아동의 자기중심성이 보다 강해졌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엄마랑 있는 시간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같이 비슷한 시기에 키운 엄마들 아기를 딱 보면은 커갈수록 보면 확실히 엄마의 성향이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심층면담_2차(20230830)

"친구들보다 가족 중심인 것 같아요. 다 가족이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심층면담_2차(20230830)

"가족 단위로 저희도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조금 애 중심적으로 가가지고 얘가 지는 것도 못 배우고 자기를 너무 위하는 분위기에서 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걱정이 돼요. 학습적인 부분보다." 심층면담_3차(20230921)

3) 아동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아동이 변화한 부분은 신체활동이 적어짐에 따라 운동기능 발달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활동량의 감소가 운동기능뿐 아니라 불규칙한 수면, 미디어 활용의 증가로 나타났음이 언급되었다. 미디어 활용의 증가는 소근육 운동의 다양한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신체 활동에 대한 자극이 사실은 이전부터 운동 같은 거를 좀 시키고 싶은 계획이 있었는데 전혀 하지를 못해서 그런 자극, 신체 활동에 대한 자극이 좀 많이 걱정이 됐고" 심층면담_2차(20230830)

"활동량이 작아지니까 잠도 많이 안 자요. 잠을 좀 늦게 자게 되는 거죠. 이게 애들이 기운이 빠져야지 푹 자는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 심층면담_1차(20230809)

"20년도는 제가 봤을 때는 애 성장에 그렇게 크게 좀 걱정스러울 정도? 애가 집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텔레비전을 잘 볼 나이잖아요. 텔레비전에 빠져가지고." 심층면담_1차(20230809)

"외부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틀어주는 것 같아요." 심층면담_2차(20230830)

"요즘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손을 안 쓰고." 심층면담_1차(20230809)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도 제한하였기 때문에 자기중심인 경향이 강해져서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혼자놀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코로나 터져서 이제 또래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없었어서 그때는. 근데 말이 늦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만 알고 좀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걸 잘 못한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심층면담_1차(20230809)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심층면담_2차(20230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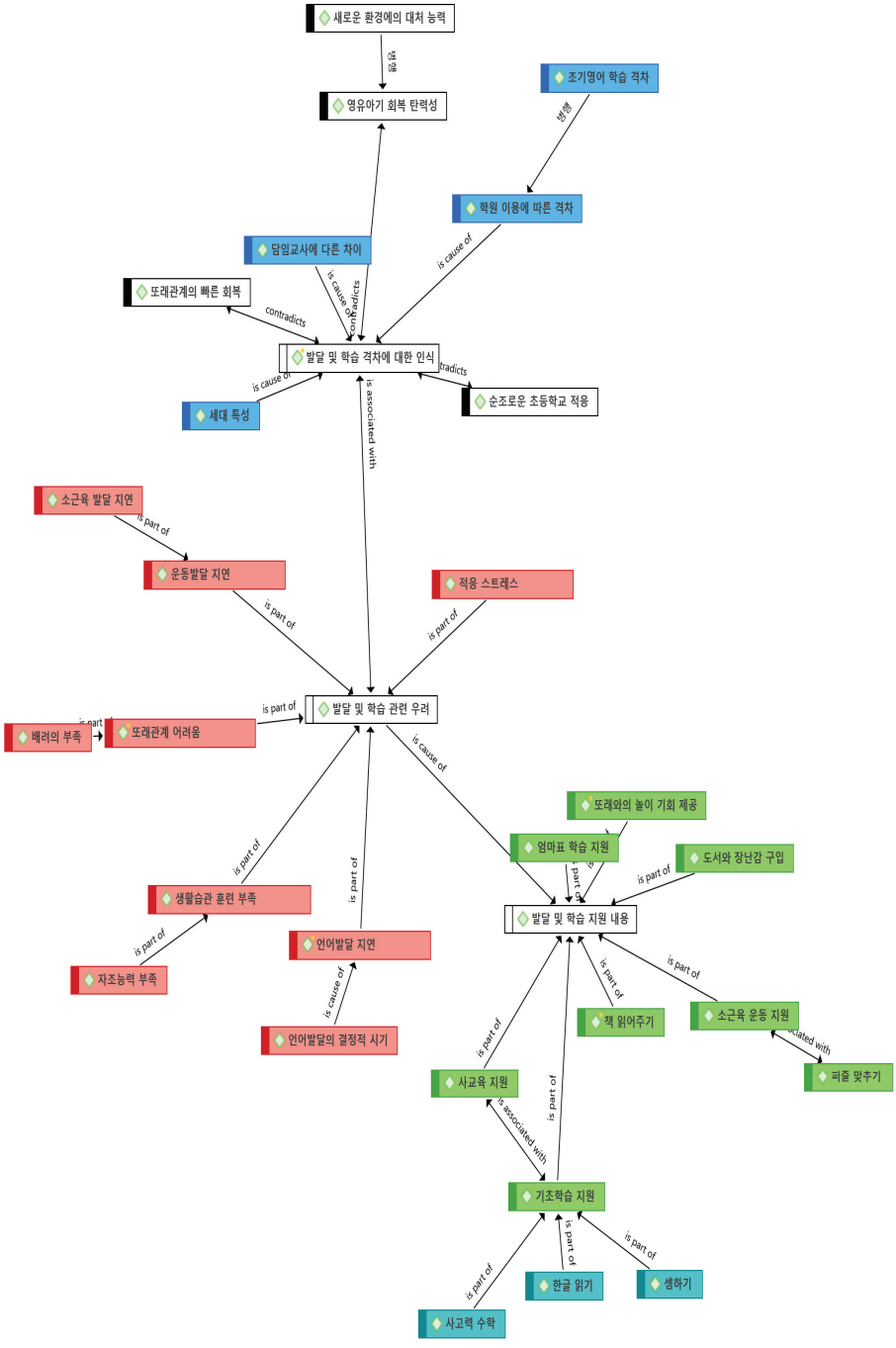
"그 나이에 애들은 인사는 하는데 어린이집 친구들도 이제 딴 데 가면 어 안녕? 누구다! 하면서 반가워 막 이러다 누구 왔어 다 자 이렇게 하고 다 따로 놀더라고요." 심층면담_2차(20230830)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너무 돌아다니지 말고 좀 이렇게 앉아 있으라 그래서 그냥 자기는 앉아서 친구들 노는 걸 이렇게 본대요" 심층면담_1차(20230809)

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격차 인식과 우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발달 및 학습에 대한 인식과 우려의 코드 분류 및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발달 및 학습에 관한 우려로는 운동발달지연, 특히 소근육 운동 지연, 배려 부족 등으로 인한 또래관계의 어려움, 생활습관 훈련(자조능력 등)의 부족, 적응 스트레스, 언어발달 결정적 시기의 언어발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녀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또래와의 놀이 기회 제공, 소근육 운동능력과 관련해서는 퍼즐맞추기 등과 같은 관련 활동의 기회 제공, 도서와 장난감 구매, 책 읽어주기와 같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내용으로 '엄마표' 학습 지원의 차원에서 인터넷상의 정보나 학습지 등을 활용하여 직접적인 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읽기와 쓰기, 셈하기와 같은 기초학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방문교육이나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발달과 학습의 격차에 대해서는 담임교사에 따른 차이, 학원 이용(특이 조기영어학습에서)으로 인한 격차를 인정하면서도 세대 특성으로 받아들이거나 또래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현재 상황, 순조로운 초등학교에 적응을 경험하면서 영유아기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하기도 했다.

[그림 Ⅲ-1-6]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격차 인식 네트워크 분석결과



1) 발달과 학습 관련 우려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생애 초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경험한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는 소근육 운동능력을 포함한 운동발달지연이 언급되었는데, 일상적인 걷기조차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를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졌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소근육이 조금 떨어져서 그거는 아기 아마 성향, 원래부터가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좀 대근육 소근육 발달이 조금 빠르지 않았었던 애여 가지고." 심층면담_1차(20230809)

"달리기라던가 뛰기라든가 그걸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좀 서툴러 보이는" 심층면담_2차(20230830)

"원장님이나 교사하고 그러는데 산책 가는데 걷는 걸 힘들어한다. 이렇게 조금 걸어가는 거리가 길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는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심층면담_2차(20230830)

"자전거도 애들이 이제 밖에서 원래 있던 애들 이렇게 굴리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늦었었어요" 심층면담_2차(20230830)

심층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아동의 학습 관련 우려보다는 또래관계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자연스러운 또래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회 부족, 자기중심적 경향의 증가로 배려나 나눔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습적인 것보다는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지 그런 거 그리고 만약에 팬데믹이랑 관련해서 학습적인 것이 부족하다면은 제가 시키든지 어디 도움을 받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이런 거는 직접 부딪혀야 되고 좀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심층면담_3차(20230921)

"처음에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룹 생활을 뭔가 자연스럽게 안 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은 가서 어쨌든 어쨌든 친구들이니까 노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심층면담_2차(20230830)

"그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빌려주라고 선생님, 누가 안 깎았으니까 좀 빌려줘. 이게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이들이 그게 용납 자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심층면담_2차(20230830)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마주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걱정, 가정에서 일상을 보내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조차 부모가 도움을 주기고 하고,

맞벌이 가구 특성상 일상생활습관에 대해 지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장시간 가정에서 돌봄의 영향과 기관 이용시간의 불규칙성이 적응 스트레스로 나타나기도 함을 언급하기도 했다.

"언어발달도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되게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캐치를 못할까 봐 약간 불안한 거예요." 심층면담_1차(20230809)

"마스크를 쓰고 선생님이 계속 대화를 하니까 입모양을 못 보니까 이게 말이 느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층면담_2차(20230830)

"밖에 나갈 때도 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는 더 아무래도 조심스러웠으니까 부모 손을 좀 더 많이 타는 거 같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층면담_3차(20230921)

"둘 다 맞벌이인 데다 굉장히 바빠가지고 습관을 잘 잡아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심층면담_3차(20230921)

"어린이집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집에 와서는 그래도 약간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초기에는 많이 예민하고 더 많이 달라붙죠." 심층면담_2차(20230830)

2) 발달과 학습 지원 내용

상기한 우려 등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장난감이나 책을 구입해서 읽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소근육 발달을 위해 퍼즐맞추기, 가위질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책 같은 거 이렇게 사서 계속 읽어보고 이제 보여주고 하면서 좀 많이 불안감을 좀 가라앉혔어요." 심층면담_1차(20230809)

"책을 많이 읽혀야겠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좀 의도적으로 이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읽어줬거든요." 심층면담_1차(20230809)

"책 보여주고 노래 불러주고 산책하고 그 정도로 놀았어요." 심층면담_1차(20230809)

"애들하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타인, 우리 부모 이외의 타인들을 만나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안 쉬고 매일매일 거의 보냈고요." 심층면담_1차(20230809)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특이한 현상이 생기기도 했는데 가정에서의 생활시간이 길고, 중요해짐에 따라 '엄마표' 학습 지원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엄마표'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엄마가 직접 아이들과 영어, 수학을 지도하는 것인데, 육아휴직 기간 또는 퇴근 이후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필요한 내용을 엄마가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외에도 또래관계의 회복을 위해 친구와의 놀이시간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1학년 부모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지원하고 있었다.

"팬데믹이라고 해서 사실은 다니던 태권도라든가 이런 거를 다 끊고 팬데믹 때 한창 붐이었던 게 '엄마표'가 붐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외부 기관이나 선생님이 오시는 도움을 받지 않아도 집에서 엄마가 파일 찾아서 출력해서 집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 이런 걸 할 수 있는 '엄마표'를 많이 했었거든요." 심층면담_3차(20230921)

"가정교육만 하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육아휴직 더 길게 써서. 그런 친구들 가만히 보면은 되게 말이 빠른 것 같은 거예요." 심층면담_2차(20230830)

"그래서 일부러 하교 후에도 항상 엄청 덥고 이래도 한 시간 될 때까지 10분, 15분, 30분 이렇게까지 놀게 하고 친구들이랑 항상 학교 놀이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심층면담_3차(20230921)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스스로 배변 처리하는 거랑 젓가락질이랑 한글이랑 그다음에 수학 기본적으로랑 줄넘기는 하고 들어가야 된다." 심층면담_3차(20230921)

3) 발달과 학습 격차에 대한 인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또래 아동과의 격차가 발생했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팬데믹 기간 중의 단절 없는 사교육 이용, 담임교사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언급되었고, 다소 걱정했던 또래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동의 회복탄력성을 경험하면서 안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팬데믹이라고 해서 교육을 이제 조금 쉬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에서 진행했던 사람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진행했던 사람의 그 격차가 지금 와서 명확하게 보이기는 해요." 심층면담_3차(20230921)

"와중에도 이제 굴하지 않고 이제 영유(영어유치원)라든가 사교육의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랑 지금 와서 보면 차이가 나는 게 보여요." 심층면담_3차(20230921)

"학교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상관없다. 담임 선생님이 정말 재량에 따라 다르다고" 심층면담_3차(20230921)

"걱정스럽긴 했는데 그런대로 또래 집단들하고 잘 어울리고 크게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을 때도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심층면담_1차(20230809)

"친구랑 같이 들어왔는데 못 놀더라고요. 겁도 많고 근데 그런 게 한두 번 또 데려가고 놀이터도 더 자주 데려가고 하니까 또 금방 또 따라잡더라고요." 심층면담_2차(20230830)

한편 자녀의 발달 및 학습 특성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요즘 아이들의 특성으로 수용하기도 하고, 영유아기 마스크 사용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언어발달에 대해서도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으로 인해 앞으로의 아이들은 미래 사회의 어떠한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초등학교 고학년들이나 볼 만한 그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코로나의 영향보다는 그냥 흐르는 요즘 아이들 특성인 것 같습니다." 심층면담_3차(20230921)

"마스크 쓰는 게 좀 마스크 쓰면 입모양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을 되게 늦게 했거든요, 첫째가. 생일이 느리기도 하고 이래서 그래서 걱정이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극복이 되더라고요." 심층면담_3차(20230921)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극복을 조금씩 하고 있지 않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심층면담_3차(20230921)

"우리 애가 미래에서 이런 정도의 위기를 겪게 된다면 그 단계에서 굉장히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아이가 되려면 어떤 거를 좀 이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냥 뭔가의 배움보다는 좀 마음이 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심층면담_3차(20230921)

2.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인지 및 언어발달 변화: 임상사례 분석

아동은 재난 상황에서 큰 고통을 겪는 취약 대상으로(정익중, 2020), 재난으로 인한 강제적인 일상의 변화는 전방위적인 스트레스 원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 언어 및 사회정서발달의 위기를 초래하였다(Gruber et al., 2020). 특히 영유기를 포함한 아동기 동안은 발달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시기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아동 누구나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리인 발달권과 교육권에 심한 손상을 입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적 돌봄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이후 서비스 이용의 양

과 돌봄의 질에 의해 취학 전 출발선 평등은 저해될 수 있으며, 생애 초기 주요 서비스 이용과 돌봄 환경의 경험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이후 발달경로에 차이가 예상되었다(최윤경, 2020).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의 생애발달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발달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중재 요구가 제안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코로나19 팬데믹과 영유아 발달의 연관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염병 재난 상황이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걸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이 시기를 보내는 동안 발달에 취약성을 보이는 아동에 대해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실제로 아동의 상담 및 심리치료와 발달 재활 서비스를 실천하는 아동 임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학령 전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인지 및 언어와 사회정서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호소 문제 및 이상적 반응을 다각적인 발달 영역에서 임상적 근거자료로 확보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임상 전문가의 시각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학령 전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사회, 정서, 언어와 인지 발달과정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한 개입과 지원 측면에서 그간 양적 데이터 분석 중심의 접근방법에서 탈피하여 아동 임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임상적 증상 및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및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확인·분석하여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아동의 보육, 교육과 임상 장면 등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와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정책지원 체계의 구성과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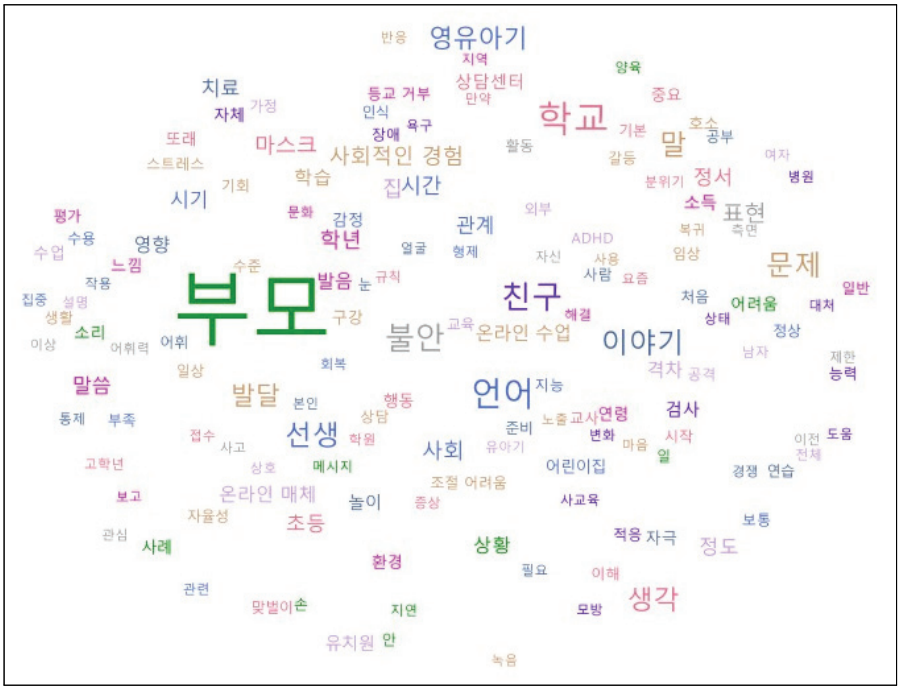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임상 사례를 중심으로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인지 및 언어발달 변화와 영향요인을 알아보고자 연구참여자 7인 전체 그룹의 심층 면담 자료에 대해 주제분석과 내용분석을 하기 전에 주요 키워드를 찾고, 이를 전체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해 빈도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와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Ⅲ-2-1〉과 [그림 Ⅲ-2-1]과 같다.

〈표 Ⅲ-2-1〉 전체 참여자 그룹의 빈도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

순위	키워드(빈도)	순위	키워드(빈도)
1	부모(558)	6	문제(136)
2	학교(202)	7	선생(134)
3	언어(170)	8	이야기(133)
4	친구(157)	9	말(131)
5	불안(151)	10	영유아기(109)

본 연구결과, 키워드는 부모(558)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학교(202), 언어(170), 친구(157) 등이 상위에 나타났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임상 장면에서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발달 변화 및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주요 주제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언어와 인지 발달 영역에서 각각의 변화 내용과 영향요인에 대해 주제분석을 통한 질적 자료를 탐색하였고, 내용분석을 하였다.

[그림 Ⅲ-2-1] 전체 참여자 그룹의 워드 클라우드



가. 언어발달 변화

아동 임상 전문가 7인의 임상 사례 경험을 통해 인식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언어발달 변화에 대한 응답을 내용 분석한 결과, '전반적 언어발달', '표현 언어발달', '수용 언어발달', '읽기와 쓰기', '상호작용의 질'과 '재활·상담 효과'의 여섯 가지 범주가 추출되었다. 그 구체적인 결과는 〈표 Ⅲ-2-2〉와 같다.

〈표 Ⅲ-2-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임상 사례에서 나타나는 언어발달의 변화

단위: 명

유목	범주	세부 내용	빈도
전반적 언어 발달	전반적 언어 발달 지연	- 최근까지 언어발달 지연의 주호소 문제 지속됨	5
		- 영유아기 지연 문제가 학령기까지 지속됨	5
		- 언어발달 지연이 학령기 학업 문제로 확대됨	5
		- 원래 발달 지체의 경우 더 심각한 지체 지속됨	4
		- 기질적 특성(예민함, 불안) 취약한 경우 지체 지속됨	3
		- 장애 구간보다 지체 구간 진단 아동 급증함	2
		- 학습장애(난독증, 읽기쓰기장애)의 경우 더 지체 지속됨	2
		- 최근 언어발달 지연 호소 문제 증가함	1
		- 코로나19에 급증한 언어발달 지연 호소 문제 최근 급감함	1
		- 마스크 벗은 후에도 지연 지속됨	1
	연령 격차	- 영유아기 언어발달 지연 호소 문제 지속됨	4
		- 영유아기 언어발달에 더 심각한 지체 나타남	3
		- 6세(학령기) 이후 지연 현상은 덜 심각하게 나타남	3
	합계		**39**
표현 언어 발달	표현 언어	- 최근까지 표현 언어발달 지체 나타남	5
		- 표현 어휘력 부족	3
		- 발화 양 대비 표현 어휘 질 수준 저하	1
	조음 문제	- 발음 부정확 호소 문제 지속됨	6
		- 학령기에 부합하지 않는 유아기 말투	4
		- 늦은 발화 시기	3
		- 학령기 조음의 지체 문제 호소 지속됨	3
		- 연령에 따른 발음 습득 지체	3
		- 이상하거나 어색한 말투	2
		- 발성이 작거나 내지 못함	2
		- 부적절한 억양	1
		- 원순모음을 평순모음으로 발음	1
		-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음(부모도 못 알아들어서 호소)	1
		- 마스크 벗은 이후에 자연 회복됨	1
		- 마스크 벗은 이후에도 조음 문제의 자연 회복 어려움	1
	구강 기능 미숙	- 말의 분절화 및 세분화 어려움 지속됨	2
		- 구강 움직임 미숙하거나 거의 없음	2
		- 유아기의 옹알이와 같은 구강 움직임	1

유목	범주	세부 내용	빈도
	양극화	- 우수와 지체 아동 사이의 격차 커짐	6
		- 양육환경에 따른 표현 어휘력 격차 커짐	5
		- 표현 어휘력의 평균 수준 분포 감소	3
	지능과 부조화	- 지능에 비해 표현 어휘력 저하	4
		- 표현언어 미숙으로 지적장애로 오인되는 경우 많음	3
	정서 문제	- 발음 문제가 정서문제(자존감, 자신감 저하)로 확대	6
		- 학령기의 연령에 맞지 않는 표현 방식(떼쓰기, 울음)	2
		- 말로 표현하기보다 행동으로 표현(울음, 폭력 등)	2
	합계		**73**
수용 언어 발달	수용 어휘력	- 수용 어휘력 발달지연 미발견	4
		-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 나타남	4
	수용과 표현 언어 부조화	- 수용 언어에 비해 표현 언어발달 지체됨	4
		- 문장 구조와 문법 오류는 없으나 어색하거나 부적절함	2
		- 지시 수행을 못하는 경우 많음	2
		- 이해력은 좋으나 말하지 않거나 제한된 표현	1
	합계		**17**
읽기와 쓰기	읽기 쓰기 능력	- 교사의 읽기와 쓰기 지체 평가와 피드백에 따라 내원함	2
		- 학습장애(난독증)을 지닌 경우 지연이 더 심각함	2
		- 글 이해도 및 쓰기에 비해 성의 없게 읽음	1
	합계		**4**
상호 작용 의 질	소통의 질 저하	- 대화 시 소통(상호작용 수준)의 질 저하	4
		- 일방적인 의사소통	3
		-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오인	3
		- 눈맞춤 없거나 짧음	3
		- 대화 시 초점이나 맥락에 맞지 않음	2
		- 의도성과 목적성이 부재한 소통	1
		- 얼굴 보고 대화하지 않으려 함	1
	자기 표현 제한	- 감정이나 의견의 언어표현을 하지 않거나 빈약함	4
		- 상황에 맞은 언어표현의 부적절함 혹은 행동화	2
		- 과잉된 언어 반응	1
		-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려 함	1
	대인 관계	- 부적절한 언어표현 등으로 또래 갈등으로 확대	5
		- 어른과 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또래 간 소통에 어려움	1
	합계		**31**
재활 · 상담 효과	치료 대상 발견 어려움	- 조기 혹은 적절한 시기에 발견되지 못함	3
		- 유치원 교사와 학교 교사에 의해 발견됨	3
		- 세밀한 진단검사가 아니어서 발견되지 못함	3
		- 보육기관 및 유치원 교사 등에게 발견되지 못함	1
	치료 효과 지연	-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 시간 오래 걸림	4
		- 학령기 발견 후 지체 지속	3
		- 마스크 벗은 이후에도 치료 시간 오래 걸림	2
		- 입 모양 모방 능력의 지체	2
		- 청각으로 말을 배워 치료의 효율성 떨어짐	1
		- 기질적인 특성에 따른 치료 효과 다름	1

유목	범주	세부 내용	빈도
	치료 효과 상승	- 치료 효과가 커짐	5
		- 영유아기 조기 발견 시 개선되는 경우 많음	3
		- 실생활에서 발화 연습과 소통이 많은 경우 효과 상승	3
		- 경미한 지연 아동들은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남	3
		- 마스크 벗은 이후 치료 시 눈맞춤 길어짐	2
		- 장기간 치료 유지 시 효과가 나타남	1
	합계		**40**
총합			**200**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 임상 전문가의 임상 사례를 통해 인식된 언어발달 변화는 '전반적 언어발달 지연', '표현 언어발달 지연과 부조화',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의 발달 부조화', '읽기와 쓰기의 어려움', '상호작용의 질 저하'와 '임상 장면에서 재활·상담의 효과'의 여섯 가지 주제로 분류되었으며, 각각의 주제에 따른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반적 언어발달 지연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최근까지 근무하는 기관에서 언어발달 지체를 주호소 문제로 한 내담 아동의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비슷하게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가했으며, 특히 영유아의 언어발달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급증했던 언어발달 지연의 주호소 문제가 최근 급감하였다는 보고도 있었다.

> "올해 언어 검사에서 발달 지체인 아동들이 훨씬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달 지체라는 게 검사했을 때 평균에서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이내가 발달 지체이고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이후는 발달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발달 지체 범주로 떨어진 애들이 많다는 거죠." (연구참여자 1)

> "일단은 영유아 아이들이 언어발달이 느려서 내원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근데 전에는 발달지연에 그 양상이 진짜 많이 발달이 많이 느려서 늦은 아이들이 좀 왔다. 그러면 지금은 사회 언어 이게 문제가 돼서 오고 치료를 좀 하다 보면 개선되는 경우들이 더 좀 보이는 것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7)

> "제가 이 기관에 20년을 있었지만 이렇게 언어를 주호소로 애들이 많이 올 수도 있구나 할 정도로 3살, 4살 이때 언어 지연을 주호소로 왔어요. 기존 언어치료 선생님이 파트로 이틀 나오고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그 나머지 4일을 맡아줄 언어 선생님을 새로 뽑을 정

도로 언어가 확실하게 문제가 됐었고, 작년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줄어서 올해는 아주 눈에 띄게 많이 줄어서." (연구참여자 4)

2) 표현 언어발달 지연과 부조화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임상 장면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언어발달의 변화에 있어, 특히 표현 어휘력의 지연과 발음의 부정확 등 조음 문제 정도가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었으며, 가정의 양육환경에 따른 표현 언어발달의 지연 문제와 지능과의 표현 언어의 부조화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언어 쪽에서 보면 제가 임상에서 느낀 거는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표현 언어가 많이 떨어지고요. 수용 언어보다 표현 언어가 많이 떨어지고 발음이 부정확한 아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능이 떨어지지 않아도 임상에서 볼 때 예전보다 그런 아동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원래대로라면 충분히 발음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나이지만 얘가 쫓아 와야 하는데 끝인 거예요. 입 모양을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으니까. 아마도 가장 큰 건 마스크 때 영향으로 언어 자극이 통합적으로 갔어야 하는데 단순한 청각적인 것들로만 가지 않았을까 코로나가 해지되고 애들이 마스크를 벗고 저희한테 왔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느끼는 것 중에 문제는 구강 움직임이요. 구강의 움직임이요 매우 미숙해요." (연구참여자 2)

"맞벌이 부모님이라든가 할머니랑 같이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외동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언어 자극이 현저하게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이런 아이들이 표현 언어적인 부분에서의 지연 문제가 확실히 대두가 돼서 피부로 느꼈어요." (연구참여자 4)

3)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의 발달 부조화

수용 언어발달에 대한 지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대부분이 표현 언어와의 부조화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수용 언어와 표현 어휘력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3학년 아이들 검사하러 나가서 어휘 검사에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 아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게 표현 어휘 측면이거든요. 이제 수용 어휘는 지능하고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수용 어휘가 떨어진다는 건 지능이 떨어진다는 의미도 되니까 일반적으로 애들이 지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수용 언어의 폭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표현 어휘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어머님들도 하시고." (연구참여자 1)

4) 읽기와 쓰기의 어려움

본격적으로 등교가 시작된 이후부터 최근까지 학습 과정에서 읽기와 쓰기의 어려움에 대해 학교 교사의 평가와 피드백으로 의뢰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 "학습장애 중에서도 읽기나 쓰기 장애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코로나 동안은 줌 수업을 하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인지 학습에 대한 문의 특히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아이가 한글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피드백을 주셔서 이제 발견해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5)

5) 상호작용의 질 저하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 아동 모두 연령에 상관없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상호작용의 질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보고하였다.

> "가장 큰 거는 아이들이 말을 하면 원래는 상호작용을 하려는 의도성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말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그 마음을 주면서 저희도 언어로 자극을 주고 있는 건데... 아이들이 얼굴을 잘 안 쳐다봐요. 약간 과한 비유이긴 하지만 약간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나 봐야지, 봐야지! 해야 나 쳐다봐 주는 것처럼 그냥 아무런 장애 군이 아닌 일반 아이들인데." (연구참여자 2)

6) 임상 장면에서 재활·상담의 효과

임상 장면에서 언어 재활 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치료 효과가 더디었던 반면에 마스크를 벗고 난 이후 치료를 진행하였을 때 정확한 문제점 발견이 가능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반면, 늦게 발견된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거나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었다.

> "정상 발달 아동인데 이제 정말 발화 자체가 좀 늦게 되는 경우도 자극을 주면서 좀 나아지는 게 분명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이내에 변화되는 거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된 거라고 보여서 그런 친구들이 좀 왕왕 보인다는 게 코로나 때와 좀 차이였던 것 같고" (연구참여자 7)

>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이제 애들이 얼굴을 보고 마스크를 벗고 자기들도 이제 적응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되는데 구강 움직임은 자연 회복이 안 돼서 오더라고요.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구조나 기능에 문제없는 장애 아이가 아닌 일반 아이들이니까 알아서 회복해 올라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애들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애들이 순한가보다 그러니까 엄마들도 얘네들이 말이 그렇게 느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

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자기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 기회가 없으니, 학교를 코로나 때 입학한 아이인데 집에서 놓치는 경우 많이 떨어져서 치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연구참여자 2)

나. 인지발달 변화

아동 임상 전문가 7인의 임상 사례 경험을 통해 인식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인지발달 변화에 대한 응답을 내용 분석한 결과, '전반적 지능발달', '상위 인지기능', '기초학력', '사회인지능력'과 '디지털 매체 활용'의 다섯 가지 범주가 추출되었다. 그 구체적인 결과는 〈표 Ⅲ-2-3〉과 같다.

〈표 Ⅲ-2-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임상 사례에서 나타나는 인지발달의 변화

단위: 명

유목	범주	세부 내용	빈도
전반적 지능 발달	지능 발달	- 정상 수준의 분포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비슷함	3
		- 정상임에도 지적장애로 오인	3
	부조화	- 지능과 맞지 않는 행동 양상	2
		- 머리만 커졌다는 느낌	1
	합계		**9**
상위 인지 기능	조절 통제력 저하	- 자기 통제 및 조절 능력 떨어짐	4
		- 문제 해결 및 대처 능력 미숙	4
		- 충동성 높음	3
		- 쉽게 지루해하거나 버티는 힘 취약함	3
		- 쉽게 흥분함	2
		- 즉각적 반응 요함	2
		- 자극에 예민, 자극 처리 부족	1
	주의력 및 집중력 저하	- ADHD 아님에도 ADHD로 오인	4
		- 집중력 저하	4
		- 학교 수업에서 주의력 결핍 및 산만함	4
		- 유치원 등원 및 등교하면서 교사가 문제 발견	3
	합계		**34**
기초 학력	기초 학력 저하	- 학년 상승에 따른 기초학력 부족으로 어려움 호소 증가함	5
		- 기초학력 부족에 대한 교사의 발견 및 피드백이 증가함	4
		- 수학 과목에 대한 어려움 호소가 저학년에서 보고됨	2
		- 학업 경쟁과 성적 비교에 대한 불편감 호소	2
	양극화	- 학업 우수와 부진 아동 간 격차 커짐	4
		- 학업 성적의 평균 수준 분포 감소	2
		- 성적 향상에 초점을 두는 양육 분위기 더 커짐	2
	합계		**21**
사회 인지 능력	조망 수용 부족	- 조망수용능력(타인이해, 상대방 의도 파악 안됨) 저하	4
		- 학령기 아동의 자기중심적 사고에 머무름	3
		- 연령 증가에도 사회인지(마음이론) 발달 지체가 나타남	2

유목	범주	세부 내용	빈도
	규칙에 대한 인지	- 학교생활에서 규칙의 내면화와 이해 능력이 부족함	2
	합계		**11**
디지털 매체 활용	순기능	- 컴퓨터 및 디지털 매체 활용 능력 높아짐 - 영유아기의 디지털 매체에 대한 친숙함	2 2
	역기능	- 디지털 매체 사용 시간 많아짐 - 인터넷 게임 노출 시기 저연령화 - 스마트폰 중독 및 게임 중독 증가 - 영유아기부터 스마트폰 및 디지털 미디어 방치 증가 - 디지털 매체 사용으로 학업 성적 부진으로 연결 - 오픈 채팅방 등 이용으로 사이버 범죄에 취약해짐	4 4 4 2 2 1
	합계		**21**
총합			**96**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 임상 전문가의 임상 사례를 통해 인식된 인지발달 변화는 '지능과 부조화된 행동 양상', '상위 인지기능의 미숙', '기초학력 저하에 따른 어려움', '사회 인지능력의 미발달'과 '디지털 매체 활용의 역기능'의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되었으며, 각각의 주제에 따른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능과 부조화된 행동 양상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검사를 통한 지능발달에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면서도 지적장애로 오인되거나 지능과 부조화된 행동 양상에 대해 주요하게 보고하였다.

> "보통은 발달 지체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능에 아무 문제가 없는 2학년인데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 글에서 다 알려줘야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게, 지능에 문제가 있는 친구도 아니고 사실은 자연스럽게 배워 왔어야 되는데 어떤 사회적인 매너나 이런 것들이 되게 미숙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연구참여자 6)

2) 상위 인지기능의 미숙

조절 및 통제력의 어려움과 산만함 및 집중력 저하 등 상위 인지기능의 미숙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보고되었다.

"엄마는 ADHD 아니냐 그러는데 종합심리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ADHD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불안에 의해서 산만함이 나타나는 거라든가 근데 나타나는 양상은 너무 충동적이고 막 즉각적이고 산만하니까 ADHD가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아닌 경우들이 꽤 많아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나 담임교사가 뭔가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이제 학습하는 시간에 주의력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전에 봤던 예를 들어 오리지널 ADHD 아이들의 모습은 아니예요." (연구참여자 6)

3) 기초학력 저하에 따른 어려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업 수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이후에 기초학력 저하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우에 상위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가정학습 상황에서도 부모의 관심과 사교육을 받은 아동과의 학력 편차가 크다는 보고가 있었다.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입학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면 사실 기초학력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저소득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수학이랑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학업적인 흥미를 너무 일찍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학이든 국어든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되는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이 줌이라고 하는 수업을 하기는 했지만, 집에서 부모님이 케어해 주시는 아이와 다르게 그 아이들은 거의 그냥 방치였거든요." (연구참여자 5)

4) 사회인지 능력의 미발달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에서 유아기 사고 수준인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으며, 상대방의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전반적으로 미발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학교에서는 규칙이나 자기가 지금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하는 상황에도 잘 지시 수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또래 관계의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자기중심적으로 대처하고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때를 전혀 수용하지 못한다거나 선생님을 대하는 것도 되게 어리게 뭐만 있으면 선생님한테 계속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표현을 하는 경우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됐으면 달라져야 하는데 아직도 유치원에 유치원생 같은 느낌" (연구참여자 6)

5) 디지털 매체 활용의 역기능

디지털 매체 활용이 영유아기까지 일반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용 시간도 길어짐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그 이후에 이른 시기에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 등 역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를 대부분 보고하였다.

> "아이들이 줌으로 많은 수업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컴퓨터를 활용하는 건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컴퓨터를 더 많이 접했기 때문에 나중에 게임도 더 많이 빠지고 문제가 생긴 아동이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런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활용을 많이 잘한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연구참여자 1)

다. 영향요인

아동 임상 전문가 7인의 임상 사례 경험을 통해 인식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인지 및 언어발달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의 응답을 내용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건강 및 안전', '가족배경 및 양육환경', '아동 개인 특성', '보육 및 교육기관', '악순환 구조' 등의 다섯 가지 범주가 추출되었다. 그 구체적인 결과는 〈표 Ⅲ-2-4〉와 같다.

〈표 Ⅲ-2-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임상 사례에서 나타나는 인지 및 언어발달의 영향요인

단위: 명

유목	범주	세부 내용	빈도
코로나19 건강 및 안전 요인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으로 소통 기회 제한	7
		- 마스크 착용으로 모방 기회 제한	4
		- 시청각, 통합적 자극으로 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부재	2
	마스크 미착용	- 마스크 벗고 치료 시 효과 높음	3
		- 마스크 벗고 치료 후 발음이 명확해짐	2
		- 소통 시 표현(표정)이 다양할 수 있음	2
	사회적 거리 두기	- 다양한 관계를 통한 소통 경험부족	3
		- 관계 단절, 고립적 환경으로 소통 기회 부족	2
		- 비교 대상 부재로 지연 문제 늦게 발견	2
	합계		**27**
가족 배경 및 양육	가족 배경	- 맞벌이 가정	6
		- 조부모 돌봄 가정	5
		- 부모의 학력	3
		- 저소득층	3

유목	범주	세부 내용	빈도
환경 요인	부모 양육 태도	- 한부모 가정(이혼 가정)	2
		- 외동이	2
		- 다문화 가정	2
		- 보호 요인으로 고소득 가정	2
		- 보호 요인으로 형제관계(다자녀 가정)	2
		- 저해 요인으로 형제관계(다자녀 가정)	2
		보호 요인	
		- 가족 배경과 상관 없이 모의 교육 열의(관심)가 높음	4
		- 부모와 상호작용 활발, 자극의 충분함	4
		- 자율성이 높은 양육태도	3
		저해 요인	
		- 방임된(방치되어 있음) 양육태도	6
		- 지적 자극의 결여 및 제한, 소통 부족	4
		- 과잉보호	3
		- 통제된 양육태도	3
		- 양육환경에서 잘못된 강화 방식	2
		- 잘못된 양육 정보(맘카페 등 비전문, 선택적 정보 습득)	2
	합계		**60**
아동 개인 특성 요인	아동	- 발달지체나 장애를 지닌 경우 더 취약함	5
		- 연령이 낮을수록 발달지연을 가져옴	5
		- 기질적(성격적) 특성	3
		- 우수한 지능은 치료 효과 향상을 가져옴	1
	합계		**14**
보육 및 교육 기관 요인	보육 기관 및 학교 환경	- 다양한 상황에서 소통 및 체험 학습 기회 제한	7
		- 수업의 일방적 자극과 소통 방식	4
		- 발표나 토론 수업 부재 및 제한	3
		- 마스크 착용하고 보육기관 오래 머무름(종일반)	3
		- 자기표현의 기회 부족	3
		- 말하지 않는 아동을 모범적으로 보는 교육환경	3
		- 발성, 말하지 않는 보육 및 교육환경	2
		- 소통이나 표현 기회 부재로 교사의 선별 제한	2
		- 책을 소리 내어 읽어보는 학습 기회 적음	2
		- 순하고 조용한 아이 선호(칭찬, 강화) 분위기	2
		- 말소리 큰 아동은 문제 아동으로 보는 시각	2
		- 안전에만 집중하는 통제 환경	2
		- 쉬는 시간의 친구와 대화 기회 부족	1
		- 학교를 다녀본 경험과 시간 부족	1
		- 사교육 제한이나 부재	1
		-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 부족으로 부모와 의논하지 않음	1
	온라인 수업	- 온라인 수업의 일방적 자극의 상호작용 제한	4
		- 디지털 기기 일반화로 사용 시간이 대폭 증가함	4
	합계		**47**
악순환 구조 요인	영유아기	-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등 가정배경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관계 단절적인 고립 환경 심화 → 모의 양육 스트레스 높아짐 → 부모 관심 부재 및 디지털 매체로 도움, 보육시설 마스크 사용으로 표현 및 모방 기회 부재 → 디지털 기기 과다 사용, 소통 기	3

유목	범주	세부 내용	빈도
		회 부족으로 발음 부정확, 표현 어휘 떨어짐 → 발화 시 교사 되묻는 질문 및 친구 관계에서 오해 많아짐 → 자신감 저하, 자존감 하락 → 표현 언어발달 더욱 지연됨	
	학령기	- 온라인 수업 → 맞벌이 가정 등 부모 관심 부족 혹은 방임적 양육태도로 수업 소홀 → 디지털 매체 활용 시간 늘어남, 저연령화, 게임 시간 통제 조절 어려움 → 스마트폰 및 게임 중독 문제 발생, 기초학력 저하 → 부모자녀 관계 갈등 심화, 학업 부적응 초래 → 학업 자신감 저하 → 학업 수행 능력 더욱 지체	4
		- 맞벌이 가정 등 부모 관심 부족 혹은 통제와 감시 위주의 양육태도 → 온라인 수업의 일방적 의사소통 → 관계 소통 질 저하 → 관계 갈등 상승 → 교사 및 또래 관계 문제 발생 → 학교생활 부적응 및 등교 거부 → 학업 수행 능력 더욱 지체	3
	합계		**10**
총합			**158**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 임상 전문가의 임상 사례를 통해 인식된 언어 및 인지 발달 변화의 영향요인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건강과 안전', '가족배경', '부모역할 및 양육태도', '아동 개인 특성', '보육 및 교육환경', '디지털 매체'와 '악순환 구조' 요인 등의 일곱 가지 주제로 분류되었으며, 각각의 주제에 따른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건강과 안전 요인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건강과 안전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관련된 고립 환경에 따른 언어발달을 저해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 "마스크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고 언어발달에도 비효율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못 보니까 모방할 수 있는 언어는 몸 제스처까지 다 해서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들을 놓고 보면 약간 청각 자료로만 언어를 배우는 느낌 그러니까 더딜 수밖에 없었어요." (연구참여자 2)

2) 가족 배경 요인

맞벌이, 한부모, 조부모 돌봄 가정, 다문화 등의 가족 구조와 소득수준 및 부모의 학력 등 가족 배경에 따른 발달 및 학습 편차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보고하였다.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다문화 아이들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지만 보통 아이들이 학원은 다녔잖아요. 학교는 안 다녔지만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들은 주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주로 시간을 보내거든요. 거기서는 제가 볼 때는 학원을 보내거나 학습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아동들을 맡아주는 기관이에요. 엄마가 맞벌이거나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니까 오후에 2시부터 어머님 올 때까지 그냥 맡아 주는데, 아동들끼리 마스크 쓰고 놀게 하고 간식이나 밥 주고 그런 의미였지 지식적인 전달이나 학습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1)

3) 부모 역할 및 양육태도 요인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각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통제적 양육태도나 과잉보호와 같은 부적절한 양육태도에 대한 발달 저해 요인에 대해 주요하게 보고하였다.

"인지적인 접근을 좀 많이 하는 태도들을 보이시니까 행동 통제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셔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이의 욕구가 어떤 게 있었고 이걸 조금 찾아주셔서 근본적으로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 채워 주시면서 훈육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계속 설명을 드렸어야 되었어요. 계속 그전에는 부모님의 통제가 좀 많이 늘어나셨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여유가 좀 없어지시고 생존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강력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불안정성이 코로나 끝나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에 집중이 되면서 아이들도 사회적인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조금 더 많이 집중하는 그 모습이 더 많이 느껴지고 학부모님들과도 얘기하면서도 그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3)

4) 아동 개인 특성 요인

아동의 개인 특성으로 기질적인 특성 및 연령에 따른 민감한 시기 등에 대한 영향력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유아기 만 3세에서 학령 전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언어가 완성되는 시기거든요. 보통 언어가 완성되는 시기를 초등학교 1학년 정도로 본다면 저학년 때까지는 상위 언어가 발달하는 상황이니까 이 시기가 언어발달에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평가를 할 때도 조음이라든지 발음이 부정확하다든지 혹은 언어발달이 좀 늦다든지 할 때 그 치료의 시점이 만 3세예요. 유아기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아기 때는 언어발달이 어느 정도 잘 되어야 하는데 이때 늦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오히려 7살 이 정도 돼서 코로나를 맞았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느 정도 언어가 완성된 시기기 때문에 좀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아기 만 3세,

4세 아동들은 그때 떨어지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연구참여자 1)

"기질적인 특성도 있는데 환경적인 게 플러스가 되니까 이게 나이가 먹어도 개선이 되지 않다가 치료하면서 그래도 경험을 하면 연결을 시켜주면 나아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여태껏 안 됐네. 어쨌든 이게 지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기 때부터 뭔가 이렇게 교류가 쌓여서 발달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더디 가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7)

5) 보육 및 교육환경요인

어린이집 및 학교(유치원)의 보육 및 교육기관의 환경요인과 학습 상황에서 제한된 경험 등과 관련한 영향요인에 대해 보고하였다.

"어머님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내용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얘네들이 학교를 안 갔다는 거예요. 3학년 1학기 때 처음 학교를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도 없었고, 1~2학년 때는 거의 집에서 있다가 3학년 때 갔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책 읽고 왔다 갔다 그런 거 많이 했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학교 수업을 받거나 그런 건 줌으로 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나 어머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

"친구들을 만지지 않고 선생님이 하라는 건 하고 되게 조용하고 순한 아이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 마스크를 밥 먹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먹을 때 그때밖에 벗지 않잖아요." (연구참여자 2)

6) 디지털 매체 요인

온라인 수업으로 모든 아동에게 일반화되고, 디지털기기 사용이 영유아기까지 저연령화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주로 보고하였다.

"코로나에 감염될까 걱정이 제일 컸던 것 같고 청결 강박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사람이랑 접촉하는 것 자체를 피하는 거 너무 사람 좋아하고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인데 그렇게 외부 활동 자체를 안 하니까 2차적으로 불안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진짜 계속 이렇게 악순환인데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또 너무 많이 해요. 게임 중독 맞아요. 진짜 많아요. 게임 중독을 뺄 수 없네요. 진짜 온라인과 게임 이 패드 안 하는 집이 없고 그 노출 시기가 너무 빠르고" (연구참여자 7)

7) 악순환적 구조 요인

문제가 되는 원인과 결과가 상호 연결되어 있어 원인에 따른 문제가 심화되면서 원인이 더 가중되고 그에 따른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적인 구조로 그 영향요

인을 설명하고 있었다.

> "이 아이가 이해하는 거랑 지능은 다 괜찮아도 얘가 발음이 부정확하다 발음을 잘 못하는 발음이 몇 개가 있다. 그러면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친구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혹은 발표를 했을 때 그게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니까 친구들이 재차 묻게 되고 선생님도 뭐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동들이 친구 관계를 맺는 데에서 아무래도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말도 잘 안 하게 되고 자기가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걸 알면 표현을 자꾸 안 하다 보니까 또 표현 언어가 더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1)

>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미 학업에 대한 흥미는 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자존감도 낮아지고 학교에서의 적응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보통 부모님이 오셨을 때는 너무 핸드폰만 봐요. 통제가 안 돼요. 조절에 문제가 있어요.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와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고 그게 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문제들로 두드러지는" (연구참여자 5)

라. 지원 방안

아동 임상 전문가 7인의 임상 사례 경험을 통해 인식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인지 및 언어발달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내용 분석한 결과, 진단·치료, 부모, 교육기관, 아동과 예방의 다섯 가지 범주가 추출되었다. 그 구체적인 결과는 〈표 Ⅲ-2-5〉와 같다.

〈표 Ⅲ-2-5〉 인지 및 언어발달 격차 해소 지원 방안

단위: 명

유목	범주	세부 내용	빈도
진단 치료	언어 발달 검사	- 세밀한 언어 진단 검사 필요	4
		- 정확한 스크리닝	3
		- 조기 발견을 위한 개입 방안 마련	3
		- 치료가 필요한 아동과 일상적인 학습 지원 아동 구분 필요	2
		- 학교 등의 공통 검사보다 전문가를 통한 검사 실시와 해석	1
	수준 고려	- 경미한 지체 아동의 경우 다양하게(친구와 대화, 발표 수업, 토론활동, 이야기 나누기 등)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 정상 지능이라면 독서 논술 스타일 학습 방식 지원 도움	1
	임상	- 자존감 손상 없도록 놀이와 결합된 훈련 및 치료 기회 제공	2
	합계		**21**
부모	부모 교육	- 올바른 모방 학습 기회와 다양한 소통 활동 증진 교육	5
		- 양육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3
		-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녀교육필요	3
		- 자녀의 발달단계 맞은 부모역할 교육	2

유목	범주	세부 내용	빈도
		- 부모를 가정 내 언어 치료자로서 교육필요	2
		- 잘못된 양육 정보 및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코칭 필요	1
	가족 배경	- 맞벌이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마련	4
		- 영유아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확대	1
	합계		**21**
교육 기관	학교 교육 환경	- 학교(유치원)에서 발달지연 발견 시스템 마련	3
		- 학업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마련	2
		- 다양한 소통과 체험 학습(발표 및 토론)의 기회 마련	2
		- 교사들와 학부모 간 신뢰로운 소통할 수 있는 방안 필요	1
	합계		**8**
아동 연령 고려	학령기	- 표현 어휘력 증가를 위해 습득한 어휘 및 논리적 표현 연습	1
	영유아기	- 실생활 사용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자극 제공	2
	합계		**3**
예방	예방 차원	- 발음의 문제가 정서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	2
		- 표현 언어 문제가 또래관계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	2
	합계		**4**
총합			**57**

주요 내용으로 아동 임상 장면에서 정확한 언어발달의 진단을 위한 지원, 부모 교육 및 양육환경 지원, 보육 및 학교 차원의 지원,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책 마련과 언어 지연과 인지기능 미숙의 문제가 정서 및 대인관계 문제로 확대되지 않기 위한 예방 차원의 지원 노력을 강조하였다.

> “부모의 관심이 학습이나 어떤 인지발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양육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부모 역할을 점검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자주 안내하고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 ”검사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선별하는 기능은 할 수 있지만 어느 부분이 떨어지는지 이해 언어인지 표현 언어인지 발음 부분인지 혹은 상위 언어 개념이 있는지 맥락을 이해하는지 그런 파악이 어려우니까 만약에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다 세밀한 언어 진단 평가를 받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연구참여자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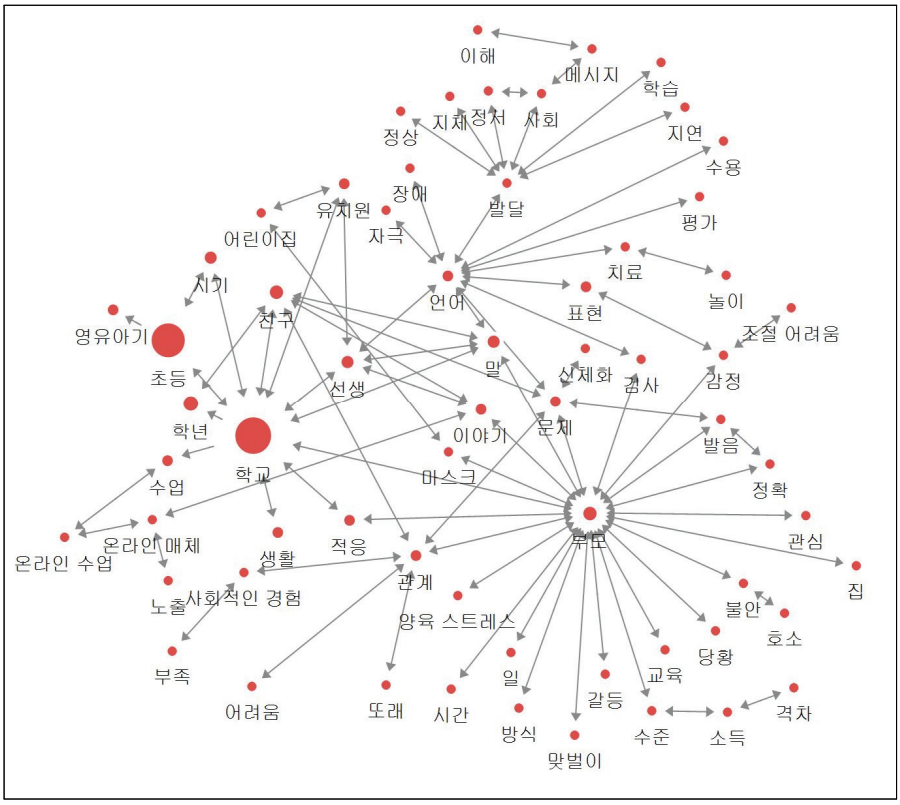
> ”만 3세가 넘으면 모델링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시켜야 돼요. 만약 못하는데 계속 못한다고 엄마가 하드 트레이닝을 하거나 막 훈련을 하면 정말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즐겁게 놀이처럼 훈련하는 걸로 그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발음의 문제가 정서문제로까지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연구참여자 1)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연결 중심성 분석을 통해 추출된 키워드 중에서 네트워크 내 중요한 키워드를 살펴보기 위해 액터에 가중치를 둔 아이겐 벡터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음의 〈표 Ⅲ-2-6〉, [그림 Ⅲ-2-2]와 같다.

〈표 Ⅲ-2-6〉 아이겐벡터 중심성 기반 네트워크 분석: 인지 및 언어발달 변화

순위	키워드	아이겐벡터 중심성	순위	키워드	아이겐벡터 중심성
1	학교	.687	6	선생	.099
2	초등	.641	7	시기	.098
3	학년(연령)	.161	8	말	.086
4	부모	.135	9	언어	.065
5	친구	.104	10	적응	.064

[그림 Ⅲ-2-2] 아이겐벡터 중심성 기반 네트워크 분석: 인지 및 언어발달 변화



연구결과 키워드 간 연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학교(.687), 초등(.641), 학년(연령)(.161), 부모(.135)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이를 내용분석 결과와 종합해 보면, 학교생활과 관련된 영역에서 영유아기 및 초등 저학년 아동, 학년(연령)과 부모와의 네트워크가 가장 많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본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인지 및 언어발달의 변화에 있어 주로 교육기관과 부모에서 보고가 되었고,

연령에 따른 발달 변화 차이가 보고되었던 내용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 요약 및 논의

아동 임상 전문가의 임상 사례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언어 및 인지 발달 변화와 그 영향요인에 대해 내용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임상 전문가의 임상 사례를 통해 인식된 언어발달 변화에 있어 '전반적 언어발달 지연', '표현 언어발달 지연과 부조화',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의 발달 부조화', '읽기와 쓰기의 어려움', '상호작용의 질 저하'와 '임상 장면에서 재활·상담의 효과'의 여섯 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언어발달 변화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대부분의 임상 전문가는 팬데믹 이후에도 최근까지 전반적인 언어발달 지연 호소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반면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급증한 언어발달 지연 문제가 급감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영유아기에는 언어발달 지체 호소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학령기에는 덜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여 연령에 따른 다른 양상이 보고되었다. 특히 표현 언어발달 문제가 많이 제시되었는데 발음 문제가 지속되고, 수용과 표현 언어발달이 균형 있게 발달하지 못하고, 발화 양 대비 표현 어휘력의 저하 등이 보고되었으나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한 이후 학령기 아동의 조음 문제의 지연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다만 가정의 양육환경에 따른 표현 어휘력의 격차가 더욱 커졌으며, 표현 어휘력의 평균 수준의 분포는 감소하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언어적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대화 시 소통의 질이 저하되었으며, 지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오인되는 보고도 있었다. 또한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언어발달 지연 문제가 최근에 와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반면에, 조기 발견이 되거나 마스크를 벗은 최근에는 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에 영유아 발달의 차이 비교에서 교사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언어발달에 가장 많은 격차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최은희, 정지현, 2022)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교사들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유아의 의사소

통 어려움을 호소하며 언어발달 지연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전에 비해 유아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한 최근 연구결과(손고은, 신동주, 2023)와도 맥을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언어치료 및 상담 현장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효과성 감소를 언급하며 마스크 착용이 가져온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 연구(손정화, 최예린, 2022)와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인지발달 측면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 임상 전문가의 임상 사례를 통해 인식된 발달 변화는 '지능과 부조화된 행동 양상', '상위 인지기능의 미숙', '기초학력 저하에 따른 어려움', '사회 인지능력의 미발달'과 '디지털 매체 활용의 역기능'의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인지발달 변화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능의 정상 수준의 분포는 팬데믹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팬데믹 이후에 지능과 맞지 않는 행동 양상을 보이고, 상위 인지기능에서 자기통제와 조절 능력이 떨어지며 문제해결과 대처 능력이 미숙하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최근까지 지속되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초등학교를 입학했던 아동들은 학년 상승에 따른 기초학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그 이후에 학업 우수아와 부진아의 격차가 커지고, 학업의 평균 수준의 분포가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 시간이 많아지고 인터넷 게임에 대한 노출 시기가 영유아 시기까지 저연령화되는 것과 스마트폰 및 게임 중독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의존율을 증가시키고 학업성취 역량을 낮춘다고 보고한 연구(최혜정, 김형관, 2021)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유아기에는 급속한 두뇌 발달과 더불어 중요한 인지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인간만의 고유한 고등 인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상위인지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한다(Flavell, 1979). 상위인지 기능은 영아기에 출현하는 자기조절 능력을 시작으로, 유아기에는 전두엽의 발달과 더불어 학령기에 이르면 안정적으로 발달하게 된다(Diamond, 2013; Hughes & Ensor, 2005). 이러한 상위인지 기능의 발달은 성공적인 학교적응과 학업성취(강수정, 2021; 민미희, 2018; Sasser, Bierman, & Heinrichs, 2015), 언어능력(Deák, 2004), 추론과 연산 능력(Blair & Razza, 2007) 등 긍정적인 인

지발달을 촉진하게 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자체가 지능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상위인지 기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추후 학업적 성취 등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어 영유아 시기부터 상위인지 기능 발달에 지연을 보이는 아동을 조기에 진단하고 발견하여 이에 대한 개입 방안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 임상 전문가의 임상 사례를 통해 인식된 언어 및 인지 발달 변화의 영향요인은 '코로나19 관련 건강과 안전', '가족배경', '부모 역할 및 양육태도', '아동 개인 특성', '보육 및 교육환경', '디지털 매체'와 '악순환 구조' 등의 일곱 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언어 및 인지 발달 변화에 있어 그 영향요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오랜 기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관계 단절과 고립된 환경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나 조부모의 돌봄 가정 등 가족 배경과 부정적인 부모 역할과 양육태도가 발달과 학습의 저해 요인으로 인식하였고, 양육자(특히 어머니)의 관심과 교육 열의를 보호 요인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동이 영아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경우 발달지연이 크며, 발달지체나 장애를 가진 경우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기관 및 학교환경요인으로는 온라인 수업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기기 보급과 사용의 저연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또한 아동 임상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달지연 및 학습의 문제를 가져오게 하는 원인과 그 결과가 상호 연결되어 있어 더욱 문제가 심화되는 악순환적인 구조로 그 영향요인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오랜 기간 마스크 착용이 최근까지도 유아교육 현장에서 언어발달 지연의 영향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는 선행연구들(손고은, 신동주, 2023; 최은희, 정지현, 2022)과 마스크 착용이 치료 현장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는 언어재활사들의 보고(손정화, 최예린, 2022)와도 일치된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발달 변화와 관련하여 가정환경 및 아동 개인 특성 변인들이 언어 및 인지 발달 등을 예측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오성숙, 2013; 최지현, 박혜원, 2010; Abreu-Lima, Leal, Cadima, & Gamelas, 2013; Murray & Yingling, 2000),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최은희와 정지현(2022)은 연령, 기관 유형, 부모 소득수준 등의 변인에 따른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영유아 발달 격차를 교사 인

식을 통한 양적 연구로 설명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동 임상 전문가들은 정확한 발달을 진단하고 발달지연을 영아기부터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전문적 개입이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원 방안으로 설명하였으며,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책과 부모의 역할과 양육환경요인은 아동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어 부모 교육과 양육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의 언어 및 인지 발달의 초기 위험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Stanton-Chapman, Chapman, Kaiser, & Hancock, 2004)과 발달과정의 초기 단계에 속하는 영유아가 환경적인 위험에 취약하며 아동 임상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발달지연에 있어 조기 발견과 양육환경을 위한 지원 방안들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보육 경험 및 요구를 분석하여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요구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강하라, 2022)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표현 언어의 지연과 인지기능 미숙의 문제가 정서 및 대인관계 문제로 확대되지 않기 위한 예방 차원의 놀이 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심리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3.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 변화: 임상사례 분석

본 절에서는 아동의 정서, 사회성 및 적응행동을 상담하는 놀이심리상담사 및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임상장면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소셜네트워크 분석과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주된 키워드를 찾고 이를 전체적으로 시각화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워드 클라우드로 제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에 초점을 두기 위해 '부모' 주제어는 삭제하였다. 결과는 다음 〈표 Ⅲ-3-1〉, [그림 Ⅲ-3-1]과 같다.

〈표 Ⅲ-3-1〉 빈도 기반 주요 주제어 순위

순서	키워드	빈도	순서	키워드	빈도
1	학교	165	6	영유아기	79
2	불안	146	7	사회적인 경험	74
3	친구	115	8	발달	72
4	문제	108	9	정서	69
5	이야기	103	10	관계	56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학교(165), 불안(146), 친구(115)가 상위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3년 현재 내담 아동의 삶의 변화 중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은 학교(적응행동), 불안(정서)과 친구(사회성) 순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내담 아동의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 발달영역을 정서 영역, 사회성 영역, 적응행동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에서 내담 아동의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Ⅲ-3-1] 워드 클라우드



가. 정서 영역의 변화

아동의 정서, 사회성 및 적응행동을 상담하는 놀이심리상담사 및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3년 현재 임상 현장에서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의 정서영역 변화에 대한 응답에 대해 내용분석을 한 결과, 건강염려, 불안, 신체화, 선택적 함묵증상 및 무기력의 5개 범주가 추출되었다. 이는 〈표 Ⅲ-3-2〉와 같다.

〈표 Ⅲ-3-2〉 정서 영역의 변화

단위: 명

유목	범주	세부내용	빈도
정서	건강염려	-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	2
		- 또 아플지 모른다는 불안	1
		- 청결, 대면 접촉에 대한 불안	1
	불안	- 무섭다는 호소	2
		- 적응에 대한 걱정 및 불안	4
		- 위축	3
		- 강박사고	2
		- 특정자극에 예민	1
		- 분리불안	2
		- 코로나19에 대한 불안이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으로 확장됨	1
		- 호소 연령이 낮아지고 증상이 깊어짐	1
	신체화	- 편식	1
		- 변비	1
		- 소화기 계통(초)	1
	선택적 함묵증상	- 선택함묵 증상이 증가함	2
		- 학교에 가지 않아서 발견이 늦어짐	2
	무기력	- 힘들다는 호소	2
		- 최소한의 것만 하려고 하고 귀찮아함	3
총합			32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건강 염려

연구참여자들은 2023년 현재에도 여전히 상담실에 내방한 아동들에게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 청결, 대면 접촉에 대한 불안 및 또 아플지 모른다는 불안 등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안전을 중심으로 한 생존권이 강조되어 청결을 강조하고, 대면 접촉을 피했던 것

(이영애, 황옥경, 노은선, 2023)이 누적되면서 현재까지도 정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호소는 유아의 경우 주로 놀이를 통해, 초등학생의 경우 주로 언어를 통해 표현되었다.

> "기존에 불안이 있었던 아이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는 놀이주제들도 많이 나타났고....안전에 대해서 병 걸릴까봐..놀이주제에서 계속 검사를 받고 병원을 가고 이런 상황들이 좀 더 나타났는데" (연구참여자 3)

> "작년에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자기는 이제 무서워서 이렇게 왔는데...또 그렇게 신체적으로 아플까 봐 불안하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불안이 딱 올라와서 다시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연구참여자 7)

2) 불안

5명의 연구참여자 모두 공통적으로 유아 및 초등 저학년 내담 아동들에게서 불안과 관련된 호소가 많았다고 하였다. 특히 외부경험이 차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안전이 강조된 생활이 반복되면서 2023년 현재까지도 외부 환경을 위험하게 지각하여 무섭다는 호소가 많았고, 적응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높아졌다.

> "선생님들이 또 이제 조금 감염 때문에 좀 엄격하게 했던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외부적인 환경을 좀 위협적으로 더 많이 지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 "애들도 와서 힘들다고 엄마한테 호소하고 선생님이 무섭게 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학교에 대해서 아이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연구참여자 4)

> "그러니까 겁이, 무서운 게 많다. 겉으로는 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무섭다', '방에 혼자 못 간다', '화장실을 엄마랑 같이 가자' 한다던가...학교 적응과 관련되어 불안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 같고요." (연구참여자 6)

이러한 불안은 위축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연령이 어린 유아들에게서도 불안사고가 반복되는 강박적인 사고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시각 및 청각 자극 등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초등저학년 아동들에게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불안이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으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 "근데 아주 어린 애들도...내가 이 생각이 안 멈춰서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본인도 너무 불안하고 뭔가 정말 불안 사고가 확산되니까 엄마한테 고통감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데려가 달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6살 7살 애들 중에 강박 사고 불안 사고 같은 게 아이들이 조절이

안 되니까 그거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연구참여자 4)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에 대한 또 불안함이 높으면서...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조금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후 불안, 자연재해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었고" (연구참여자 5)

이와 더불어 임상 현장에서 내담 아동에게서 양육자와 분리가 잘되지 않는다는 호소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현재 유아 및 아동에게서 나타난 분리불안은 전형적인 분리불안도 있었으나, 경험부족에 따른 긴장, 불안 및 좌절감내력이 낮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파악하였다.

"등교 거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분리불안의 형태도 있지만 전형적인 분리불안이라기보다는 감내하기가 힘든 거예요." (연구참여자 4)

"부모님이랑 못 떨어진다거나 떨어지는 거 어려워한다거나....그게 내적으로 불안인 것 같다고 하고" (연구참여자 7)

그러나 2023년 현재 연구참여자들이 이러한 불안과 관련된 호소에서 주목했던 점은 불안 호소의 연령이 낮아졌고, 임상현장에 온 내담 아동들의 불안 관련 증상이 연령에 비해 깊게 나타났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불안은 외현적으로는 주의산만으로 표출되기도 하여 양육자와 교육기관에서 주의산만으로 혼동하기도 하였다. 유아와 초등저학년 아동에게서는 불안이 많이 나타났지만, 초등 고학년부터는 우울 증상이 많이 보고된 것으로 보았을 때, 유아 및 초등저학년 시기에 보다 적극적인 정서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검사상으로도 어머님은 ADHD 아니냐 그러는데, 보면 불안이 높다고 나온다던가...자기 표현이 안 되고 좀 불안해서 약간 겁내하고 더 이렇게 의존적이 되고" (연구참여자 6)

"걱정이 많다보다 ...유치원 아이들이나 저학년 아이들은 불안의 수준이나 깊이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깊다고 느껴져요. 고학년 아이들이 호소할 법한 불안을 꼬맹이들이 얘기를 해요. 6살 7살 이런 애들이" (연구참여자 4)

3) 신체화

내담 아동들은 엄격한 안전교육과 외부 적응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신체화 증상

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신체화 증상은 주로 섭식 및 배변과 관련되어 보고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 "지독한 변비로 해서 막 간장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유아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이 배변 저기 변비의 문제로 심각한 변비의 문제로 좀 학교가 좀 많이 이렇게 의뢰돼서 오는 경우가 있었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연구참여자 5)

> "속이 안 좋아서 울렁거린다는 호소가 되게 많고 또는 이제 가스가 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었죠" (연구참여자 7)

4) 선택적 함묵증상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반에서부터 2023년 현재까지 내담 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난 증상 중 하나가 선택적 함묵증상이라고 하였다. 이는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교생활이 정상화되지 않아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양육자와 학교 등에서 아동의 증상을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 "접수 면접지 리스트를 한 3년 치를 이렇게 쭉 보고 이제 2023년에 이제 어떤 주호소로 왔는지를 보니까 선택적 함묵증과 발달지연 이런 증상들이 조금 특징적이기는 하더라고요....특히 함묵증 증세 아이들이 좀 많이 내원을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이제 입학 무렵에 이제 아이들 이제 선택적 함묵증 문제로 이제 이렇게 왔었고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등교 거부 문제들도 좀 보이기도 했었고" (연구참여자 5)

5) 무기력

내담 아동들에게서 힘들다는 호소가 많았고, 문제 발생 시 해결하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최소한의 에너지만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는 2021년에 실시된 코로나19 팬데믹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황옥경, 김형모, 이영애, 정선영, 노은선, 2021)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무기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발생하고 있는 주된 정서증상으로 파악된다.

> "무기력하다, 아까 약간 수동적이다라는 거랑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약간 조금 무기력하다....뭔가 자기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되는..안절부절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뭘 하거나 이런 거가 전혀 없이 그냥 이게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그냥 최소한의 것만 한다. 되게 귀찮아하는 것 같은 느낌." (연구참여자 6)

나. 사회성 영역의 변화

아동의 정서, 사회성 및 적응행동을 상담하는 놀이심리상담사 및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3년 현재 임상 현장에서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사회성 문제 변화에 대한 응답에 대해 내용분석을 한 결과, 사회적 맥락파악 어려움, 자기주장 어려움, 대처 어려움, 또래관계 형성 어려움의 4개 범주가 추출되었다. 이는 〈표 Ⅲ-3-3〉과 같다.

〈표 Ⅲ-3-3〉 사회성 영역의 변화

단위: 명

유목	범주	세부내용	빈도
사회성	사회적 맥락파악 어려움	-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해석	3
		- 피해의식 증가	2
		- 접촉을 침범으로 받아들임	1
		- 가정에서의 경험만으로는 사회적 경험 보충 어려움	2
	자기주장 어려움	-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감정 인식이 낮아짐	2
		- 의사전달 어려움	3
	대처 어려움	- 그 순간 반응하지 못하고 양육자, 교사에게 이름	2
		- 참다가 학폭으로 신고함(초)	2
		- 말로만 배워 현실적용이 어려움	1
		- 갈등 시 공격성 vs 위축 행동으로 표출	2
		- 연령보다 어린 행동을 함	3
	또래관계 형성 어려움	- 연습 시기를 놓침	2
		- 상호작용보다는 혼자 놀이에 익숙(유)	1
		- 또래관계에 관심이 부족해짐	2
		- 관심은 있지만 과잉으로 반응(초)	2
		- 관계 형성에 대한 자신감 부족	1
		- 방법 잘 모름	4
총합			3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맥락 파악 어려움

사회성이 잘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황에서 맥락파악을 잘 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2년 이상 경험하면서 내담 아동들에게서는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타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접촉을 침범으로 받아들이는

등 외부 환경을 불안하게 받아들여 피해의식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 이는 가정에서의 경험만으로는 사회적 경험이 보충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또 하나는 사회적인 경험들이 없고 부모와의 어떤 관계들 안에서 이루어진 경험들이 좀 많다 보니까...사회적인 경험 나와 다른 아이 다른 가치관 다른 어떤 정서적 경험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다른 어떤 행동 방식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3)

"일단 파악 안 되는 거 대처 어려운 거 그리고 좀 오해석하는 거 해석이 좀 틀리게 들어가는 게 좀 오류가 많아요...좀 자기중심적인 그 아기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그게 계속 2학년 3학년 돼도 그냥 계속 안 돼요" (연구참여자 7)

"작은 말에도 되게 크게 반응하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반응들을 상대가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더 크게 느끼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표현도 잘 안 해요. 표현을 안 하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경우들" (연구참여자 6)

2) 자기주장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성 영역과 관련되어 내담 아동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내담 아동의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경험부족의 누적이 주된 원인이라고 파악하였다.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떻게 거부할 수 있고 나는 어떻게 싫은 걸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은 정말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게...." (연구참여자 3)

"우선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런 표현의 기회나 경험이 많이 적어서 언어 표현이나 자기 표현 또 역시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적다고 느껴지죠." (연구참여자 6)

3) 대처 어려움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내담아동들은 2023년 현재 대인관계에서의 갈등과 문제를 대처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감정을 참다가 양육자 및 교사에게 이른다거나, 학폭위로 신고를 하는 등의 대처를 하였다.

"또래 관계의 어려움이 당연히 있죠. 대처하고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때 그거를 전혀 수용하지 못한다거나...계속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문제 해결에 대한 연습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다 엄마한테 의존하는." (연구참여자 6)

"어떤 아이는 그냥 말 없이 그냥 끙끙대면서 참고 있다가 이제 학폭으로 신고하고 그러니까 그런 학폭의 내용들을 보면 아주 심각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특히 혼자 있는 아이들은 그게 좀 더 심했던 것 같고" (연구참여자 3)

이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파악이 잘되지 않아 상대방의 반응을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내담 아동에게 상담자가 대처 방법에 대해 물으면 이에 대해 답은 적절히 하였지만, 정작 그 상황에 직면해서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런 사회적 대처는 사회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는 것인데, 사회경험부족으로 인지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실제 생활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내담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약 2~3년 정도 지연되어 연령보다 미성숙하다고 보고하였다.

"근데 지능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게...어떤 사회적인 매너나 이런 것들이 되게 미숙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연구참여자 6)

대처가 잘 되지 않아 갈등이 생길 때 내담 아동들은 공격적으로 행동한다기보다는 위축된 행동을 했다는 것도 특징적이었다.

"공격성, 사회성과 관련해서 공격적으로 간다기보다는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애들이 그냥 끼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 시기에 연습이 안 된 아이들이 친구를 어떻게 사귀야 되는지 자신감을 못 갖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4)

4) 또래관계 형성 어려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뿐 아니라 2023년 현재에도 내담 아동들에게서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무엇보다 사회성을 학습하는 시기를 놓쳤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연령차가 나타났다. 우선, 유아들의 경우 상호작용보다는 혼자 놀이에 익숙해져 있어 임상현장에서도 상호 놀이를 하려는 시도가 적었다. 유아뿐 아니라 초등 저학년 내담 아동의 경우 또래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또래에 관심은 많으나 관계를 맺는 방법을 잘 몰라 과잉으로 반응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불안과 긴장이 높은 아이들의 경우, 또래관계에 대해 걱정하고 자신감 없어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 "이렇게 함께하면서 이제 보고 모방하고 이렇게 관계라는 걸 하는데 그게 준비가 좀 되어가면서 이제 6세, 7세 이렇게 또래랑 같이 관계 맺는 시기로 넘어갈 텐데, 이전 게 안 되니까...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 시기를 되게 많이 놓치는 것 같은 거예요....지금 당면한 이제 6, 7, 8세,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그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느꼈었어요... 그래서 사회성을 진짜 사회성 그룹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아요." (연구참여자 7)

> "(유아들의 경우) 놀이 평가를 하거나 이제 놀이를 할 때 보면 너무 혼자 놀이에 익숙한 그런 게...적극적으로 뭔가 함께 놀려고 하는 것보다는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혼자 놀이에 좀 익숙해 있는 양상들을 보이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눈 맞춤이나 이런 상호작용이 좀 소극적인 경우도..." (연구참여자 5)

다. 적응행동 변화

아동의 정서, 사회성 및 적응행동을 상담하는 놀이심리상담사 및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3년 현재 임상 현장에서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적응행동 문제에서의 변화에 대한 응답에 대해 내용분석을 결과 자율성 부족, 좌절인내력 부족, 등원(교) 거부, 조절 어려움, 산만, 충동적 행동 증가, 반항적 행동 증가, 온라인 매체 사용 증가, 관계 갈등 증가, 학폭위 개최 증가의 9개 범주가 추출되었다. 이는 〈표 Ⅲ-3-4〉와 같다.

〈표 Ⅲ-3-4〉 적응행동 변화

단위: 명

유목	범주	세부내용	빈도
적응행동	자율성 부족	- 의존적, 수동적 태도 증가	3
		- 전반적으로 연령보다 2~3년 정도 미숙함	2
	좌절인내력 부족	- 좌절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함	4
		- 스트레스가 불안형태로 표출됨	4
		- 학교 생활에서 경쟁, 수행 어려움을 견디지 못함	3
		- 공부를 겁내고 자신만 못한다고 생각하여 흥미가 저하됨	2
	등원(교) 거부	- 학교가 싫다고 함	1
		- 수업 중 교실을 나옴	2
		- 교육기관 부적응이 등원(교)거부로 이어짐	4
	조절 어려움	- 규칙이 내면화되지 않아 규칙 지키기 어려움	2
		- 사회적 상황에서 행동조절이 잘 되지 않음	3
		- 조절을 경험이 아닌 말로만 배움	1

유목	범주	세부내용	빈도
	산만, 충동적 행동 증가	- 즉각적인 반응을 원함 - ADHD로 오해되었지만 내면은 불안	2 4
	반항적 행동 증가	- 짜증 증가 - 반항적 행동 증가	1 1
	온라인 매체 사용 증가	- 사용시간과 빈도 증가 - 노출 연령이 낮아짐 - 또래 사귀는 통로가 됨	3 2 1
	관계 갈등 증가	- 교사와의 갈등 증가 - 부모자녀 갈등 증가 - 형제 갈등 증가 - 부부갈등 증가	1 3 1 2
	학폭위 개최 증가	- 신고 시기가 빨라짐 - 신고 빈도가 많아짐	1 3
총합			56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율성 부족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담 아동들에게서 의존적, 수동적 태도가 증가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연령보다 2~3년 정도 미숙하였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교육기관에서 경험이 최소화되었던 시간이 길어지면서 독립하여 스스로 해내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자율성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발달과업으로(박찬옥, 안은정, 2008), 원활한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 필요한 능력이다(박근주, 2014). 이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연령에 맞게 발달하지 못한 자율성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교생활 적응에 문제를 유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 "아이들이 자기 연령이 증가하면 조금 독립적으로 다 기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현저하게 좀 떨어지는 것들이 좀 명확했고...이렇게 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자기표현 잘 못하고 자기 결정 자기 선택 이런 거 못하고 그런 쪽이 더 많다. 이렇게 느껴졌어요....힘든 거가 생기거나 경쟁하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학교나 이런 거에서 경쟁이나 이런 거에는 되게 겁내하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연구참여자 6)

> "이제 사회 정서발달에도 좀 그러니까 되게 유아 같다. 초등학생인데도 좀 처리하는 게 한... 그런 친구들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생 저학년인데 5, 6세 같은 애들" (연구참여자 7)

2) 좌절인내력 부족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한 내담 아동의 적응행동 문제는 좌절인내력이었다. 좌절인내력이란 좌절을 느끼는 사람이 현실과 자신의 바람 간의 차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지 않는 상태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그 순간을 버티는 능력(Harrington, 2006)을 의미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교육기관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내담 아동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좌절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면서 스트레스가 불안 형태로 표출되었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경쟁, 수행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공부를 겁내고 자신만 못한다고 생각하여 흥미가 저하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런 특성은 내담 아동의 능력발휘를 제한하였고, 그 결과 아동 자신도 자신감이 더욱 저하되고 무기력해졌다.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내담 아동을 과소평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그때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견딜 힘이 아이들이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전혀 안 돼 있어서" (연구참여자 4)

> "그런 학습적인 문제나 지능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정서 불안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는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그냥 짜증 나고 안 한다. 그러고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은 얘가 뭔가 잘 못 따라가나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능 검사를 하면 지능은 너무 좋고...선생님 봤을 때는 얘가 굉장히 공격적인 아이로 그다음에 뭔가 느린 아이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좀 간혹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 "특히 공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저는 어쨌든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래도 서포트를 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싫어하고 좀 겁내하고 공부를, 이전의 아이들보다 조금 덜 의욕적이에요...되게 겁내하고 무기력하고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2학년들... 자기만 못한다고 생각하고" (연구참여자 6)

3) 등원(교) 거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육기관 등원(등교)이 불규칙해지면서 아이들의 일상생활의 일관성이 무너지게 되었다. 이에 학교에 가기는 하지만 지속해서 학교가 싫다는 호소를 하기도 하였고, 수업 중 교실을 나오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내담 아동의 교육기관 부적응은 등원(교) 거부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등교 및 학교생활이라는 일상성이 무너지면서 학교 가는 것을 귀찮아하

거나 늦잠을 자는 등으로 지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이영애, 황옥경, 노은선, 2023)된 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현 상황에서는 등교 거부 증상이 좀 더 많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은 유의해야 할 지점이다. 무엇보다 이에 대한 적절한 심리 · 사회적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다양한 상황들을 유치원에서부터도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게 누적되어 있는 1~2학년은, 지금 2학년 아이들 중에 그래서 교실 나갔다가 들어온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냥 나가요. 물어보고 왜 그랬대요? 그러면 이제 그냥 힘들어서, 재미없어서……2023년에도 등원거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보고되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유치원도 지금 애들이 안 가고 좀 그래요….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 등교 거부의 형태로 나타나서 교장 선생님이 와서 얘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4)

4) 조절 어려움

목표 달성을 위해 바람직한 행동은 하고 이를 방해하는 것은 억제하는 능력인 조절능력(손승아, 안경숙, 김승경, 2006)은 사회 적응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절능력은 유아기부터 부모의 적절한 훈육을 기반으로 하여 외부경험을 통해 연습되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정 및 외부경험에서 이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 내담 아동들은 규칙이 내면화되지 않아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교육기관에서 규칙 지키기에 어려움이 증가하였고, 사회적 상황에서 행동조절이 잘되지 않았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내담 아동들이 연령보다 약 2~3년 정도 어리게 행동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조절을 경험이 아닌 말로만 배웠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초등 1, 2학년의 경우, 정말 내면화된 규칙이 없었던 것 같아요….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는구나. 그거는 공통적으로 좀 많이 좀 발견된 공통적으로" (연구참여자 3)

"초등학교 어쨌든 들어가려고 하면 얘가 이제 착석이라든가 뭔가 수행하는 거나 욕구를 조절하거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됐었고…발달이 되게 어려서 그렇게 행동하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은 한 5세" (연구참여자 7)

5) 산만, 충동적 행동 증가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증상 중 하나는 산만하고 충동적인 행동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내담 아동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였고,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상담 초기에는 상담자들도 주 증상을 주의력 문제로 파악하기도 하였고, 가정 및 교육현장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하였지만 상담 과정 평가 및 심리평가 결과 내면은 불안이 주된 원인이라는 점이 규명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산만해진 거는 공통 특성이고" (연구참여자 3)

"바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에 대해 못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있고..그 다음에 너무 즉각적으로 항상 반응을 하는 면들...그래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ADHD 아니냐 그러는데 종합심리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ADHD는 아니라는 거죠....실제로 아닌 경우들이 꽤 많아요." (연구참여자 6)

6) 반항적 행동 증가

연구참여자들은 내담 아동들에게서 짜증과 반항적 행동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가정에서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기보다는 통제 및 과잉보호 중심의 양육이 이루어진 점과 교육기관 역시 생존권 보장을 위한 안전 중심의 통제적인 교육이 누적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워낙 집에서 이제 엄마랑 좋은 관계를 지내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어서...짜증...반항적으로 반응을 한다던가...아동기 아이들은 적대적인 관계 경험들을 많이 해서 라포 형성 시 초반에는 적대적인 행동들과 격한 감정 표현들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이 임상 현장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7) 온라인 매체 사용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어쩔 수 없이 증가했던 것이 온라인 매체 사용이었다. 이것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되어 연구참여자들은 내담 아동들의 온라인 매체 사용시간과 빈도가 증가하였고, 매체 노출 연령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온라인 매체는 수업이나 또래들과 의사소통할 때 잘 사용한다면 도움이 되는 매체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이 염려했던 부분은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하여 중독 경향성이 증가한 점과 무분별하게 건강하지 않은 앱에 접근하여 또래를 사귀려는 시도도 증가했다는 점이었다.

"핸드폰을 또 너무 많이 해요. 맞아요. 게임 중독 맞아요. 진짜 많아요....게임 중독을 뺄 수

없네요. 진짜 온라인과 게임 이 패드 안 하는 집이 없고 그 노출 시기가 너무 빠르고 그 중독 관련한 게 진짜 많아요. 조절 안 되고.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노출이 진짜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연구참여자 7)

"예전에는 제가 느끼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그렇지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트위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지인들을 만들고 온라인상에서 연애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애들도 오픈 채팅방 쉽게 들어가고 만들고 가입하고 그렇게 그런 어떤 게임 자체는 나쁜 게임은 아닌데...그거를 기반으로 또 지인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친구 관계의 결핍을 채우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나중에...제 생각에 3학년만 돼도 애들이 그런 온라인상에서 오픈 채팅방까지는 아니어도 온라인상에서 친구를 만든다거나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4)

8) 관계 갈등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지나오면서 관계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었다. 안전 및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학교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서 내담 아동들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교사를 무섭다고 한다거나 교사와 갈등이 증가하였고, 각 가정에서는 부모자녀, 형제 및 부부관계의 갈등도 증가하였다.

"코로나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오히려 부모 자녀 관계의 문제가 좀 악화돼서 굉장히 골이 깊어져서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미디어 사용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두드러지는... 코로나 시기에서 다 모두 다 너무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든 또 과정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그런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이제 관계 맺기라든지 신뢰감 형성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굉장히 뭔가 처음에 경계를 한다던가." (연구참여자 5)

"부부의 갈등들이 더 이제 많아진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이제 엄마를 더 힘들게 하는 자녀한테 아빠가 야단을 치거나 비난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부분들도 조금 지속이 됐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9) 학폭위 개최 증가

연구참여자들은 임상 현장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학폭과 관련된 상담내용이 증가하였고 신고 연령도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인지 최근 사회적 분위기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였다.

"학폭이 생각해 보니까 많이 늘었네요." (연구참여자 3)

"굉장히 굉장히 많아졌죠 학폭 그래요 네 많아졌죠. 근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요즘에 자기 아이가 귀한 그러고 그다음에 이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라. 영향요인 및 지원 방안

아동의 정서, 사회성 및 적응행동을 상담하는 놀이심리상담사 및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3년 현재 임상 현장에서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 아동의 문제행동 변화의 영향요인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응답에 대해 내용분석을 한 결과 경험부족, 기질 특성 및 발견 시기, 연령, 시기, 경제적 상태, 모의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 증가, 모의 불안 및 대처 부족, 양육태도 변화, 양육자의 객관성 부족의 9개 범주가, 지원방안에서는 정책 및 교육필요의 1개 범주가 추출되었다. 이는 〈표 Ⅲ-3-5〉와 같다.

〈표 Ⅲ-3-5〉 영향요인

단위: 명

유목	범주	세부내용	빈도
영향요인	경험부족	- 통합적 발달 저해	1
		- 학교 생활 적응에 필요한 기본 태도 연습 없이 학교 생활 시작함	5
	기질 특성 및 발견 시기	- 기존에 발달지연 및 예민한 기질의 아동의 경우 더 치명적	4
		- 교육기관을 가지 않아 발견이 늦어짐	3
	연령	- 어릴수록 발달에 치명적 영향	3
		- 문제 발생 연령이 낮아짐	2
		- 어릴수록 회복이 더딤	2
		- 코로나 발생 시 6,7세(현재 초2) 경우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음	3
		- 코로나 발생 시 초등학생이었던 경우 회복이 가장 빨랐음	1
	시기	- 2022년 초부터 사회정서문제 부각	1
		- 2022년 2학기부터 사회정서문제 호소 증가	1
		- 2023년 상담센터 내방한 아동들의 사회정서문제가 이전에 비해 악화되어 나타남	2
	경제적 상태	- 경제력이 큰 보호요인이 됨	1
		-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정서적 돌봄 인식 및 질이 빈약해짐	2
		- 저소득층의 경우 자녀의 기초학력 저하	2
		-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사교육 및 자녀 체험 활동 증가	2
	모의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 증가	-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 증가	3
		- 기관보육 중단으로 자녀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증가-양육 스트레스 증가하고 소진됨	3
		- 자녀와 상호작용 방법 모르겠다는 호소 증가(영유아)	1

유목	범주	세부내용	빈도
	모의 불안 및 대처 부족	- 감염, 죽음 등에 대한 모의 불안이 자녀에게 전달	1
		- 자녀 경험 통제 및 차단하여 자녀의 강박, 불안 유발	3
		- 역할을 잘 못했다는 죄책감 증가	1
		- 줌수업 등 관리 어려운 경우 학력편차 커짐	3
		- 자녀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개입 어려움	3
		- 2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자녀 문제 발생 시 대처 어려움	1
		- 정상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견디지 못함	1
	양육태도 변화	- 불안 및 소진으로 자녀에 대한 통제, 화가 증가	3
		- 코로나 감염 예방과 학습에만 집중하여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측면을 간과함	2
		- 과잉보호 증가	4
		- 조절을 잘 가르치지 못함	3
		- 정서적 수용 및 교류는 감소	3
	양육자의 객관성 저하	- 다른 아이들과 비교기회 부족으로 자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함	1
		- 문제의식 부족	2
		- 외부교류 부족으로 양육에 어려움 경험	2
		- 양육정보 편향으로 해석에 오류 발생	1
지원 방안	정책 및 교육필요	- 문제의식 못 느끼는 가정이 많아 추후 더 많은 문제 발생 가능	2
		-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대한 정책 필요	1
		- 적응 과도기에 대한 양육자 대상 교육필요	1
총합			8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험부족

연구참여자들이 많이 언급한 주된 영향요인은 바로 경험부족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기관뿐 아니라 외부 활동에 대한 경험의 기회가 한동안 차단되었는데, 이는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 아동들의 통합적 발달을 저해하였다. 또한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기본 태도가 연습되지 않은 채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 내담 아동에게 혼란을 일으켰고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 "외부 상황에서도 경험을 많이 못하니까 집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당연히 뛰놀면서나 신체 대근육을 쓰면서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달해야 되고 뭔가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연구참여자 7)

> "학교 생활을 2년간 못 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집중하고 그런 거를 하지 못했거든요. 계속 코로나에 대한 안전만 신경 쓰게 했지" (연구참여자 4)

2) 기질 특성 및 발견 시기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은 모든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자율성, 사회성 등의 내적 자원이나 지지적인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경우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질 및 환경 특성이 취약했던 내담 아동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교육기관 등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 내담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취약점들이 빨리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으로의 생활이 회복된 현시점에서 내담 아동의 문제 중 특히 내면화 문제의 경우 문제가 다소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 좀 더 주의가 요망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근데 원래 사회성이라든가 적응이 좋았던 애들 또는 위에 형제가 있었던 애들은 무리 없이 그 시기를 잘 경험하고 넘어갔거든요..." (연구참여자 4)

>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불안이 높았던 아이들은 그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아이들의 사회 정서적인 발달은 당장 눈에 띄지는 않다 보니 그 부분을 조금 놓치는 경우들이 좀 상당 부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연구참여자 3)

>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재화 문제를 가진 아이들, 늦게 오는 아이들이 이후로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4)

3) 연령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야기된 다양한 사회정서 및 적응문제에 있어서 연령은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문제 발생 연령이 낮아졌고, 어릴수록 회복이 더뎠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시 6, 7세 유아의 경우, 유치원 생활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초등 1학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현재 초등 2학년이 되었다. 연구자들은 이 시기의 아동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시 초등학생이어서 현재 초등 4학년 이상이 된 경우 관련 증상에서 회복이 가장 빨랐다고 하였다.

> "어릴수록 저는 더 발달에는 치명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진짜 어린애들 30개월, 35개월 애들 오거든요. 한 2, 3, 4세 이때 어린이집에서 코로나 시기를 겪은 아이

들은 실제 언어발달이나 인지 발달 사회성 이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더 클 것 같고." (연구참여자 7)

"올해 2학년 올라간 친구들, 한 6살짜리가 갑자기 9살짜리 된... 초반에 코로나 막 터져서 1년은 거의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잖아요. 그때 근데 그 경험들이 되게 중요했던 시기에 아이들이 특히 더 타격이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6세, 7세...그래서 지금 한 2학년 이 정도 되는 친구들, 그 애들이 더 훨씬 지연이 심하다고 느껴져요...6~7세 유아기 때 경험한 것보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 경험한 애들들이 조금 낫다." (연구참여자 6)

4) 시기

내담 아동의 사회, 정서 및 적응행동 문제 발견 시기에 대해서는 참여자4만 의견을 제시하여 공통의 의견으로 논의할 수 없지만 본 연구자는 이 역시 고려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하였다. 우선, 참여자4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서서히 일상성이 회복되고 있었던 2022년 초부터 사회정서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2022년 2학기부터 사회정서문제의 호소가 증가하였다고 파악하였다. 참여자4는 2023년 현재 상담센터 내방한 아동들에게서 보고되는 사회정서문제는 이전에 비해 악화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작년에는 가려졌던 아이들이 한꺼번에 온 거는 맞거든요. 학교 적응 분리 불안, 사회성 문제 이런 거에서 한 2년 정도 가려졌다가 표면 위로 드러나서 이제 아이들이 왔던 거는 맞는데" (연구참여자 4)

"이 아이들이 준비 없이 22년도를 맞이했기 때문에 한 학기는 어떻게 지나간 것 같은데 2학기부터 그 힘듦에 대한 호소라든가 또는 불안에 대한 호소라든가 등원 거부라든가 등교 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들이 호소하는 것들이 2학기부터는 두드러졌다라고 표면적으로 느끼고" (연구참여자 4)

5) 경제적 상태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경제력은 큰 보호요인이 되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양육자들의 정서적 돌봄 인식 및 질이 빈약해졌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자녀의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사교육 및 자녀 체험 활동 증가하여 아동에게 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지원하려고 노력하였다.

"맞벌이 가정이거나 아니면 조부모가 양육을 하신다든가 한부모 가정이거나 다문화 가정에 있는 그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편차가 그 갭이 좀 굉장히 좀 더 컸던 것 같아요...그런 가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현실적인 먹고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나치게 미디어나 핸드폰에 좀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고" (연구참여자 5)

"중상류층의 경우, 학원은 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다음에 공립학교보다 이제 아무래도 이쪽은 사립의 비중이나 국제학교나 이제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도 좀 많은 편이에요. 아마 학교를 가는 게 아마 조금 더 빨랐던 걸로 기억하고요. 영어 유치원 다니면 학원 다니고 영어 유치원 다니고 이제 이렇게 좀 사교육이 많이 있어서 막 집에 혼자서 아이가 방치되거나 부모가 맞벌이어서 계속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6)

6) 모의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 증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가정에서 양육자들이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그동안 교육 기관에서 담당해왔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가 양육자의 몫이 되면서 양육자, 특히 모의 양육 스트레스 증가하고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들의 경우,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호소도 증가하였다.

"여태까지 학교에서 그걸 부담해주다가 그게 이제 엄마에게로 넘어오니까 이제 엄마가 자기가 이걸 다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부모님이 이제 돌봄에 있어서 신체적 돌봄의 양도 많아지고 정서적 돌봄의 양도 많아서 가정에 계시는 부모님도 소진이 되고 아이들이 정서적인 돌봄에 대한 상호작용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연구참여자 3)

"일단은 엄마가 양육 스트레스가 높으면 감정 조절이 진짜 어려워서 이제 폭발 참다 폭발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고...근데 그렇게 되면 얘가 감정 조절하는 걸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 그래서 애들이 되게 한껏 예민해져서 여기로 오는 거죠." (연구참여자 7)

7) 모의 불안 및 대처 부족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당시 전 세계는 감염 및 죽음에 대한 공포에 노출되었다. 이에 주로 양육을 담당했던 모가 감염, 죽음 등에 대해 불안감을 많이 느낀 경우, 이것이 자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불안으로 인해 자녀의 경험을 더욱 통제하고 차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양육태도가 누적되면서

자녀의 강박, 불안 유발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다시 모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반면 맞벌이나 줌 사용의 어려움으로 학습지도가 잘 되지 못했거나 양육스트레스로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던 양육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잘 못했다는 죄책감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줌 수업 관리 부실은 실제로 학습편차가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 "부모의 불안이 아이를 상당히 통제를 더 많이 하고 아이가 불안해하면 같이 버텨주기를 하는 게 아니라...안전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사회적인 다양한 경험이나 접촉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발달 인지적인 발달 정서적인 발달이 접촉들이 정말 많이 제한됐던" (연구참여자 3)

> "부모의 죄책감이 이제 내가 얘를 방치했다. 나는 그런 것도 못하고 아이를 방치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이한테 감정적으로 이입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본질은 되게 작은데 부모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흔들리면서" (연구참여자 4)

또한 양육자 역시 이러한 재난상황을 처음 겪다 보니 자녀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개입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약 2년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자녀 문제가 2023년 현재 교육기관 및 외부에서 발생했을 때 당황하여 이에 대한 대처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양육자가 이런 어려움에 대처하고 견디는 힘이 부족해지다 보니 자녀의 정상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 "집에서는...크게 못 느꼈다가 이제 일상 복귀가 된 다음에 막 매일매일 아이가 힘듦을 호소하고 매일매일 뭘 못했다. 그러고 자꾸 아이가 뭘 못한다고 피드백이 오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가 당황스러운 게 22년도에 1학기 때 애들도 직면해야 되고...아이들의 좌절이나 이런 거를 부모도 참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분명히 아이가 얻는 게 있는데 그래서 부모가 그거를 믿지 못하는데" (연구참여자 4)

> "정상 발달인데 이제 엄마가 볼 때는 그게 문제여서 오는 경우 못 다루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연구참여자 7)

8) 양육태도 변화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양육자, 특히 모의 양육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모의 불안 및 소진으로 자녀에 대한 통제와 화가

증가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감염 예방과 학습에만 집중하여 자녀의 사회정서발달 측면을 간과하였다. 또한 과잉보호가 증가하다 보니 훈육을 통해 조절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런 모든 변화로 인해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은 증가하였지만, 자녀에 대한 정서적 수용 및 교류는 감소하였다.

"이제 하나씩 가르쳐주고 훈육해서 알려줘야 될 것들을 이제 화내는 것 같은.." (연구참여자 7)

"전체적으로 느낌이 엄마들이 많이 과잉 보호하는구나....부모님들이 점점점점 분리를 시키면서 정서적으로 분화시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시행착오 경험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좀 없지 않았나는 느낌이 있는데...과잉 보호를 많이 하지 않는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특징들이 보여요." (연구참여자 6)

"엄마가 해야 하는 양들이 학습의 양들이 더 많아지면서 도리어 아이한테 지쳐서...아이의 욕구나 정서를 조금 수용해 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은 도리어 좀 많이 제한되지 않았나..." (연구참여자 3)

9) 양육자의 객관성 부족

양육자 특히 모 역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차단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다른 아이들과 비교 기회 부족으로 자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기회가 감소하다 보니 자녀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다는 것도 자녀의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 문제를 유지했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양육자의 외부 교류 부족 역시 양육을 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외부 교류 제한으로 양육정보를 인터넷 등에서 찾다 보니 정보의 홍수 속에서 편향된 정보를 통해 해석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회정서문제가) 잘 회복되기가 어렵잖아요. 공백기가 있었고 부모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고" (연구참여자 4)

"요새 젊은 엄마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들끼리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엄마들의 욕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그게 이제 뚝 끊어졌던거죠....너무나 이제 고립된 물리적인 환경 안에서...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5)

"그런데 사실은 정보는 지금이 더 많죠...주변을 보고 실제로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랑,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랑, 영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봐가지고 정보를 취하는 거는 이것도 되게 해석이 오류가 크니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7)

10) 지원 방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의 다양한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의 회복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참여자4만 응답하여 전체 의견으로 수렴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연구자가 판단하기에는 타당성이 있어 보여 이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여자4는 무엇보다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가정이 많아 추후 더 많은 문제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참여자4는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대한 정책이 필요하고, 현재 대처방법을 몰라 당황하고 있을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적응 과도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아이도 뭔가 이것저것 언어 치료, 사회성 프로그램, 개별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쫓아가고 있지만 그조차도 잘 신경 쓰여지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교육이라든가...그런 시스템이 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유치원 시기 초등학교 시기 그럼 당연히 고학년 중학교의 과업을 따라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몇 년 뒤에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연구참여자 4)

> "그런 부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잘 개입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나빠서가 아니라 당황스러운 거예요...2년 동안 그런 피드백들을 안 받고 아이의 힘듦에 대해서 잘 마음 쓰지 않았다가 얘가 자꾸 이런 부분에서 실패하고 힘들다고 얘기한다고 하는 거를 엄마들이 버티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엄마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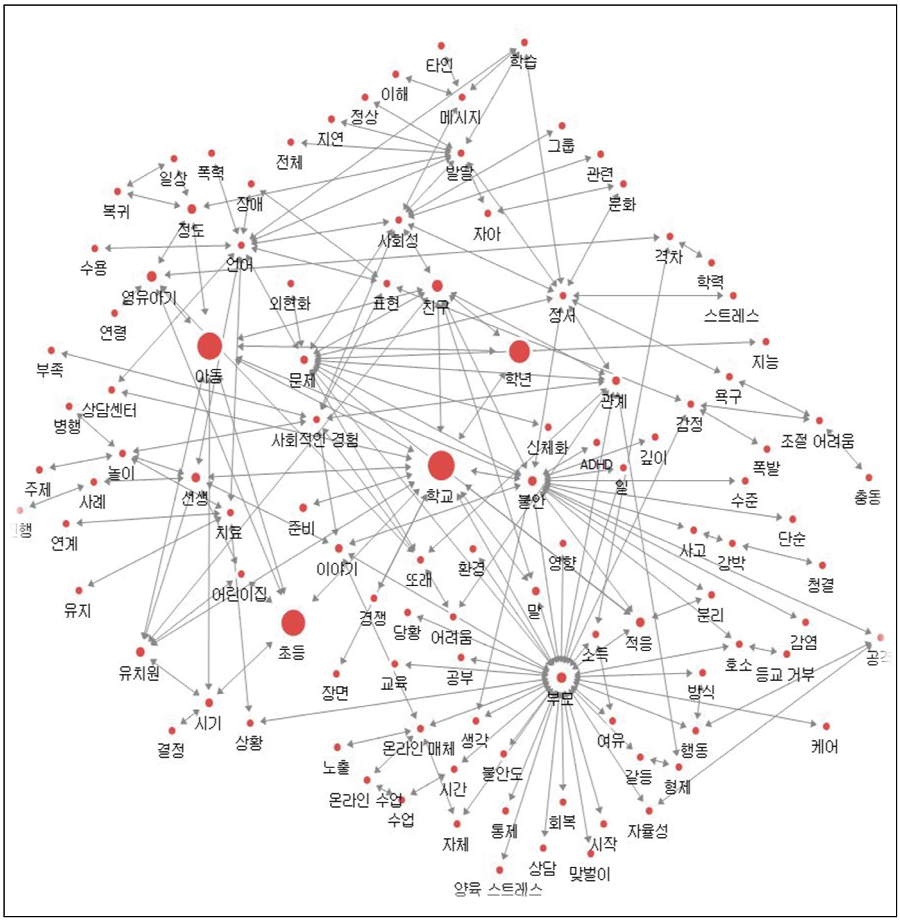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부모 영향요인까지 포함하여 연결 중심성 분석을 통해 추출된 키워드 중에서 네트워크 내 중요한 키워드를 살펴보기 위해 액터에 가중치를 둔 아이겐 벡터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음 〈표 Ⅲ-3-6〉, [그림 Ⅲ-3-2]와 같다.

〈표 Ⅲ-3-6〉 아이겐벡터 중심성 기반 네트워크 분석: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 변화

순서	키워드	아이겐백터 중심성	순서	키워드	아이겐백터 중심성
1	학교	.545	6	영유아기	.102
2	아동	.511	7	부모	.101
3	초등	.467	8	불안	.081
4	학년	.382	9	유치원	.074
5	친구	.135	10	선생	.070

키워드 간 연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학교(.545), 아동(.511), 초등(.467), 학년(.382)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영역에서 영유아가 포함된 아동 및 초등 저학년 아동 그리고 학년(연령)과의 네트워크가 가장 많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내용분석 내용과 종합해 보면, 학교생활과 관련된 영역에서 영유아가 포함된 아동 및 초등 저학년 아동 그리고 학년(연령)과의 네트워크가 가장 많이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 영역은 주로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보고가 되었고, 연령에 따라 그 내용에서 차이가 보고된 내용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Ⅲ-3-2] 아이겐벡터 중심성 기반 네트워크 분석: 사회정서 및 적응행동 변화



마. 요약 및 논의

아동의 정서, 사회성 및 적응행동을 상담하는 놀이심리상담사 및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3년 현재 임상 현장에서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 아동의 정서영역, 사회영역, 적응행동에서의 변화 및 영향요인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내용분석을 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 영역의 변화에서는 건강염려, 불안, 신체화, 선택적 함묵증상 및 무기력의 5개 범주가 추출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한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교육기관 등의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중 불안과 우울이 주된 문제로 대두되었다(안영은, 권연하, 2022; Panchal et al., 2023). 이러한 불안은 외현적으로는 주의산만으로 표출되기도 하여 양육자와 교육기관에서 주의산만으로 혼동하기도 하였다.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어 일상생활이 회복된 2023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생존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시에는 매일 보도매체 및 SNS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를 알리고, 방역 위주의 생활 및 교육(이영애, 황옥경, 노은선, 2023)이 누적된 것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정서문제 중 하나는 무기력이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이영애, 황옥경, 노은선, 2023; 황혜영, 김수윤, 2023)으로, 아동의 일상성이 무너지면서 자율성, 유능감 및 관계성으로 구성된 기본심리욕구(Deci & Ryan, 2013)가 충족되지 못하면서 아동의 자아존중감, 성취동기가 감소하고(김유리, 2021. 8. 18.), 행복감이 낮아졌기(김영란, 2020; 정익중, 2020)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 2023년이 되면서 정서문제 중 세분화되어 보고된 증상은 섭식 및 배변과 관련된 신체화 증상이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불안과 우울 등과 같은 내적 문제가 신체화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분석심리학자인 Neumann(1973)이 초기 아동기에 아동은 외적 세계는 피부를 통해, 내적 세계는 소화관을 통해 경험한다고 제안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선택적 함묵증상도 2023년에 들어서 임상현장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는 증상이다. 이는 그동안 외부생활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견이 되지 않다가 최근 일상성이 회복되면서

문제가 표면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2023년에 들어오면서 임상현장에서는 정서 영역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들의 연령이 낮아졌고 증상도 좀 더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점이 유의해야 할 점이라고 보인다. 아동들의 경우 성인보다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Deighton et al., 2019)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유아 및 아동의 정서 영역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성 영역의 변화에서는 사회적 맥락파악 어려움, 자기주장 어려움, 대처 어려움, 또래관계 형성 어려움의 4개 범주가 추출되었다. 유아기 및 아동기에는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역량을 기반으로 사회성을 발달시켜 나간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기관에서 또래와 교류하지 못하고, 심지어 집에 방치되기도 하는(한혜원, 이정민, 2021) 상황이 누적되면서 사회적 역량을 발달시켜 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양육자 및 교사에게 이른다거나, 학폭위로 신고를 하는 등의 대처를 하는 경우도 증가하였다. 이는 초등 1~3년 학생들의 경우 학생들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보호자가 나서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보고한 연구결과(황혜영, 김수윤, 2023)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담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약 2~3년 정도 지연되어 연령보다 미성숙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단절된 시간을 '구멍 난 2년'이라고 표현하면서 2022년 연구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사회성 발달이 1~2년 지연되었다고 보고한 황혜영과 김수윤(202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런 사회성 문제는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아동의 연령 및 특징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또래와 상호작용하려는 시도가 적었고, 초등시기에는 욕구는 있으나 방법을 몰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안과 긴장이 높은 경우 또래관계에 대해 위축되었지만, 외현화된 특성을 가진 아동들의 경우 또래관계 갈등 발생 시 공격적으로 행동하기도 하였다.

셋째, 적응행동 영역의 변화에서는 자율성 부족, 좌절인내력 부족, 등원(교) 거부, 조절 어려움, 산만, 충동적 행동 증가, 반항적 행동 증가, 온라인 매체 사용 증가, 관계 갈등 증가, 학폭위 개최 증가의 9개 범주가 추출되었다. 2023년 현재 코

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었으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부터 누적된 스트레스는 유아와 아동의 적응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적 고립, 감염 예방을 위한 많은 규제, 운동시간의 감소, 생활습관의 변화, 불규칙한 등원(교), 미디어 사용의 증가 등으로 불균형적인 생활이 반복되면서 임상에서의 아동들은 의존적, 수동적 태도가 증가하여 앞서 논의한 사회성 발달을 포함한 적응행동에서도 전반적으로 연령보다 2~3년 정도 미숙한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도 초등생 대상 연구에서 이전의 규칙적인 생활을 거부하고 게임이나 인터넷에 과몰입하였다고 보고되었는데(한혜원, 이정민, 2021), 2023년 현재 임상 현장에서는 이러한 아동의 증상이 좀 더 심화한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정도의 호소가 많았다면(이근영, 김미남, 김성희, 김유리, 서명희, 양경화, 주문희, 최지현, 2021; 이영애, 황옥경, 노은선, 2023), 2023년 현재 등원(교) 거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 외부 적응 시 필요한 좌절인내력 발달 및 조절 능력 발달이 지연되면서 교육기관에서의 경쟁, 규칙 등을 견디지 못하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더하여 산만하고 충동적인 행동이 증가하였고,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하여 중독 경향성이 증가한 점과 무분별하게 건강하지 않은 앱에 접근하여 또래를 사귀려는 시도도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초등 1~3학년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율을 증가시켰고(최혜정, 김형관, 2021) 과도하게 미디어에 노출했다(Chen et al., 2020; Panchal et al., 2023)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산만하고 충동적인 행동은 앞서 논의한 정서영역에서의 불안으로 인해 촉발되고 가중된 면도 있어 임상 및 교육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양육자의 통제 증가 및 방역중심의 교육으로 인한 교사의 제재 증가로 인해 임상에 내방한 아동 중에는 반항적인 행동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족관계, 형제관계에서의 갈등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문제로 보인다.

넷째, 영향요인 및 지원 방안 중 영향요인에서는 경험부족, 기질 특성 및 발견 시기, 연령, 시기, 경제적 상태, 모의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 증가, 모의 불안 및 대처부족, 양육태도 변화, 양육자의 객관성 부족의 9개 범주가 추출되었고, 지원 방안에서는 정책 및 교육필요의 1개 범주가 추출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다양한 경험이 차단된 것은 발달 시기에 있는 유아 및 아동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체 활동뿐 아니라 외부경험의 차단은 아동의 통합적 발달과 적응을 방해하였다. 특히 기질 및 환경 특성이 취약했던 내담 아동들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Panchal et al., 2023). 그러나 아동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약 2년 동안 등원(교)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아 교사들이 고위험군 아동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으며(한혜원, 이정민, 2021) 내담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취약점들이 빨리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내담아동의 문제 중 특히 내면화 문제의 경우 문제가 다소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Panchal et al., 2023). 이와 더불어 연령, 경제력, 부모의 태도 등도 위험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연령이 어릴수록 회복이 늦고,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고 대처능력이 저하될수록 내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Elmer, Mepham, & Stadtfeld, 2020)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 중 자율성, 사회성 등의 내적 자원이나 지지적인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적 영향을 완화시켰다(우연경, 최정순, 김경령, 노언경, 2021). 이는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 그 기능 수행을 다시 회복한다는 적응 유연성 모델(박현선, 2004; Garmezy, 1993)을 통해 그 이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개인, 가족, 환경체계에서 보호요인이 있다면 이것이 완충작용을 하여 성공적인 적응이 가능하게 된다(Garmezy, 1993; Werner & Smith, 1992). 그러므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해 속에서도 아동에게 내적 능력이나 안전한 환경이라는 보호요인이 있으면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은 회복할 수 있다. 아직 아동의 사회정서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가정이 많아 추후 더 많은 문제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아동은 재난에 취약하다(이철순, 서지영, 박장호, 장형윤, 방수영, 2015)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각지대에 놓여 '무너져 가는' 아동(김혜랑, 정애경, 2022)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들에게 부모상담이 증가했다는 점(한혜원, 이정민, 2021)을 고려할 때, 부모가 보호 요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및 상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Ⅳ

2차년도 참여자의 발달 및 학습 현황

01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발달 및 학습에 대한 인식

02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발달검사 결과

03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제 특성별 발달 비교

04 소결

Ⅳ. 2차년도 참여자의 발달 및 학습 현황

본 장에서는 2차년도 발달검사 참여자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고, 2차년도 참여자인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발달 검사(K-WPPSI-IV와 K-Vineland-2)의 전반적인 결과와 제 특성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1.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발달 및 학습에 대한 인식

가. 가구 배경

1) 만 3세반 유아

가) 가구 지출

만 3세반 유아 자녀를 둔 응답자 88명의 월평균 가구 총지출은 423.8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400~600만 원 미만이 4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0~400만 원 미만은 35.2%, 600만 원 이상은 17.0%, 200만 원 미만은 4.5%로 나타났다.

맞벌이의 경우 평균 436.8만 원이었고, 외벌이는 평균 395.7만 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가구소득 기준 600만 원 미만 가구의 지출이 349.0만 원으로,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는 총지출이 462.4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Ⅳ-1-1〉 만 3세반 유아 월평균 가구 총 지출

단위: %, 만 원(명)

구분		200만 원 미만	200~400만 원 미만	4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M	SD	계(명)
전 체		4.5	35.2	43.2	17.0	423.8	168.8	100.0 (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7	31.7	48.3	18.3	436.8	163.9	100.0 (60)
	외벌이	10.7	42.9	32.1	14.3	395.7	178.8	100.0 (28)

구분		200 만 원 미만	200~400 만 원 미만	400~600 만 원 미만	600 만 원 이상	M	SD	계(명)
	t	1.065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3.3	56.7	40.0	-	**349.0**	106.8	100.0 (30)
	600만 원 이상	5.2	24.1	44.8	25.9	**462.4**	182.3	100.0 (58)
	t	**-3.673*** **						

*** $p < .001$.

만 3세반 유아 자녀를 둔 응답자의 월평균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비를 살펴보면, 평균 41.0만원으로 나타났다. 20만 원 미만 지출하는 응답자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20~50만 원 미만 35.2%, 100만 원 이상 12.5%, 50~100만 원 미만 10.2%, 지출액 없음 4.5%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는 42.3만 원으로 외벌이 38.4만 원보다 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소득에서는 600만 원 미만 가구는 27.3만 원, 600만 원 이상 가구는 48.2만 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표 Ⅳ-1-2〉 만 3세반 유아 월평균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지출

단위: %, 만 원(명)

구분		없음	20 만 원 미만	20~50 만 원 미만	50~100 만 원 미만	100 만 원 이상	M	SD	계(명)
전 체		4.5	37.5	35.2	10.2	12.5	41.0	53.0	100.0 (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6.7	41.7	30.0	8.3	13.3	42.3	58.1	100.0 (60)
	외벌이	-	28.6	46.4	14.3	10.7	38.4	40.9	100.0 (28)
	t	0.315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3.3	46.7	36.7	3.3	10.0	**27.3**	28.6	100.0 (30)
	600만 원 이상	5.2	32.8	34.5	13.8	13.8	**48.2**	61.0	100.0 (58)
	t	**-2.186***							

* $p < .05$.

만 3세반 유아 자녀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50명 응답자의 사교육비 지출액 평균은 26.9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비 지출액 20만 원 미만이 42.0%로 가장 많았고, 20~50만 원 미만 40.0%, 50만 원 이상 18.0%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 26.9만 원으로 차이가 없었다.

〈표 Ⅳ-1-3〉 만 3세반 유아 월평균 사교육비(사교육 이용 가구만) 지출

단위: %, 만 원(명)

구분		20만 원 미만	20~50 만 원 미만	50 만 원 이상	M	SD	계(명)
전 체		42.0	40.0	18.0	26.9	20.4	100.0 (5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5.3	47.1	17.6	26.9	18.2	100.0 (34)
	외벌이	56.3	25.0	18.8	26.9	25.2	100.0 (16)
	t	-0.009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54.5	36.4	9.1	20.5	15.2	100.0 (11)
	600만 원 이상	38.5	41.0	20.5	28.7	21.5	100.0 (39)
	t	-1.190					

나) 자녀의 일상

만 3세반 유아 자녀가 부와 보내는 주당 평균 시간은 28.9시간으로 나타났다. 10~30시간 미만과 30~50시간 미만이 30.7%로 가장 많았으며, 10시간 미만 25.0%, 50시간 이상 12.5%, 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 없음이 1.1%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부는 평균 26.5시간을 보내고, 외벌이 가구의 부는 평균 34.0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Ⅳ-1-4〉 만 3세반 유아 일상: 父의 자녀와 보내는 시간(주당 평균 양육시간)

단위: %, 시간(명)

구분		없음	10시간 미만	10~30 시간 미만	30~50 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M	SD	계(명)
전 체		1.1	25.0	30.7	30.7	12.5	28.9	26.1	100.0 (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7	30.0	30.0	26.7	11.7	26.5	27.1	100.0 (60)
	외벌이	-	14.3	32.1	39.3	14.3	34.0	23.5	100.0 (28)
	t	-1.253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3.3	16.7	26.7	43.3	10.0	31.0	24.6	100.0 (30)
	600만 원 이상	-	29.3	32.8	24.1	13.8	27.8	27.0	100.0 (58)
	t	0.538							

만 3세반 유아 자녀가 모와 보내는 주당 평균 시간은 46.6시간으로 나타났으며, 30~50시간 미만이 31.8%로 가장 많았고, 50~70시간 27.3%, 30시간 미만 26.1%, 70시간 이상 14.8%로 나타났다. 맞벌이는 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평균 41.7시간인 반면, 외벌이는 평균 57.0시간으로 차이를 보였다.

〈표 Ⅳ-1-5〉 만 3세반 유아 일상: 귀의 자녀와 보내는 시간(주당 평균 양육시간)

단위: %, 시간(명)

구분		30시간 미만	30~50시간 미만	50~70시간 미만	70시간 이상	M	SD	계(명)
전 체		26.1	31.8	27.3	14.8	46.6	33.0	100.0 (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31.7	35.0	21.7	11.7	**41.7**	33.2	100.0 (60)
	외벌이	14.3	25.0	39.3	21.4	**57.0**	30.4	100.0 (28)
	t	-2.067*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23.3	40.0	23.3	13.3	47.8	32.8	100.0 (30)
	600만 원 이상	27.6	27.6	29.3	15.5	45.9	33.3	100.0 (58)
	t	0.244						

* $p < .05$.

만 3세반 유아 자녀의 TV/미디어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7.0시간으로 하루 평균 1시간으로 나타났다. 10시간 이상 이용하는 비중이 33.0%로 가장 많았으며, 3시간 미만은 27.3%, 7~10시간 미만 19.3%, 3~7시간 미만 18.2%, 자녀가 TV/미디어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2.3%로 나타났다. 외벌이 가구의 자녀는 TV/미디어 이용시간이 주당 평균 8.7시간인 반면, 맞벌이는 6.3시간으로 외벌이가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600만 원 미만 가구 자녀는 평균 9.2시간으로 600만 원 이상 가구 자녀의 5.9시간에 비해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6〉 만 3세반 유아 일상: 자녀의 TV/미디어 이용시간(주당 평균 시간)

단위: %, 시간(명)

구분		없음	3시간 미만	3~7시간 미만	7~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M	SD	계(명)
전 체		2.3	27.3	18.2	19.3	33.0	7.0	5.4	100.0 (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7	30.0	21.7	20.0	26.7	**6.3**	4.8	100.0 (60)
	외벌이	3.6	21.4	10.7	17.9	46.4	**8.7**	6.1	100.0 (28)
	t	-2.001*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3.3	20.0	13.3	6.7	56.7	**9.2**	6.3	100.0 (30)
	600만 원 이상	1.7	31.0	20.7	25.9	20.7	**5.9**	4.5	100.0 (58)
	t	2.501*							

* $p < .05$.

만 3세반 유아 자녀의 야외 활동 주당 평균 시간은 10.4시간으로 나타났으며, 10~20시간 미만이 42.0%로 가장 많았고, 5~10시간 미만 27.3%, 5시간 미만 19.3%, 20시간 이상도 11.4%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외벌이 자녀

의 야외 활동시간이 12.3시간으로 맞벌이 자녀의 9.5시간보다 다소 길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Ⅳ-1-7〉 만 3세반 유아 일상: 야외 활동 시간(주당 평균 시간)

단위: %, 시간(명)

구분		5시간 미만	5~10시간 미만	10~2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M	SD	계(명)
전 체		19.3	27.3	42.0	11.4	10.4	7.9	100.0 (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20.0	31.7	38.3	10.0	9.5	6.1	100.0 (60)
	외벌이	17.9	17.9	50.0	14.3	12.3	10.7	100.0 (28)
	t	−1.579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16.7	30.0	43.3	10.0	10.6	7.2	100.0 (30)
	600만 원 이상	20.7	25.9	41.4	12.1	10.2	8.3	100.0 (58)
	t	0.238						

만 3세반 유아 자녀의 일 평균 수면시간은 9.6시간으로 9시간 미만은 53.4%, 9시간 이상은 46.6%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자녀의 일 평균 수면시간은 9.6시간으로 외벌이 자녀의 9.5시간과 차이가 없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자녀의 일 평균 수면시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8〉 만 3세반 유아 일상: 자녀의 수면시간(일 평균 시간)

단위: %, 시간(명)

구분		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M	SD	계(명)
전 체		53.4	46.6	9.6	0.9	100.0 (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56.7	43.3	9.6	1.0	100.0 (60)
	외벌이	46.4	53.6	9.5	0.8	100.0 (28)
	t	0.703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60.0	40.0	9.6	1.0	100.0 (30)
	600만 원 이상	50.0	50.0	9.6	0.9	100.0 (58)
	t	−0.011				

2) 초등 1학년 아동

가) 가구 지출

초등 1학년 아동 자녀를 둔 55명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 총 지출은 평균 452.5만 원으로 나타났다. 300~500만 원 미만은 36.4%로 가장 많았으며, 500~600만 원 미만 27.3%, 600만 원 이상 21.8%, 300만 원 미만 14.5%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445.3만 원에 비해 외벌이 462.6만 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600만 원 이상 가구가 485.9만 원으로 600만 원 미만 가구의 319.1만 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Ⅳ-1-9〉 초등 1학년 아동 월평균 가구 총 지출

단위: %(명)

구분		300만 원 미만	3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 원 이상	M	SD	계(명)
전 체		14.5	36.4	27.3	21.8	452.5	173.0	100.0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8.8	40.6	12.5	28.1	445.3	183.7	100.0 (32)
	외벌이	8.7	30.4	47.8	13.0	462.6	160.5	100.0 (23)
	t	-0.363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27.3	54.5	18.2	-	**319.1**	103.1	100.0 (11)
	600만 원 이상	11.4	31.8	29.5	27.3	**485.9**	171.6	100.0 (44)
	t	**-3.076****						

** $p < .01$.

초등 1학년 아동 자녀를 둔 응답자의 자녀 교육비는 월평균 40.4만 원으로 나타났다. 20~50만 원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50~100만 원 미만 18.2%, 100만 원 이상 14.5%, 20만 원 미만 12.7%, 해당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이 없음도 16.4%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 맞벌이의 초등 1학년 월평균 교육비가 52.3만 원으로 외벌이 23.8만 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만 3세반 유아 자녀를 둔 응답자의 평균 자녀 교육비 41.0만 원과 지출액이 유사한 수준이다.

〈표 Ⅳ-1-10〉 초등 1학년 아동 월평균 (초등학교) 교육비 지출

단위: %(명)

구분		없음	20만 원 미만	20~50만 원 미만	50~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M	SD	계(명)
전 체		16.4	12.7	38.2	18.2	14.5	40.4	37.8	100.0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9.4	3.1	43.8	21.9	21.9	**52.3**	38.9	100.0 (32)
	외벌이	26.1	26.1	30.4	13.0	4.3	**23.8**	29.6	100.0 (23)
	t	**2.955****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	9.1	63.6	18.2	9.1	42.6	30.8	100.0 (11)
	600만 원 이상	20.5	13.6	31.8	18.2	15.9	39.8	39.6	100.0 (44)
	t	0.219							

** $p < .01$.

초등 1학년 아동 자녀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81.0만 원이었으며, 100만 원 이상이 32.7%로 가장 많았고, 50~100만 원 미만이 30.9%, 20~50만 원 미만 21.8%, 20만 원 미만은 14.5%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의 경우 초등 1학년 아동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85.8만 원으로 외벌이 74.4만 원보다 다소 높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만 3세반 유아 사교육비가 26.9만 원인데 반해 초등 1학년 아동은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1-11〉 초등 1학년 아동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단위: %(명)

구분		20만 원 미만	20~50만 원 미만	50~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M	SD	계(명)
전 체		14.5	21.8	30.9	32.7	81.0	70.7	100.0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6.3	21.9	31.3	40.6	85.8	56.9	100.0 (32)
	외벌이	26.1	21.7	30.4	21.7	74.4	87.4	100.0 (23)
	t	0.584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9.1	63.6	9.1	18.2	58.3	61.7	100.0 (11)
	600만 원 이상	15.9	11.4	36.4	36.4	86.7	72.3	100.0 (44)
	t	-1.199						

나) 자녀의 일상

초등 1학년 아동 자녀가 부와 보내는 주당 평균 시간은 21.7시간으로 나타났으며, 10~30시간 미만 43.6%, 30~50시간 미만 23.6%, 10시간 미만 21.8%, 50시간 이상 9.1%, 부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없음도 1.8%로 나타났다.

〈표 Ⅳ-1-12〉 초등 1학년 아동 일상: 父의 자녀와 보내는 시간(주당 평균 양육시간)

단위: %(명)

구분		없음	10시간 미만	10~30시간 미만	30~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M	SD	계(명)
전 체		1.8	21.8	43.6	23.6	9.1	21.7	16.8	100.0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	21.9	34.4	31.3	12.5	**25.3**	18.4	100.0 (32)
	외벌이	4.3	21.7	56.5	13.0	4.3	**16.7**	13.3	100.0 (23)
	t	**2.028***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9.1	36.4	45.5	9.1	-	14.3	12.8	100.0 (11)
	600만 원 이상	-	18.2	43.2	27.3	11.4	23.6	17.3	100.0 (44)
	t	-1.668							

* $p < .05$.

초등 1학년 아동이 모와 보내는 주당 평균 시간은 44.5시간이었으며, 30시간 미만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50~70시간 미만 27.3%, 30~50시간 미만 21.8%, 70시간 이상이 16.4%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모가 초등 1학년 아동 자녀와 주당 평균 보내는 시간은 41.5시간인 반면 외벌이는 48.7시간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600만 원 이상 가구의 모가 자녀와 보내는 주당 평균시간은 48.0시간인 반면 600만 원 미만은 30.6시간으로 차이를 보였다.

〈표 Ⅳ-1-13〉 초등 1학년 아동 일상: 母의 자녀와 보내는 시간(주당 평균 양육시간)

단위: %(명)

구분		30시간 미만	30~50시간 미만	50~70시간 미만	70시간 이상	M	SD	계(명)
전 체		34.5	21.8	27.3	16.4	44.5	31.5	100.0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4.4	28.1	25.0	12.5	41.5	27.4	100.0 (32)
	외벌이	34.8	13.0	30.4	21.7	48.7	36.7	100.0 (23)
	t	−0.833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54.5	36.4	9.1	0.0	**30.6**	16.1	100.0 (11)
	600만 원 이상	29.5	18.2	31.8	20.5	**48.0**	33.5	100.0 (44)
	t	**−2.471***						

* $p < .05$.

초등 1학년 아동 자녀가 TV/미디어를 이용하는 주당 평균 시간은 7.5시간으로 하루 평균 1시간 정도로 만 3세반 유아의 TV/미디어 이용시간 응답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0시간 이상이 29.1%로 가장 많았고, 7~10시간 미만은 27.3%, 3~7시간 미만 23.6%, 3시간 미만 20.0%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나 가구소득에 따른 초등 1학년 아동 자녀의 TV/미디어 이용시간의 차이는 없었다.

〈표 Ⅳ-1-14〉 초등 1학년 아동 일상: 자녀의 TV/미디어 이용시간(주당 평균 시간)

단위: %(명)

구분		3시간 미만	3~7시간 미만	7~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M	SD	계(명)
전 체		20.0	23.6	27.3	29.1	7.5	5.7	100.0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25.0	15.6	31.3	28.1	7.3	5.7	100.0 (32)
	외벌이	13.0	34.8	21.7	30.4	7.8	5.8	100.0 (23)
	t	−0.346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18.2	18.2	36.4	27.3	7.5	5.4	100.0 (11)
	600만 원 이상	20.5	25.0	25.0	29.5	7.5	5.8	100.0 (44)
	t	0.023						

초등 1학년 아동 자녀의 야외 활동 주당 평균 시간은 9.1시간으로 만 3세반 유아 10.4시간에 비해 1시간 정도 짧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20시간 미만이 41.8%로 가장 많았으며, 5~10시간 미만 27.3%, 5시간 미만 23.6%, 20시간 이상 7.3%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나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초등 1학년 아동 자녀의 야외 활동 시간에 차이는 없었다.

〈표 Ⅳ-1-15〉 초등 1학년 아동 일상: 야외 활동 시간(주당 평균 시간)

단위: %(명)

구분		5시간 미만	5~10시간 미만	10~20시간 미만	20시간 이상	M	SD	계(명)
전 체		23.6	27.3	41.8	7.3	9.1	5.8	100.0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4.4	21.9	31.3	12.5	8.9	6.7	100.0 (32)
	외벌이	8.7	34.8	56.5	-	9.3	4.4	100.0 (23)
	t	-0.201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9.1	18.2	72.7	-	10.4	4.4	100.0 (11)
	600만 원 이상	27.3	29.5	34.1	9.1	8.8	6.1	100.0 (44)
	t	0.819						

초등 1학년 아동 자녀의 일 평균 수면시간은 9.1시간으로 만 3세반 유아 자녀의 9.6시간보다 다소 짧다. 9시간 미만이 72.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9시간 이상은 27.3%를 차지하였다. 외벌이 자녀는 평균 9.4시간으로 맞벌이 자녀의 8.9시간 보다 더 긴 수면시간을 나타냈다.

〈표 Ⅳ-1-16〉 초등 1학년 아동: 자녀의 수면시간(일 평균 시간)

단위: %(명)

구분		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M	SD	계(명)
전 체		72.7	27.3	9.1	0.7	100.0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84.4	15.6	**8.9**	0.7	100.0 (32)
	외벌이	56.5	43.5	**9.4**	0.5	100.0 (23)
	t	**-2.854****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63.6	36.4	9.4	0.5	100.0 (11)
	600만 원 이상	75.0	25.0	9.1	0.7	100.0 (44)
	t	1.198				

** $p < .01$.

나. 기관 및 학교 이용 특성

1) 만 3세반 유아

가) 기관 이용 유형 및 이용 기간

만 3세반 유아 자녀가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이용한 육아·보육기관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98.9%로 대부분의 자녀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은 13.6%, 반일제 이상 학원 중 영어학원 12.5%, 유아체능단 8.0%, 놀이학원 6.8%,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을 6.8%가 이용하였으며, 그 외 기타 기관은 1.1%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자녀의 경우, 모든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 하였으며, 유치원 13.3%, 반일제 이상 학원 중 영어학원 13.3%, 놀이학원 및 유아체능단은 각각 8.3%,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은 5.0%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을 96.4%가 이용하였으며, 유치원 14.3%, 반일제 이상 학원의 영어학원을 10.7%,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10.7%, 유아체능단 7.1%, 놀이학원을 3.6%가 이용하였으며, 그 외 기타 기관을 3.6%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은 소득수준 6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자녀 19.0%가 이용하고, 600만 원 미만인 가구 자녀의 3.3%가 이용하였다. 반일제 이상 학원은 영어학원과 놀이학원은 6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이용하였으며 이용률은 각각 19.0%, 10.3%로 나타났고, 유아체능단과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의 이용률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 외 기타 기관은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1.7%만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7〉 만 3세반 유아의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이용 육아·보육기관(반일제 이상 학원 세분화)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계(명)	
				영어 학원	놀이 학원	유아 체능단	기타			
전 체		13.6	98.9	12.5	6.8	8.0	6.8	1.1	100.0	(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3	100.0	13.3	8.3	8.3	5.0	-	100.0	(60)
	외벌이	14.3	96.4	10.7	3.6	7.1	10.7	3.6	100.0	(28)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3.3	100.0	-	-	6.7	6.7	-	100.0	(30)
	600만 원 이상	19.0	98.3	19.0	10.3	8.6	6.9	1.7	100.0	(58)

자녀가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이용한 기관의 평균 기간을 살펴보면, 총 이용 기간은 33.4개월, 어린이집 30.5개월, 기타 기관 17.0개월, 반일제 이상 학원 8.1개월, 유치원 5.8개월 순으로 나타났고,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8.8개월, 놀이학원 6.7개월, 영어학원 5.5개월, 유아체능단 4.7개월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한 이용 기간의 차이는 없었다.

〈표 Ⅳ-1-18〉 만 3세반 유아의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기관 평균 이용 기간

단위: 개월(명)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총 이용기간	(명)
				영어학원	놀이학원	유아체능단	기타	이용기간			
전 체		5.8	30.5	5.5	6.7	4.7	8.8	8.1	17.0	33.4	(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5.8	31.3	5.1	7.0	5.8	6.7	7.4	24.0	34.6	(60)
	외벌이	6.0	28.7	6.7	5.0	2.0	11.0	10.3	10.0	31.1	(28)
	t	-0.238	1.175	-0.705					-	1.391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6.0	30.8	-	-	3.0	4.5	3.8	-	31.5	(30)
	600만 원 이상	5.8	30.3	5.5	6.7	5.4	11.0	9.1	17.0	34.4	(58)
	t	-	0.243	-1.687					-	-1.175	

주: 해당 유형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표본은 제외하고 평균한 결과임.

만 3세반 유아 자녀를 둔 응답자의 만 3세반 유아의 현재 이용 기관을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53.4%로 가장 많았으며, 국공립 외 어린이집 27.3%, 사립 유치원 11.4%, 반일제 이상 학원 8.0%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600만 원 이상 56.9%, 600만 원 미만 46.7%, 사립 유치원은 600만 원 이상 15.5%, 600만 원 미만 3.3%, 반일제 이상 학원은 600만 원 이상 12.1%, 600만 원 미만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 외 어린이집은 600만 원 미만이 50.0% 이용한 반면 600만 원 이상은 15.5%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9〉 만 3세반 유아의 현재 이용 기관

단위: %(명)

구분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외)	반일제 이상 학원	계(명)
전 체		11.4	53.4	27.3	8.0	100.0 (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0	60.0	20.0	10.0	100.0 (60)
	외벌이	14.3	39.3	42.9	3.6	100.0 (28)
	χ^2	6.491(3)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3.3	46.7	50.0	-	100.0 (30)
	600만 원 이상	15.5	56.9	15.5	12.1	100.0 (58)
	χ^2	15.212(3)**				

** $p < .01$

나) 사교육 이용 유형 및 이용시간

만 3세반 유아가 현재 이용 중인 사교육 교과목을 살펴보면, 없음이 43.2%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체육(발레, 수영, 태권도 등) 29.5%, 미술(그림, 공작, 서예 등) 21.6%, 국어(한글, 동화구연, 웅변, 논술 등) 18.2%, 영어 17.0%, 수학(숫자, 산수, 주산 등) 15.9%, 창의성 프로그램(호기심 놀이 등) 10.2%, 기타 6.8%, 음악(피아노, 바이올린 등) 4.5%, 과학 2.3%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가 체육 33.3%, 국어 20.0%, 음악 6.7%, 과학 3.3%, 외벌이가 체육 21.4%, 국어 14.3%, 음악 및 과학 0.0%로 맞벌이의 이용 비중이 높았으며, 미술은 외벌이 25.0%, 맞벌이 20.0%로 외벌이가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사교육에 대한 이용률이 높아 전반적인 과목에서 이용 비중이 600만 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Ⅳ-1-20〉 만 3세반 유아의 현재 이용 중인 사교육 교과목

단위: %(명)

구분		체육	미술	국어	영어	수학	창의성 프로그램	음악	과학	기타	없음	(명)
전 체		29.5	21.6	18.2	17.0	15.9	10.2	4.5	2.3	6.8	43.2	(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33.3	20.0	20.0	16.7	15.0	10.0	6.7	3.3	8.3	43.3	(60)
	외벌이	21.4	25.0	14.3	17.9	17.9	10.7	-	-	3.6	42.9	(28)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16.7	10.0	6.7	6.7	10.0	6.7	-	3.3	-	63.3	(30)
	600만 원 이상	36.2	27.6	24.1	22.4	19.0	12.1	6.9	1.7	10.3	32.8	(58)

만 3세반 유아가 현재 이용 중인 사교육 프로그램 수는 1~2개가 56.0%로 가장 많았으며, 3~4개 38.0%, 5~10개 6.0%로 나타나 평균 2.42개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에 따라 600만 원 이상은 2.64개인 반면 600만 원 미만은 1.64개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인 경우 2.59개, 외벌이 2.06개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Ⅳ-1-21〉 만 3세반 유아의 현재 이용 중인 사교육 프로그램 수

단위: %, 개(명)

구분		1~2개	3~4개	5~10개	M	SD	계(명)
전 체		56.0	38.0	6.0	2.42	1.28	100.0 (50)
맞벌이 여부	맞벌이	50.0	44.1	5.9	2.59	1.23	100.0 (34)
	외벌이	68.8	25.0	6.3	2.06	1.34	100.0 (16)
	t	1.368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90.9	9.1	-	**1.64**	0.67	100.0 (11)
	600만 원 이상	46.2	46.2	7.7	**2.64**	1.33	100.0 (39)
	t	-3.416**					

주: 1)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은 표본은 제외하고 평균한 결과임.
2) t검정은 이용 중인 사교육 프로그램 수 평균 차이를 검정한 결과임.
** $p < .01$.

만 3세반 유아가 현재 이용 중인 교육서비스 유형을 살펴보면, 유치원·어린이집·반일제 이상 학원은 모두 이용하고 있으며, 학습지(방문교사) 22.7%, 학원(정규수업 이외에 추가로 이용하는 교육서비스 기관) 19.3%, 사설기관 교육(문화센터, 종교기관 등) 13.6%, 공공기관 교육(주민센터, 복지관 등) 9.1%,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과외) 6.8%, 인터넷/화상 강의 4.5%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의 경우 학습지(25.0%), 사설기관 교육(18.3%) 이용 비중이 외벌이(학습지 17.9%, 사설기관 교육 3.6%) 보다 많았으며, 외벌이의 경우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 비중이 14.3%로 맞벌이 3.3%보다 많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서비스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600만 원 이상이 600만 원 미만보다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2〉 만 3세반 유아의 현재 이용 교육서비스

단위: %(명)

구분		유치원·어린이집·반일제 이상 학원	학습지	학원	사설기관 교육	공공기관 교육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	인터넷/화상 강의	(명)
전 체		100.0	22.7	19.3	13.6	9.1	6.8	4.5	(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0.0	25.0	20.0	18.3	8.3	3.3	3.3	(60)
	외벌이	100.0	17.9	17.9	3.6	10.7	14.3	7.1	(28)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100.0	10.0	16.7	-	-	3.3	-	(30)
	600만 원 이상	100.0	29.3	20.7	20.7	13.8	8.6	6.9	(58)

만 3세반 유아가 현재 이용 중인 교육서비스의 일주일 평균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총 36.0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어린이집·반일제 이상 학원은 34.8시간, 학원(정규수업 이외에 추가로 이용하는 교육서비스 기관) 2.4시간,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2.0시간, 인터넷/화상 강의 1.8시간, 공공기관 교육(주민센터, 복지관 등) 1.5시간, 학습지(방문교사) 1.2시간, 사설기관 교육(문화센터, 종교기관 등) 1.0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23〉 만 3세반 유아의 교육서비스 일주일 평균 이용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유치원·어린이집·반일제 이상 학원	학습지	학원	사설기관 교육	공공기관 교육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	인터넷/화상 강의	교육서비스기관 총 이용시간(평균)	(명)
전 체		34.8	1.2	2.4	1.0	1.5	2.0	1.8	36.0	(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35.7	1.2	2.4	1.0	1.0	1.0	1.5	36.9	(60)
	외벌이	32.9	1.2	2.2	1.0	2.3	2.5	2.0	34.3	(28)
	t	1.917	-						1.787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35.8	1.0	2.0	-	-	5.0	-	36.4	(30)
	600만 원 이상	34.3	1.2	2.5	1.0	1.5	1.4	1.8	35.8	(58)
	t	1.050	-						0.416	

주: 교육서비스기관 총 이용시간과 유치원·어린이집·반일제 이상 학원을 제외한 항목은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아 검정하지 않음.

2) 초등 1학년 아동

가) 기관 이용 유형 및 이용 기간

초등 1학년 아동 자녀가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이용한 육아·보육기관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90.9%가 이용하였고, 유치원은 40.0%, 반일제 이상 학원 중 영어학원 34.5%,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14.5%, 유아체능단 5.5%, 놀이학원 1.8%가 이용하였고, 기타 기관은 1.8%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 자녀의 93.8%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였으며, 유치원은 34.4%,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영어학원은 31.3%,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9.4%, 유아체능단 6.3%, 놀이학원 3.1%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 자녀는 87.0%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였으며, 유치원은 47.8%, 반일제 이상 학원의 영어학원은 39.1%,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21.7%, 유아체능단 4.3%, 그리고 그 외 기타 기관을 4.3%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은 90.9%가 이용하였으며, 유치원은 600만 원 이상인 가구 자녀의 43.2%, 600만 원 미만인 가구 자녀의 27.3%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일제 이상 학원 중 영어학원은 600만 원 미만 36.4%, 600만 원 이상 34.1%가 이용하였으며, 600만 원 미만은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을 9.1%, 600만 원 이상은 15.9%가 이용하였고, 유아체능단은 600만 원 이상만 6.8% 이용하였고, 놀이학원은 2.3%가 이용하였으며 600만 원 미만은 이용한 자녀가 없었다. 그 외 기타 기관은 600만 원 미만의 가구 자녀의 9.1%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4〉 초등 1학년 아동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이용 육아·보육기관(반일제 이상 학원 세분화)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계(명)	
				영어학원	놀이학원	유아체능단	기타			
전 체		40.0	90.9	34.5	1.8	5.5	14.5	1.8	100.0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4.4	93.8	31.3	3.1	6.3	9.4	-	100.0	(32)
	외벌이	47.8	87.0	39.1	-	4.3	21.7	4.3	100.0	(23)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27.3	90.9	36.4	-	-	9.1	9.1	100.0	(11)
	600만 원 이상	43.2	90.9	34.1	2.3	6.8	15.9	-	100.0	(44)

자녀가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이용한 기관의 평균 기간을 물어보았다. 총 이용 기간은 64.9개월이었으며, 어린이집 48.0개월, 유치원 28.8개월, 기타 기관 26.0개월, 반일제 이상 학원 18.3개월로 나타났으며, 반일제 이상 학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놀이학원 25.0개월, 영어학원 19.1개월,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12.3개월, 유아체능단 8.3개월로 나타났다.

〈표 Ⅳ-1-25〉 초등 1학년 아동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기관 평균 이용 기간(개월)

단위: 개월(명)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총 이용기간	(명)
				영어학원	놀이학원	유아체능단	기타	이용기간			
전 체		28.8	48.0	19.1	25.0	8.3	12.3	18.3	26.0	64.9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6	50.4	22.9	25.0	12.0	10.0	20.5	-	66.7	(32)
	외벌이	28.9	44.4	14.9	-	1.0	13.6	15.6	26.0	62.3	(23)
	t	-0.059	0.983	1.089					-	0.845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24.7	53.0	16.8	-	-	24.0	18.2	26.0	65.5	(11)
	600만 원 이상	29.4	46.7	19.7	25.0	8.3	10.6	18.3	-	64.7	(44)
	t	-0.717	0.830	-0.010					-	0.127	

주: 해당 유형의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표본은 제외하고 평균한 결과임.

초등 1학년 아동 자녀를 둔 응답자의 초등 1학년 아동이 현재 이용 중인 기관을 살펴보면 공립 초등학교 94.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사립 초등학교는 5.5%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 이용 여부는 맞벌이 여부나 가구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표 Ⅳ-1-26〉 초등 1학년 아동 현재 이용 학교 유형

단위: %(명)

구분		공립 초등학교	사립 초등학교	계(명)	
전 체		94.5	5.5	100.0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90.6	9.4	100.0	(32)
	외벌이	100.0	-	100.0	(23)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100.0	-	100.0	(11)
	600만 원 이상	93.2	6.8	100.0	(44)

나) 사교육 이용 유형 및 이용시간

초등 1학년 아동이 현재 이용 중인 사교육 교과목을 살펴보면, 체육(발레, 수영, 태권도 등)이 63.6%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술(그림, 공작, 서예 등)과 영어가 각각 60.0%, 음악(피아노, 바이올린 등) 54.5%, 수학(숫자, 산수, 주산 등) 47.3%, 국어(한글, 동화구연, 웅변, 논술 등) 27.3%, 과학 16.4%, 기타 14.5%, 컴퓨터, 한자, 창의성 프로그램(호기심 놀이 등)이 각각 10.9%, 기타 외국어(중국어 등) 7.3%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외벌이가 맞벌이보다 사교육 이용하는 비중이 대부분의 과목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 영어, 음악, 수학, 국어, 과학, 컴퓨터, 한자, 기타 외국어, 기타에서 높았으며, 체육, 창의 프로그램만 맞벌이에서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600만 원 미만의 가구의 자녀가 체육, 음악, 국어, 기타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600만 원 이상보다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7〉 초등 1학년 아동 현재 이용 중인 사교육 교과목

단위: %(명)

구분		체육	미술	영어	음악	수학	국어	과학	컴퓨터	한자	창의성 프로그램	기타 외국어	기타	(명)
전 체		63.6	60.0	60.0	54.5	47.3	27.3	16.4	10.9	10.9	10.9	7.3	14.5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65.6	56.3	53.1	50.0	43.8	25.0	12.5	9.4	6.3	12.5	6.3	9.4	(32)
	외벌이	60.9	**65.2**	**69.6**	**60.9**	**52.2**	**30.4**	**21.7**	13.0	**17.4**	8.7	8.7	**21.7**	(23)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54.5	**81.8**	**72.7**	54.5	**54.5**	18.2	18.2	**18.2**	**27.3**	**18.2**	9.1	9.1	(11)
	600만 원 이상	**65.9**	54.5	56.8	54.5	45.5	**29.5**	15.9	9.1	6.8	9.1	6.8	**15.9**	(44)

초등 1학년 아동이 현재 이용 중인 사교육 프로그램 수를 살펴보면, 5~10개가 47.3%로 가장 많았으며, 3~4개 27.3%, 1~2개 25.5%로 나타나 평균 4.35개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Ⅳ-1-28〉 초등 1학년 아동 현재 이용 중인 사교육 프로그램 수

단위: %, 개(명)

구분		1~2개	3~4개	5~10개	M	SD	계(명)
전 체		25.5	27.3	47.3	4.35	2.24	100.0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1	21.9	50.0	4.19	2.24	100.0 (32)
	외벌이	21.7	34.8	43.5	4.57	2.27	100.0 (23)
	t	-0.614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18.2	36.4	45.5	4.82	2.52	100.0 (11)
	600만 원 이상	27.3	25.0	47.7	4.23	2.18	100.0 (44)
	t	0.780					

주: 1)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은 표본은 제외하고 평균한 결과임.
2) t검정은 이용 중인 사교육 프로그램 수 평균 차이를 검정한 결과임.

초등 1학년 아동이 현재 이용 중인 교육서비스를 살펴보면, 학원(정규수업 이외에 추가로 이용하는 교육서비스 기관) 81.8%, 교내 방과후 교실 63.6%, 학습지(방문교사) 43.6%, 인터넷/화상 강의 27.3%,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23.6%, 공공기관 교육(주민센터, 복지관 등) 20.0%, 사설기관 교육(문화센터, 종교기관 등) 12.7%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의 경우 학원(84.4%),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28.1%) 이용 비중이 외벌이(학원 78.3%,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 17.4%)보다 높았으며, 외벌이는 공공기관 교육이 30.4%로 맞벌이 12.5%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600만 원 이상 가구가 학원, 교내 방과후 교실,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 이용 비중이 600만 원 미만 가구보다 높았으며, 공공기관 교육과 사설기관 교육은 600만 원 미만 가구가 600만 원 이상 가구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9〉 초등 1학년 아동 현재 이용 교육서비스

단위: %(명)

구분		초등 학교	학원	교내 방과후 교실	학습지	인터넷/ 화상 강의	가정 내 개인/ 그룹지도	공공 기관 교육	사설 기관 교육	(명)
전 체		100.0	81.8	63.6	43.6	27.3	23.6	20.0	12.7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0.0	84.4	65.6	43.8	28.1	28.1	12.5	12.5	(32)
	외벌이	100.0	78.3	60.9	43.5	26.1	17.4	30.4	13.0	(23)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100.0	72.7	54.5	45.5	27.3	18.2	27.3	27.3	(11)
	600만 원 이상	100.0	84.1	65.9	43.2	27.3	25.0	18.2	9.1	(44)

다. 만 3세반 유아의 부모와 교사 인식

1) 부모 인식

가)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의 전체 평균은 7점 척도에서 5.47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행복감은 5.55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은 5.50점, 아주 행복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5.24점, 아주 불행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5.58점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 행복감보다 약간 낮아졌지만 아주 행복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더 낮아진 반면 아주 불행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Ⅳ-1-30〉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단위: %(명)

구분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②	③	보통이다	⑤	⑥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M	SD	계(명)
전 체	-	0.6	1.7	21.9	21.9	34.4	19.6	5.47	1.12	100.0 (88)
전반적인 행복감	-	-	1.1	18.2	22.7	40.9	17.0	5.55	1.02	100.0 (88)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행복감	-	-	2.3	18.2	25.0	36.4	18.2	5.50	1.06	100.0 (88)
아주 행복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	-	1.1	2.3	29.5	21.6	29.5	15.9	5.24	1.17	100.0 (88)
아주 불행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	-	1.1	1.1	21.6	18.2	30.7	27.3	5.58	1.20	100.0 (88)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중 전반적인 행복감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600만 원 미만인 경우보다 전반적인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1-31〉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전반적인 행복감

단위: %(명)

구분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②	③	보통이다	⑤	⑥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M	SD	계(명)
전 체		-	-	1.1	18.2	22.7	40.9	17.0	5.55	1.02	100.0 (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	-	1.7	16.7	23.3	41.7	16.7	5.55	1.02	100.0 (60)
	외벌이	-	-	-	21.4	21.4	39.3	17.9	5.54	1.04	100.0 (28)
	t	0.061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	-	3.3	33.3	23.3	26.7	13.3	5.13	1.14	100.0 (30)
	600만 원 이상	-	-	-	10.3	22.4	48.3	19.0	5.76	0.88	100.0 (58)
	t	-2.629*									

* $p < .05$.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중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은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1-32〉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

단위: %(명)

구분		매우 행복하지 않다	②	③	보통이다	⑤	⑥	매우 행복하다	M	SD	계(명)
전 체		-	-	2.3	18.2	25.0	36.4	18.2	5.50	1.06	100.0 (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	-	1.7	18.3	25.0	36.7	18.3	5.52	1.05	100.0 (60)
	외벌이	-	-	3.6	17.9	25.0	35.7	17.9	5.46	1.10	100.0 (28)
	t	0.214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	-	6.7	26.7	20.0	30.0	16.7	5.23	1.22	100.0 (30)
	600만 원 이상	-	-	-	13.8	27.6	39.7	19.0	5.64	0.95	100.0 (58)
	t	-1.582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중 아주 행복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600만 원 미만인 경우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1-33〉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아주 행복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②	③	보통이다	⑤	⑥	매우 그렇다	M	SD	계(명)
전 체		-	1.1	2.3	29.5	21.6	29.5	15.9	5.24	1.17	100.0 (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	1.7	1.7	25.0	23.3	31.7	16.7	5.32	1.17	100.0 (60)
	외벌이	-	-	3.6	39.3	17.9	25.0	14.3	5.07	1.18	100.0 (28)
	t	0.876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	3.3	3.3	40.0	23.3	20.0	10.0	4.83	1.21	100.0 (30)
	600만 원 이상	-	-	1.7	24.1	20.7	34.5	19.0	5.45	1.11	100.0 (58)
	t	-2.391*									

* $p < .05$.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중 아주 불행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600만 원 미만인 경우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1-34〉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아주 불행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

단위: %(명)

구분		매우 그렇다	②	③	보통이다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M	SD	계(명)
전 체		-	1.1	1.1	21.6	18.2	30.7	27.3	5.58	1.20	100.0 (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	-	1.7	21.7	20.0	28.3	28.3	5.60	1.17	100.0 (60)
	외벌이	-	3.6	-	21.4	14.3	35.7	25.0	5.54	1.29	100.0 (28)
	t	0.233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	3.3	3.3	30.0	16.7	26.7	20.0	5.20	1.35	100.0 (30)
	600만 원 이상	-	-	-	17.2	19.0	32.8	31.0	5.78	1.08	100.0 (58)
	t	-2.178*									

* $p < .05$.

나) 부부 갈등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부부갈등의 전체 평균은 5점 척도에서 2.05점으로 갈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점수는 1.84점~2.38점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는 항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는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표 Ⅳ-1-35〉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부부갈등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계(명)
전 체	37.1	32.4	19.7	10.1	0.7	2.05	1.02	100.0 (88)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47.7	27.3	18.2	6.8	-	1.84	0.96	100.0 (88)
2) 남편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38.6	37.5	13.6	9.1	1.1	1.97	1.00	100.0 (88)
3)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31.8	28.4	23.9	14.8	1.1	2.25	1.10	100.0 (88)
4)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40.9	31.8	17.0	9.1	1.1	1.98	1.03	100.0 (88)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38.6	31.8	21.6	8.0	-	1.99	0.96	100.0 (88)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45.5	29.5	17.0	5.7	2.3	1.90	1.03	100.0 (88)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31.8	34.1	26.1	8.0	-	2.10	0.95	100.0 (88)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21.6	38.6	20.5	19.3	-	2.38	1.03	100.0 (88)

다) 양육 스트레스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전체 평균은 5점 척도에서 2.24점으로 스트레스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점수는 1.56점~3.01점으로 나타났으며,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항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아이 때문에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는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표 Ⅳ-1-36〉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계(명)
전 체	29.5	32.4	23.9	12.9	1.2	2.24	1.05	100.0 (88)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25.0	33.0	30.7	10.2	1.1	2.30	1.00	100.0 (88)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21.6	52.3	19.3	6.8	-	2.11	0.82	100.0 (88)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계(명)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29.5	31.8	25.0	12.5	1.1	2.24	1.05	100.0 (88)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38.6	37.5	21.6	2.3	-	1.88	0.83	100.0 (88)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52.3	27.3	14.8	5.7	-	1.74	0.92	100.0 (88)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9.1	20.5	35.2	30.7	4.5	3.01	1.03	100.0 (88)
7) 아이 때문에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58.0	29.5	11.4	1.1	-	1.56	0.74	100.0 (88)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19.3	33.0	33.0	12.5	2.3	2.45	1.02	100.0 (88)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13.6	31.8	19.3	33.0	2.3	2.78	1.12	100.0 (88)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9.1	27.3	36.4	25.0	2.3	2.84	0.98	100.0 (88)
1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8.9	33.0	15.9	2.3	-	1.72	0.82	100.0 (88)

라)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대한민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평균은 10점 척도에서 6.20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일 때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점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Ⅳ-1-37〉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인식: 대한민국

단위: %(명)

구분		최하층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최상층	M	SD	계(명)
전 체		-	1.1	8.0	4.5	11.4	30.7	21.6	20.5	2.3	-	6.20	1.55	100.0 (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	-	5.0	5.0	15.0	30.0	21.7	20.0	3.3	-	6.32	1.43	100.0 (60)
	외벌이	-	3.6	14.3	3.6	3.6	32.1	21.4	21.4	-	-	5.96	1.79	100.0 (28)
	t	0.990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	3.3	23.3	3.3	23.3	33.3	13.3	-	-	-	5.00	1.49	100.0 (30)
	600만 원 이상	-	-	-	5.2	5.2	29.3	25.9	31.0	3.4	-	6.83	1.19	100.0 (58)
	t	-6.274***												

*** $p < .001$.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지역사회나 공동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평균은 10점 척도에서 6.39점으로 대한민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대한민국에서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일 때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점수가 훨씬 높았다.

〈표 Ⅳ-1-38〉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인식: 지역사회나 공동체 (직장, 교회, 친인척 일가, 친구, 동호회 등)

단위: %(명)

구분		최하층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최상층	M	SD	계(명)
전 체		-	1.1	4.5	4.5	17.0	25.0	19.3	21.6	6.8	-	6.39	1.58	100.0 (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	-	6.7	1.7	16.7	23.3	23.3	21.7	6.7	-	6.47	1.53	100.0 (60)
	외벌이	-	3.6	-	10.7	17.9	28.6	10.7	21.4	7.1	-	6.21	1.69	100.0 (28)
	t	0.696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	3.3	10.0	10.0	30.0	33.3	3.3	6.7	3.3	-	5.33	1.54	100.0 (30)
	600만 원 이상	-	-	1.7	1.7	10.3	20.7	27.6	29.3	8.6	-	6.93	1.31	100.0 (58)
	t	-5.108***												

*** $p < .001$.

마) 자녀의 신체발달

만 3세반 유아의 키는 평균 102.95cm로 전년 만 2세반 영아 때보다 6.83cm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반 유아의 키(2022년 기준, 만 2세반 시기)는 소득수준에 따라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600만 원 미만 소득 가정의 유아가 0.08cm 컸다.

〈표 Ⅳ-1-39〉 만 3세반 유아의 키

단위: cm(명)

구분		키				Gap	사례수
		2022년		2023년			
		M	SD	M	SD		
전 체		96.12	5.46	102.95	5.81	6.83	(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95.71	5.10	102.82	5.27	7.11	(60)
	외벌이	97.01	6.16	103.24	6.91	6.23	(28)
	t	0.689		0.049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96.17	6.34	101.75	7.65	5.58	(30)
	600만 원 이상	96.09	5.00	103.57	4.53	7.47	(58)
	t	2.096*		0.115			

* $p < .05$.

만 3세반 유아의 몸무게는 평균 16.72kg으로 전년 만 2세반 영아 때보다 2.00kg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나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1-40〉 만 3세반 유아의 몸무게

단위: kg(명)

구분		몸무게					사례수
		2022년		2023년		Gap	
		M	SD	M	SD		
전 체		14.72	2.17	16.72	2.48	2.00	(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73	2.13	16.70	2.34	1.98	(60)
	외벌이	14.71	2.29	16.77	2.81	2.06	(28)
	t	1.151		-0.077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14.38	1.99	16.31	2.64	1.93	(30)
	600만 원 이상	14.90	2.25	16.94	2.40	2.04	(58)
	t	1.721		-1.274			

만 3세반 유아의 체질량 지수는 평균 15.74로 전년 만 2세반 영아 때보다 0.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반 유아의 체질량 지수는 배경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표 Ⅳ-1-41〉 만 3세반 유아의 체질량 지수(BMI)

단위: BMI(명)

구분		체질량 지수(BMI)				사례수
		2022년		2023년		
		BMI	SD	BMI	SD	
전 체		15.90	1.63	15.74	1.55	(8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04	1.61	15.77	1.57	(60)
	외벌이	15.60	1.65	15.67	1.55	(28)
	t	1.203		0.294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15.55	1.64	15.73	1.64	(30)
	600만 원 이상	16.08	1.60	15.74	1.52	(58)
	t	-1.463		-0.032		

바) 자녀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조사 대상 만 3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에서 5점 척도의 평균 점수는 3.49점~3.99점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언어발달(3.99점)이었고, 가장 낮은 것은 신체발달(3.49점)로 나타났다.

〈표 Ⅳ-1-42〉 만 3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매우 늦음	약간 늦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M	SD	사례수
언어발달	-	9.1	17.0	39.8	34.1	3.99	0.94	(88)
인지 발달	1.1	3.4	33.0	35.2	27.3	3.84	0.91	(88)
정서발달	-	2.3	34.1	38.6	25.0	3.86	0.82	(88)
사회성 발달	-	12.5	42.0	22.7	22.7	3.56	0.98	(88)
신체발달	1.1	11.4	43.2	26.1	18.2	3.49	0.96	(88)

2) 교사 인식

가)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만 3세반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5점 척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면, 인지 발달이 3.7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발달이 3.68점, 언어발달 3.65점, 사회성 발달과 정서발달이 3.32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Ⅳ-1-43〉 만 3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매우 늦음	약간 늦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M	SD	사례수
언어발달	2.4	7.1	36.9	29.8	23.8	3.65	1.00	(84)
인지 발달	1.2	2.4	44.0	29.8	22.6	3.70	0.89	(84)
정서발달	2.4	8.3	54.8	23.8	10.7	3.32	0.87	(84)
사회성 발달	4.8	10.7	48.8	19.0	16.7	3.32	1.03	(84)
신체발달	1.2	7.1	39.3	27.4	25.0	3.68	0.97	(84)

나) 유아의 적응

교사가 인식하는 만 3세반 유아의 적응을 사회정서적응, 또래적응, 자아적응, 일과적응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3.70점이었고, 일과적응이 3.92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아적응이 3.75점, 사회정서적응이 3.70점이었으며, 또래적응이 3.5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1-44〉 만 3세반 유아의 적응

단위: 점(명)

구분	M	SD	(명)
전 체	3.70	1.00	(84)
사회정서적응	3.70	1.01	(84)
또래적응	3.51	1.03	(84)
자아적응	3.75	0.99	(84)
일과적응	3.92	0.98	(84)

적응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정서적응 항목에서는 '쾌활하고, 명랑하다'가 4.10점으로 가장 높았고, '장난감 등을 다른 친구들과 잘 나누어 갖는다'가 3.4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1-45〉 만 3세반 유아의 적응: 사회정서적응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계(명)
전 체	2.1	9.5	29.9	33.3	25.3	3.70	1.01	100.0 (84)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을 잘 돕는다	-	9.5	26.2	34.5	29.8	3.85	0.96	100.0 (84)
친구들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잘 협동한다	-	9.5	33.3	36.9	20.2	3.68	0.91	100.0 (84)
장난감 등을 다른 친구들과 잘 나누어 갖는다	1.2	21.4	33.3	23.8	20.2	3.40	1.08	100.0 (84)
자기 차례를 잘 지킨다	2.4	13.1	28.6	26.2	29.8	3.68	1.11	100.0 (84)
다른 친구가 어려워할 때 관심을 보인다	1.2	14.3	26.2	39.3	19.0	3.61	0.99	100.0 (84)
쾌활하고 명랑하다	-	1.2	23.8	39.3	35.7	4.10	0.80	100.0 (84)
친절하고 우호적이다	-	11.9	34.5	27.4	26.2	3.68	1.00	100.0 (84)
편안하며 안정적이다	-	4.8	40.5	38.1	16.7	3.67	0.81	100.0 (84)
매사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한다	-	11.9	33.3	29.8	25.0	3.68	0.98	100.0 (84)

또래적응 항목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놀이 중간에도 쉽게 참여한다'가 3.76점으로 가장 높았고, '친구들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가 3.01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Ⅳ-1-46〉 만 3세반 유아의 적응: 또래적응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계(명)
전 체	2.7	12.9	34.4	30.4	19.6	3.51	1.03	100.0 (84)
같이 놀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3.6	13.1	38.1	26.2	19.0	3.44	1.06	100.0 (84)
다른 유아들이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1.2	9.5	32.1	33.3	23.8	3.69	0.98	100.0 (84)
놀이친구로서 다른 유아들에게 인기가 있다	2.4	15.5	34.5	35.7	11.9	3.39	0.97	100.0 (84)
진행되고 있는 놀이 중간에도 쉽게 참여한다	-	4.8	39.3	31.0	25.0	3.76	0.89	100.0 (84)
친구들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6.0	27.4	38.1	16.7	11.9	3.01	1.08	100.0 (84)
대체로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려 논다	1.2	7.1	29.8	40.5	21.4	3.74	0.92	100.0 (84)
자신감이 있다	4.8	13.1	28.6	29.8	23.8	3.55	1.13	100.0 (84)

자아적응 항목에서는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시도한다'가 4.13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구력이 있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가 3.4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Ⅳ-1-47〉 만 3세반 유아의 적응: 자아적응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계(명)
전 체	1.8	8.3	29.0	35.3	25.6	3.75	0.99	100.0 (84)
독립심이 강하다	-	13.1	39.3	31.0	16.7	3.51	0.92	100.0 (84)
자기주장을 한다	2.4	2.4	16.7	40.5	38.1	4.10	0.93	100.0 (84)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시도한다	1.2	-	14.3	53.6	31.0	4.13	0.74	100.0 (84)
교실활동이나 역할에 새로운 제안을 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4.8	14.3	34.5	23.8	22.6	3.45	1.13	100.0 (84)
지구력이 있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2.4	14.3	42.9	21.4	19.0	3.40	1.03	100.0 (84)
하루의 일과를 잘 이해하고 따른다	-	6.0	26.2	41.7	26.2	3.88	0.87	100.0 (84)

일과적응 항목에서는 '교사에게 관심과 도움을 적절히 요청한다'가 4.04점으로 가장 높았고, '활동 중에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가 3.73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Ⅳ-1-48〉 만 3세반 유아의 적응: 일과적응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계(명)
전 체	1.9	5.5	24.3	35.5	32.9	3.92	0.98	100.0 (84)
대체로 교사에게 잘 협조한다	4.8	1.2	17.9	46.4	29.8	3.95	0.98	100.0 (84)
활동 중에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	4.8	7.1	28.6	29.8	29.8	3.73	1.11	100.0 (84)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선생님을 잘 따른다	-	4.8	28.6	28.6	38.1	4.00	0.93	100.0 (84)
하루 일과 활동의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	-	8.3	26.2	34.5	31.0	3.88	0.95	100.0 (84)
교사에게 관심과 도움을 적절히 요청한다	-	6.0	20.2	38.1	35.7	4.04	0.90	100.0 (84)

라. 초등 1학년 아동의 부모와 교사 인식

1) 부모 인식

가)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의 전체 평균은 7점 척도에서 5.55점으로 만 3세반 유아 부모보다 살짝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행복감은 5.60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은 5.51점, 아주 행복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5.35점, 아주 불행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5.76점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행복감보다 약간 낮아졌으며 아주 행복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더 낮아진 반면 아주 불행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Ⅳ-1-49〉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단위: %, 점(명)

구분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②	③	보통이다	⑤	⑥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M	SD	계(명)
전 체	-	-	1.4	15.5	30.9	30.9	21.4	5.55	1.03	100.0 (55)
전반적인 행복감	-	-	1.8	7.3	36.4	38.2	16.4	5.60	0.91	100.0 (55)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행복감	-	-	1.8	12.7	34.5	34.5	16.4	5.51	0.98	100.0 (55)
아주 행복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	-	-	1.8	20.0	38.2	21.8	18.2	5.35	1.06	100.0 (55)
아주 불행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	-	-	-	21.8	14.5	29.1	34.5	5.76	1.15	100.0 (55)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중 전반적인 행복감은 배경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표 Ⅳ-1-50〉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전반적인 행복감

단위: %, 점(명)

구분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②	③	보통이다	⑤	⑥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M	SD	계(명)
전 체		-	-	1.8	7.3	36.4	38.2	16.4	5.60	0.91	100.0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	-	-	3.1	46.9	31.3	18.8	5.66	0.83	100.0 (32)
	외벌이	-	-	4.3	13.0	21.7	47.8	13.0	5.52	1.04	100.0 (23)
	t	0.534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	-	9.1	18.2	9.1	45.5	18.2	5.45	1.29	100.0 (11)
	600만 원 이상	-	-	-	4.5	43.2	36.4	15.9	5.64	0.81	100.0 (44)
	t	-0.586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중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은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1-51〉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

단위: %, 점(명)

구분		매우 행복하지않다	②	③	보통이다	⑤	⑥	매우 행복하다	M	SD	계(명)
전 체		-	-	1.8	12.7	34.5	34.5	16.4	5.51	0.98	100.0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	-	3.1	9.4	40.6	31.3	15.6	5.47	0.98	100.0 (32)
	외벌이	-	-	-	17.4	26.1	39.1	17.4	5.57	0.99	100.0 (23)
	t	-0.358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	-	-	36.4	9.1	45.5	9.1	5.27	1.10	100.0 (11)
	600만 원 이상	-	-	2.3	6.8	40.9	31.8	18.2	5.57	0.95	100.0 (44)
	t	-0.894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중 아주 행복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은 배경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표 Ⅳ-1-52〉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아주 행복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②	③	보통이다	⑤	⑥	매우 그렇다	M	SD	계(명)
전 체		-	-	1.8	20.0	38.2	21.8	18.2	5.35	1.06	100.0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	-	-	15.6	37.5	28.1	18.8	5.50	0.98	100.0 (32)
	외벌이	-	-	4.3	26.1	39.1	13.0	17.4	5.13	1.14	100.0 (23)
	t	1.286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	-	9.1	27.3	27.3	27.3	9.1	5.00	1.18	100.0 (11)
	600만 원 이상	-	-	-	18.2	40.9	20.5	20.5	5.43	1.02	100.0 (44)
	t	-1.216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중 아주 불행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600만 원 미만인 경우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1-53〉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아주 행복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

단위: %, 점(명)

구분		매우 그렇다	②	③	보통 이다	⑤	⑥	전혀 그렇지 않다	M	SD	계(명)
전 체		-	-	-	21.8	14.5	29.1	34.5	5.76	1.15	100.0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	-	-	21.9	18.8	28.1	31.3	5.69	1.15	100.0 (32)
	외벌이	-	-	-	21.7	8.7	30.4	39.1	5.87	1.18	100.0 (23)
	t	-0.573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	-	-	45.5	18.2	27.3	9.1	5.00	1.10	100.0 (11)
	600만 원 이상	-	-	-	15.9	13.6	29.5	40.9	5.95	1.10	100.0 (44)
	t	-2.579*									

* $p < .05$.

나) 부부 갈등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부부갈등의 전체 평균은 5점 척도에서 1.75점으로 갈등이 별로 없으며, 만 3세반 유아 부모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점수는 1.56점~2.11점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는 항목의 점수가 만 3세반 유아 부모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남편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표 Ⅳ-1-54〉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부부갈등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계(명)
전 체	53.0	27.3	13.4	4.3	2.0	1.75	0.98	100.0 (55)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58.2	25.5	12.7	1.8	1.8	1.64	0.91	100.0 (55)
2) 남편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63.6	21.8	9.1	5.5	-	1.56	0.88	100.0 (55)
3)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50.9	21.8	20.0	5.5	1.8	1.85	1.04	100.0 (55)
4)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54.5	25.5	16.4	3.6	-	1.69	0.88	100.0 (55)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58.2	23.6	12.7	3.6	1.8	1.67	0.96	100.0 (55)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계(명)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50.9	34.5	10.9	1.8	1.8	1.69	0.88	100.0 (55)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43.6	38.2	14.5	1.8	1.8	1.80	0.89	100.0 (55)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43.6	27.3	10.9	10.9	7.3	2.11	1.29	100.0 (55)

다) 양육 스트레스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전체 평균은 5점 척도에서 1.98점으로 스트레스가 별로 크지 않으며 만 3세반 유아 부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점수는 1.36점~2.71점으로 나타났으며,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는 항목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만 3세반 유아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이 때문에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는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표 Ⅳ-1-55〉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계(명)
전 체	43.3	28.1	17.7	9.3	1.7	1.98	1.06	100.0 (55)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45.5	25.5	20.0	9.1	-	1.93	1.02	100.0 (55)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45.5	34.5	16.4	3.6	-	1.78	0.85	100.0 (55)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43.6	27.3	23.6	5.5	-	1.91	0.95	100.0 (55)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45.5	38.2	14.5	1.8	-	1.73	0.78	100.0 (55)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52.7	34.5	7.3	5.5	-	1.65	0.84	100.0 (55)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30.9	25.5	18.2	23.6	1.8	2.40	1.21	100.0 (55)
7) 아이 때문에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69.1	25.5	5.5	-	-	1.36	0.59	100.0 (55)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34.5	23.6	21.8	12.7	7.3	2.35	1.28	100.0 (55)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30.9	21.8	20.0	21.8	5.5	2.49	1.29	100.0 (55)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14.5	23.6	41.8	16.4	3.6	2.71	1.03	100.0 (55)
1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3.6	29.1	5.5	1.8	-	1.45	0.69	100.0 (55)

라)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대한민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평균은 10점 척도에서 6.69점으로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인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만 3세반 유아 부모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일 때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점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Ⅳ-1-56〉 초등 1학년 아동 사회경제적 지위(SES): 대한민국

단위: %, 점(명)

구분		최하층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최상층	M	SD	계(명)
전 체		-	-	5.5	7.3	7.3	18.2	30.9	18.2	10.9	1.8	6.69	1.65	100.0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	-	3.1	9.4	3.1	18.8	31.3	15.6	15.6	3.1	6.91	1.67	100.0 (32)
	외벌이	-	-	8.7	4.3	13.0	17.4	30.4	21.7	4.3	-	6.39	1.62	100.0 (23)
	t	1.142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	-	27.3	18.2	27.3	9.1	9.1	9.1	-	-	4.82	1.66	100.0 (11)
	600만 원 이상	-	-	-	4.5	2.3	20.5	36.4	20.5	13.6	2.3	7.16	1.29	100.0 (44)
	t	-5.068***												

*** $p < .001$.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지역사회나 공동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평균은 10점 척도에서 7.09점으로 대한민국에서보다, 또 만 3세반 유아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대한민국에서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일 때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대한민국에서의 인식보다 적었다.

〈표 Ⅳ-1-57〉 초등 1학년 아동 사회경제적 지위(SES): 지역사회나 공동체 (직장, 교회, 친인척 일가, 친구, 동호회 등)

단위: %, 점(명)

구분		최하층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최상층	M	SD	계(명)
전 체		-	-	1.8	3.6	12.7	10.9	29.1	20.0	21.8	-	7.09	1.53	100.0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	-	3.1	3.1	12.5	12.5	25.0	21.9	21.9	-	7.06	1.61	100.0 (32)
	외벌이	-	-	0.0	4.3	13.0	8.7	34.8	17.4	21.7	-	7.13	1.46	100.0 (23)
	t	-0.161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	-	9.1	9.1	27.3	9.1	27.3	9.1	9.1	-	6.00	1.79	100.0 (11)
	600만 원 이상	-	-	0.0	2.3	9.1	11.4	29.5	22.7	25.0	-	7.36	1.35	100.0 (44)
	t	-2.806*												

* $p < .05$.

마) 자녀의 신체발달

초등 1학년 아동의 키는 평균 123.72cm로 전년 만 5세반 유아 때보다 5.94cm 더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1학년 아동의 키는 배경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표 Ⅳ-1-58〉 초등 1학년 아동 키

단위: cm(명)

구분		키					사례수
		2022년		2023년		Gap	
		M	SD	M	SD		
전 체		117.77	6.54	123.72	6.06	5.94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18.53	5.46	124.58	5.28	6.04	(32)
	외벌이	116.71	7.80	122.52	6.95	5.80	(23)
	t	1.060		-1.502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118.36	8.98	124.04	7.80	5.67	(11)
	600만 원 이상	117.63	5.90	123.64	5.65	6.01	(44)
	t	0.000		0.042			

초등 1학년 아동의 몸무게는 평균 24.97kg으로 전년 만 5세반 유아 시기보다 2.79kg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몸무게는 배경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표 Ⅳ-1-59〉 초등 1학년 아동 몸무게

단위: kg(명)

구분		몸무게				Gap	사례수
		2022년		2023년			
		M	SD	M	SD		
전 체		22.18	4.42	24.97	5.02	2.79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73	4.59	25.82	5.32	3.09	(32)
	외벌이	21.42	4.16	23.79	4.43	2.38	(23)
	t	0.851		-1.898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25.12	6.86	27.76	8.24	2.65	(11)
	600만 원 이상	21.45	3.30	24.28	3.67	2.83	(44)
	t	-0.602		0.484			

초등 1학년 아동의 체질량 지수는 평균 16.25로 전년 만 5세반 유아 때보다 0.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1학년 아동의 체질량 지수는 배경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표 Ⅳ-1-60〉 초등 1학년 아동 체질량 지수(BMI)

단위: BMI(명)

구분		체질량 지수(BMI)				사례수
		2022년		2023년		
		BMI	SD	BMI	SD	
전 체		15.95	2.68	16.25	2.61	(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11	2.46	16.55	2.54	(32)
	외벌이	15.74	3.00	15.85	2.70	(23)
	t	0.496		0.983		
가구 소득	600만 원 미만	17.92	4.51	17.89	4.26	(11)
	600만 원 이상	15.46	1.74	15.84	1.86	(44)
	t	1.775		1.560		

바) 자녀의 집행기능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의 집행기능은 ① 전혀 아니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의 3점 척도에서 1.21~1.41점 범위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부주의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행동통제 곤란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Ⅳ-1-61〉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 집행기능

단위: 점(명)

구분	M	SD	사례수
계획-조직화 곤란	1.36	0.55	(55)
행동통제 곤란	1.21	0.45	(55)
정서통제 곤란	1.27	0.45	(55)
부주의	1.41	0.61	(55)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의 집행기능 중 계획-조직화 곤란은 전체적으로 전혀 아니라는 비율이 67.6%, 가끔 그렇다는 비율이 28.9%, 자주 그렇다는 비율이 3.5%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혀 아니라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어떤 활동이든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획해서 행동하는 것을 어려워한다.'이며, 가끔 그렇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해야 할 일(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이 있을 때 거의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하는 편이다.'와 '머릿속으로 생각은 잘하는데(나름대로 계획은 하는데) 실천은 하지 못한다.', 자주 그렇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해야 할 일(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이 있을 때 거의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하는 편이다.'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끝까지 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미리 예측하지 못한다.'로 나타났다.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해야 할 일(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이 있을 때 거의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하는 편이다.'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어떤 활동이든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획해서 행동하는 것을 어려워한다.'이다.

〈표 Ⅳ-1-62〉 초등 1학년 아동 인지 및 언어발달: 집행기능 ① 계획-조직화 곤란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M	SD	계(명)
계획-조직화 곤란	67.6	28.9	3.5	1.36	0.55	100.0 (55)
1)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를 힘들어한다.	72.7	27.3	-	1.27	1.27	100.0 (55)
2) 해야 할 일(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	67.3	30.9	1.8	1.35	1.35	100.0 (55)
3) 해야 할 일(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이 있을 때 거의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하는 편이다.	54.5	38.2	7.3	1.53	1.53	100.0 (55)
4)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78.2	20.0	1.8	1.24	1.24	100.0 (55)
5)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끝까지 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미리 예측하지 못한다.	61.8	30.9	7.3	1.45	1.45	100.0 (55)

구분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M	SD	계(명)
6) 머릿속으로 생각은 잘하는데(나름대로 계획은 하는데) 실천은 하지 못한다.	60.0	38.2	1.8	1.42	1.42	100.0 (55)
7)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70.9	23.6	5.5	1.35	1.35	100.0 (55)
8) 어떤 내용을 이해할 때 부분적으로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61.8	34.5	3.6	1.42	1.42	100.0 (55)
9) 스스로 알아서 앞장서서 하지 못한다.	70.9	23.6	5.5	1.35	1.35	100.0 (55)
10) 어떤 활동이든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획해서 행동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80.0	18.2	1.8	1.22	1.22	100.0 (55)
11) 숙제나 공부 혹은 심부름 등 일을 할 때 집중해서 하지 못한다.	65.5	32.7	1.8	1.36	1.36	100.0 (55)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의 집행기능 중 행동통제 곤란은 전체적으로 전혀 아니라는 비율이 80.3%, 가끔 그렇다는 비율이 18.0%, 자주 그렇다는 비율이 1.7%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혀 아니라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또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와 '너무 거칠게 행동한다.'이며, 가끔 그렇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글쓰기를 어려워한다.', 자주 그렇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누가 옆에서 지키지 않으면 숙제나 공부를 꾸준히 앉아서 하지 못한다.'로 나타났다.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누가 옆에서 지키지 않으면 숙제나 공부를 꾸준히 앉아서 하지 못한다.'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또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와 '너무 거칠게 행동한다.'이다.

〈표 Ⅳ-1-63〉 초등 1학년 아동 인지 및 언어발달: 집행기능 ② 행동통제 곤란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M	SD	계(명)
행동통제 곤란	80.3	18.0	1.7	1.21	0.45	100.0 (55)
12) 또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96.4	3.6	-	1.04	1.04	100.0 (55)
13)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87.3	12.7	-	1.13	1.13	100.0 (55)
14) 너무 거칠게 행동한다.	96.4	3.6	-	1.04	1.04	100.0 (55)
15) 어른이 곁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을 하기가 어렵다.	69.1	29.1	1.8	1.33	1.33	100.0 (55)

구분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M	SD	계(명)
16) 글쓰기를 어려워한다.	61.8	34.5	3.6	1.42	1.42	100.0 (55)
17)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	83.6	16.4	-	1.16	1.16	100.0 (55)
18) 앉아서 집중해야 할 때 자리에 잘 앉아 있지 못한다.	70.9	23.6	5.5	1.35	1.35	100.0 (55)
19) 줄서서 있어야 할 때 서 있지 않고 잘 벗어난다.	90.9	9.1	-	1.09	1.09	100.0 (55)
20) 자신의 행동이 남을 귀찮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알아채지 못한다.	72.7	27.3	-	1.27	1.27	100.0 (55)
21) 누가 옆에서 지키지 않으면 숙제나 공부를 꾸준히 앉아서 하지 못한다.	63.6	29.1	7.3	1.44	1.44	100.0 (55)
22)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이 야단을 치거나 핀잔을 주어도 별 상관하지 않는다.	90.9	9.1	-	1.09	1.09	100.0 (55)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의 집행기능 중 정서통제 곤란은 전체적으로 전혀 아니라는 비율이 73.9%, 가끔 그렇다는 비율이 25.7%, 자주 그렇다는 비율이 0.5%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혀 아니라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기분 변화가 심하다.'이며, 가끔 그렇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그럴 일이 아닌데도 잘 투덜거린다.', 자주 그렇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잘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낸다.'와 '자주 울컥한다.'로 나타났다.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그럴 일이 아닌데도 잘 투덜거린다.'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기분 변화가 심하다.'이다.

〈표 Ⅳ-1-64〉 초등 1학년 아동 인지 및 언어발달: 집행기능 ③ 정서통제 곤란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M	SD	계(명)
정서통제 곤란	73.9	25.7	0.5	1.27	0.45	100.0 (55)
23)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	74.5	25.5	-	1.25	1.25	100.0 (55)
24) 상황에 따라 기분 변화가 심하다.	76.4	23.6	-	1.24	1.24	100.0 (55)
25) 잘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낸다.	74.5	23.6	1.8	1.27	1.27	100.0 (55)
26) 자주 울컥한다.	72.7	25.5	1.8	1.29	1.29	100.0 (55)
27) 그럴 일이 아닌데도 잘 투덜거린다.	61.8	38.2	-	1.38	1.38	100.0 (55)
28)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한다.	81.8	18.2	-	1.18	1.18	100.0 (55)
29) 원래 계획한 일에 변화가 생기면(원래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면) 순간 화를 벌컥 낸다.	63.6	36.4	-	1.36	1.36	100.0 (55)
30) 기분 변화가 심하다.	85.5	14.5	-	1.15	1.15	100.0 (55)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의 집행기능 중 부주의는 전체적으로 전혀 아니라는 비율이 65.6%, 가끔 그렇다는 비율이 28.0%, 자주 그렇다는 비율이 6.4%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혀 아니라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숙제를 다 해가도 선생님께 제출하는 것을 잊고 온다.'이며, 가끔 그렇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물건이나 방을 잘 어질러서 다른 사람이 치워야 한다.', 자주 그렇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방의 정리정돈을 못한다.'로 나타났다.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물건이나 방을 잘 어질러서 다른 사람이 치워야 한다.'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숙제를 다 해가도 선생님께 제출하는 것을 잊고 온다.'이다.

〈표 Ⅳ-1-65〉 초등 1학년 아동 인지 및 언어발달: 집행기능 ④ 부주의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M	SD	계(명)
부주의	65.6	28.0	6.4	1.41	0.61	100.0 (55)
31) 자신의 물건을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	69.1	27.3	3.6	1.35	1.35	100.0 (55)
32) 옷, 안경, 양말, 장난감, 책, 연필 등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69.1	25.5	5.5	1.36	1.36	100.0 (55)
33) 방의 정리정돈을 못한다.	54.5	30.9	14.5	1.60	1.60	100.0 (55)
34) 숙제를 다 해가도 선생님께 제출하는 것을 잊고 온다.	81.8	18.2	0.0	1.18	1.18	100.0 (55)
35) 소지품이나 숙제 등을 잘 잃어버린다.	74.5	21.8	3.6	1.29	1.29	100.0 (55)
36) 잘 잊어버린다.	78.2	16.4	5.5	1.27	1.27	100.0 (55)
37) 해야 할 일을 잘 잊는다.	70.9	25.5	3.6	1.33	1.33	100.0 (55)
38) 방이 늘 어질러져 있다.	50.9	38.2	10.9	1.60	1.60	100.0 (55)
39) 방안이나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61.8	34.5	3.6	1.42	1.42	100.0 (55)
40) 물건이나 방을 잘 어질러서 다른 사람이 치워야 한다.	45.5	41.8	12.7	1.67	1.67	100.0 (55)

사) 자녀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초등 1학년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에서 5점 척도의 평균 점수는 3.36점~4.00점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인지 발달, 가장 낮은 것은 신체발달로 나타났다.

〈표 Ⅳ-1-66〉 초등 1학년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단위: %, 점(명))

구분	매우 늦음	약간 늦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M	SD	사례수
언어발달	0.0	7.3	34.5	20.0	38.2	3.89	1.01	(55)
인지 발달	3.6	1.8	21.8	36.4	36.4	4.00	1.00	(55)
정서발달	0.0	0.0	40.0	32.7	27.3	3.87	0.82	(55)
사회성 발달	0.0	1.8	38.2	34.5	25.5	3.84	0.83	(55)
신체발달	1.8	12.7	47.3	23.6	14.5	3.36	0.95	(55)

2) 교사 인식

가)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초등 1학년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5점 척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살펴보면, 인지 발달이 4.1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언어발달이 4.06점, 정서발달이 4.00점, 신체발달이 3.94점, 사회성 발달 3.89점 순이었다.

〈표 Ⅳ-1-67〉 초등 1학년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단위: %, 점(명)

구분	매우 늦음	약간 늦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M	SD	사례수
언어발달	5.6	5.6	16.7	22.2	50.0	4.06	1.21	(18)
인지 발달	5.6	5.6	11.1	27.8	50.0	4.11	1.18	(18)
정서발달	-	11.1	16.7	33.3	38.9	4.00	1.03	(18)
사회성 발달	-	11.1	16.7	44.4	27.8	3.89	0.96	(18)
신체발달	5.6	-	27.8	27.8	38.9	3.94	1.11	(18)

나) 아동의 학교 적응

교사가 인식하는 초등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5점 척도)을 학교생활 적응, 학업수행 적응, 또래적응, 교사적응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4.28점이었고, 교사적응이 4.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생활 적응과 또래적응이 각각 4.30점, 학업수행 적응이 4.29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았다.

〈표 Ⅳ-1-68〉 초등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

단위: 점(명)

구분	M	SD	사례수
전 체	4.28	1.04	(18)
학교생활 적응	4.30	1.00	(18)
학업수행 적응	4.29	1.03	(18)
또래적응	4.30	0.99	(18)
교사적응	4.34	0.93	(18)

학교 적응의 하위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정이 밝으며 쾌활 명랑하다.'가 4.61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에서 놀이를 할 때 놀이(분위기)를 주도한다.'가 3.89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Ⅳ-1-69〉 초등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 학업수행 적응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계(명)
전 체	2.5	7.6	5.1	28.3	56.6	4.29	1.03	100.0 (18)
매사에 의욕적이다.	5.6	5.6	-	27.8	61.1	4.33	1.14	100.0 (18)
의사표현이 확실하다.	-	5.6	5.6	38.9	50.0	4.33	0.84	100.0 (18)
자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발표한다.	-	11.1	5.6	27.8	55.6	4.28	1.02	100.0 (18)
과제를 잘해오며 준비물을 잘 챙겨 온다.	-	5.6	5.6	22.2	66.7	4.50	0.86	100.0 (18)
학교에서 놀이를 할 때 놀이(분위기)를 주도한다.	5.6	-	22.2	44.4	27.8	3.89	1.02	100.0 (18)
사고하고 탐구하려는 의욕이 많다.	11.1	11.1	-	22.2	55.6	4.00	1.46	100.0 (18)
수업시간에 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11.1	5.6	22.2	61.1	4.33	1.03	100.0 (18)
표정이 밝으며 쾌활 명랑하다.	-	0.0	11.1	16.7	72.2	4.61	0.70	100.0 (18)
모둠별 활동이나 전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16.7	-	22.2	61.1	4.28	1.13	100.0 (18)
주어진 일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다.	-	11.1	-	27.8	61.1	4.39	0.98	100.0 (18)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좌절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다.	5.6	5.6	-	38.9	50.0	4.22	1.11	100.0 (18)

또래적응 항목에서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낸다.'가 4.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친구들과의 생활에서 통솔력이 있다'가 3.94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Ⅳ-1-70〉 초등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 또래적응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계(명)
전 체	3.5	3.5	6.9	31.9	54.2	4.30	0.99	100.0 (18)
장난감을 친구들과 나누어 가지고 논다.	-	5.6	5.6	22.2	66.7	4.50	0.86	100.0 (18)
친구를 잘 도와준다.	5.6	-	5.6	27.8	61.1	4.39	1.04	100.0 (18)
친구들의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가져오면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	5.6	-	38.9	55.6	4.44	0.78	100.0 (18)
친구가 슬퍼할 때 위로해 준다.	5.6	-	16.7	27.8	50.0	4.17	1.10	100.0 (18)
친구들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	16.7	5.6	22.2	55.6	4.17	1.15	100.0 (18)
다른 친구들이 사귀고 싶어 하는 인기 있는 아이이다.	5.6	-	11.1	44.4	38.9	4.11	1.02	100.0 (18)
친구들과 친하게 지낸다.	-	-	-	33.3	66.7	4.67	0.49	100.0 (18)
친구들과의 생활에서 통솔력이 있다.	11.1	-	11.1	38.9	38.9	3.94	1.26	100.0 (18)

교사적응 항목에서는 '선생님을 지나치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가 4.78점(역코딩)으로 가장 높았고, '가정이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가 3.83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Ⅳ-1-71〉 초등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 교사 적응

단위: %, 점(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	SD	계(명)
전 체	16.7	8.9	11.1	21.1	42.2	4.34	0.93	100.0 (18)
선생님을 지나치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	83.3	11.1	5.6	-	-	4.78	0.55	100.0 (18)
선생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	-	22.2	27.8	50.0	4.28	0.83	100.0 (18)
가정이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	16.7	22.2	22.2	38.9	3.83	1.15	100.0 (18)
선생님께 인사를 잘한다.	-	5.6	-	22.2	72.2	4.61	0.78	100.0 (18)
필요로 할 때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	11.1	5.6	33.3	50.0	4.22	1.00	100.0 (18)

다)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초등 1학년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을 국어, 수학, 전반적인 능력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수학이 4.54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반적인 능력이 4.39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Ⅳ-1-72〉 초등 1학년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단위: 점(명)

구분	M	SD	사례수
국 어	4.52	1.05	(18)
수 학	4.54	1.03	(18)
전 반	4.39	1.14	(18)

국어 학업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읽기, 말하기, 선생님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각각 4.50점으로 가장 높았고, 쓰기 능력이 4.33점으로 가장 낮게 응답되었다.

〈표 Ⅳ-1-73〉 초등 1학년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국어

단위: %, 점(명)

구분	하위 20% 이내	하위 21%~ 40%	중간 50% 내외	상위 21%~ 40%	상위 20% 이내	M	SD	계(명)
전 체	5.6	-	8.7	8.7	77.0	4.52	1.05	100.0 (18)
읽기 능력	5.6	-	5.6	16.7	72.2	4.50	1.04	100.0 (18)
말하기 능력	5.6	-	5.6	16.7	72.2	4.50	1.04	100.0 (18)
쓰기 능력	5.6	-	16.7	11.1	66.7	4.33	1.14	100.0 (18)
선생님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는 능력	5.6	-	11.1	5.6	77.8	4.50	1.10	100.0 (18)

수학 학업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능력이 4.61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세기와 뺄셈 능력이 각각 4.50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Ⅳ-1-74〉 초등 1학년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수학

단위: %, 점(명)

구분	하위 20% 이내	하위 21%~ 40%	중간 50% 내외	상위 21%~ 40%	상위 20% 이내	M	SD	계(명)
전 체	5.6	-	6.7	10.0	77.8	4.54	1.03	100.0 (18)
수세기 능력	5.6	-	11.1	5.6	77.8	4.50	1.10	100.0 (18)
덧셈 능력	5.6	-	5.6	11.1	77.8	4.56	1.04	100.0 (18)

구분	하위 20% 이내	하위 21%~ 40%	중간 50% 내외	상위 21%~ 40%	상위 20% 이내	M	SD	계(명)
뺄셈 능력	5.6	-	11.1	5.6	77.8	4.50	1.10	100.0 (18)
비교 능력 (길이, 무게 등)	5.6	-	5.6	11.1	77.8	4.56	1.04	100.0 (18)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능력	5.6	-	0.0	16.7	77.8	4.61	0.98	100.0 (18)

마. 부모와 교사 인식 비교

만 3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는 언어발달이 3.99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교사는 인지 발달이 3.70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는 신체발달이 3.49점으로 가장 낮게 응답한 반면, 교사는 정서발달과 사회성 발달이 각각 3.32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Ⅳ-1-75〉 만 3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비교

단위: %, 점(명)

구분	매우 늦음	약간 늦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M	SD	사례수
부모								
언어발달	-	9.1	17.0	39.8	34.1	3.99	0.94	(88)
인지 발달	1.1	3.4	33.0	35.2	27.3	3.84	0.91	(88)
정서발달	-	2.3	34.1	38.6	25.0	3.86	0.82	(88)
사회성 발달	-	12.5	42.0	22.7	22.7	3.56	0.98	(88)
신체발달	1.1	11.4	43.2	26.1	18.2	3.49	0.96	(88)
교사								
언어발달	2.4	7.1	36.9	29.8	23.8	3.65	1.00	(84)
인지 발달	1.2	2.4	44.0	29.8	22.6	3.70	0.89	(84)
정서발달	2.4	8.3	54.8	23.8	10.7	3.32	0.87	(84)
사회성 발달	4.8	10.7	48.8	19.0	16.7	3.32	1.03	(84)
신체발달	1.2	7.1	39.3	27.4	25.0	3.68	0.97	(84)

초등 1학년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비교하면, 부모와 교사 모두 인지 발달이 각각 4.00점, 4.11점으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부모는 신체발달이 3.36점으로 가장 낮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는 사회성 발달이 3.89점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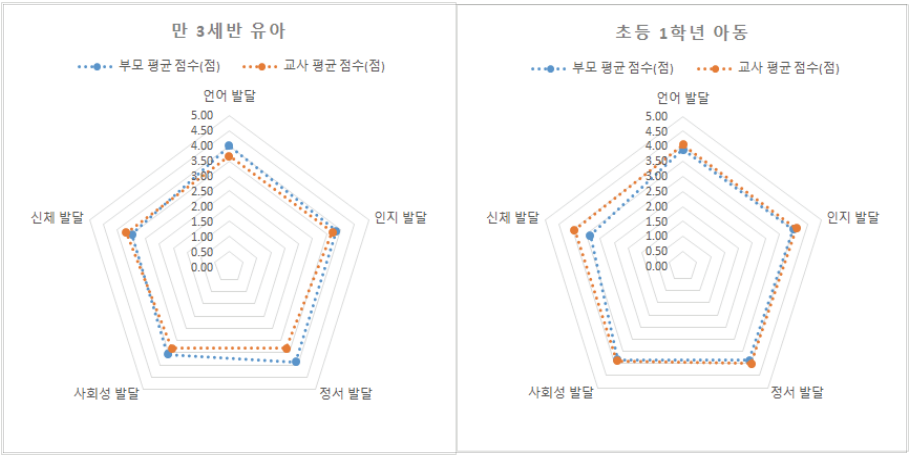
〈표 Ⅳ-1-76〉 초등 1학년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비교

단위: %(명)

부모	매우 늦음	약간 늦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M	SD	사례수
부모								
언어발달	0.0	7.3	34.5	20.0	38.2	3.89	1.01	(55)
인지 발달	3.6	1.8	21.8	36.4	36.4	4.00	1.00	(55)
정서발달	0.0	0.0	40.0	32.7	27.3	3.87	0.82	(55)
사회성 발달	0.0	1.8	38.2	34.5	25.5	3.84	0.83	(55)
신체발달	1.8	12.7	47.3	23.6	14.5	3.36	0.95	(55)
교사								
언어발달	5.6	5.6	16.7	22.2	50.0	4.06	1.21	(18)
인지 발달	5.6	5.6	11.1	27.8	50.0	4.11	1.18	(18)
정서발달	-	11.1	16.7	33.3	38.9	4.00	1.03	(18)
사회성 발달	-	11.1	16.7	44.4	27.8	3.89	0.96	(18)
신체발달	5.6	-	27.8	27.8	38.9	3.94	1.11	(18)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비교하면, 만 3세반 유아는 전반적으로 부모의 인식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정서발달에서 부모와 교사 간 인식의 격차가 다른 영역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초등 1학년 아동은 부모와 교사 간의 인식 차이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으나 신체발달에 대해서는 부모보다 교사의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Ⅳ-1-1]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비교



2.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발달검사 결과

가. 만 3세반 유아의 발달 현황

만 3세반 유아 총 89명이 인지발달 검사(K-WPPSI-IV)에 참여하였고, 95명이 바인랜드 적응행동(K-Vineland-2) 검사에 참여하였다. 검사에 참여한 만 3세반 유아의 평균 월령은 인지발달과 적응행동 각 49.0개월(SD = 3.4), 49.1개월(SD = 3.4)이다.

〈표 Ⅳ-2-1〉 만 3세반 유아 참여 현황

구분	빈도수(%)			월령
	남	여	전체	M(SD)
인지발달	46(51.7)	43(48.3)	89(100.0)	49.0(3.4)
적응행동	51(53.7)	44(46.3)	95(100.0)	49.1(3.4)

1)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능력 발달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검사(K-WPPSI-IV) 결과, 전체 IQ는 109.44(SD = 14.30)로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본지표와 추가지표 점수는 100.19~117.46(SD = 11.73~17.25)로 평균 수준이었다. 소검사 환산점수도 9.67~13.49(SD = 2.28~3.34)로 모두 평균 수준이었다. 종합하면,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은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Ⅳ-2-2〉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수준

N = 89, *M(SD)*

소검사 / 지표	환산점수[1] / 지표점수[1]
토막짜기	12.00(2.35)
상식	11.17(3.12)
행렬추리[2]	11.22(2.91)
동형찾기[2]	9.93(3.04)
그림기억	11.01(2.52)
공통성[2]	11.19(3.34)
공통그림찾기[2]	10.98(3.30)
선택하기[2]	9.94(3.01)
위치찾기	10.87(2.28)
모양맞추기	11.45(2.50)

소검사 / 지표	환산점수[1] / 지표점수[1]
수용어휘[3]	12.00(3.15)
그림명명[3]	13.49(2.99)
선택하기(비정렬)[2]	10.11(2.96)
선택하기(정렬)[2]	9.67(2.80)
언어이해지표	109.03(17.25)
시공간지표	109.37(11.73)
유동추론지표[2]	107.85(14.47)
작업기억지표	106.62(12.60)
처리속도 지표[2]	100.19(14.59)
전체 IQ	109.44(14.30)
어휘습득 지표[3]	117.46(15.37)
비언어지표	108.37(12.94)
일반능력지표	110.69(15.13)
인지효율성 지표[2]	100.93(13.92)

주: 1)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되며, 지표점수 및 전체 IQ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2) 행렬추리, 동형찾기,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소검사와 유동추론지표, 처리속도 지표, 인지효율성 지표는 4:0~7:7세만 해당되어 표본수가 54명임.
3)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와 어휘습득 지표는 2:11~3:11세만 해당되어 표본수가 35명임.

2) 만 3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발달

만 3세반 유아의 바인랜드 적응행동(K-Vineland-2) 검사결과, 적응행동 조합 점수는 111.93(SD = 15.80)으로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영역을 살펴보면, 평균 106.59~ 117.33(SD = 14.49 ~ 17.56)으로 생활기술 영역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이었다. 하위영역의 v-척도점수도 15.06~ 17.91(SD = 2.53~3.27)로 평균 수준이었다. 종합하면, 만 3세반 유아의 적응행동은 생활기술 영역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Ⅳ-2-3〉 만 3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N = 95, *M(SD)*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1]
하위	수용	16.35(2.65)
	표현	16.35(2.66)
	개인	17.52(3.27)
	가정	17.91(2.95)
	대인관계	17.27(3.27)
	놀이 및 여가	16.49(3.10)
	대처기술	17.62(2.94)
	대근육	15.06(2.53)
	소근육	16.78(3.12)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1]
주	의사소통 영역	108.48(14.49)
	생활기술 영역	117.33(17.56)
	사회성 영역	112.67(16.65)
	운동기술 영역	106.59(15.86)
	적응행동 조합점수	111.93(15.80)

주: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되며, 주영역 및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나. 초등 1학년 아동의 발달 현황

초등 1학년 아동 총 40명이 인지발달 검사(K-WPPSI-IV)에 참여하였고, 57명이 바인랜드 적응행동(K-Vineland-2) 검사에 참여하였다. 검사에 참여한 초등 1학년 아동의 평균 월령은 각 86.2개월(SD = 3.2), 86.2개월(SD = 3.1)이다.

〈표 Ⅳ-2-4〉 초등 1학년 아동 참여 현황

구분	빈도수(%)			월령
	남	여	전체	M(SD)
인지발달	22(55.0)	18(45.0)	40(100.0)	86.2(3.2)
적응행동	33(57.9)	24(42.1)	57(100.0)	86.2(3.1)

1)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능력 발달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 검사(K-WPPSI-IV) 결과, 전체 IQ는 111.20(SD = 14.33)으로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본지표와 추가지표 점수는 105.63~112.70(SD = 12.24~16.84)로 평균 수준이었다. 소검사 환산점수도 9.95~12.78(SD = 2.09~4.02)로 모두 평균 수준이었다. 종합하면,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은 모두 평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Ⅳ-2-5〉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수준

N = 40, *M(SD)*

소검사 / 지표	환산점수[1]/ 지표점수[1]
토막짜기	12.45(3.82)
상식	10.75(3.43)
행렬추리	11.50(3.16)
동형찾기	12.78(4.02)
그림기억	11.33(3.32)
공통성	10.95(2.40)

소검사 / 지표	환산점수[1]/ 지표점수[1]
공통그림찾기	11.43(2.09)
선택하기	10.13(2.95)
위치찾기	11.15(3.08)
모양맞추기	10.15(2.68)
선택하기(비정렬)	9.98(2.87)
선택하기(정렬)	9.95(2.75)
언어이해지표	105.63(15.09)
시공간지표	106.90(15.67)
유동추론지표	109.80(12.24)
작업기억지표	108.53(16.55)
처리속도 지표	108.73(16.77)
전체 IQ	111.20(14.33)
비언어지표	112.70(14.56)
일반능력지표	109.08(15.16)
인지효율성 지표	108.90(16.84)

주: 1)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되며, 지표점수 및 전체 IQ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2)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와 어휘습득 지표는 4:0~7:0세의 경우 해당되지 않아 산출되지 않음.

2)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 발달

초등 1학년 아동의 바인랜드 적응행동(K-Vineland-2) 결과,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115.89(SD = 16.40)로 나타났다. 주영역을 살펴보면 평균이 104.94~116.28(SD = 9.50~17.33)로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이기는 하나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운동기술 영역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하위영역의 v-척도점수의 평균 범위는 15.14~18.32(SD = 1.14~3.51)로 평균 수준이었다.

〈표 Ⅳ-2-6〉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

N = 57, *M(SD)*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1]
하위	수용	16.30(2.46)
	표현	17.33(2.77)
	개인	17.54(2.39)
	가정	17.51(3.51)
	대인관계	18.32(2.37)
	놀이 및 여가	17.32(3.29)
	대처기술	17.68(2.99)
	대근육	15.14(1.14)
	소근육	16.61(1.71)
주	의사소통 영역	112.33(16.18)
	생활기술 영역	116.28(17.33)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1]
	사회성 영역	115.93(15.20)
	운동기술 영역[2]	104.94(9.50)
적응행동 조합점수		115.89(16.40)

주: 1)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되며, 주영역 및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2) 주영역의 운동기술 영역은 7:0세 이상은 산출되지 않아 표본수가 16임.

3.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제 특성별 발달 비교

가. 만 3세반 유아의 발달 비교

1) 개인 특성(성별)에 따른 차이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검사(K-WPPSI-IV) 결과, 남아와 여아의 전체 IQ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본지표에서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지표 중, 인지효율성 지표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의 평균은 97.28(SD = 12.19), 여아의 평균은 105.16(SD =14.83)으로 여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검사 수준에서 살펴보면, 선택하기 소검사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아의 평균이 9.10(SD = 2.65), 여아의 평균이 10.92(SD = 3.16)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인지효율성 지표, 특히 선택하기 소검사에서 여아의 수행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1〉 성별에 따른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N = 89, *M(SD)*

소검사 / 지표	환산점수[1]/ 지표점수[1]		*t*	effect size
	남(*n* = 46)	여(*n* = 43)		
토막짜기	12.02(2.20)	11.98(2.53)	.090	0.02
상식	11.15(3.33)	11.19(2.92)	-.051	-0.01
행렬추리[2]	11.62(2.87)	10.76(2.93)	1.087	0.30
동형찾기[2]	9.52(3.02)	10.40(3.06)	-1.065	-0.29
그림기억	10.70(2.14)	11.35(2.85)	-1.227	-0.26
공통성[2]	11.07(3.40)	11.32(3.34)	-.273	-0.07
공통그림찾기[2]	11.03(3.08)	10.92(3.60)	.126	0.03
선택하기[2]	**9.10(2.65)**	**10.92(3.16)**	**-2.297***	**-0.63**

소검사 / 지표	환산점수[1]/ 지표점수[1]		*t*	effect size
	남(*n* = 46)	여(*n* = 43)		
위치찾기	10.52(2.17)	11.23(2.37)	−1.478	−0.31
모양맞추기	11.04(2.47)	11.88(2.49)	−1.598	−0.34
수용어휘[3]	12.06(3.19)	11.94(3.21)	.106	0.04
그림명명[3]	12.88(3.57)	14.06(2.29)	−1.165	−0.40
선택하기(비정렬)[2]	**9.31(2.65)**	**11.04(3.09)**	**−2.216***	**−0.60**
선택하기(정렬)[2]	**8.97(2.58)**	**10.48(2.87)**	**−2.039***	**−0.55**
언어이해지표	108.72(17.62)	109.37(17.04)	−.178	−0.04
시공간지표	108.24(11.52)	110.58(11.97)	−.941	−0.20
유동추론지표[2]	109.17(14.32)	106.32(14.78)	.719	0.20
작업기억지표	104.57(11.40)	108.81(13.55)	−1.604	−0.34
처리속도 지표[2]	96.72(13.20)	104.20(15.35)	−1.925	**−0.52**
전체 IQ	108.24(13.18)	110.72(15.46)	−.817	−0.17
어휘습득 지표[3]	115.82(16.24)	119.00(14.80)	−.605	−0.20
비언어지표	107.11(11.36)	109.72(14.46)	−.951	−0.20
일반능력지표	110.24(14.75)	111.16(15.70)	−.286	−0.06
인지효율성 지표[2]	**97.28(12.19)**	**105.16(14.83)**	**−2.144***	**−0.58**

주: 1)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되며, 지표점수 및 전체 IQ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2) 행렬추리, 동형찾기,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소검사와 유동추론지표, 처리속도 지표, 인지효율성 지표는 4:0~7:7세만 해당되어 표본수가 남 29명, 여 25명임.
3)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와 어휘습득 지표는 2:11~3:11세만 해당되어 표본수가 남 17명, 여 18명임.
* $p < .05$.

한편 만 3세반 유아의 바인랜드 적응행동(K-Vineland-2) 검사 결과, 남아와 여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영역과 하위영역에서도 만 3세반 유아의 적응행동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2〉 성별에 따른 만 3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N = 95, *M(SD)*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1]		*t*	effect size
		남(*n* = 51)	여(*n* = 44)		
하위	수용	16.29(2.62)	16.41(2.71)	−.210	−0.04
	표현	16.59(2.91)	16.07(2.35)	.948	0.20
	개인	17.67(3.41)	17.34(3.14)	.482	0.10
	가정	18.16(3.05)	17.61(2.83)	.895	0.18
	대인관계	17.41(3.28)	17.11(3.29)	.441	0.09
	놀이 및 여가	16.49(3.14)	16.50(3.10)	−.015	0.00
	대처기술	17.49(2.91)	17.77(2.99)	−.466	−0.10
	대근육	14.80(2.59)	15.36(2.45)	−1.076	−0.22
	소근육	16.43(3.17)	17.18(3.04)	−1.173	−0.24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1]		*t*	effect size
		남(*n* = 51)	여(*n* = 44)		
주	의사소통 영역	109.08(15.20)	107.80(13.77)	.428	0.09
	생활기술 영역	118.63(18.26)	115.82(16.78)	.776	0.16
	사회성 영역	112.69(16.83)	112.66(16.63)	.008	0.00
	운동기술 영역	104.55(15.89)	108.95(15.68)	-1.356	-0.28
적응행동 조합점수		111.94(16.00)	111.91(15.75)	.010	0.00

주: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되며, 주영역 및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2)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

가) 맞벌이 여부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검사(K-WPPSI-IV) 결과, 맞벌이 가정 유아와 외벌이 가정 유아의 전체 IQ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검사 수준에서 살펴보면, 공통성에서 맞벌이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맞벌이 가정 유아의 평균은 12.11(SD = 3.08)이고, 외벌이 가정 유아의 평균은 9.81(SD = 3.33)로 맞벌이 가정 유아가 외벌이 가정 유아보다 높았다. 그림명명 소검사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맞벌이 가정 유아의 평균이 14.38(SD = 1.91), 외벌이 가정 유아의 평균이 12.44(SD = 2.83)로 맞벌이 가정 유아가 더 높은 수행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기본지표와 추가지표 수준에서는 맞벌이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하면, 일부 소검사에서 맞벌이 가정 유아가 외벌이 가정 유아보다 높은 수행 수준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3〉 맞벌이 여부에 따른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N = 81, *M(SD)*

소검사 / 지표	환산점수[1]/ 지표점수[1]		*t*	effect size
	맞벌이(*n* = 56)	외벌이(*n* = 25)		
토막짜기	12.04(2.41)	11.88(2.32)	.272	0.07
상식	11.43(2.88)	11.04(3.51)	.524	0.12
행렬추리[2]	11.66(2.65)	10.81(3.37)	.970	0.28
동형찾기[2]	10.20(3.18)	9.25(2.72)	1.034	0.32
그림기억	11.09(2.18)	10.96(3.32)	.208	0.05
공통성[2]	**12.11(3.08)**	**9.81(3.33)**	**2.412***	**0.72**
공통그림찾기[2]	11.06(3.18)	10.63(3.56)	.434	0.13
선택하기[2]	10.43(3.16)	8.69(2.63)	1.921	0.60

소검사 / 지표	환산점수[1]/ 지표점수[1]		*t*	effect size
	맞벌이(*n* = 56)	외벌이(*n* = 25)		
위치찾기	10.66(2.60)	11.16(1.57)	-.890	-0.24
모양맞추기	11.59(2.56)	10.84(2.49)	1.225	0.30
수용어휘[3]	12.05(3.23)	12.22(3.07)	-.137	-0.06
그림명명[3]	**14.38(1.91)**	**12.44(2.83)**	**2.196***	**0.82**
선택하기(비정렬)[2]	**10.69(3.12)**	**8.63(2.22)**	**2.374***	**0.77**
선택하기(정렬)[2]	9.97(3.04)	8.88(2.39)	1.270	0.40
언어이해지표	111.52(15.55)	106.12(19.48)	1.333	0.31
시공간지표	109.91(11.95)	107.16(11.31)	.973	0.24
유동추론지표[2]	109.37(13.84)	105.56(16.63)	.855	0.25
작업기억지표	106.32(13.08)	107.12(12.58)	-.257	-0.06
처리속도 지표[2]	102.31(15.70)	94.81(11.48)	1.710	**0.55**
전체 IQ	111.05(12.98)	107.00(16.49)	1.192	0.28
어휘습득 지표[3]	120.29(13.13)	115.00(14.77)	.974	0.38
비언어지표	108.98(12.89)	106.48(13.39)	.798	0.19
일반능력지표	112.48(13.55)	108.12(17.06)	1.233	0.28
인지효율성 지표[2]	101.80(14.75)	98.13(12.49)	.864	0.27

주: 1)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되며, 지표점수 및 전체 IQ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2) 행렬추리, 동형찾기,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소검사와 유동추론지표, 처리속도 지표, 인지효율성 지표는 4:0~7:7세만 해당되어 표본수가 맞벌이 35명, 외벌이 16명임.
3)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와 어휘습득 지표는 2:11~3:11세만 해당되어 표본수가 맞벌이 21명, 외벌이 9명임.
* $p < .05$.

만 3세반 유아의 바인랜드 적응행동(K-Vineland-2) 검사결과, 맞벌이 가정 유아와 외벌이 가정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주영역과 하위영역에서도 만 3세반 유아의 적응행동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4〉 맞벌이 여부에 따른 만 3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N = 87, *M(SD)*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1]		*t*	effect size
		맞벌이(*n* = 60)	외벌이(*n* = 27)		
하위	수용	16.45(2.40)	16.00(3.28)	.720	0.16
	표현	16.52(2.28)	16.19(3.36)	.538	0.12
	개인	17.12(3.16)	18.26(3.64)	-1.486	-0.34
	가정	17.87(2.80)	18.41(3.38)	-.781	-0.18
	대인관계	17.35(3.02)	17.52(3.81)	-.222	-0.05
	놀이 및 여가	16.87(3.06)	16.30(3.17)	.796	0.18
	대처기술	17.85(2.75)	17.33(3.29)	.761	0.17
	대근육	14.80(2.42)	15.56(2.91)	-1.263	-0.28
	소근육	16.87(2.91)	16.67(3.70)	.272	0.06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1]		*t*	effect size
		맞벌이(*n* = 60)	외벌이(*n* = 27)		
주	의사소통 영역	109.32(12.38)	106.93(18.72)	.706	0.15
	생활기술 영역	115.92(16.52)	121.48(20.93)	−1.335	−0.30
	사회성 영역	114.05(15.69)	112.19(19.36)	.476	0.11
	운동기술 영역	106.03(14.33)	107.78(20.00)	−.463	−0.10
적응행동 조합점수		112.10(14.15)	112.63(20.37)	−.140	−0.03

주: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되며, 주영역 및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나) 가구소득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검사(K-WPPSI-IV) 결과, 가구소득이 600만 원 미만인 가정 유아와 600만원 이상 가정 유아의 전체 IQ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본지표와 추가지표, 소검사 수준에서도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은 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5〉 가구소득(2집단)에 따른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N = 81, *M(SD)*

소검사 / 지표	환산점수[1]/ 지표점수[1]		*t*	effect size
	< 600만 원(*n* = 34)	≥ 600만 원(*n* = 47)		
토막짜기	11.71(2.44)	12.19(2.32)	−.909	−0.20
상식	10.82(3.33)	11.66(2.85)	−1.214	−0.27
행렬추리[2]	10.47(3.79)	11.94(2.06)	−1.790	**−0.50**
동형찾기[2]	9.37(2.22)	10.22(3.44)	−.963	−0.30
그림기억	11.18(3.03)	10.96(2.21)	.377	0.08
공통성[2]	9.79(3.41)	12.34(2.90)	−2.846	**−0.81**
공통그림찾기[2]	10.63(3.62)	11.09(3.09)	−.484	−0.14
선택하기[2]	8.89(2.92)	10.47(3.07)	−1.802	**−0.53**
위치찾기	10.71(2.56)	10.89(2.17)	−.356	−0.08
모양맞추기	11.35(2.55)	11.36(2.58)	−.015	0.00
수용어휘[3]	12.00(3.05)	12.20(3.32)	−.172	−0.06
그림명명[3]	13.67(2.06)	13.93(2.69)	−.305	−0.11
선택하기(비정렬)[2]	9.32(2.81)	10.47(3.08)	−1.334	−0.39
선택하기(정렬)[2]	8.63(2.71)	10.22(2.85)	−1.958	**−0.57**
언어이해지표	105.85(18.74)	112.74(15.02)	−1.836	−0.41
시공간지표	108.18(12.09)	109.70(11.60)	−.574	−0.13
유동추론지표[2]	104.68(19.02)	110.25(11.28)	−1.316	−0.37
작업기억지표	106.62(13.95)	106.53(12.15)	.029	0.01
처리속도 지표[2]	95.68(10.45)	102.50(16.51)	−1.614	**−0.51**
전체 IQ	107.32(16.31)	111.60(12.28)	−1.346	−0.30

소검사 / 지표	환산점수[1]/ 지표점수[1]		*t*	effect size
	< 600만 원(*n* = 34)	≥ 600만 원(*n* = 47)		
어휘습득 지표[3]	118.00(12.46)	119.40(15.08)	-.277	-0.10
비언어지표	106.82(14.86)	109.21(11.56)	-.814	-0.18
일반능력지표	107.65(16.48)	113.66(12.96)	-1.837	-0.41
인지효율성 지표[2]	97.00(13.59)	102.81(14.10)	-1.442	-0.42

주: 1)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되며, 지표점수 및 전체 IQ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2) 행렬추리, 동형찾기,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소검사와 유동추론지표, 처리속도 지표, 인지효율성 지표는 4:0~7:7세만 해당되어 표본수가 600만원 미만 19, 이상 32임.
3)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와 어휘습득 지표는 2:11~3:11세만 해당되어 표본수가 600만원 미만 15, 이상 15명임.

만 3세반 유아의 바인랜드 적응행동(K-Vineland-2) 검사 결과,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600만 원 미만인 가정 유아의 평균은 107.69(SD = 18.14), 600만 원 이상인 가정 유아의 평균은 115.35(SD = 14.13)로 6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유아가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주영역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600만 원 미만 가정 유아는 103.80(SD = 16.38), 600만 원 이상 가정 유아는 111.79(SD = 12.38)로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 가정 유아가 더 높은 수행수준을 보였다. 사회성 영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600만 원 미만 가정 유아의 평균이 109.06(SD = 16.37), 600만 원 이상 가정 유아의 평균이 116.44(SD = 16.62)로 600만 원 이상 가정 유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만 3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의사소통 영역, 사회성 영역에서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유아가 더 높은 수행수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Ⅳ-3-6〉 가구소득(2집단)에 따른 만 3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N = 87, *M(SD)*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2]		*t*	effect size
		< 600만 원 (*n* = 35)	≥ 600만 원 (*n* =52)		
하위	**수용**	**15.49(2.97)**	**16.87(2.35)**	**-2.410***	**-0.52**
	표현	**15.63(2.89)**	**16.94(2.35)**	**-2.326***	**-0.50**
	개인	16.89(3.88)	17.87(2.90)	-1.348	-0.29
	가정	17.91(3.22)	18.12(2.84)	-.307	-0.07
	대인관계	**16.51(3.21)**	**18.00(3.19)**	**-2.126***	-0.46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2]		*t*	effect size
		< 600만 원 (*n* = 35)	≥ 600만 원 (*n* =52)		
	놀이 및 여가	16.09(3.12)	17.10(3.02)	−1.509	−0.33
	대처기술	17.00(2.83)	18.15(2.92)	−1.830	−0.40
	대근육	14.51(3.16)	15.38(2.09)	−1.549	−0.33
	소근육	16.20(3.30)	17.21(3.02)	−1.477	−0.32
주	**의사소통 영역**	**103.80(16.38)**	**111.79(12.38)**	**−2.589***	**−0.56**
주	생활기술 영역	115.46(20.59)	119.12(16.19)	−.925	−0.20
주	**사회성 영역**	**109.06(16.37)**	**116.44(16.62)**	**−2.044***	−0.45
주	운동기술 영역	102.74(18.23)	109.15(14.29)	−1.835	−0.39
적응행동 조합점수		**107.69(18.14)**	**115.35(14.13)**	**−2.209***	−0.47

주: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되며, 주영역 및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 $p < .05$.

나. 초등 1학년 아동의 발달 비교

1) 개인 특성(성별)에 따른 차이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 검사(K-WPPSI-IV) 검사 결과, 전체 IQ 평균은 남아와 여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본지표와 추가지표, 소검사 수준에서도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7〉 성별에 따른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

N = 40, *M(SD)*

소검사 / 지표	환산점수[1] / 지표점수[1]		*t*	effect size
	남(*n* = 22)	여(*n* = 18)		
토막짜기	12.05(3.42)	12.94(4.32)	−.736	−0.23
상식	10.36(3.77)	11.22(3.00)	−.783	−0.25
행렬추리	11.95(2.87)	10.94(3.49)	1.005	0.32
동형찾기	12.91(3.95)	12.61(4.22)	.230	0.07
그림기억	11.64(3.44)	10.94(3.21)	.652	0.21
공통성	11.18(2.11)	10.67(2.74)	.672	0.21
공통그림찾기	11.32(2.03)	11.56(2.20)	−.354	−0.11
선택하기	10.23(2.65)	10.00(3.34)	.240	0.08
위치찾기	11.41(2.65)	10.83(3.59)	.584	0.18
모양맞추기	10.73(2.51)	9.44(2.79)	1.529	0.48
선택하기(비정렬)	10.14(2.51)	9.78(3.32)	.389	0.12
선택하기(정렬)	10.09(2.56)	9.78(3.04)	.354	0.11
언어이해지표	105.23(15.61)	106.11(14.86)	−.182	−0.06
시공간지표	107.41(13.33)	106.28(18.53)	.224	0.07
유동추론지표	110.77(11.97)	108.61(12.80)	.551	0.17

소검사 / 지표	환산점수[1] / 지표점수[1]		*t*	effect size
	남(*n* = 22)	여(*n* = 18)		
작업기억지표	110.14(15.21)	106.56(18.31)	.676	0.21
처리속도 지표	109.32(14.66)	108.00(19.46)	.244	0.08
전체 IQ	111.50(14.54)	110.83(14.47)	.145	0.05
비언어지표	113.23(14.88)	112.06(14.57)	.250	0.08
일반능력지표	108.91(15.15)	109.28(15.60)	-.076	-0.02
인지효율성 지표	110.45(12.84)	107.00(20.98)	.640	0.20

주: 1)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되며, 지표점수 및 전체 IQ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2)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와 어휘습득 지표는 4:0~7:0세의 경우 해당되지 않아 산출되지 않음.

초등 1학년 아동의 바인랜드 적응행동(K-Vineland-2) 검사결과, 남아와 여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영역 중 대근육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가 15.48(SD = 1.03)이고, 여아가 14.67(SD = 1.13)로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수행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과 주영역에서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합하면,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은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8〉 성별에 따른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

N = 57, *M(SD)*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1]		*t*	effect size
		남(*n* = 33)	여(*n* = 24)		
하위	수용	16.42(2.60)	16.13(2.29)	.451	0.12
	표현	17.21(3.08)	17.50(2.34)	-.384	-0.11
	개인	17.30(2.74)	17.88(1.80)	-.890	-0.25
	가정	17.48(3.70)	17.54(3.30)	-.060	-0.02
	대인관계	18.24(2.51)	18.42(2.21)	-.272	-0.07
	놀이 및 여가	17.67(3.26)	16.83(3.33)	.945	0.25
	대처기술	17.39(3.11)	18.08(2.84)	-.856	-0.23
	대근육	**15.48(1.03)**	**14.67(1.13)**	**2.837****	**0.76**
	소근육	16.48(1.91)	16.79(1.41)	-.666	-0.18
주	의사소통 영역	112.36(17.77)	112.29(14.07)	.016	0.00
	생활기술 영역	115.48(19.01)	117.38(15.05)	-.403	-0.11
	사회성 영역	115.97(15.52)	115.88(15.08)	.023	0.01
	운동기술 영역[2]	104.80(10.55)	105.17(8.40)	-.072	-0.04
적응행동 조합점수		115.36(17.60)	116.63(14.93)	-.284	-0.08

주: 1)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되며, 주영역 및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2) 주영역의 운동기술 영역은 7:0세 이상은 산출되지 않아 표본수가 남 10, 여 6명 임.
** $p < .01$.

2)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

가) 맞벌이 여부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 검사(K-WPPSI-Ⅳ) 결과, 맞벌이 가정 유아와 외벌이 가정 유아의 전체 IQ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본지표 중, 시공간지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정 유아의 평균이 102.23(SD = 15.00)이고 외벌이 가정 유아의 평균이 112.93(SD = 16.31)으로 외벌이 가정 유아가 맞벌이 가정 유아보다 높은 수행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검사 수준에서는 모양맞추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정 유아가 9.00(SD = 2.23), 외벌이 가정 유아가 11.60(SD = 2.72)으로 외벌이 가정 유아가 더 높은 수행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은 시공간지표, 특히 모양맞추기 소검사에서 외벌이 가정 유아가 더 높은 수행수준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맞벌이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9〉 맞벌이 여부에 따른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

N = 37, *M(SD)*

소검사/지표	환산점수[1] / 지표점수[1]		*t*	effect size
	맞벌이(*n* = 22)	외벌이(*n* = 15)		
토막짜기	12.05(4.24)	13.00(3.53)	-.719	-0.25
상식	11.27(3.60)	10.40(3.36)	.744	0.25
행렬추리	11.50(3.56)	11.33(1.95)	.165	0.06
동형찾기	12.45(4.00)	13.73(3.71)	-.983	-0.33
그림기억	11.77(3.22)	10.80(3.71)	.848	0.28
공통성	11.09(2.78)	11.00(1.51)	.115	0.04
공통그림찾기	11.32(2.06)	11.60(2.10)	-.406	-0.14
선택하기	10.50(2.70)	10.00(3.32)	.504	0.17
위치찾기	10.73(2.93)	11.93(3.51)	-1.134	-0.37
모양맞추기	**9.00(2.23)**	**11.60(2.72)**	**-3.188****	**-1.05**
선택하기(비정렬)	10.45(2.74)	9.60(3.14)	.879	0.29
선택하기(정렬)	10.09(2.56)	10.07(3.13)	.026	0.01
언어이해지표	107.77(17.10)	104.40(11.55)	.666	0.24
시공간지표	**102.23(15.00)**	**112.93(16.31)**	**-2.058***	**-0.68**
유동추론지표	109.55(13.20)	109.73(8.37)	-.049	-0.02
작업기억지표	108.68(16.66)	109.27(18.32)	-.101	-0.03
처리속도 지표	108.91(16.41)	111.00(16.16)	-.383	-0.13
전체 IQ	111.64(17.70)	111.93(8.01)	-.061	-0.02
비언어지표	112.14(17.20)	114.20(10.92)	-.411	-0.15

소검사/지표	환산점수[1] / 지표점수[1]		*t*	effect size
	맞벌이(*n* = 22)	외벌이(*n* = 15)		
일반능력지표	109.55(18.20)	109.13(8.90)	.081	0.03
인지효율성 지표	109.09(16.85)	110.93(17.10)	-.325	-0.11

주: 1)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되며, 지표점수 및 전체 IQ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2)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와 어휘습득 지표는 4:0~7:0세의 경우 해당되지 않아 산출되지 않음.
* $p < .05$, ** $p < .01$.

초등 1학년 아동의 바인랜드 적응행동(K-Vineland-2) 검사결과, 맞벌이 가정 유아와 외벌이 가정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주영역과 하위영역에서도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표 Ⅳ-3-10〉 맞벌이 여부에 따른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

N = 53, *M(SD)*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1]		*t*	effect size
		맞벌이(*n* = 30)	외벌이(*n* = 23)		
하위	수용	16.10(2.62)	16.48(2.17)	-.560	-0.16
	표현	17.03(2.80)	17.57(2.79)	-.686	-0.19
	개인	17.70(2.15)	17.13(2.77)	.843	0.23
	가정	17.30(3.72)	17.78(3.34)	-.488	-0.14
	대인관계	18.27(2.00)	18.35(2.67)	-.127	-0.03
	놀이 및 여가	17.37(3.19)	17.48(3.25)	-.125	-0.03
	대처기술	17.20(3.09)	18.22(3.00)	-1.203	-0.33
	대근육	15.27(1.17)	15.00(1.04)	.860	0.24
	소근육	16.70(1.76)	16.35(1.75)	.723	0.20
주	의사소통 영역	111.20(16.89)	112.91(14.98)	-.384	-0.11
	생활기술 영역	116.17(17.59)	115.83(18.04)	.069	0.02
	사회성 영역	114.83(14.30)	117.52(16.17)	-.641	-0.18
	운동기술 영역[2]	101.67(10.21)	106.88(9.51)	-.983	**-0.53**
적응행동 조합점수		115.63(17.15)	115.74(15.98)	-.023	-0.01

주: 1)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되며, 주영역 및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2) 주영역의 운동기술 영역은 7:0세 이상은 산출되지 않아 표본수가 맞벌이 6, 외벌이 8명 임.

나) 가구소득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 검사(K-WPPSI-IV) 검사 결과, 가구소득이 600만 원 미만인 가정 유아와 600만 원 이상인 가정 유아의 전체 IQ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본지표와 추가지표, 소검사 수준에서도 초등 1

학년 아동의 인지발달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11〉 가구소득(2집단)에 따른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

N = 37, *M(SD)*

소검사/지표	v-척도점수[1] / 표준점수[1]		*t*	effect size
	< 600만 원 (*n* = 8)	≥ 600만 원 (*n*= 29)		
토막짜기	13.50(3.66)	12.14(4.02)	.862	0.35
상식	12.25(1.58)	10.55(3.79)	1.230	**0.63**
행렬추리	10.88(2.75)	11.59(3.06)	-.593	-0.24
동형찾기	10.88(2.42)	13.55(4.04)	-1.777	**-0.83**
그림기억	10.63(3.70)	11.59(3.36)	-.701	-0.27
공통성	11.75(2.43)	10.86(2.29)	.957	0.38
공통그림찾기	12.00(1.07)	11.28(2.23)	.882	0.44
선택하기	9.38(1.92)	10.55(3.13)	-1.005	-0.47
위치찾기	10.75(4.20)	11.34(2.93)	-.462	-0.17
모양맞추기	9.88(1.96)	10.10(2.93)	-.207	-0.09
선택하기(비정렬)	9.25(2.12)	10.34(3.06)	-.946	-0.42
선택하기(정렬)	9.13(1.73)	10.34(2.96)	-1.109	**-0.52**
언어이해지표	112.13(9.06)	104.83(16.04)	1.226	**0.58**
시공간지표	109.13(14.78)	105.86(16.77)	.498	0.21
유동추론지표	109.38(8.85)	109.69(12.09)	-.068	-0.03
작업기억지표	105.38(22.29)	109.90(15.73)	-.657	-0.24
처리속도 지표	101.13(8.87)	112.14(16.94)	-1.761	**-0.85**
전체 IQ	111.50(10.53)	111.83(15.47)	-.056	-0.03
비언어지표	110.38(9.86)	113.69(16.00)	-.554	-0.26
일반능력지표	113.63(12.84)	108.21(15.50)	.904	0.38
인지효율성 지표	102.00(16.95)	112.00(16.31)	-1.523	**-0.60**

주: 1)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되며, 지표점수 및 전체 Q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2)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와 어휘습득 지표는 4:0~7:0세의 경우 해당되지 않아 산출되지 않음.

초등 1학년 아동의 바인랜드 적응행동(K-Vineland-2) 검사 결과, 가구소득이 600만 원 미만인 가정 유아와 600만 원 이상인 가정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주영역과 하위영역에서도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3-12〉 가구소득(2집단)에 따른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

N = 53, *M(SD)*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1]		*t*	effect size
		< 600만 원 (*n* = 14)	≥ 600만 원 (*n* = 39)		
하위	수용	15.50(1.95)	16.54(2.53)	−1.390	−0.46
	표현	16.71(2.95)	17.46(2.73)	−.860	−0.26
	개인	17.00(2.94)	17.62(2.24)	−.810	−0.24
	가정	17.57(3.46)	17.49(3.61)	.076	0.02
	대인관계	18.00(2.83)	18.41(2.10)	−.571	−0.17
	놀이 및 여가	16.50(3.06)	17.74(3.20)	−1.261	−0.40
	대처기술	17.50(3.23)	17.69(3.04)	−.200	−0.06
	대근육	14.71(1.07)	15.31(1.10)	−1.739	**−0.55**
	소근육	15.93(1.90)	16.77(1.66)	−1.564	−0.47
주	의사소통 영역	107.21(15.09)	113.64(16.11)	−1.301	−0.41
	생활기술 영역	114.86(19.12)	116.44(17.28)	−.285	−0.09
	사회성 영역	113.36(15.94)	116.95(14.82)	−.763	−0.23
	운동기술 영역[2]	100.50(9.04)	106.30(10.03)	−1.001	**−0.61**
적응행동 조합점수		112.71(18.16)	116.74(15.98)	−.781	−0.24

주: 1)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되며, 주영역 및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2) 주영역의 운동기술 영역은 7:0세 이상은 산출되지 않아 표본수가 600미만 4, 이상 10명 임.

4. 소결

본 장에서는 2차년도 참여자인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와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발달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 가구의 지출을 조사한 결과, 만 3세반 유아 가구의 총지출은 월평균 423.8만 원이었으며, 기관(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교육비 지출은 41만 원, 사교육비는 26.9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 1학년 아동 가구의 총지출은 월평균 452.5만 원이었고, 교육비 지출은 40.4만 원, 사교육비는 81만 원으로 응답하였다. 사례 수가 충분치 않아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초등 1학년 아동의 사교육비 지출은 만 3세 유아의 2.5배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만 3세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가정에서의 일상을 조사한 결과, 초등 1학년 아동이 맞벌이 부와 보내는 주당 평균 시간은 25.3시간으로 외벌이 부가 자녀와 보내는 주당 평균 시간인 16.7시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만 3세반 유아 자

녀와 부가 보내는 시간인 28.9시간에 비하면 약 3시간 정도 짧다. 한편 초등 1학년 아동 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만 3세반 유아가 모와 보내는 시간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외벌이 가구의 만 3세반 유아 모가 57.0시간인 것과 비교해 초등 1학년 아동 모는 48.7시간으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기관 이용 특성을 조사한 결과, 만 3세반 유아가 현재 이용 중인 사교육 프로그램 수는 2.42개, 초등 1학년 아동은 4.35개로 초등 1학년 시기의 사교육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만 3세반 유아와 비교하면 초등 1학년 아동의 사교육 이용률이 대체로 높으며, 만 3세반 유아는 사교육 교과목 이용이 없는 비중이 43.2%인 반면, 초등 1학년 아동은 모든 자녀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음악(만 3세반 유아: 4.5%, 초등 1학년 아동: 54.5%), 영어(만 3세반 유아: 17.0%, 초등 1학년 아동: 60.0%), 미술(만 3세반 유아: 21.6%, 초등 1학년 아동: 60.0%), 체육(만 3세반 유아: 29.5%, 초등 1학년 아동: 63.6%), 수학(만 3세반 유아: 15.9%, 초등 1학년 아동: 47.3%)의 이용률이 높다. 한편 초등 1학년 아동은 대부분의 교육서비스 이용률이 만 3세반 유아에 비해 높은데, 특히, 학원 이용률은 만 3세반 유아의 19.3%에 비해 초등 1학년 아동은 81.8%로 크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인터넷/화상강의 22.8%p, 학습지 20.9%p,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 16.8%p,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 10.9%p로 만 3세반 유아보다 높고, 사설기관에서 하는 교육은 0.9%p 낮았다.

셋째, 만 3세반 유아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7점 척도) 중,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은 평균 5.50점이었고, 아주 행복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은 5.24점, 아주 불행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은 5.58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갈등(5점 척도)의 전체 평균은 2.05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양육 스트레스 또한 2.24점으로 높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지원에 대한 주관적 인식(9점 척도)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할 때, 6.20점(10점 척도)이었고, 지역사회나 공동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6.39점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다음으로 만 3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던 영역은 언어발달(3.99점)이었고, 신체발달(3.49점)이 가장 낮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전반적 발달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서는 인지 발달이 3.70

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성 발달과 정서발달이 3.3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기관 적응(5점 척도)의 전체 평균은 3.70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일과적응이 3.92점으로 가장 높았고, 또래적응이 3.51점으로 가장 낮았다.

넷째, 초등 1학년 아동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7점 척도) 중,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은 평균 5.51점이었고, 아주 행복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은 5.35점, 아주 불행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은 5.76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갈등(5점 척도)의 전체 평균은 1.75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양육 스트레스 또한 1.98점으로 높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9점 척도)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할 때, 6.69점(10점 척도)이었고, 지역사회나 공동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7.09점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다음으로 초등 1학년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던 영역은 인지 발달(4.00점)이었고, 신체발달(3.36점)이 가장 낮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전반적 발달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서는 인지 발달이 4.11점으로 부모의 인식과 동일하게 가장 높았고, 사회성 발달이 3.8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학교 적응(5점 척도)의 전체 평균은 4.28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초등 1학년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6점 척도) 중, 수학이 4.5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어가 4.52점, 전반적인 능력이 4.3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비교하면, 만 3세반 유아는 전반적으로 부모의 인식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정서발달에서 부모와 교사 간 인식의 격차가 다른 영역보다 크게 나타난 반면, 초등 1학년 아동은 부모와 교사 간의 인식 차이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으나 신체발달에 대해서는 부모보다 교사의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2차년도 발달검사 결과,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점수는 1차년도와 동일하게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도 평균 수준이었으나 생활기술 영역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도 평균 수준이었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 또한 운동기술 영역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평균 수준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점수를 제 특성(성별, 부모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 선택하기(비정렬, 정렬) 소검사, 인지효율성 지표에서

여아가 높게 나타난 것 외에 소검사 항목과 지표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주영역과 하위영역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인지발달 전체 평균은 차이가 없었으나 공통성, 그림명명, 선택하기(비정렬)에서 맞벌이 가구 유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주영역과 하위영역 모두 차이가 없었다. 한편 가구소득에 따라 분석한 인지발달 점수는 소검사와 지표 점수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적응행동 점수는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적응행동 조합점수와 일부 하위영역(수용, 표현, 대인관계), 주영역(의사소통 영역과 사회성 영역)은 600만 원 이상의 가구 유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여덟째,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 점수를 제 특성(성별, 부모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인지발달 점수는 기본지표와 추가지표, 소검사 점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영역인 대근육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인지발달 전체 평균은 차이가 없었으나 소항목인 모양맞추기와 기본지표 중 시공간지표에서만 외벌이 가구 유아의 점수가 더 높았다.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주영역과 하위영역 모두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인지발달의 전체 평균, 소검사와 지표 점수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도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V

1, 2차년도 연구결과의 종단 비교

01 1차년도 결과와의 종단 비교

02 한국아동패널의 코호트 집단 비교

03 소결

Ⅴ. 1, 2차년도 연구결과의 종단 비교

본 장에서는 1차년도 결과를 집단 특성에 따라 재분석하여 제시하였고, 2차년도 결과와 종단 비교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해석하기 위해 코호트 집단인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와 1, 2차년도 결과를 비교하고, 발달 및 학습 격차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1. 1차년도 결과와의 종단 비교

가. 1차년도 연구의 주요 결과[4)]

1차년도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 발달, 학습 등의 현황과 변화 등을 심층면담, 발달검사,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감)과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관, 가정, 영유아의 변화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가정 연계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기관 특성에 따라서는 기관(시설)의 폐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확진자 발생 시 긴급 돌봄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교실(또는 보육실)이 폐쇄적으로 변화해 개별 놀이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영유아들의 적응이 지연되고 건강안전 관리로 활동시간이 늘어났다. 또한 교사들은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었다. 부모들은 영유아에게 외부 활동 제약에 대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예방을 위한 지침이 익숙해지도록 지원하였으며, 부모들의 자녀 발달지연에 대한 우려로 사교육 이용이 증가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영유아의 인식은 독감 정도의 바이러스로 변화하였으며, 친구와의 놀이가 줄어듦에 따라 배려나 양보를 어려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외부 활동 및 체험활동 부

4) 최은영 등(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Ⅰ)의 결과의 요약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1차년도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제시함.

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 또한 미디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미디어 과이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는데, 이에 따라 교사와 부모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영유아의 다양한 발달지연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배경과 발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만 2세반 영아, 만 5세반 유아(각각 100명)를 대상으로 발달검사(K-WPPSI-IV, K-Vineland-2)를 진행하였으며, 환경적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대상 영유아의 부모(200명)와 담임교사(40명)를 설문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대부분의 부모는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았으며, 외벌이 가구는 휴원 기간에도 긴급돌봄을 거의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가구의 총지출, 자녀 양육비는 증가하였으며, TV/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하고 자녀의 야외활동 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기관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으며, 긴급돌봄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이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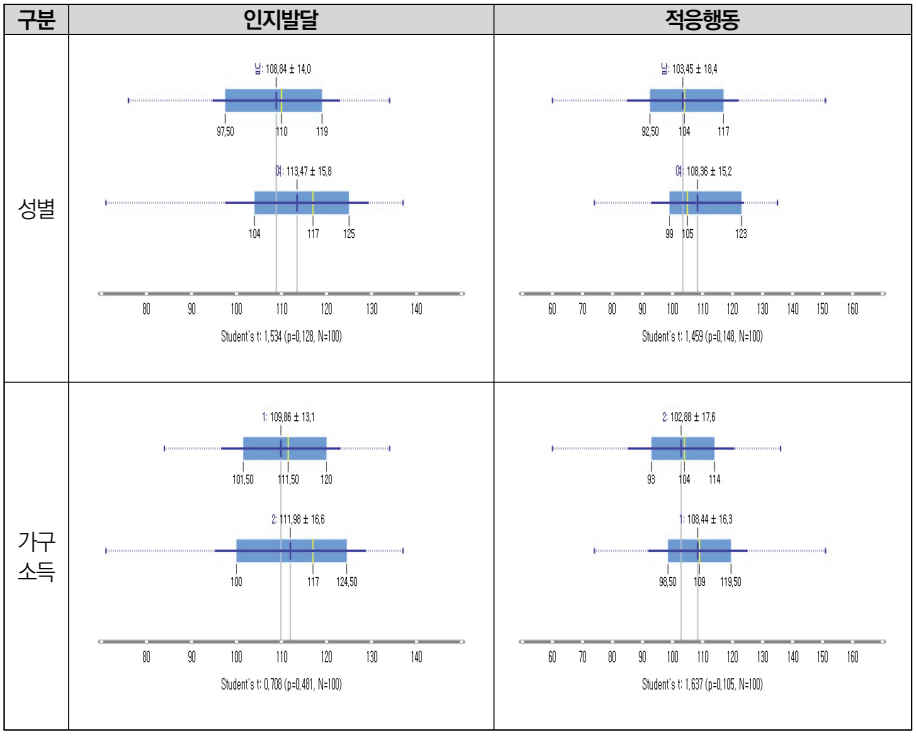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를 대상으로 발달검사를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인지발달은 만 2세반 영아 110.92이고 만 5세반 유아 107.20으로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적응행동은 만 2세반 영아 105.66, 만 5세반 유아 107.70으로 평균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는 그림명명 소검사를 중심으로 어휘습득 지표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외벌이 가정의 영유아는 선택하기를 중심으로 처리속도 지표에서 높은 수행수준을 보였다. 만 2세반 영아의 경우, 적응행동에 있어 의사소통 영역 중 표현에서만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가정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서는 행렬추리 소검사를 중심으로 유동추론지표가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더 높은 수행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만 2세반 영아는 소득수준에 따른 인지발달의 차이가 없었으나, 만 5세반 유아는 언어이해지표와 유동추론지표에서 소득에 따라 더 높은 수행 수준을 나타내었다. 특히 상식 소검사와 행렬추리 소검사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적응행동에 있어서는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모두 차이가 없었으나, 만 2세반 영아 적응행동의 운동기술 영역 중 소근육에서는 가계소득이 낮은 가정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과 적응행

동은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소검사와 하위영역에서 집단별(가구유형과 가구소득) 차이를 보였다.

1) 만 2세반 영아의 집단별 점수분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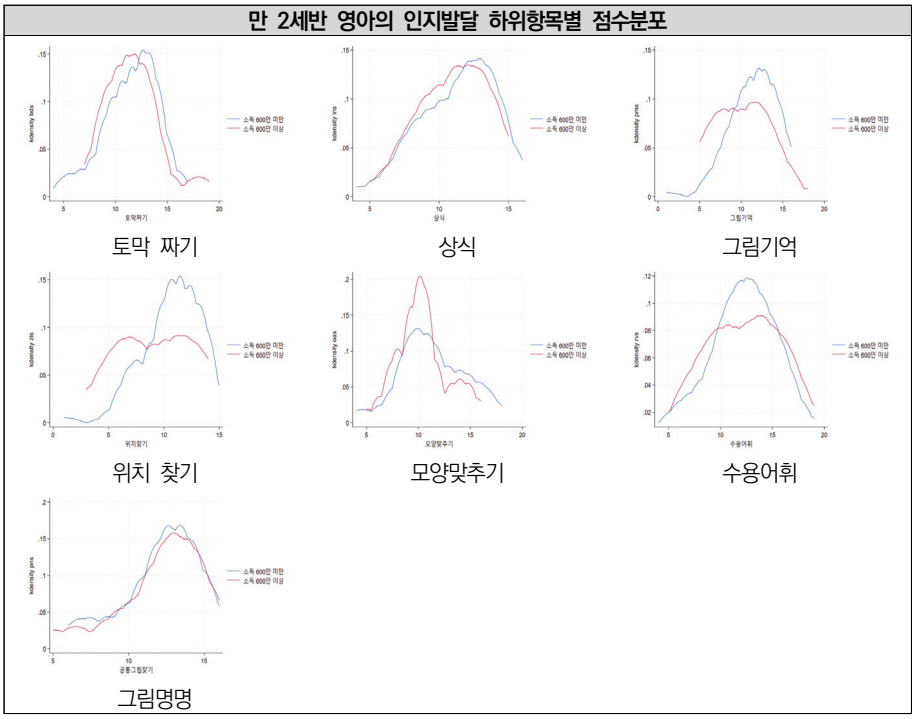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과 적응행동을 개인 특성(성별)과 가구 특성(가구소득)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림 Ⅴ-1-1]과 같다. [그림 Ⅴ-1-1]에 의하면,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과 적응행동 점수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아보다 여아의 점수 분포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가구소득에 따라서 살펴보면, 인지발달 점수는 고소득 가구의 점수 분포의 폭이 큰 반면, 적응행동 점수에서는 저소득 가구 영아의 점수가 보다 상위에 분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Ⅴ-1-1]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과 적응행동 점수분포 비교: 성별과 소득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 하위항목별 점수분포를 살펴보면, 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가 600만 원 미만 가구에 비해 전반적인 항목에서 최저점수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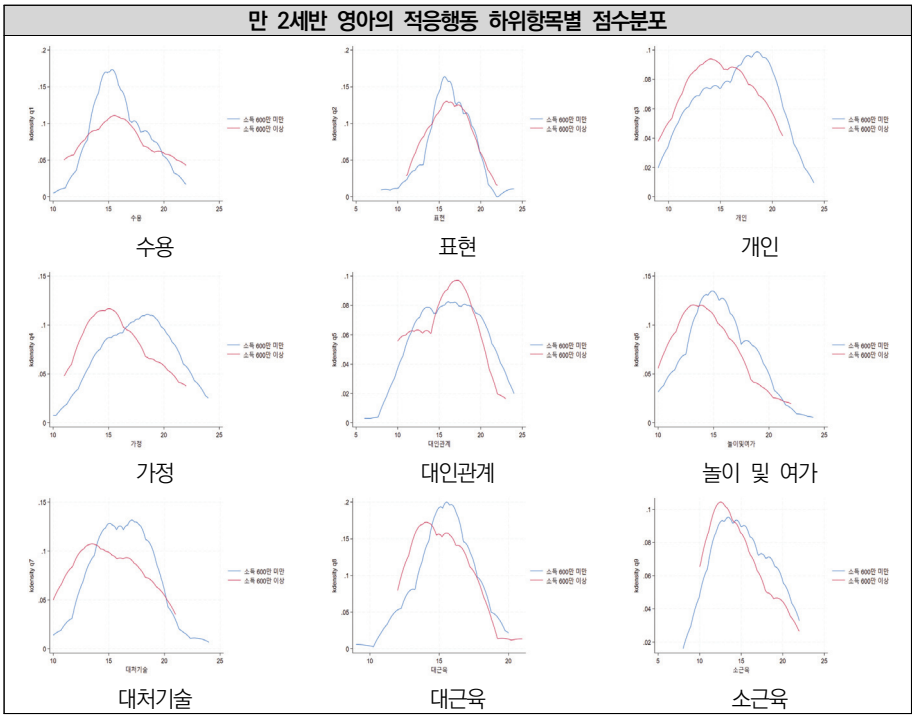
[그림 V-1-2]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 하위항목별 점수분포 비교: 가구소득



주: 가구소득 600만 원 미만(파랑), 600만 원 이상(빨강)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하위항목별 점수분포도 인지발달과 마찬가지로 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가 600만 원 미만 가구에 비해 개인,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을 제외한 전반적인 항목에서 최저점수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Ⅴ-1-3]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하위항목별 점수분포 비교: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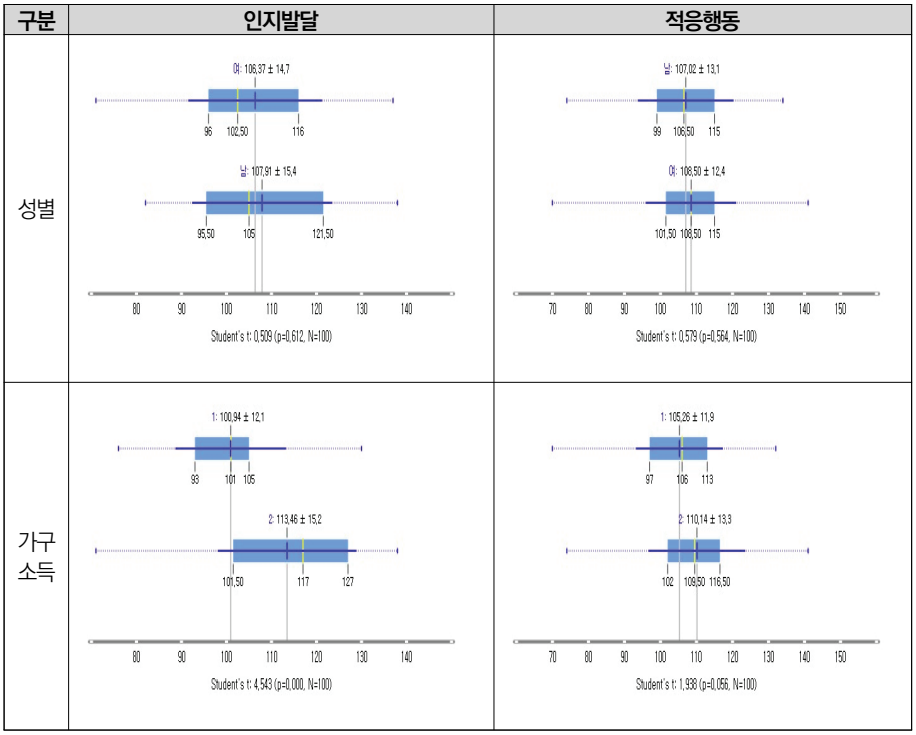


주: 가구소득 600만 원 미만(파랑), 600만 원 이상(빨강)

2) 만 5세반 유아의 집단별 점수분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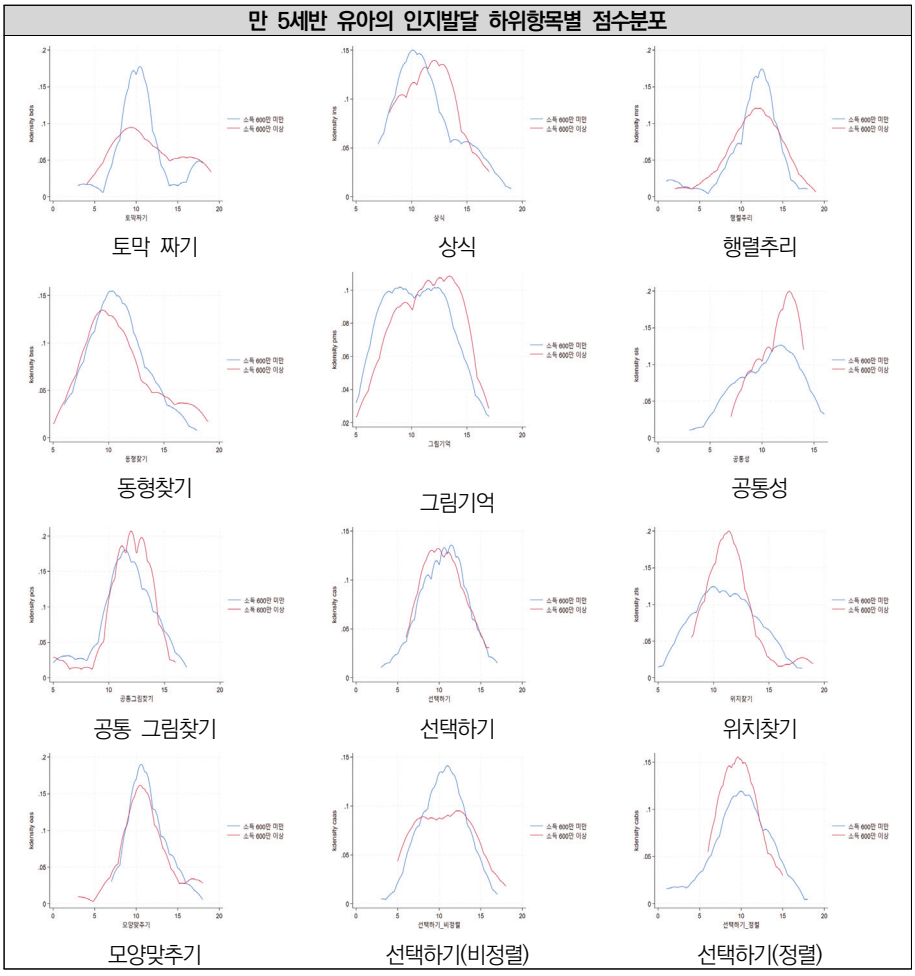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과 적응행동을 개인 특성(성별)과 가구 특성(가구소득)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림 V-1-4]와 같다.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과 적응행동 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인지발달과 적응행동 점수는 여아의 점수 폭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인지발달 점수는 고소득 가구의 점수 폭이 크고, 상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적응행동 점수는 고소득 가구의 점수 폭도 작고, 상위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1-4]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과 적응행동 점수분포 비교: 성별과 소득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하위항목별 점수분포를 살펴보면, 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가 600만 원 미만 가구에 비해 동형찾기, 그림기억, 모양맞추기를 제외한 전반적인 항목에서 최저점수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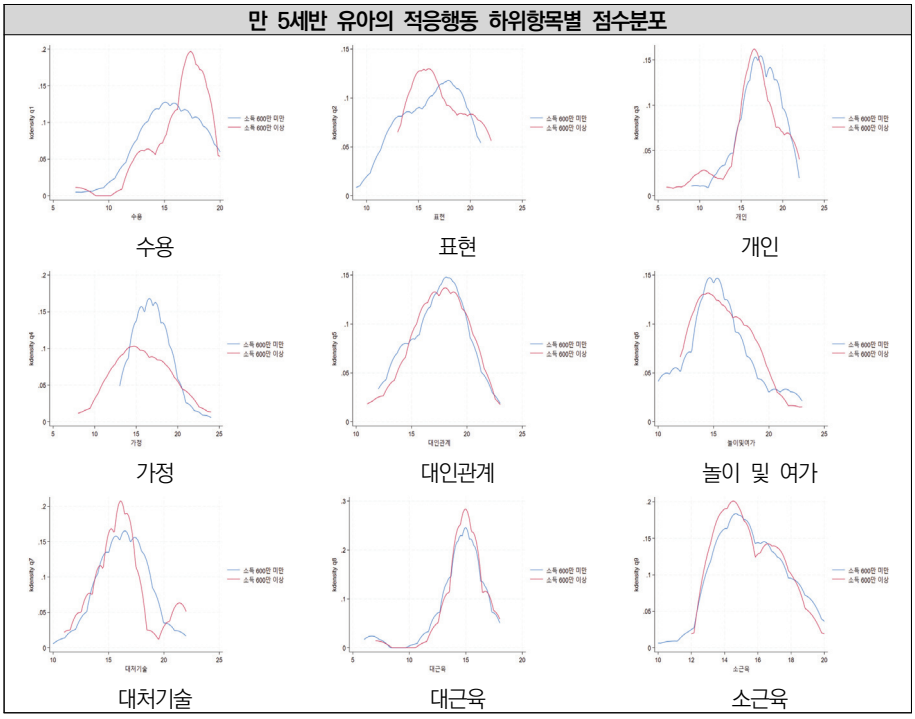
[그림 Ⅴ-1-5]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하위항목별 점수분포 비교: 가구소득



주: 가구소득 600만 원 미만(파랑), 600만 원 이상(빨강)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하위항목별 점수도 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가 600만 원 미만 가구에 비해 개인, 가정, 대인관계를 제외한 전반적인 항목에서 최저점수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1-6]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하위항목별 점수분포 비교: 가구소득



주: 가구소득 600만 원 미만(파랑), 600만 원 이상(빨강).

나. 1차년도 연구의 집단별 특성 분석

상기한 분포를 고려하여 집단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1차년도 연구결과에서 인지발달과 적응행동 점수의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군집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만 2세반 영아 발달의 집단별 특성

가)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

만 2세반 영아 100명의 인지발달 총점을 세집단으로 군집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지발달 점수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인 상 집단의 평균값은 124.6, 중 집단은 108.0, 하 집단은 89.8로 확인되었으며, 100명 전체 평균값은 110.9였다. 상 집단이 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 집단은 32명, 하 집단은 24명이었는데, 이후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변수별로 확인하였다.

〈표 Ⅴ-1-1〉 인지발달 총점별 집단 구분: 만 2세반 영아

단위: 점(명)

구분	인지발달 상 집단	인지발달 중 집단	인지발달 하 집단	전체
M	124.6(44)	108.0(32)	89.8(24)	110.9(100)

인지발달 점수의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모 학력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대학교 졸업인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상 집단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8%지만 하 집단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 이상 비중은 상 집단에서 20.5%, 하 집단에서 25.0%로 나타났다. 한편 인지발달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부 학력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대학교 졸업인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하 집단에서는 12.5%로 나타났다.

〈표 V-1-2〉 인지발달 점수의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부모 학력별 차이: 만 2세반 영아

단위: %(명)

구분		인지발달 상 집단	인지발달 하 집단	전체
모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8(3)	0.0(0)	4.4(3)
	대학교 졸업	72.7(32)	75.0(18)	73.5(50)
	대학원 이상	20.5(9)	25.0(6)	22.1(15)
	계	100.0(44)	100.0(24)	100.0(68)
χ^2=1.793(df=2)				
부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8(3)	12.5(3)	8.8(6)
	대학교 졸업	70.5(31)	62.5(15)	67.6(46)
	대학원 이상	22.7(10)	25.0(6)	23.5(16)
	계	100.0(44)	100.0(24)	100.0(68)
χ^2=.748(df=2)				

인지발달 점수의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맞벌이 비중이 외벌이 보다 높았으며, 상 집단의 맞벌이 비중이 77.3%로 하 집단에서의 66.7%보다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1-3〉 인지발달 점수의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맞벌이여부에 따른 차이: 만 2세반 영아

단위: %(명)

구분	인지발달 상 집단	인지발달 하 집단	전체
맞벌이	77.3(34)	66.7(16)	73.5(50)
외벌이	22.7(10)	33.3(8)	26.5(18)
계	100.0(44)	100.0(24)	100.0(68)
χ^2=.898(df=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학습지 등 방문교육 시간의 변화에 대한 두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변화가 없었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증가했다는 비중의 경우, 상 집단에서는 34.3%인 반면 하 집단에서는 11.8%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학원 이용시간의 변화에 대한 두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변화가 없었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증가했다는 비중의 경우, 상 집단에서는 23.5%인 반면 하 집단에서는 11.8%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TV나 미디어 이용시간 변화에 대한 두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상 집단의 경우 증가했다는 비중이 68.2%로 가장 높은 반면, 하 집단의 경우 변화없음과 증가했다는 응답 비중이 모두 동일하게 각각 45.8%로 나타났다.

〈표 Ⅴ-1-4〉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시간의 변화에 대한 인지발달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 만 2세반 영아

단위: %(명)

구분		인지발달 상 집단	인지발달 하 집단	전체
학습지 등 방문교육 시간	감소	8.6(3)	11.8(2)	9.6(5)
	변화없음	57.1(20)	76.5(13)	63.5(33)
	증가	34.3(12)	11.8(2)	26.9(14)
	계	100.0(35)	100.0(17)	100.0(52)
χ^2=2.950(df=2)				
학원 이용시간	감소	8.8(3)	11.8(2)	9.8(5)
	변화없음	67.6(23)	76.5(13)	70.6(36)
	증가	23.5(8)	11.8(2)	19.6(10)
	계	100.0(34)	100.0(17)	100.0(51)
χ^2=1.025(df=2)				
TV나 미디어 이용시간	감소	2.3(1)	8.3(2)	4.4(3)
	변화없음	29.5(13)	45.8(11)	35.3(24)
	증가	68.2(30)	45.8(11)	60.3(41)
	계	100.0(44)	100.0(24)	100.0(68)
χ^2=3.747(df=2)				

주: 비해당으로 응답한 사례는 제외함.

응답자와 배우자 소득의 범주를 합해서 600만 원 미만과 6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6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비중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5〉 인지발달 상 집단과 하 집단의 가구소득 차이: 만 2세반 영아

단위: %(명)

구분	인지발달 상 집단	인지발달 하 집단	전체
600만 원 미만	40.9(18)	45.8(11)	42.6(29)
600만 원 이상	59.1(26)	54.2(13)	57.4(39)
계	100.0(44)	100.0(24)	100.0(68)
χ^2=.154(df=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긴급 돌봄 이용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지발달 상 집단의 경우 이용하지 않은 비중이 45.5%로 가장 높은 반면, 하 집단의 경우 많이 이용한다는 비중이 41.7%로 나타났다.

〈표 V-1-6〉 긴급 돌봄 이용에 따른 인지발달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 만 2세반 영아

단위: %(명)

구분	인지발달 상 집단	인지발달 하 집단	전체
이용하지 않음	45.5(20)	37.5(9)	42.6(29)
가끔 이용함	22.7(10)	20.8(5)	22.1(15)
많이 이용함	31.8(14)	41.7(10)	35.3(24)
계	100.0(44)	100.0(24)	100.0(68)
χ^2=.682(df=2)			

나)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만 2세반 영아 100명에 대해 적응행동 전체 값을 세집단으로 군집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다. 적응행동 전체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인 상 집단의 평균값은 124.9점, 중 집단은 104.5점, 하 집단은 83.0점으로 확인되었으며, 100명 전체 평균값은 105.7로 나타났다. 적응행동 전체 값은 중간 집단이 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 집단은 32명, 하 집단은 25명이었다. 이후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특성 차이가 있는지 변수별로 확인하였다.

〈표 V-1-7〉 적응행동 조합점수 집단 구분: 만 2세반 영아

단위: 점(명)

구분	적응행동 상 집단	적응행동 중 집단	적응행동 하 집단	전체
M	124.9(32)	104.5(43)	83.0(25)	105.7(100)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모 학력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상 집단에 비해 하 집단의 어머니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원 이상 비중이 더 많고, 상 집단의 경우 대학교 졸업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부 학력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하 비중은 유사하나 상 집단의 경우 아버지 학력이 대학교 졸업인 비중이 78.1%로 가장 많은 반면, 하 집단의 경우 대학교 졸업과 대학원 이상이 각각 44.0%씩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Ⅴ-1-8〉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부모 학력별 차이: 만 2세반 영아

단위: %(명)

구분		적응행동 상 집단	적응행동 하 집단	전체
모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1(1)	12.0(3)	7.0(4)
	대학교 졸업	90.6(29)	56.0(14)	75.4(43)
	대학원 이상	6.3(2)	32.0(8)	17.5(10)
	계	100.0(32)	100.0(25)	100.0(57)
χ^2=9.110(df=2)*				
부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5(4)	12.0(3)	12.3(7)
	대학교 졸업	78.1(25)	44.0(11)	63.2(36)
	대학원 이상	9.4(3)	44.0(11)	24.6(14)
	계	100.0(32)	100.0(25)	100.0(57)
χ^2=9.441(df=2)**				

* $p < .05$, ** $p < .01$.

한편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맞벌이 비중이 외벌이보다 많았으며, 집단 간 비중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Ⅴ-1-9〉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 만 2세반 영아

단위: %(명)

구분	적응행동 상 집단	적응행동 하 집단	전체
맞벌이	75.0(24)	80.0(20)	77.2(44)
외벌이	25.0(8)	20.0(5)	22.8(13)
계	100.0(32)	100.0(25)	100.0(57)
χ^2=.199(df=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학습지 등 방문교육 시간의 변화에 대한 두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변화가 없었다는 비중이 가장 많았다. 상 집단의 경우 감소했다는 비중이 7.4%, 증가했다는 비중이 37.0%로 증가했다는 비중이 더 높았으며, 하 집단의 경우 감소했다는 비중은 20.0%, 증가했다는 비중은 15.0%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학원 이용시간의 변화에 대한 두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변화가 없었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상 집단의 경우 감소했다는 비중은 10.7%, 증가했다는 비중은 32.1%로 증가했다는 비중이 더 높았으나 하 집단의 경우 감소했다는 비중은 15.8%, 증가했다는 비중은 10.5%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TV나 미디어 이용시간의 변화에 대한 두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감소했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으며, 모두 증가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상 집단의 경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8.8%, 증가했다는 응답이 81.2%로 증가했다는 응답 비중이 4배에 달하며, 하 집단의 경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40.0%, 증가했다는 응답은 60.0%로 상 집단에 비해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 비중이 다소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V-1-10〉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시간의 변화에 대한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 만 2세반 영아

단위: %(명)

구분		적응행동 상 집단	적응행동 하 집단	전체
학습지 등 방문교육 시간	감소	7.4(2)	20.0(4)	12.8(6)
	변화없음	55.6(15)	65.0(13)	59.6(28)
	증가	37.0(10)	15.0(3)	27.7(13)
	계	100.0(20)	100.0(27)	100.0(47)
χ^2=3.616(df=2)				
학원 이용시간	감소	10.7(3)	15.8(3)	12.8(6)
	변화없음	57.1(16)	73.7(14)	63.8(30)
	증가	32.1(9)	10.5(2)	23.4(11)
	계	100.0(19)	100.0(28)	100.0(47)
χ^2=2.974(df=2)				
TV나 미디어 이용시간	감소	-	-	-
	변화없음	18.8(6)	40.0(10)	28.1(16)
	증가	81.2(26)	60.0(15)	71.9(41)
	계	100.0(32)	100.0(25)	100.0(57)
χ^2=3.139(df=1)†				

주: 비해당으로 응답한 사례는 제외함.
† $p < .1$.

응답자와 배우자 소득의 범주를 합해서 600만 원 미만과 6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6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상 집단의 경우 600만 원 미만이 46.9%, 600만 원 이상이 53.1%로 비중의 차이가 10% 미만인 반면, 하 집단의 경우 600만 원 미만 28.0%, 600만 원 이상이 72.0%로 나타났다.

〈표 Ⅴ-1-11〉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가구소득 차이: 만 2세반 영아

단위: %(명)

구분	적응행동 상 집단	적응행동 하 집단	전체
600만원 미만	46.9(15)	28.0(7)	38.6(22)
600만원 이상	53.1(17)	72.0(18)	61.4(35)
계	100.0(32)	100.0(25)	100.0(57)
χ^2=2.110(df=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긴급 돌봄 이용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적응행동 상 집단의 경우 이용하지 않은 비중이 56.2%로 가장 높은 반면, 적응행동 하 집단의 경우, 이용하지 않음 비중이 36.0%이며 가끔 이용하거나 많이 이용한다는 응답 비중이 64%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Ⅴ-1-12〉 긴급 돌봄 이용에 따른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 만 2세반 영아

단위: %(명)

구분	적응행동 상 집단	적응행동 하 집단	전체
이용하지 않음	56.2(18)	36.0(9)	47.4(27)
가끔 이용함	15.6(5)	28.0(7)	21.1(12)
많이 이용함	28.1(9)	36.0(9)	31.6(18)
계	100.0(32)	100.0(25)	100.0(57)
χ^2=2.512(df=2)			

2) 만 5세반 유아 발달의 집단별 특성

가)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만 5세반 유아 100명의 인지발달 점수를 세집단으로 군집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지발달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인 상 집단의 평균값은 126.3, 중 집단은 104.7, 하 집단은 90.3으로 확인되었으며, 100명 전체 평균값은 107.2였다. 인지발달 평균값인 중 집단이 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 집단은 31명, 하 집단은 29명으로 나타났다. 이후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변수별로 확인하였다.

〈표 V-1-13〉 인지발달 총점별 집단 구분: 만 5세반 유아

단위: 점(명)

구분	인지발달 상 집단	인지발달 중 집단	인지발달 하 집단	전체
M	126.3(31)	104.7(40)	90.3(29)	107.2(100)

인지발달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모 학력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대학교 졸업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상 집단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5%인 반면, 하 집단의 경우 27.6%로 다소 높았고, 대학원 이상 비중은 상 집단에서 25.8%, 하 집단에서 13.8%로 상 집단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인지발달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부 학력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대학교 졸업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상 집단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2%인 반면, 하 집단의 경우 13.8%로 하 집단에서 다소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 비중은 상 집단에서 29.0%, 하 집단에서 17.2%로 상 집단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V-1-14〉 인지발달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부모 학력별 차이: 만 5세반 유아

단위: %(명)

구분		인지발달 상 집단	인지발달 하 집단	전체
모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5(2)	27.6(8)	16.7(10)
	대학교 졸업	67.7(21)	58.6(17)	63.3(38)
	대학원 이상	25.8(8)	13.8(4)	20.0(12)
	계	100.0(31)	100.0(29)	100.0(60)
χ^2=5.294(df=2) †				
부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2(1)	13.8(4)	8.3(5)
	대학교 졸업	67.7(21)	69.0(20)	68.3(41)
	대학원 이상	29.0(9)	17.2(5)	23.3(14)
	계	100.0(31)	100.0(29)	100.0(60)
χ^2=2.904(df=2)				

† $p < .1$.

인지발달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맞벌이 비중이 외벌이보다 많았으며, 두 집단의 각 비중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15〉 맞벌이 여부에 따른 인지발달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 만 5세반 유아

단위: %(명)

구분	인지발달 상 집단	인지발달 하 집단	전체
맞벌이	67.7(21)	65.5(19)	66.7(40)
외벌이	32.3(10)	34.5(10)	33.3(20)
계	100.0(31)	100.0(29)	100.0(60)
χ^2=.033(df=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학습지 등 방문교육 시간의 변화에 대한 두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변화가 없었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증가했다는 비중의 경우 상 집단에서는 31.0%인 반면 하 집단에서는 22.2%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학원 이용시간의 변화에 대한 두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변화가 없었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상 집단에서는 증가했다는 비중의 경우 38.7%, 감소했다는 비중이 19.4%인데 비해 하 집단에서는 감소와 증가 비중이 각각 22.2%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TV나 미디어 이용시간의 변화에 대한 두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감소했다는 응답은 없었으며, 증가했다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응답별 비중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16〉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시간의 변화에 대한 인지발달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 만 5세반 유아

단위: %(명)

구분		인지발달 상 집단	인지발달 하 집단	전체
학습지 등 방문교육 시간	감소	20.7(6)	18.5(5)	19.6(11)
	변화없음	48.3(14)	59.3(16)	53.6(30)
	증가	31.0(9)	22.2(6)	26.8(15)
	계	100.0(29)	100.0(27)	100.0(56)
χ^2=.754(df=2)				
학원 이용시간	감소	19.4(6)	22.2(6)	20.0(12)
	변화없음	41.9(13)	55.6(15)	46.7(28)
	증가	38.7(12)	22.2(6)	30.0(18)
	계	100.0(31)	100.0(29)	100.0(60)
χ^2=1.876(df=2)				
TV나 미디어 이용시간	감소	-	-	
	변화없음	29.0(9)	24.1(7)	26.7(16)
	증가	71.0(22)	75.9(22)	73.3(44)
	계	100.0(31)	100.0(29)	100.0(60)
χ^2=.184(df=1)				

주: 비해당으로 응답한 사례는 제외함.

응답자와 배우자 소득의 범주를 합해서 600만 원 미만과 6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상 집단의 경우 600만 원 이상이 83.9%, 하 집단의 경우 55.2%로 상 집단의 가구소득이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V-1-17〉 인지발달 상 집단과 하 집단의 가구소득 차이: 만 5세반 유아

단위: %(명)

구분	인지발달 상 집단	인지발달 하 집단	전체
600만 원 미만	16.1(5)	44.8(13)	30.0(18)
600만 원 이상	83.9(26)	55.2(16)	70.0(42)
계	100.0(31)	100.0(29)	100.0(60)
χ^2=5.876(df=1)*			

* $p < .05$.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긴급 돌봄 이용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이용하지 않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응답별 비중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1-18〉 긴급 돌봄 이용에 따른 인지발달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 만 5세반 유아

단위: %(명)

구분	인지발달 상 집단	인지발달 하 집단	전체
이용하지 않음	45.2(14)	48.3(14)	46.7(28)
가끔 이용함	22.6(7)	13.8(4)	18.3(11)
많이 이용함	32.3(10)	37.9(11)	35.0(21)
계	100.0(31)	100.0(29)	100.0(60)
χ^2=.800(df=2)			

나)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만 5세반 유아 100명의 적응행동 전체 값을 세집단으로 군집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다. 적응행동 전체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인 상 집단의 평균값은 122.3점, 중 집단은 103.8점, 하 집단은 80.1점으로 확인되었으며, 100명 전체 평균값은 107.7로 나타났다. 적응행동 전체 값의 중간 집단이 6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 집단은 30명, 하 집단은 7명이었으며, 이후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의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 변수별로 확인하였다.

〈표 Ⅴ-1-19〉 적응행동 조합점수 집단 구분: 만 5세반 유아

단위: 점(명)

구분	적응행동 상 집단	적응행동 중 집단	적응행동 하 집단	전체
M(사례수)	122.3(30)	103.8(63)	80.1(7)	107.7(100)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모 학력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대학교 졸업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 상 집단은 53.3%, 하 집단은 85.7%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원 이상의 경우, 하 집단에 비해 상 집단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부 학력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대학교 졸업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 상 집단은 60.0%, 하 집단은 85.7%로 나타났다. 한편 하 집단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전혀 없는 데 비해 상 집단에서는 16.7%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Ⅴ-1-20〉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부모 학력별 차이: 만 5세반 유아

단위: %(명)

구분		적응행동 상 집단	적응행동 하 집단	전체
모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3(7)	14.3(1)	21.6(8)
	대학교 졸업	53.3(16)	85.7(6)	59.5(22)
	대학원 이상	23.3(7)	0.0(0)	18.9(7)
	계	100.0(30)	100.0(7)	100.0(37)
χ^2=2.849(df=2)				
부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7(5)	0.0(0)	13.5(5)
	대학교 졸업	60.0(18)	85.7(6)	59.5(22)
	대학원 이상	23.3(7)	14.3(1)	21.6(8)
	계	100.0(30)	100.0(7)	100.0(37)
χ^2=1.960(df=2)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맞벌이 비중이 외벌이보다 많았으며, 집단 간 비중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1-21〉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 만 5세반 유아

단위: %(명)

구분	적응행동 상 집단	적응행동 하 집단	전체
맞벌이	76.7(23)	71.4(5)	75.7(28)
외벌이	23.3(7)	28.6(2)	24.3(9)
계	100.0(30)	100.0(7)	100.0(37)
χ^2=.085(df=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학습지 등 방문교육 시간의 변화에 대한 두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변화가 없었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상 집단의 경우 감소했다는 비중이 32.1%, 증가했다는 비중이 17.9%로 감소했다는 비중이 더 높았으며, 하 집단의 경우, 감소했다는 비중과 증가했다는 비중이 각각 16.7%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학원 이용시간의 변화에 대한 두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변화가 없었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상 집단의 경우 감소했다는 비중은 36.7%, 증가했다는 비중은 16.7%로 감소했다는 비중이 더 높았으나 하 집단의 경우 감소했다는 비중과 증가했다는 비중이 각각 28.6%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팩데믹 기간 중 TV나 미디어 이용시간의 변화에 대한 두 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감소했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으며, 모두 증가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1-22〉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시간의 변화에 대한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 만 5세반 유아

단위: %(명)

구분		적응행동 상 집단	적응행동 하 집단	전체
학습지 등 방문교육 시간	감소	32.1(9)	16.7(1)	29.4(10)
	변화없음	50.0(14)	66.7(4)	52.9(18)
	증가	17.9(5)	16.7(1)	17.6(6)
	계	100.0(28)	100.0(6)	100.0(34)
χ^2=.666(df=2)				
학원 이용시간	감소	36.7(11)	28.6(2)	35.1(13)
	변화없음	46.7(14)	42.9(3)	45.9(17)
	증가	16.7(5)	28.6(2)	18.9(7)
	계	100.0(30)	100.0(7)	100.0(37)
χ^2=.549(df=2)				
TV나 미디어 이용시간	감소	-	-	-
	변화없음	40.0(12)	28.6(2)	37.8(14)
	증가	60.0(18)	71.4(5)	62.2(23)
	계	100.0(30)	100.0(7)	100.0(37)
χ^2=,315(df=2)				

주: 비해당으로 응답한 사례는 제외함.

응답자와 배우자 소득의 범주를 합해서 600만 원 미만과 6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6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더 많았는데, 상 집단의 경우, 76.7%, 하 집단의 경우 71.4%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Ⅴ-1-23〉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가구소득 차이: 만 5세반 유아

단위: %(명)

구분	적응행동 상 집단	적응행동 하 집단	전체
600만 원 미만	23.3(7)	28.6(2)	24.3(9)
600만 원 이상	76.7(23)	71.4(5)	75.7(28)
계	100.0(30)	100.0(7)	100.0(37)
χ^2=.085(df=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긴급 돌봄 이용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많이 이용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표 Ⅴ-1-24〉 긴급 돌봄 이용에 따른 적응행동 상 집단과 하 집단의 차이: 만 5세반 유아

단위: %(명)

구분	적응행동 상 집단	적응행동 하 집단	전체
이용하지 않음	30.0(9)	28.6(2)	29.7(11)
가끔 이용함	30.0(9)	14.3(1)	27.0(10)
많이 이용함	40.0(12)	57.1(4)	43.2(16)
계	100.0(30)	100.0(7)	100.0(37)
χ^2=.908(df=2)			

상기한 결과를 종합하면, 만 2세반 영아는 적응행동 조합점수에서 부모의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만 5세반 유아는 인지발달 점수에서 모의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비인지적 요인인 적응행동은 만 2세반과 만 5세반 시기 모두 차이가 없었고, 인지발달 점수에서는 만 5세반 시기 유아 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이 어느 시기까지 지속되는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가속화되었는지 밝히는 장기 추적이 요구되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다. 1, 2차년도 연구결과의 종단 비교

1) 아동발달 및 적응에 대한 인식 비교

가)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비교

1차년도 참여자인 만 2세반 영아의 2차년도(만 3세반 유아)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부모의 1차년도 점수 분포는 3.29~3.72점이었고, 2차년도는 3.49~3.99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교사 또한 1차년도 3.05점~3.39점의 점수 분포를 보였고, 2차년도는 3.32~3.70점으로 전반적인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에는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대한 인식이 교사보다 부모가 높았으나 2차년도에는 언어, 정서발달에서만 부모와 교사의 인식 차가 있었고, 1, 2차년도 모두 교사보다 부모의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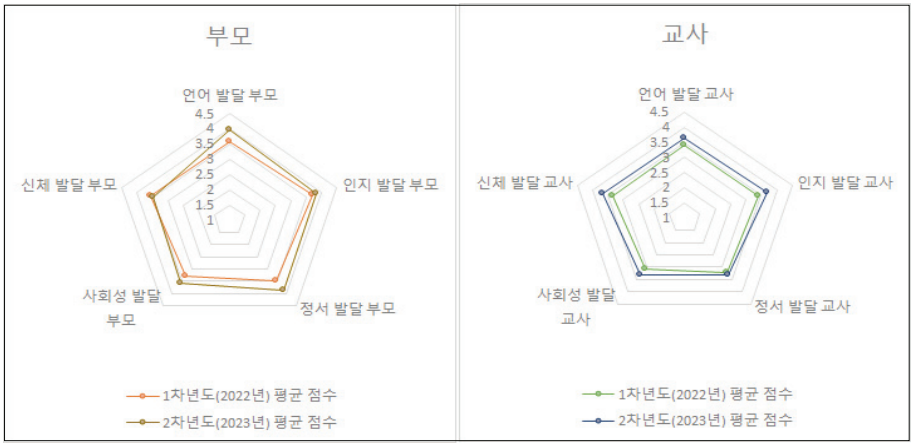
〈표 V-1-25〉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1, 2차년도(만 2세반, 만 3세반 시기) 비교

단위: %(명), 점

구분		1차년도(2022년)			2차년도(2023년)			
		M	계(명)	*t*	M	계(명)		*t*
언어발달	부모	3.60	100.0 (100)	1.403	**3.99**	**0.94**	**(88)**	**2.256***
	교사	3.39	100.0 (100)		**3.65**	**1.00**	**(84)**	
인지 발달	**부모**	**3.72**	**100.0 (100)**	**2.880****	3.84	0.91	(88)	1.010
	교사	**3.39**	**100.0 (100)**		3.70	0.89	(84)	
정서발달	**부모**	**3.48**	**100.0 (100)**	**2.437***	**3.86**	**0.82**	**(88)**	**4.219*****
	교사	**3.21**	**100.0 (100)**		**3.32**	**0.87**	**(84)**	
사회성 발달	**부모**	**3.29**	**100.0 (100)**	**1.995***	3.56	0.98	(88)	1.534
	교사	**3.05**	**100.0 (100)**		3.32	1.03	(84)	
신체발달	부모	3.56	100.0 (100)	1.645	3.49	0.96	(88)	-1.290
	교사	3.35	100.0 (100)		3.68	0.97	(84)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Ⅴ-1-7]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1, 2차년도(만 2세반, 만 3세반 시기) 비교



한편 1차년도 참여자인 만 5세반 유아의 2차년도(초등 1학년 아동)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면, 부모의 1차년도 점수 분포는 3.33~3.65점이었고, 2차년도는 3.36~4.11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교사 또한 1차년도 3.25~3.73점의 점수 분포를 보였고, 2차년도는 3.89~4.06점으로 전반적인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에는 정서발달에서만 교사보다 부모가 높게 인식한 반면, 2차년도에는 신체발달에서 부모보다 교사가 더 높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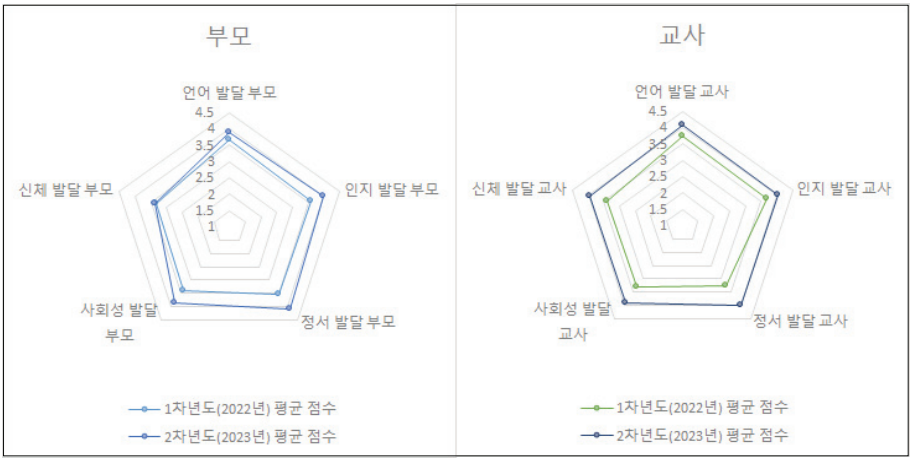
〈표 Ⅴ-1-26〉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1, 2차년도(만 5세반, 초등 1학년 시기) 비교

단위: %(명), 점

구분		1차년도(2022년)			2차년도(2023년)		
		M(점)	계(명)	*t*	M(점)	계(명)	*t*
언어발달	부모	3.65	100.0 (100)	-0.577	3.89	1.01 (55)	-0.570
	교사	3.73	100.0 (100)		4.06	1.21 (18)	
인지 발달	부모	3.60	100.0 (100)	-0.561	4.00	1.00 (55)	-0.391
	교사	3.67	100.0 (100)		4.06	1.21 (18)	
정서발달	**부모**	**3.55**	**100.0 (100)**	**2.731****	4.11	1.18 (55)	-0.537
	교사	**3.25**	**100.0 (100)**		4.00	1.03 (18)	
사회성 발달	부모	3.40	100.0 (100)	0.696	3.84	0.83 (55)	-0.223
	교사	3.31	100.0 (100)		3.89	0.96 (18)	
신체발달	부모	3.33	100.0 (100)	-0.463	**3.36**	**0.95 (55)**	**-2.159***
	교사	3.39	100.0 (100)		**3.94**	**1.11 (18)**	

* $p < .05$, ** $p < .01$.

[그림 V-1-8]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1, 2차년도(만 5세반, 초등 1학년 시기) 비교



나) 기관 적응 비교

1차년도 발달 검사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의 평소 행동을 토대로 기관 적응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해 교사 응답을 바탕으로 기관 적응을 4개 하위요인(사회정서적응, 또래적응, 자아적응, 일과적응)으로 파악하였다. 만 2세반 영아의 적응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는 5점 척도 기준 3.45~3.70점의 분포를 보였다. 한편 2차년도(만 3세반 유아)의 기관 적응 점수는 3.60~3.94점의 분포를 보여 1차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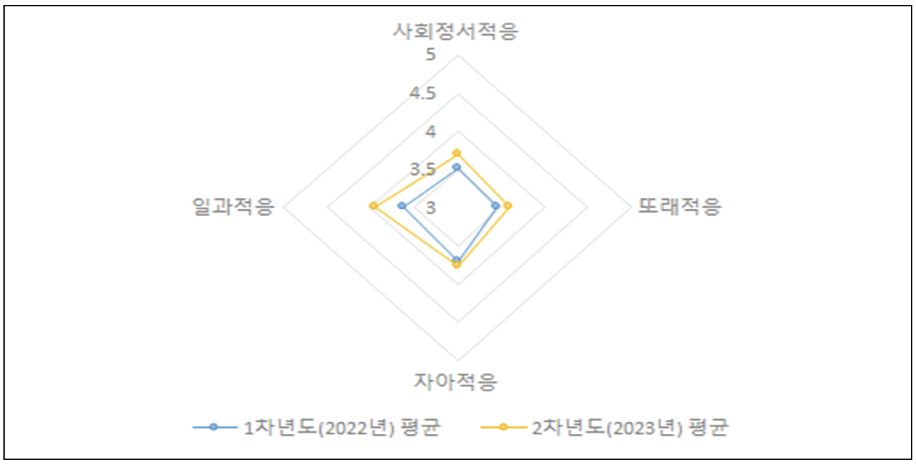
〈표 V-1-27〉 기관 적응: 1, 2차년도(만 2세와 만 3세 시기) 비교

단위: 점(명)

구분	1차년도(2022년)			2차년도(2023년)			*t*
	M	SD	(명)	M	SD	(명)	
사회정서적응	3.51	0.66	(68)	3.70	0.78	(68)	−1.549
또래적응	3.45	0.78	(68)	3.60	0.79	(68)	−1.159
자아적응	3.70	0.60	(68)	3.77	0.73	(68)	−0.645
일과적응	3.63	0.74	(68)	3.94	0.81	(68)	**−2.336***

* $p < .05$,

[그림 Ⅴ-1-9] 기관 적응: 1, 2차년도(만 2세반, 만 3세반 시기) 비교



2) 인지발달 및 적응행동 발달 종단비교

가) 종단 추적률

1차년도 만 2세반 영아의 2차년도(만 3세반 유아) 추적률을 살펴보면, 유아의 수행검사인 인지발달은 77.0%였으며, 부모가 자녀에 대해 평정하는 적응행동의 추적률은 83.0%로 나타났다. 한편 1차년도 만 5세반 유아의 2차년도(초등 1학년 아동) 추적률은 인지발달이 40.0%, 적응행동이 57.0%로 나타나 초등 1학년 아동의 추적률이 낮았다. 이는 Ⅳ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초등학교 입학후 사교육의 빈도와 시간의 증가로 검사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률이 낮은 것에 기인한다.

〈표 Ⅴ-1-28〉 추적 연구대상

구분	연령[1)]	1차년도(2022년)				2차년도(2023년)				추적률 (%)
		남	여	전체	월령 M(SD)	남	여	전체	월령 M(SD)	
인지 발달	만 2세반	55 (27.5)	45 (22.5)	100 (50.0)	38.6 (3.6)	43 (36.8)	34 (29.1)	77 (65.8)	48.9 (3.4)	77.0
	만 5세반	54 (27.0)	46 (23.0)	100 (50.0)	75.2 (3.2)	22 (18,8)	18 (15.4)	40 (34.2)	86.2 (3.2)	40.0
	전체	109 (54.5)	91 (45.5)	200 (100.0)	-	65 (55.6)	52 (44.4)	117 (100.0)	-	58.5
적응 행동	만 2세반	55 (27.5)	45 (22.5)	100 (50.0)	38.6 (3.6)	48 (34.3)	35 (25.0)	83 (59.3)	48.9 (3.4)	83.0

구분	연령[1]	1차년도(2022년)				2차년도(2023년)				추적률 (%)
		남	여	전체	월령 M(SD)	남	여	전체	월령 M(SD)	
	만 5세반	54 (27.0)	46 (23.0)	100 (50.0)	75.2 (3.2)	33 (23.6)	24 (17.1)	57 (40.7)	86.2 (3.1)	57.0
	전체	109 (54.5)	91 (45.5)	200 (100.0)	-	81 (57.9)	59 (42.1)	140 (100.0)	-	70.0

주: 1차년도(2022년) 기준 연령

나)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과 적응행동 종단비교

(1) 전체 평균 종단비교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검사(K-WPPSI-IV) 결과,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전체 IQ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검사 중 그림명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차년도 평균은 12.19(SD = 2.81)이고, 2차년도 평균은 13.47(SD = 3.12)로, 1차년도 보다 2차년도에 그림명명 소검사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모든 소검사와 지표점수에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V-1-29〉 만 3세반 유아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인지발달 차이

N = 77, *M(SD)*

소검사/지표	환산점수[1] / 지표점수[1]		*t*
	1차년도(2022년)	2차년도(2023년)	
토막짜기	11.70(2.67)	12.01(2.38)	-.861
상식	11.43(2.54)	11.35(3.09)	.241
그림기억	11.44(2.89)	10.84(2.55)	1.729
위치찾기	10.42(2.84)	10.79(2.36)	-1.011
모양맞추기	11.01(3.01)	11.31(2.56)	-.753
수용어휘[2]	11.94(3.56)	11.88(3.21)	.109
그림명명[2]	**12.19(2.81)**	**13.47(3.12)**	**-2.730***
언어이해지표	112.84(15.75)	110.25(16.86)	1.446
시공간지표	107.21(13.97)	109.00(11.81)	-1.011
작업기억지표	106.75(15.42)	105.88(13.02)	.455
전체IQ	112.18(14.66)	110.29(13.91)	1.229
어휘습득 지표[2]	113.25(14.80)	117.03(15.79)	-1.903
비언어지표	108.32(14.43)	108.81(12.69)	-.295
일반능력지표	111.99(14.71)	111.84(14.47)	.086

주: 1)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되며, 지표점수 및 전체IQ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2) 소검사의 수용어휘, 그림명명과 추가지표의 어휘습득 지표는 2:11~3:11세만 해당되어 표본수가 32명임.
* $p < .05$.

만 3세반 유아의 바인랜드 적응행동(K-Vineland-2) 검사 결과,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점수 차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3세반 유아의 1차년도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106.77(SD = 17.74), 2차년도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112.13(SD = 14.52)로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30〉 만 3세반 유아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적응행동 차이

N = 83, *M(SD)*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1]		*t*
		1차년도(2022년)	2차년도(2023년)	
하위	수용	16.06(2.85)	16.46(2.47)	-1.384
	표현	16.36(2.78)	16.46(2.32)	-0.368
	개인	**16.25(3.59)**	**17.46(3.17)**	**-2.934****
	가정	17.37(3.43)	17.96(2.79)	-1.843
	대인관계	**16.31(4.02)**	**17.46(3.02)**	**-2.422***
	놀이 및 여가	**15.52(2.99)**	**16.59(2.94)**	**-3.164****
	대처기술	**16.10(2.90)**	**17.70(2.89)**	**-4.498*****
	대근육	15.52(2.11)	14.92(2.45)	1.83
	소근육	**15.29(3.65)**	**16.70(3.05)**	**-3.711*****
주	의사소통 영역	107.18(14.79)	109.13(12.98)	-1.475
	생활기술 영역	**112.17(20.21)**	**117.29(16.62)**	**-2.666****
	사회성 영역	**105.63(18.06)**	**113.40(15.76)**	**-3.729*****
	운동기술 영역	102.93(16.87)	105.86(15.10)	-1.449
적응행동 조합점수		**106.77(17.74)**	**112.13(14.52)**	**-3.036****

주: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되며, 주영역 및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 $p < .05$, ** $p < .01$, *** $p < .001$.

주영역에서는 생활기술 영역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년도 평균이 112.17(SD = 20.21), 2차년도 평균이 117.29(SD = 16.62)로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성 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1차년도 평균이 105.63(SD = 18.06), 2차년도 평균이 113.40(SD = 15.76)으로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만 3세반 유아의 적응행동은 전반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영역과 운동기술 영역을 제외한 주영역 표준점수와 적응행동 조합점수가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 성별에 따른 종단비교

만 3세반 유아의 전체 IQ는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와 성별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본지표와 추가지표, 소검사 점수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Ⅴ-1-31〉 만 3세반 유아의 성별과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M(SD)

소검사/지표		차수		*F*		
		1차	2차	차수	성별	차수*성별
토막짜기	남(n=43)	11.30(2.47)	12.16(2.19)	.442	.386	2.984
	여(n=34)	12.21(2.86)	11.82(2.62)			
	전체(n=77)	11.70(2.67)	12.01(2.38)			
상식	남(n=43)	11.26(2.70)	11.37(3.20)	.101	.092	.453
	여(n=34)	11.65(2.35)	11.32(3.00)			
	전체(n=77)	11.43(2.54)	11.35(3.09)			
그림기억	남(n=43)	11.26(2.77)	10.62(2.19)	2.871	.764	.010
	여(n=34)	11.68(3.06)	11.12(2.95)			
	전체(n=77)	11.44(2.89)	10.84(2.55)			
위치찾기	남(n=43)	9.91(2.94)	10.56(2.20)	.820	3.332	.684
	여(n=34)	11.06(2.60)	11.09(2.56)			
	전체(n=77)	10.42(2.84)	10.79(2.36)			
모양 맞추기	남(n=43)	10.81(3.12)	11.00(2.45)	.610	1.336	.101
	여(n=34)	11.26(2.90)	11.71(2.67)			
	전체(n=77)	11.01(3.01)	11.31(2.56)			
언어이해 지표	남(n=43)	110.86(15.78)	109.72(16.90)	2.373	.749	.831
	여(n=34)	115.35(15.59)	110.91(17.05)			
	전체(n=77)	112.84(15.75)	110.25(16.86)			
시공간 지표	남(n=43)	105.42(14.02)	108.54(11.56)	.817	1.162	.703
	여(n=34)	109.47(13.76)	109.59(12.25)			
	전체(n=77)	107.21(13.97)	109.00(11.81)			
작업기억 지표	남(n=43)	104.6(16.20)	104.51(11.71)	.251	2.273	.194
	여(n=34)	109.44(14.17)	107.62(14.51)			
	전체(n=77)	106.75(15.42)	105.88(13.02)			
전체 IQ	남(n=43)	110.07(14.00)	109.302(12.56)	1.727	1.482	.674
	여(n=34)	114.85(15.26)	111.53(15.54)			
	전체(n=77)	112.18(14.66)	110.29(13.91)			
비언어 지표	남(n=43)	106.14(15.16)	108.09(10.81)	.030	1.541	1.036
	여(n=34)	111.09(13.15)	109.71(14.86)			
	전체(n=77)	108.32(14.43)	108.81(12.69)			
일반능력 지표	남(n=43)	109.79(14.22)	111.49(13.81)	.053	.996	1.550
	여(n=34)	114.76(15.05)	112.29(15.47)			
	전체(n=77)	111.99(14.71)	111.84(14.47)			

한편 만 3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F = 7.830**)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Ⅴ-1-32〉 만 3세반 유아의 성별과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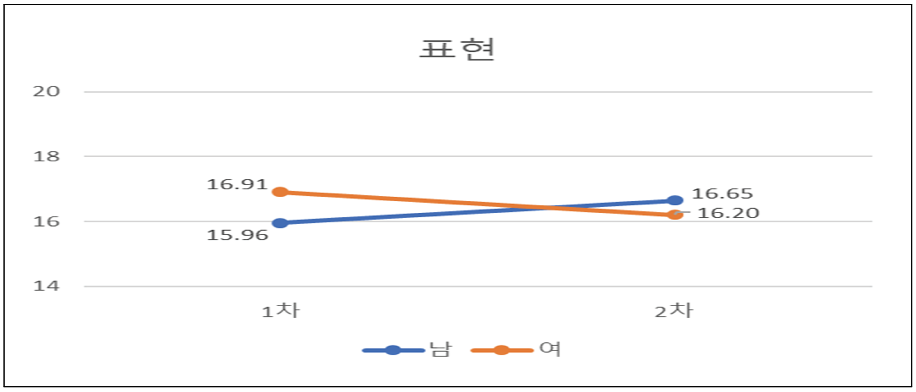
M(SD)

영역		차수		*F*		
		1차	2차	차수	성별	차수*성별
수용	남(n=48)	15.88(3.15)	16.35(2.22)	1.709	.438	.109
	여(n=35)	16.31(2.39)	16.60(2.80)			
	전체(n=83)	16.06(2.85)	16.46(2.47)			
표현	**남(n=48)**	**15.96(3.12)**	**16.65(2.39)**	**.003**	**.255**	**7.537****
	여(n=35)	**16.91(2.15)**	**16.20(2.22)**			
	전체(n=83)	**16.36(2.78)**	**16.46(2.32)**			
개인	남(n=48)	16.13(3.84)	17.63(3.25)	7.624**	.005	.706
	여(n=35)	16.43(3.27)	17.23(3.08)			
	전체(n=83)	16.25(3.59)	17.46(3.17)			
가정	남(n=48)	17.60(3.68)	18.17(2.70)	3.332	.696	.010
	여(n=35)	17.06(3.09)	17.69(2.93)			
	전체(n=83)	17.37(3.43)	17.96(2.79)			
대인관계	남(n=48)	15.48(4.12)	17.33(2.78)	4.598	3.357	3.173
	여(n=35)	17.46(3.64)	17.63(3.35)			
	전체(n=83)	16.31(4.02)	17.46(3.02)			
놀이 및 여가	남(n=48)	15.21(2.92)	16.42(2.83)	9.223**	1.037	.219
	여(n=35)	15.94(3.09)	16.83(3.11)			
	전체(n=83)	15.52(2.99)	16.59(2.94)			
대처기술	남(n=48)	15.65(3.21)	17.38(2.74)	18.964***	3.036	.172
	여(n=35)	16.71(2.33)	18.14(3.07)			
	전체(n=83)	16.10(2.90)	17.70(2.89)			
대근육	남(n=48)	15.42(2.35)	14.81(2.53)	3.222	.397	.000
	여(n=35)	15.66(1.75)	15.06(2.36)			
	전체(n=83)	15.52(2.11)	14.92(2.45)			
소근육	남(n=48)	14.60(3.57)	16.46(3.02)	12.036**	2.994	1.899
	여(n=35)	16.23(3.61)	17.03(3.10)			
	전체(n=83)	15.29(3.65)	16.70(3.05)			
의사소통 영역	남(n=48)	105.42(17.24)	109.38(12.22)	1.427	.416	3.239
	여(n=35)	109.60(10.29)	108.80(14.12)			
	전체(n=83)	107.18(14.79)	109.13(12.98)			
생활기술 영역	남(n=48)	112.50(21.62)	118.46(16.40)	6.459*	.239	.259
	여(n=35)	111.71(18.41)	115.69(17.01)			
	전체(n=83)	112.17(20.21)	117.29(16.62)			
사회성 영역	남(n=48)	102.52(18.95)	112.17(14.51)	12.394**	2.771	1.112
	여(n=35)	109.89(16.06)	115.09(17.41)			
	전체(n=83)	105.63(18.06)	113.40(15.76)			

영역		차수		F		
		1차	2차	차수	성별	차수*성별
적응행동 조합점수	남(n=48)	104.50(19.19)	111.94(13.13)	7.830**	.872	1.916
	여(n=35)	109.89(15.26)	112.40(16.43)			
	전체(n=83)	106.77(17.74)	112.13(14.52)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V-1-10] 표현에서 성별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수용 하위영역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표현 하위영역에서는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F = 7.537^{***}$)가 유의하였으며 (그림 V-1-10 참조). 차수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만 3세반 남아의 표현 하위영역 점수는 차수에 따라 유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 또한 유의한 점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기술 영역의 경우,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F = 6.459^{*}$)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 하위영역의 경우에는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F = 7.624^{**}$)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가정 하위영역은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성 영역에서도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F = 12.394^{**}$)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놀이 및 여가($F = 9.223^{**}$), 대처기술($F = 18.964^{***}$) 하위영역의 경우에는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대인관계 하위영역은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대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나 소근육 하위영역은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유의하였다 (F = 12.036**).

(3) 맞벌이 여부에 따른 종단비교

만 3세반 유아의 전체 IQ는 차수와 맞벌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본지표와 추가지표, 소검사 점수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Ⅴ-1-33〉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M(SD)

소검사/지표		차수		*F*		
		1차	2차	차수	맞벌이	차수*맞벌이
토막짜기	맞벌이(n=52)	11.87(2.50)	12.06(2.44)	.399	.881	.034
	외벌이(n=20)	11.30(3.23)	11.65(2.23)			
	전체(n=72)	11.71(2.71)	11.94(2.38)			
상식	맞벌이(n=52)	11.58(2.33)	11.44(2.96)	.046	.167	.318
	외벌이(n=20)	11.10(3.06)	11.40(3.36)			
	전체(n=72)	11.44(2.54)	11.43(3.05)			
그림기억	맞벌이(n=52)	11.79(2.77)	10.96(2.18)	1.160	1.184	.910
	외벌이(n=20)	10.75(3.19)	10.70(3.47)			
	전체(n=72)	11.50(2.91)	10.89(2.58)			
위치찾기	맞벌이(n=52)	10.35(2.73)	10.52(2.64)	1.120	.892	.438
	외벌이(n=20)	10.55(2.86)	11.30(1.53)			
	전체(n=72)	10.40(2.75)	10.74(2.40)			
모양 맞추기	맞벌이(n=52)	11.46(2.91)	11.44(2.59)	.008	2.998	.018
	외벌이(n=20)	10.40(3.25)	10.50(2.44)			
	전체(n=72)	11.17(3.03)	11.18(2.56)			
언어이해 지표	맞벌이(n=52)	113.62(15.10)	111.56(16.08)	1.530	.778	.072
	외벌이(n=20)	110.90(17.78)	107.70(18.32)			
	전체(n=72)	112.86(15.81)	110.49(16.69)			
시공간 지표	맞벌이(n=52)	109.02(13.15)	109.54(12.11)	.177	2.701	.028
	외벌이(n=20)	104.25(16.11)	105.45(9.99)			
	전체(n=72)	107.69(14.08)	108.40(11.64)			
작업기억 지표	맞벌이(n=52)	107.63(15.21)	105.48(13.15)	.008	.051	.747
	외벌이(n=20)	105.00(15.79)	106.75(13.47)			
	전체(n=72)	106.90(15.31)	105.83(13.15)			
전체 IQ	맞벌이(n=52)	113.92(13.40)	111.29(13.24)	1.318	1.987	.089
	외벌이(n=20)	108.80(17.25)	107.25(15.07)			
	전체(n=72)	112.50(14.63)	110.17(13.79)			

소검사/지표		차수		F		
		1차	2차	차수	맞벌이	차수*맞벌이
비언어 지표	맞벌이(n=52)	109.85(13.54)	109.35(12.84)	.000	1.567	.063
	외벌이(n=20)	105.60(16.25)	106.05(12.25)			
	전체(n=72)	108.67(14.35)	108.43(12.68)			
일반능력 지표	맞벌이(n=52)	113.58(13.77)	112.75(13.84)	.056	1.745	.034
	외벌이(n=20)	108.90(16.82)	108.80(15.52)			
	전체(n=72)	112.28(14.71)	111.65(14.32)			

만 3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차수와 맞벌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F = 10.305**)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V-1-34〉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M(SD)

영역		차수		F		
		1차	2차	차수	맞벌이	차수*맞벌이
수용	맞벌이(n=56)	15.96(2.78)	16.34(2.33)	1.706	.059	.035
	외벌이(n=22)	16.05(3.12)	16.55(2.91)			
	전체(n=78)	15.99(2.86)	16.40(2.49)			
표현	맞벌이(n=56)	16.45(2.91)	16.45(2.33)	1.462	.882	1.462
	외벌이(n=22)	15.55(2.34)	16.27(2.43)			
	전체(n=78)	16.19(2.78)	16.40(2.34)			
개인	맞벌이(n=56)	16.21(3.84)	17.05(3.22)	9.262**	1.128	1.619
	외벌이(n=22)	16.36(2.84)	18.41(3.07)			
	전체(n=78)	16.26(3.57)	17.44(3.21)			
가정	맞벌이(n=56)	17.34(3.55)	17.86(2.82)	5.860*	.215	.968
	외벌이(n=22)	17.32(3.46)	18.55(2.86)			
	전체(n=78)	17.33(3.50)	18.05(2.83)			
대인관계	맞벌이(n=56)	16.30(4.34)	17.36(2.90)	6.179*	.019	.326
	외벌이(n=22)	16.09(3.52)	17.77(3.38)			
	전체(n=78)	16.24(4.10)	17.4(3.03)			
놀이 및 여가	맞벌이(n=56)	15.70(3.03)	16.77(3.06)	9.430**	.601	.136
	외벌이(n=22)	15.05(3.11)	16.41(2.87)			
	전체(n=78)	15.51(3.04)	16.67(3.00)			
대처기술	맞벌이(n=56)	16.29(3.06)	17.86(2.77)	16.207***	.431	.086
	외벌이(n=22)	15.77(2.49)	17.59(3.13)			
	전체(n=78)	16.14(2.90)	17.78(2.86)			
대근육	맞벌이(n=56)	15.34(2.22)	14.73(2.43)	1.182	1.700	.245
	외벌이(n=22)	15.73(1.91)	15.50(2.70)			
	전체(n=78)	15.45(2.13)	14.95(2.52)			
소근육	맞벌이(n=56)	15.38(3.91)	16.71(2.87)	12.447**	.015	.199
	외벌이(n=22)	15.09(3.22)	16.82(3.57)			
	전체(n=78)	15.29(3.71)	16.74(3.06)			

영역		차수		*F*		
		1차	2차	차수	맞벌이	차수*맞벌이
의사소통 영역	맞벌이(n=56)	107.07(15.07)	108.77(12.24)	2.994	.115	.408
	외벌이(n=22)	105.00(14.66)	108.68(15.28)			
	전체(n=78)	106.49(14.89)	108.74(13.06)			
생활기술 영역	맞벌이(n=56)	112.04(21.27)	115.66(16.70)	10.306**	.623	2.375
	외벌이(n=22)	112.00(18.36)	122.32(17.26)			
	전체(n=78)	112.03(20.37)	117.54(17.02)			
사회성 영역	맞벌이(n=56)	106.29(19.12)	113.88(15.49)	12.548**	.171	.191
	외벌이(n=22)	103.73(16.78)	113.45(17.39)			
	전체(n=78)	105.56(18.42)	113.76(15.94)			
적응행동 조합점수	맞벌이(n=56)	106.71(19.12)	111.61(13.98)	10.305**	.030	.693
	외벌이(n=22)	105.64(15.48)	113.95(17.06)			
	전체(n=78)	106.41(18.08)	112.27(14.84)			

* $p < .05$, ** $p < .01$, *** $p < .001$.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수용과 표현 하위영역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생활기술 영역의 경우, 차수와 맞벌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F = 10.306^{**}$)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F = 9.262^{**}$), 가정($F = 5.860^{*}$) 하위영역의 경우에도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성 영역의 경우, 차수와 맞벌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F = 12.548^{**}$)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인관계($F = 6.179^{*}$), 놀이 및 여가($F = 9.430^{**}$), 대처기술($F = 16.207^{***}$) 하위영역의 경우에도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소근육($F = 12.447^{**}$) 하위영역은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가구소득에 따른 종단비교

만 3세반 유아의 전체 IQ는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본지표와 추가지표, 소검사 점수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1-35〉 만 3세반 유아의 가구소득과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M(SD)

소검사/지표		차수		*F*		
		1차	2차	차수	소득	차수*소득
토막짜기	600미만(n=29)	11.79(2.78)	11.45(2.44)	.133	.527	1.574
	600이상(n=43)	11.65(2.69)	12.28(2.30)			
	전체(n=72)	11.71(2.71)	11.94(2.38)			
상식	600미만(n=29)	11.38(2.54)	10.97(3.21)	.051	.589	.913
	600이상(n=43)	11.49(2.57)	11.74(2.94)			
	전체(n=72)	11.44(2.54)	11.43(3.05)			
그림기억	600미만(n=29)	11.76(2.81)	10.90(3.00)	3.049	.165	.317
	600이상(n=43)	11.33(3.00)	10.88(2.28)			
	전체(n=72)	11.50(2.91)	10.89(2.58)			
위치찾기	600미만(n=29)	11.24(2.75)	10.66(2.69)	.223	1.799	3.921
	600이상(n=43)	9.84(2.63)	10.79(2.21)			
	전체(n=72)	10.40(2.75)	10.74(2.40)			
모양 맞추기	600미만(n=29)	11.03(3.32)	11.07(2.63)	.002	.143	.002
	600이상(n=43)	11.26(2.85)	11.26(2.55)			
	전체(n=72)	11.17(3.03)	11.18(2.56)			
언어이해 지표	600미만(n=29)	111.90(15.85)	106.45(17.70)	2.248	1.531	1.800
	600이상(n=43)	113.51(15.93)	113.21(15.61)			
	전체(n=72)	112.86(15.81)	110.49(16.69)			
시공간 지표	600미만(n=29)	107.59(15.30)	106.55(11.99)	.052	.430	.617
	600이상(n=43)	107.77(13.39)	109.65(11.36)			
	전체(n=72)	107.69(14.08)	108.40(11.64)			
작업기억 지표	600미만(n=29)	110.28(15.22)	105.59(14.37)	.660	.909	2.205
	600이상(n=43)	104.63(15.12)	106.00(12.44)			
	전체(n=72)	106.90(15.31)	105.83(13.15)			
전체 IQ	600미만(n=29)	112.38(15.10)	107.17(15.36)	2.917	.759	2.152
	600이상(n=43)	112.58(14.48)	112.19(12.40)			
	전체(n=72)	112.50(14.63)	110.17(13.79)			
비언어 지표	600미만(n=29)	110.55(14.36)	106.55(14.45)	.252	.000	3.474
	600이상(n=43)	107.40(14.38)	109.70(11.33)			
	전체(n=72)	108.67(14.35)	108.43(12.68)			
일반능력 지표	600미만(n=29)	111.66(15.47)	107.79(15.34)	.425	1.580	2.352
	600이상(n=43)	112.70(14.35)	114.26(13.14)			
	전체(n=72)	112.28(14.71)	111.65(14.32)			

한편 만 3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F = 6.023*)와 차수(F = 6.850*)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하였으며,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유아는 1차년도(M = 105.00, SD = 19.78)에 비해 2차년도(M = 114.33, SD = 13.55)에 적응행동 조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소

득이 600만 원 미만인 가정 유아의 경우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Ⅴ-1-11 참조).

〈표 Ⅴ-1-36〉 만 3세반 유아의 가구소득과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M(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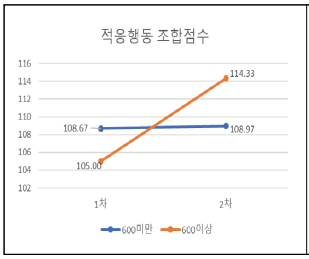
영역		차수		*F*		
		1차	2차	차수	소득	차수*소득
수용	600미만(n=30)	15.93(2.56)	15.83(2.73)	1.056	.855	1.833
	600이상(n=48)	16.02(3.06)	16.75(2.28)			
	전체(n=78)	15.99(2.86)	16.40(2.49)			
표현	600미만(n=30)	16.23(2.74)	15.80(2.40)	.097	.728	3.572
	600이상(n=48)	16.17(2.83)	16.77(2.25)			
	전체(n=78)	16.19(2.78)	16.40(2.34)			
개인	600미만(n=30)	16.87(3.20)	17.03(3.70)	5.227*	.065	3.615
	600이상(n=48)	15.88(3.76)	17.69(2.88)			
	전체(n=78)	16.26(3.57)	17.44(3.21)			
가정	600미만(n=30)	17.40(3.68)	18.10(2.96)	4.536*	.020	.002
	600이상(n=48)	17.29(3.43)	18.02(2.77)			
	전체(n=78)	17.33(3.50)	18.05(2.83)			
대인관계	600미만(n=30)	16.77(4.15)	16.87(3.04)	4.168*	.010	3.390
	600이상(n=48)	15.92(4.08)	17.85(2.99)			
	전체(n=78)	16.24(4.10)	17.47(3.03)			
놀이 및 여가	600미만(n=30)	15.57(2.73)	16.30(3.09)	8.676**	.177	.876
	600이상(n=48)	15.48(3.26)	16.90(2.95)			
	전체(n=78)	15.51(3.04)	16.67(3.00)			
대처기술	**600미만(n=30)**	**16.70(2.35)**	**17.37(2.82)**	**14.815*** **	**.045**	**4.366***
	600이상(n=48)	**15.79(3.17)**	**18.04(2.88)**			
	전체(n=78)	**16.14(2.90)**	**17.78(2.86)**			
대근육	**600미만(n=30)**	**15.80(1.81)**	**14.43(3.08)**	**3.661**	**.104**	**4.136***
	600이상(n=48)	**15.23(2.30)**	**15.27(2.06)**			
	전체(n=78)	**15.45(2.13)**	**14.95(2.52)**			
소근육	600미만(n=30)	15.67(3.39)	16.23(3.13)	10.608**	.027	3.308
	600이상(n=48)	15.06(3.92)	17.06(3.01)			
	전체(n=78)	15.29(3.71)	16.74(3.06)			
의사소통 영역	600미만(n=30)	106.47(13.70)	105.33(14.39)	1.328	.905	3.836
	600이상(n=48)	106.50(15.73)	110.88(11.82)			
	전체(n=78)	106.49(14.89)	108.74(13.06)			
생활기술 영역	600미만(n=30)	114.17(19.66)	116.47(19.13)	5.923*	.050	1.674
	600이상(n=48)	110.69(20.90)	118.21(15.73)			
	전체(n=78)	112.03(20.37)	117.54(17.02)			
사회성 영역	600미만(n=30)	108.00(16.50)	110.93(15.82)	10.633**	.009	3.738
	600이상(n=48)	104.04(19.53)	115.52(15.92)			
	전체(n=78)	105.56(18.42)	113.76(15.94)			
적응행동 조합점수	**600미만(n=30)**	**108.67(14.99)**	**108.97(16.38)**	**6.850***	**.064**	**6.023***
	600이상(n=48)	**105.00(19.78)**	**114.33(13.55)**			
	전체(n=78)	**106.41(18.08)**	**112.27(14.84)**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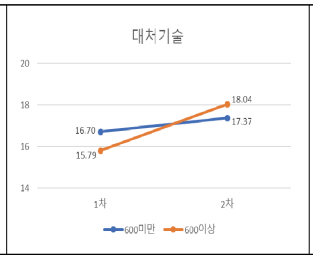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수용과 표현 하위영역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생활기술 영역의 경우,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F = 5.923*)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F = 5.227*), 가정(F = 4.536*) 하위영역에서도 차수에 따른 점수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성 영역의 경우,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F = 10.633**)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대처기술 하위영역에서는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F = 4.366*)와 차수(F = 14.815***)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하였으며,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정 유아는 1차년도(M = 15.79, SD = 3.17)에 비해 2차년도(M = 18.04, SD = 2.88)에 대처기술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0만 원 미만 가정 유아는 차수에 따른 유의한 점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V-1-12 참조). 대인관계(F = 4.168*), 놀이 및 여가(F = 8.676**) 하위영역에서는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F = 4.136*)가 유의하였으며(그림 V-1-13 참조), 차수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600만 원 미만 가정의 유아는 차수에 따라 대근육 하위영역 점수에 유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유아 또한 차수에 따라 유의한 점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근육(F = 10.608**) 하위영역의 경우에는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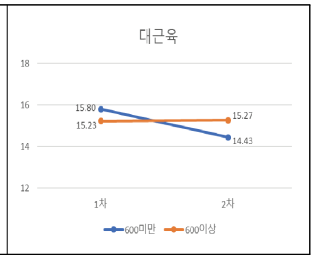
[그림 Ⅴ-1-11] 적응행동 조합점수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Ⅴ-1-12] 대처기술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Ⅴ-1-13] 대근육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다)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과 적응행동 종단비교

(1) 전체 평균 종단비교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 검사(K-WPPSI-IV) 결과,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전체 IQ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지표 중 언어이해지표에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유의한 점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차년도 평균은 110.65(SD = 14.21), 2차년도 평균은 105.63(SD = 15.09)으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하게 낮아졌다. 종합하면,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은 전반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차이는 없으나, 언어이해지표가 2차년도에 유의하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Ⅴ-1-37〉 초등 1학년 아동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인지발달 차이

N = 40, *M(SD)*

소검사/지표	환산점수[1] / 지표점수[1]		*t*
	1차년도(2022년)	2차년도(2023년)	
토막짜기	12.25(3.90)	12.45(3.82)	-.282
상식	**11.95(2.93)**	**10.75(3.43)**	**2.463***
행렬추리	11.48(4.31)	11.50(3.16)	-.037
동형찾기	11.75(3.12)	12.78(4.02)	-1.784
그림기억	10.90(3.38)	11.33(3.32)	-.846
공통성	11.48(2.42)	10.95(2.40)	1.650
공통그림찾기	11.98(2.77)	11.43(2.09)	1.327
선택하기	10.73(2.90)	10.13(2.95)	1.185
위치찾기	**12.28(2.68)**	**11.15(3.08)**	**2.278***
모양맞추기	**11.93(2.87)**	**10.15(2.68)**	**3.323****
선택하기(비정렬)	10.85(3.09)	9.98(2.87)	1.636
선택하기(정렬)	10.03(3.00)	9.95(2.75)	.149

소검사/지표	환산점수[1] / 지표점수[1]		*t*
	1차년도(2022년)	2차년도(2023년)	
언어이해지표	**110.65(14.21)**	**105.63(15.09)**	**2.736****
시공간지표	111.58(16.77)	106.90(15.67)	1.735
유동추론지표	111.45(19.22)	109.80(12.24)	.634
작업기억지표	110.73(15.07)	108.53(16.55)	.949
처리속도 지표	107.45(15.53)	108.73(16.77)	-.527
전체IQ	111.25(17.05)	111.20(14.33)	.026
비언어지표	110.98(17.72)	112.70(14.56)	-.781
일반능력지표	111.73(17.89)	109.08(15.16)	1.182
인지효율성 지표	109.45(15.89)	108.90(16.84)	.218

주: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되며, 지표점수 및 전체IQ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 $p < .05$, ** $p < .01$.

한편 초등 1학년 아동의 바인랜드 적응행동(K-Vineland-2) 검사 결과,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유의한 점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1학년 아동의 1차년도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108.51(SD = 13.88), 2차년도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115.89(SD = 16.40)로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졌다.

〈표 V-1-38〉 초등 1학년 아동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적응행동 차이

N = 57 *M(SD)*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1]		*t*
		1차년도(2022년)	2차년도(2023년)	
하위	수용	16.47(2.49)	16.30(2.46)	.550
	표현	17.00(2.65)	17.33(2.77)	-.912
	개인	**16.70(3.16)**	**17.54(2.39)**	**-2.605****
	가정	**16.37(2.96)**	**17.51(3.51)**	**-3.714*****
	대인관계	**17.67(2.60)**	**18.32(2.37)**	**-2.157***
	놀이 및 여가	**16.09(3.25)**	**17.32(3.29)**	**-3.115****
	대처기술	**16.72(2.81)**	**17.68(2.99)**	**-2.768****
	대근육	**14.67(2.07)**	**15.14(1.14)**	**-2.169***
	소근육	**15.75(1.90)**	**16.61(1.71)**	**-3.283****
주	의사소통 영역	110.82(12.86)	112.33(16.18)	-.886
	생활기술 영역	**109.72(17.46)**	**116.28(17.33)**	**-4.086*****
	사회성 영역	**110.86(15.74)**	**115.93(15.20)**	**-3.144****
	운동기술 영역[2]	101.00(16.19)	104.94(9.50)	-1.256
적응행동 조합점수		**108.51(13.88)**	**115.89(16.40)**	**-5.102*****

주: 1)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되며, 적응행동의 주영역 및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2) 주영역의 운동기술 영역은 7:00세 이상은 산출되지 않아 표본수가 16임.
* $p < .05$, ** $p < .01$, *** $p < .001$.

주영역에서는 생활기술 영역이 유의한 점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차년도 평균이 109.72(SD = 17.46), 2차년도 평균이 116.28 (SD = 17.33)로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졌다. 사회성 영역에서도 유의한 점수차가 나타났는데, 1차년도 평균이 110.86(SD = 15.74), 2차년도 평균이 115.93(SD = 15.20)으로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졌다. 종합하면,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은 전반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유의한 점수 차가 나타났으며, 의사소통 영역과 운동기술 영역을 제외한 주영역 표준점수와 적응행동 조합점수가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성별에 따른 종단비교

초등 1학년 아동의 전체 IQ는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와 성별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Ⅴ-1-39〉 초등 1학년 아동의 성별과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M(SD)

소검사/지표		차수		*F*		
		1차	2차	차수	성별	차수*성별
토막짜기	남(n=22)	12.41(3.54)	12.0(3.42)	.135	.073	.766
	여(n=18)	12.06(4.40)	12.94(4.32)			
	전체(n=40)	12.25(3.90)	12.45(3.82)			
상식	**남(n=22)**	**12.50(3.17)**	**10.36(3.77)**	**5.518***	**.041**	**4.973***
	여(n=18)	**11.28(2.54)**	**11.22(3.00)**			
	전체(n=40)	**11.95(2.93)**	**10.75(3.43)**			
그림기억	남(n=22)	10.64(3.00)	11.64(3.44)	.520	.003	1.627
	여(n=18)	11.22(3.86)	10.94(3.21)			
	전체(n=40)	10.90(3.38)	11.33(3.32)			
위치찾기	남(n=22)	12.23(2.47)	11.41(2.65)	5.380*	.091	.465
	여(n=18)	12.33(2.99)	10.83(3.59)			
	전체(n=40)	12.28(2.68)	11.15(3.08)			
모양 맞추기	남(n=22)	12.50(2.72)	10.73(2.51)	10.658**	3.555	.000
	여(n=18)	11.22(2.96)	9.44(2.79)			
	전체(n=40)	11.93(2.87)	10.15(2.68)			
언어이해 지표	남(n=22)	111.59(15.32)	105.23(15.61)	6.914*	.019	.643
	여(n=18)	109.50(13.08)	106.11(14.86)			
	전체(n=40)	110.65(14.21)	105.63(15.09)			
시공간 지표	남(n=22)	113.73(14.64)	107.41(13.33)	2.711	.447	.448
	여(n=18)	108.94(19.17)	106.28(18.53)			
	전체(n=40)	111.58(16.77)	106.90(15.67)			
작업기억	남(n=22)	109.77(13.36)	110.14(15.21)	1.153	.026	1.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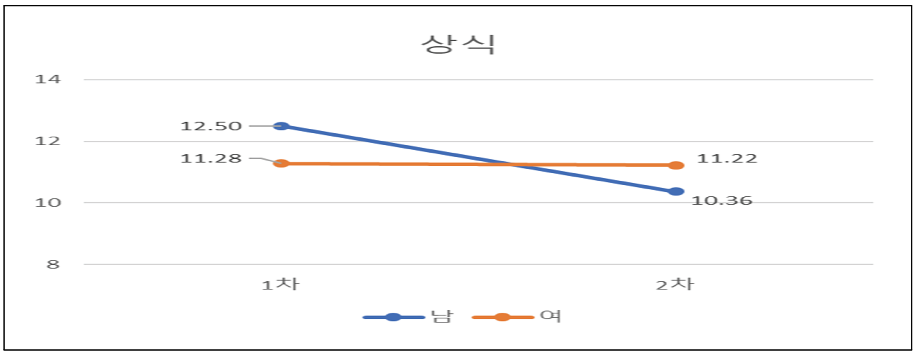
소검사/지표		차수		*F*		
		1차	2차	차수	성별	차수*성별
지표	여(n=18)	111.89(17.25)	106.56(18.31)			
	전체(n=40)	110.73(15.07)	108.53(16.55)			
전체 IQ	남(n=22)	112.23(15.88)	111.50(14.54)	.000	.092	.147
	여(n=18)	110.06(18.79)	110.83(14.47)			
	전체(n=40)	111.25(17.05)	111.20(14.33)			
비언어 지표	남(n=22)	111.50(16.68)	113.23(14.88)	.587	.062	.000
	여(n=18)	110.33(19.38)	112.06(14.57)			
	전체(n=40)	110.98(17.72)	112.70(14.56)			
일반능력 지표	남(n=22)	113.50(16.61)	108.91(15.15)	1.165	.138	.914
	여(n=18)	109.56(19.61)	109.28(15.60)			
	전체(n=40)	111.73(17.89)	109.08(15.16)			

* $p < .05$, ** $p < .01$.

언어이해지표의 경우,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차수($F = 6.914^{*}$)에 따른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상식 소검사의 경우에는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F = 4.973^{*}$)와 차수($F = 5.518^{*}$)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남아의 경우 1차년도($M = 12.50$, $SD = 3.17$)에 비해 2차년도($M = 10.36$, $SD = 3.77$)에 상식 소검사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의 경우 차수에 따른 유의한 점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1-14 참조). 시공간지표의 경우,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토막짜기 소검사의 경우에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모양맞추기 소검사에서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차수($F = 10.658^{**}$)에 따른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작업기억지표의 경우에도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그림기억 소검사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위치찾기 소검사의 경우,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차수($F = 5.380^{*}$)에 따른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림 Ⅴ-1-14] 상식에서 성별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한편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F = 26.005***)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Ⅴ-1-40〉 초등 1학년 아동의 성별과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M(SD)

영역		차수		*F*		
		1차	2차	차수	성별	차수*성별
수용	남(n=33)	16.42(2.21)	16.42(2.60)	.412	.024	.412
	여(n=24)	16.54(2.89)	16.13(2.29)			
	전체(n=57)	16.47(2.49)	16.30(2.46)			
표현	남(n=33)	17.30(2.78)	17.21(3.08)	1.263	.117	1.881
	여(n=24)	16.58(2.45)	17.50(2.34)			
	전체(n=57)	17.00(2.65)	17.33(2.77)			
개인	남(n=33)	16.21(3.55)	17.30(2.74)	5.884*	1.661	.812
	여(n=24)	17.38(2.45)	17.88(1.80)			
	전체(n=57)	16.70(3.16)	17.54(2.39)			
가정	남(n=33)	16.30(2.89)	17.48(3.70)	13.038**	.017	.025
	여(n=24)	16.46(3.11)	17.54(3.30)			
	전체(n=57)	16.37(2.96)	17.51(3.51)			
대인관계	**남(n=33)**	**18.12(2.57)**	**18.24(2.51)**	**6.404***	**.577**	**4.497***
	여(n=24)	**17.04(2.56)**	**18.42(2.21)**			
	전체(n=57)	**17.67(2.60)**	**18.32(2.37)**			
놀이 및 여가	남(n=33)	16.48(3.28)	17.67(3.26)	9.429**	1.304	.019
	여(n=24)	15.54(3.19)	16.83(3.33)			
	전체(n=57)	16.09(3.25)	17.32(3.29)			
대처기술	남(n=33)	16.67(2.99)	17.39(3.11)	8.123**	.339	.635
	여(n=24)	16.79(2.62)	18.08(2.84)			
	전체(n=57)	16.72(2.81)	17.68(2.99)			
대근육	남(n=33)	14.91(1.84)	15.48(1.03)	4.172	3.315	.297

영역		차수		*F*		
		1차	2차	차수	성별	차수*성별
	여(n=24)	14.33(2.35)	14.67(1.13)			
	전체(n=57)	14.67(2.07)	15.14(1.14)			
소근육	남(n=33)	15.58(2.08)	16.48(1.91)			
	여(n=24)	16.00(1.64)	16.79(1.41)	10.108**	.807	.048
	전체(n=57)	15.75(1.90)	16.61(1.71)			
의사소통 영역	남(n=33)	111.61(12.89)	112.36(17.77)			
	여(n=24)	109.75(13.02)	112.29(14.07)	.903	.074	.264
	전체(n=57)	110.82(12.86)	112.33(16.18)			
생활기술 영역	남(n=33)	107.94(18.24)	115.48(19.01)			
	여(n=24)	112.17(16.39)	117.38(15.05)	15.241***	.484	.512
	전체(n=57)	109.72(17.46)	116.28(17.33)			
사회성 영역	남(n=33)	112.45(16.28)	115.97(15.52)			
	여(n=24)	108.67(15.03)	115.88(15.08)	10.833**	.255	1.285
	전체(n=57)	110.86(15.74)	115.93(15.20)			
적응행동 조합점수	남(n=33)	108.70(14.43)	115.36(17.60)			
	여(n=24)	108.25(13.38)	116.63(14.93)	26.005***	.011	.335
	전체(n=57)	108.51(13.88)	115.89(1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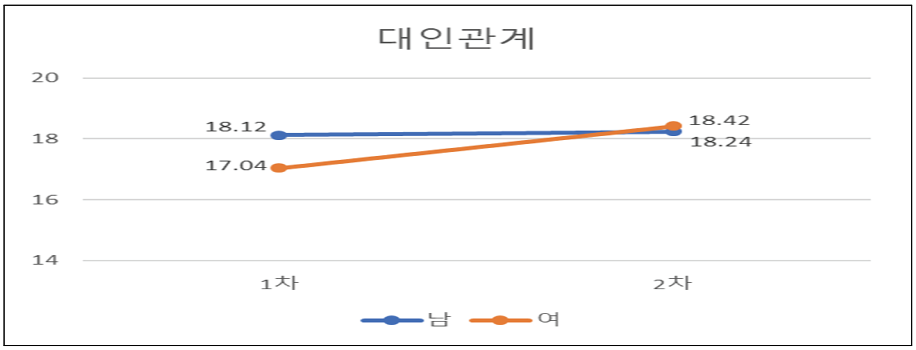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수용과 표현 하위영역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생활기술 영역의 경우,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F = 15.241^{***}$)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F = 5.884^{*}$)과 가정($F = 13.038^{**}$) 하위영역의 경우에도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성 영역의 경우,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F = 10.833^{**}$)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대인관계 하위영역에서 차수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F = 4.497^{*}$)와 차수($F = 6.404^{*}$)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여아의 경우 1차년도($M = 17.04$, $SD = 2.56$)에 비해 2차년도($M = 18.42$, $SD = 2.21$)에 대인관계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의 경우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Ⅴ-1-15 참조). 놀이 및 여가($F = 9.429^{**}$), 대처기술($F = 8.123^{**}$) 하위영역은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소근육(F = 10.108***) 하위영역은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림 Ⅴ-1-15] 대인관계에서 성별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3) 맞벌이 여부에 따른 종단비교

초등 1학년 아동의 전체 IQ는 차수와 맞벌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Ⅴ-1-41〉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M(SD)

소검사/지표		차수		*F*		
		1차	2차	차수	맞벌이	차수*맞벌이
토막짜기	맞벌이(n=22)	11.86(4.21)	12.06(4.24)	.001	1.038	.041
	외벌이(n=15)	13.13(3.74)	13.00(3.53)			
	전체(n=37)	12.38(4.02)	12.43(3.94)			
상식	맞벌이(n=22)	12.55(3.16)	11.27(3.60)	3.924	1.289	.141
	외벌이(n=15)	11.27(2.71)	10.40(3.36)			
	전체(n=37)	12.03(3.01)	10.92(3.48)			
그림기억	맞벌이(n=22)	11.55(3.61)	11.77(3.22)	.486	1.231	.079
	외벌이(n=15)	10.27(3.22)	10.80(3.71)			
	전체(n=37)	11.03(3.47)	11.38(3.41)			
위치찾기	맞벌이(n=22)	12.45(2.79)	10.73(2.93)	3.574	.319	1.918
	외벌이(n=15)	12.20(2.68)	11.93(3.51)			
	전체(n=37)	12.35(2.71)	11.22(3.19)			
모양 맞추기	**맞벌이(n=22)**	**11.95(3.27)**	**9.00(2.23)**	**9.163****	**3.041**	**5.824***
	외벌이(n=15)	**11.93(2.58)**	**11.60(2.72)**			
	전체(n=37)	**11.95(2.97)**	**10.05(2.73)**			
언어이해	맞벌이(n=22)	113.09(16.08)	107.77(17.10)	5.814*	.708	.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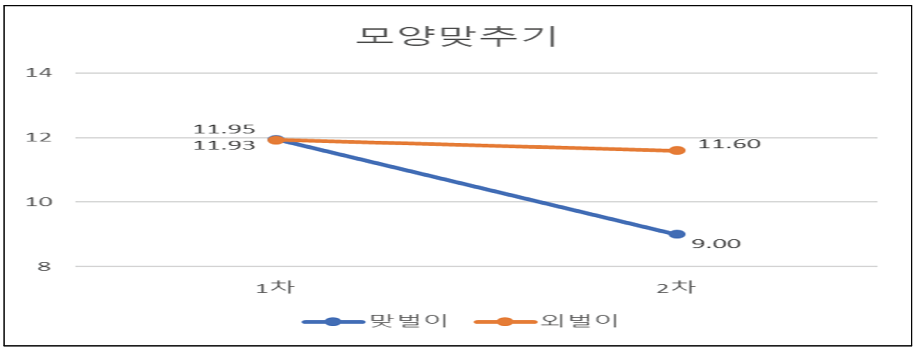
소검사/지표		차수		*F*		
		1차	2차	차수	맞벌이	차수*맞벌이
지표	외벌이(n=15)	108.87(11.53)	104.40(11.55)			
	전체(n=37)	111.38(14.39)	106.41(15.01)			
시공간 지표	맞벌이(n=22)	110.55(18.90)	102.23(15.00)	2.720	2.315	1.472
	외벌이(n=15)	114.20(15.19)	112.93(16.31)			
	전체(n=37)	112.03(17.36)	106.57(16.22)			
작업기억 지표	맞벌이(n=22)	113.32(15.90)	108.68(16.66)	.593	.196	1.264
	외벌이(n=15)	108.40(14.31)	109.27(18.32)			
	전체(n=37)	111.32(15.27)	108.92(17.11)			
전체 IQ	맞벌이(n=22)	113.23(18.24)	111.64(17.70)	.016	.043	.407
	외벌이(n=15)	110.87(16.13)	111.93(8.01)			
	전체(n=37)	112.27(17.22)	111.76(14.41)			
비언어 지표	맞벌이(n=22)	113.68(17.46)	112.14(17.20)	.349	.028	1.593
	외벌이(n=15)	109.93(18.39)	114.20(10.92)			
	전체(n=37)	112.16(17.68)	112.97(14.83)			
일반능력 지표	맞벌이(n=22)	114.18(18.30)	109.55(18.20)	1.649	.164	.505
	외벌이(n=15)	110.47(17.92)	109.13(8.90)			
	전체(n=37)	112.68(17.99)	109.38(14.97)			

* $p < .05$, ** $p < .01$.

언어이해지표의 경우 차수와 맞벌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차수($F = 5.814^{*}$)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상식 소검사는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시공간지표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토막짜기 소검사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모양맞추기 소검사에서는 차수와 맞벌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F = 5.824^{*}$)와 차수($F = 9.163^{**}$)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하였으며,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맞벌이 가정의 아동은 1차년도($M = 11.95$, $SD = 3.27$)에 비해 2차년도($M = 9.00$, $SD = 2.23$)에 모양맞추기 소검사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벌이 가정의 아동은 차수에 따라 점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1-16 참조). 작업기억지표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그림기억과 위치찾기 소검사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Ⅴ-1-16] 모양맞추기에서 맞벌이 여부와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한편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차수와 맞벌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F = 19.541***)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Ⅴ-1-42〉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M(SD)

영역		차수		*F*		
		1차	2차	차수	맞벌이	차수*맞벌이
수용	맞벌이(n=30)	16.77(2.22)	16.10(2.62)	1.907	.055	.655
	외벌이(n=23)	16.65(2.08)	16.48(2.17)			
	전체(n=53)	16.72(2.14)	16.26(2.42)			
표현	맞벌이(n=30)	17.27(2.41)	17.03(2.80)	.545	.001	1.866
	외벌이(n=23)	16.78(2.86)	17.57(2.79)			
	전체(n=53)	17.06(2.60)	17.26(2.78)			
개인	맞벌이(n=30)	16.70(3.39)	17.70(2.15)	3.019	.025	2.130
	외벌이(n=23)	17.04(2.74)	17.13(2.77)			
	전체(n=53)	16.85(3.10)	17.45(2.43)			
가정	맞벌이(n=30)	16.40(3.40)	17.30(3.72)	10.723**	.126	.299
	외벌이(n=23)	16.52(2.37)	17.78(3.34)			
	전체(n=53)	16.45(2.97)	17.51(3.54)			
대인관계	맞벌이(n=30)	17.63(2.62)	18.27(2.00)	3.680	.051	.034
	외벌이(n=23)	17.83(2.50)	18.35(2.67)			
	전체(n=53)	17.72(2.54)	18.30(2.29)			
놀이 및 여가	맞벌이(n=30)	16.27(3.22)	17.37(3.19)	7.808**	.000	.056
	외벌이(n=23)	16.17(3.08)	17.48(3.25)			
	전체(n=53)	16.23(3.13)	17.42(3.18)			
대처기술	맞벌이(n=30)	16.70(2.81)	17.20(3.09)	5.933*	.707	1.179
	외벌이(n=23)	16.91(2.94)	18.22(3.00)			
	전체(n=53)	16.79(2.84)	17.64(3.06)			
대근육	맞벌이(n=30)	15.23(1.19)	15.27(1.17)	3.114	2.714	2.538

영역		차수		*F*		
		1차	2차	차수	맞벌이	차수*맞벌이
	외벌이(n=23)	14.35(2.21)	15.00(1.04)			
	전체(n=53)	14.85(1.75)	15.15(1.12)			
소근육	맞벌이(n=30)	16.07(1.82)	16.70(1.76)			
	외벌이(n=23)	15.43(2.04)	16.35(1.75)	7.907**	1.314	.259
	전체(n=53)	15.79(1.93)	16.55(1.75)			
의사소통 영역	맞벌이(n=30)	112.60(12.04)	111.20(16.89)			
	외벌이(n=23)	110.65(11.67)	112.91(14.98)	.064	.001	1.166
	전체(n=53)	111.75(11.81)	111.94(15.96)			
생활기술 영역	맞벌이(n=30)	109.80(19.21)	116.17(17.59)			
	외벌이(n=23)	111.22(14.51)	115.83(18.04)	10.935**	.014	.281
	전체(n=53)	110.42(17.18)	116.02(17.61)			
사회성 영역	맞벌이(n=30)	111.13(15.65)	114.83(14.30)			
	외벌이(n=23)	111.74(15.61)	117.52(16.17)	7.512**	.179	.362
	전체(n=53)	111.40(15.48)	116.00(15.05)			
적응행동 조합점수	맞벌이(n=30)	110.00(13.52)	115.63(17.15)			
	외벌이(n=23)	108.61(12.54)	115.74(15.98)	19.541***	.027	.269
	전체(n=53)	109.40(13.00)	115.68(16.50)			

* $p < .05$, ** $p < .01$, *** $p < .001$.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수용과 표현 하위영역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생활기술 영역의 경우, 차수와 맞벌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F = 10.935^{**}$)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정($F = 10.723^{**}$) 하위영역의 경우에도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유의하였으며, 개인 하위영역은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성 영역의 경우, 차수와 맞벌이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F = 7.512^{**}$)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놀이 및 여가($F = 7.808^{**}$), 대처기술($F = 5.933^{*}$) 하위영역의 경우에도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하였으며, 대인관계 하위영역은 상호작용과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소근육($F = 7.907^{**}$) 하위영역은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가구소득에 따른 종단비교

초등 1학년 아동의 전체 IQ는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

았으며, 차수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본지표와 추가지표, 소검사 점수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Ⅴ-1-43〉 초등 1학년 아동의 가구소득과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M(SD)

소검사/지표		차수		*F*		
		1차	2차	차수	소득	차수*소득
토막짜기	600미만(n=8)	12.75(4.40)	13.50(3.66)	.110	.490	.232
	600이상(n=29)	12.28(3.99)	12.14(4.02)			
	전체(n=37)	12.38(4.02)	12.43(3.94)			
상식	600미만(n=8)	11.50(2.33)	12.25(1.58)	.504	.200	3.734
	600이상(n=29)	12.17(3.20)	10.55(3.79)			
	전체(n=37)	12.03(3.01)	10.92(3.48)			
그림기억	600미만(n=8)	10.88(3.52)	10.63(3.70)	.043	.221	.350
	600이상(n=29)	11.07(3.51)	11.59(3.36)			
	전체(n=37)	11.03(3.47)	11.38(3.41)			
위치찾기	600미만(n=8)	12.25(3.28)	10.75(4.20)	3.863	.129	.130
	600이상(n=29)	12.38(2.60)	11.34(2.93)			
	전체(n=37)	12.35(2.71)	11.22(3.19)			
모양 맞추기	600미만(n=8)	10.00(2.27)	9.88(1.96)	3.461	2.318	2.804
	600이상(n=29)	12.48(2.95)	10.10(2.93)			
	전체(n=37)	11.95(2.97)	10.05(2.73)			
언어이해 지표	600미만(n=8)	110.50(8.65)	112.13(9.06)	1.246	.325	3.307
	600이상(n=29)	111.62(15.72)	104.83(16.04)			
	전체(n=37)	111.38(14.39)	106.41(15.01)			
시공간 지표	600미만(n=8)	107.25(18.41)	109.13(14.78)	.661	.059	1.841
	600이상(n=29)	113.34(17.16)	105.86(16.77)			
	전체(n=37)	112.03(17.36)	106.57(16.22)			
작업기억 지표	600미만(n=8)	110.50(16.20)	105.38(22.29)	1.315	.228	.344
	600이상(n=29)	111.55(15.29)	109.90(15.73)			
	전체(n=37)	111.32(15.27)	108.92(17.11)			
전체 IQ	600미만(n=8)	110.50(14.06)	111.50(10.53)	.000	.048	.150
	600이상(n=29)	112.76(18.19)	111.83(15.47)			
	전체(n=37)	112.27(17.22)	111.76(14.41)			
비언어 지표	600미만(n=8)	110.13(15.22)	110.38(9.86)	.047	.246	.016
	600이상(n=29)	112.72(18.51)	113.69(16.00)			
	전체(n=37)	112.16(17.68)	112.97(14.83)			
일반능력 지표	600미만(n=8)	110.50(16.30)	113.63(12.84)	.129	.047	2.294
	600이상(n=29)	113.28(18.66)	108.21(15.50)			
	전체(n=37)	112.68(17.99)	109.38(14.97)			

한편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F = 10.882**)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Ⅴ-1-44〉 초등 1학년 아동의 가구소득과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M(SD)

영역		차수		*F*		
		1차	2차	차수	소득	차수*소득
수용	600미만(n=14)	16.57(1.91)	15.50(1.95)	3.684	.978	1.535
	600이상(n=39)	16.77(2.24)	16.54(2.53)			
	전체(n=53)	16.72(2.14)	16.26(2.42)			
표현	600미만(n=14)	17.07(2.95)	16.71(2.95)	.004	.248	.826
	600이상(n=39)	17.05(2.50)	17.46(2.73)			
	전체(n=53)	17.06(2.60)	17.26(2.78)			
개인	**600미만(n=14)**	**17.57(3.27)**	**17.00(2.94)**	**.444**	**.053**	**5.483***
	600이상(n=39)	**16.59(3.03)**	**17.62(2.24)**			
	전체(n=53)	**16.85(3.10)**	**17.45(2.43)**			
가정	**600미만(n=14)**	**17.64(2.27)**	**17.57(3.46)**	**3.808**	**.800**	**4.631***
	600이상(n=39)	**16.03(3.10)**	**17.49(3.61)**			
	전체(n=53)	**16.45(2.97)**	**17.51(3.54)**			
대인관계	600미만(n=14)	17.71(3.02)	18.00(2.83)	2.101	.092	.363
	600이상(n=39)	17.72(2.39)	18.41(2.10)			
	전체(n=53)	17.72(2.54)	18.30(2.29)			
놀이 및 여가	600미만(n=14)	16.00(3.76)	16.50(3.06)	4.076*	.813	.953
	600이상(n=39)	16.31(2.92)	17.74(3.20)			
	전체(n=53)	16.23(3.13)	17.42(3.18)			
대처기술	600미만(n=14)	17.14(3.21)	17.50(3.23)	2.729	.029	.638
	600이상(n=39)	16.67(2.73)	17.69(3.04)			
	전체(n=53)	16.79(2.84)	17.64(3.06)			
대근육	**600미만(n=14)**	**13.71(2.27)**	**14.71(1.07)**	**6.055***	**8.122****	**4.931***
	600이상(n=39)	**15.26(1.33)**	**15.31(1.10)**			
	전체(n=53)	**14.85(1.75)**	**15.15(1.12)**			
소근육	600미만(n=14)	15.43(2.21)	15.93(1.90)	4.747*	1.937	.314
	600이상(n=39)	15.92(1.83)	16.77(1.66)			
	전체(n=53)	15.79(1.93)	16.55(1.75)			
의사소통 영역	600미만(n=14)	111.36(12.30)	107.21(15.09)	.406	.780	2.444
	600이상(n=39)	111.90(11.79)	113.64(16.11)			
	전체(n=53)	111.75(11.81)	111.94(15.96)			
생활기술 영역	**600미만(n=14)**	**116.21(16.33)**	**114.86(19.12)**	**3.716**	**.378**	**7.309****
	600이상(n=39)	**108.33(17.20)**	**116.44(17.28)**			
	전체(n=53)	**110.42(17.18)**	**116.02(17.61)**			
사회성 영역	600미만(n=14)	111.64(18.27)	113.36(15.94)	3.623	.138	1.033
	600이상(n=39)	111.31(14.62)	116.95(14.82)			
	전체(n=53)	111.40(15.48)	116.00(15.05)			
적응행동 조합점수	600미만(n=14)	109.57(14.68)	112.71(18.16)	10.882**	.188	1.779
	600이상(n=39)	109.33(12.55)	116.74(15.98)			
	전체(n=53)	109.40(13.00)	115.68(1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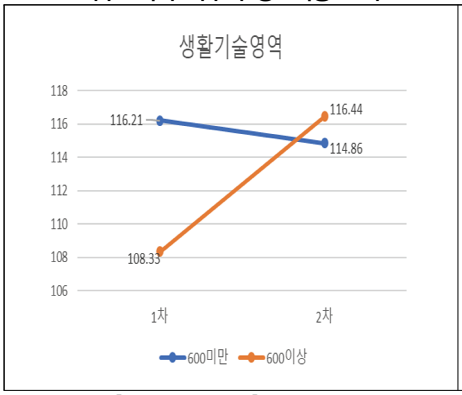
* $p < .05$, ** $p < .01$.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수용과 표현 하위영역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생활기술 영역에서는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F = 7.309**)가 유의하였으며, 차수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아동은 1차년도(M = 108.33, SD = 17.20)에 비해 2차년도(M = 116.44, SD = 17.28)에 생활기술 영역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600만 원 미만인 가정 아동의 경우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Ⅴ-1-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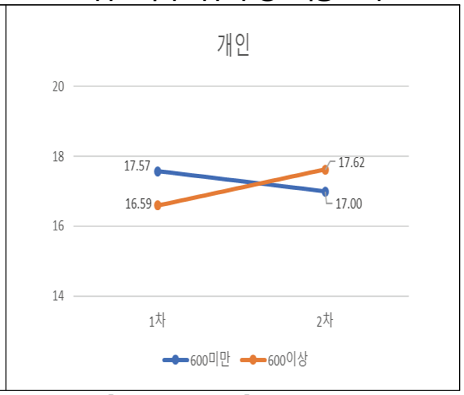
개인 하위영역에서도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F = 5.483*)가 유의하였으며, 차수와 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아동은 1차년도(M = 16.59, SD = 3.03)에 비해 2차년도(M = 17.62, SD = 2.24)에 개인 하위영역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0만 원 미만 가정 아동의 경우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Ⅴ-1-18 참조). 가정 하위영역에서도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F = 4.631*)가 유의하였으며, 차수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아동은 1차년도(M = 16.03, SD = 3.10)에 비해 2차년도(M = 17.49, SD = 3.61)에 가정 하위영역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0만 원 미만 가정의 아동은 차수에 따라 유의한 점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Ⅴ-1-19 참조).

사회성 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대인관계와 대처기술 하위영역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놀이 및 여가(F = 4.076*) 하위영역은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대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차수와 가구소득의 상호작용 효과(F = 4.931*)가 유의하였으며(그림 Ⅴ-1-20 참조), 차수(F = 6.055*)와 가구소득(F = 8.122**)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만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600만 원 미만인 가정 아동과 600만 원 이상인 가정 아동 모두 차수에 따른 대근육 하위영역의 점수 변화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근육(F = 4.747*) 하위영역의 경우에는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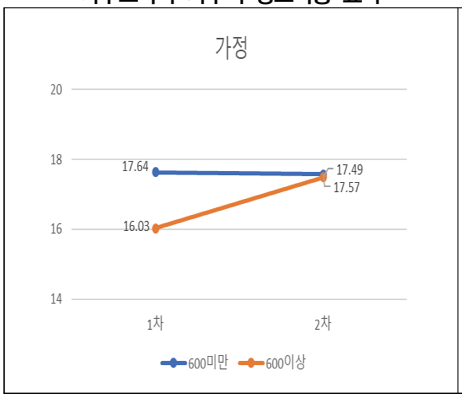
[그림 V-1-17] 생활기술 영역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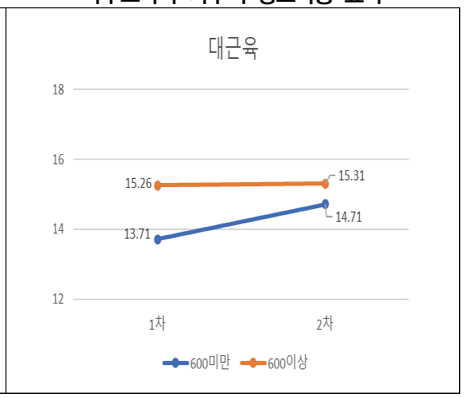
[그림 V-1-18] 개인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V-1-19] 가정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V-1-20] 대근육에서 가구소득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라) 연령과 차수에 따른 종단비교

본 연구참여자의 전체 IQ는 차수와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와 연령에 따른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Ⅴ-1-45〉 연령과 차수에 따른 인지발달 차이

M(SD)

소검사/지표		차수		*F*		
		1차	2차	차수	연령	차수*연령
토막짜기	3세반(n=77)	11.70(2.67)	12.01(2.38)	.510	1.081	.024
	1학년(n=40)	12.25(3.90)	12.45(3.82)			
	전체(n=117)	11.89(3.14)	12.16(2.94)			
상식	3세반(n=77)	11.43(2.54)	11.35(3.09)	5.035*	.006	3.882
	1학년(n=40)	11.95(2.93)	10.75(3.43)			
	전체(n=117)	11.61(2.68)	11.15(3.21)			
그림기억	3세반(n=77)	11.44(2.89)	10.84(2.55)	.082	.004	2.897
	1학년(n=40)	10.90(3.38)	11.33(3.32)			
	전체(n=117)	11.26(3.06)	11.01(2.83)			
위치찾기	**3세반(n=77)**	**10.42(2.84)**	**10.79(2.36)**	**1.422**	**6.825***	**5.725***
	1학년(n=40)	**12.28(2.68)**	**11.15(3.08)**			
	전체(n=117)	**11.05(2.91)**	**10.91(2.62)**			
모양 맞추기	**3세반(n=77)**	**11.01(3.01)**	**11.31(2.56)**	**4.833***	**.085**	**9.537****
	1학년(n=40)	**11.93(2.87)**	**10.15(2.68)**			
	전체(n=117)	**11.32(2.98)**	**10.91(2.65)**			
언어이해 지표	3세반(n=77)	112.84(15.75)	110.25(16.86)	7.281**	1.558	.739
	1학년(n=40)	110.65(14.21)	105.63(15.09)			
	전체(n=117)	112.09(15.22)	108.67(16.36)			
시공간 지표	**3세반(n=77)**	**107.21(13.97)**	**109.00(11.81)**	**.846**	**.250**	**4.259***
	1학년(n=40)	**111.58(16.77)**	**106.90(15.67)**			
	전체(n=117)	**108.70(15.06)**	**108.28(13.23)**			
작업기억 지표	3세반(n=77)	106.75(15.42)	105.88(13.02)	.957	1.860	.180
	1학년(n=40)	110.73(15.07)	108.53(16.55)			
	전체(n=117)	108.11(15.35)	106.79(14.31)			
전체 IQ	3세반(n=77)	112.18(14.66)	110.29(13.91)	.580	.000	.522
	1학년(n=40)	111.25(17.05)	111.20(14.33)			
	전체(n=117)	111.86(15.46)	110.60(14.00)			
비언어 지표	3세반(n=77)	108.32(14.43)	108.81(12.69)	.637	1.753	.203
	1학년(n=40)	110.98(17.72)	112.70(14.56)			
	전체(n=117)	109.23(15.60)	110.14(13.42)			
일반능력 지표	3세반(n=77)	111.99(14.71)	111.84(14.47)	.978	.333	.788
	1학년(n=40)	111.73(17.89)	109.08(15.16)			
	전체(n=117)	111.90(15.79)	110.90(14.70)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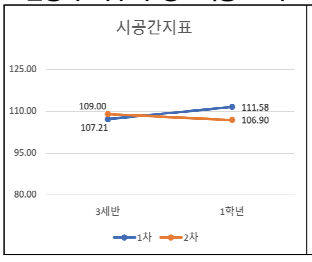
언어이해지표의 경우 차수와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와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F = 7.281^{**}$)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언어이해지표의 상식 소검사의 경우, 차수($F = 5.035^{*}$)에 따른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시공간지표에서는 차수와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

과(F = 4.259*)가 유의하였으며(그림 V-1-21 참조), 차수와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시공간지표 점수는 차수에 따라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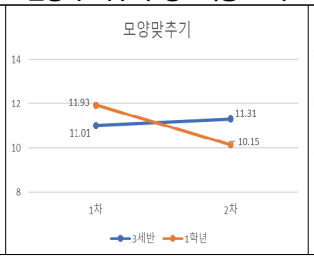
한편 모양맞추기 소검사에서는 차수와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F = 9.537**)와 차수(F = 4.833*)에 따른 점수 변화가 유의하였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초등 1학년 아동의 경우 1차년도(M = 11.93, SD = 2.87)에 비해 2차년도(M = 10.15, SD = 2.68)에 모양맞추기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3세반 유아의 경우 차수에 따른 유의한 점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V-1-22 참조). 토막짜기 소검사의 경우에는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작업기억지표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위치찾기 소검사에서는 차수와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F = 5.725*)와 연령(F = 6.825*)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초등 1학년 아동의 경우 1차년도(M = 12.28, SD = 2.68)에 비해 2차년도(M = 11.15, SD = 3.08)에 위치찾기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3세반 유아의 경우 차수에 따른 유의한 점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1-23 참조). 그림기억 소검사의 경우에는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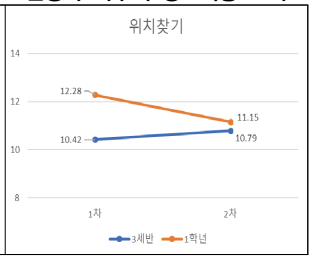
[그림 V-1-21] 공간지표에서 연령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V-1-22] 양맞추기에서 연령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V-1-23] 위치찾기에서 연령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한편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차수와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와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F = 27.143***)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Ⅴ-1-46〉 연령과 차수에 따른 적응행동 차이

M(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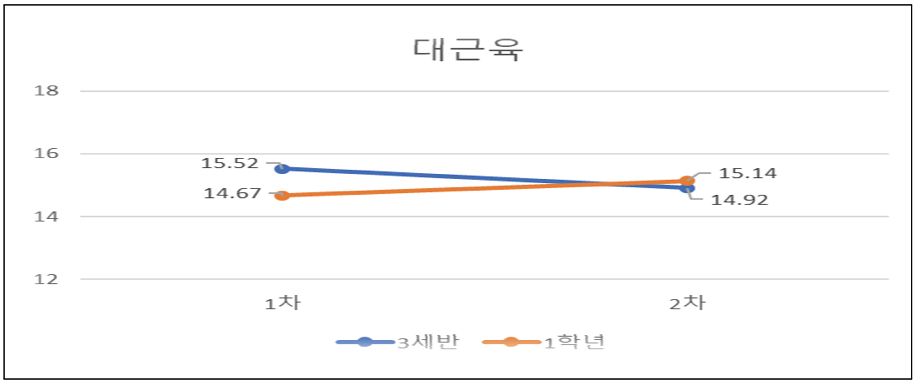
영역		차수		*F*		
		1차	2차	차수	연령	차수*연령
수용	3세반(n=83)	16.06(2.85)	16.46(2.47)	.260	.107	1.728
	1학년(n=57)	16.47(2.49)	16.30(2.46)			
	전체(n=140)	16.23(2.71)	16.39(2.45)			
표현	3세반(n=83)	16.36(2.78)	16.46(2.32)	.963	3.688	.293
	1학년(n=57)	17.00(2.65)	17.33(2.77)			
	전체(n=140)	16.62(2.73)	16.81(2.54)			
개인	3세반(n=83)	16.25(3.59)	17.46(3.17)	13.192***	.330	.414
	1학년(n=57)	16.70(3.16)	17.54(2.39)			
	전체(n=140)	16.44(3.42)	17.49(2.87)			
가정	3세반(n=83)	17.37(3.43)	17.96(2.79)	13.983***	2.178	1.412
	1학년(n=57)	16.37(2.96)	17.51(3.51)			
	전체(n=140)	16.96(3.27)	17.78(3.10)			
대인관계	3세반(n=83)	16.31(4.02)	17.46(3.02)	8.293**	6.121*	.633
	1학년(n=57)	17.67(2.60)	18.32(2.37)			
	전체(n=140)	16.86(3.57)	17.81(2.79)			
놀이 및 여가	3세반(n=83)	15.52(2.99)	16.59(2.94)	19.315***	1.956	.089
	1학년(n=57)	16.09(3.25)	17.32(3.29)			
	전체(n=140)	15.75(3.10)	16.89(3.09)			
대처기술	3세반(n=83)	16.10(2.90)	17.70(2.89)	24.554***	.509	1.514
	1학년(n=57)	16.72(2.81)	17.68(2.99)			
	전체(n=140)	16.35(2.87)	17.69(2.92)			
대근육	**3세반(n=83)**	**15.52(2.11)**	**14.92(2.45)**	**.087**	**1.262**	**6.067****
	1학년(n=57)	**14.67(2.07)**	**15.14(1.14)**			
	전체(n=140)	**15.17(2.13)**	**15.01(2.02)**			
소근육	3세반(n=83)	15.29(3.65)	16.70(3.05)	19.997***	.208	1.175
	1학년(n=57)	15.75(1.90)	16.61(1.71)			
	전체(n=140)	15.48(3.06)	16.66(2.58)			
의사소통 영역	3세반(n=83)	107.18(14.79)	109.13(12.98)	2.638	2.424	.043
	1학년(n=57)	110.82(12.86)	112.33(16.18)			
	전체(n=140)	108.66(14.10)	110.44(14.40)			
생활기술 영역	3세반(n=83)	112.17(20.21)	117.29(16.62)	19.088***	.380	.290
	1학년(n=57)	109.72(17.46)	116.28(17.33)			
	전체(n=140)	111.17(19.11)	116.88(16.86)			
사회성 영역	3세반(n=83)	105.63(18.06)	113.40(15.76)	20.313***	2.555	.899
	1학년(n=57)	110.86(15.74)	115.93(15.20)			
	전체(n=140)	107.76(17.29)	114.43(15.53)			
적응행동 조합점수	3세반(n=83)	106.77(17.74)	112.13(14.52)	27.143***	1.283	.685
	1학년(n=57)	108.51(13.88)	115.89(16.40)			
	전체(n=140)	107.48(16.25)	113.66(15.37)			

* $p < .05$, ** $p < .01$, *** $p < .001$.

의사소통 영역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수용과

표현 하위영역에서도 상호작용 효과와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생활기술 영역의 경우, 차수와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와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F = 19.088***)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인(F = 13.192***), 가정(F = 13.983***) 하위영역에서도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성 영역의 경우, 차수와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와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차수(F = 20.313***)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인관계 하위영역에서는 차수(F = 8.293**)와 연령(F = 6.121*)에 따른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놀이 및 여가(F = 19.315***), 대처기술(F = 24.554***) 하위영역에서는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근육 하위영역의 경우에는 차수와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F = 6.067**)가 유의하였으며 차수와 연령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순주효과분석 결과, 초등 1학년 아동의 경우 1차년도(M = 14.67, SD = 2.07)에 비해 2차년도(M = 15.14, SD = 1.14)에 대근육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만 3세반 유아의 경우 차수에 따른 유의한 점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1-24 참조). 소근육(F = 19.997***) 하위영역의 경우, 차수에 따른 점수 변화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림 V-1-24] 대근육에서 연령과 차수의 상호작용 효과



2. 한국아동패널의 코호트 집단 비교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력만을 추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아동패널의 동일 연령 집단을 비교군으로 활용하여 발달 및 학습의 격차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아동 성장 및 발달 양태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고, 본 연구참여자의 주요 배경인 부모와 아동 특성을 비교하였다.

가. 한국아동패널과 1, 2차년도 집단 특성 비교

1) 부모 특성 비교

가) 부모의 우울감

1차년도 참여 가구인 만 2세반 영아 자녀가 있는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의 우울감을 살펴보면, 우울감 관련 항목은 5점 척도 기준 평균 2.37점으로, 1.76~2.86점의 분포를 보여 우울감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다. 한국아동패널에서 자녀의 연령이 만 2세반 영아 시기의 우울감은 1.96점(母), 만 5세반 유아 시기의 우울감은 1.94점(母), 1.84점(父)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참여 부모의 우울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평균 3점 이하로 우울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Ⅴ-2-1〉 한국아동패널과 1차년도(2022년) 참여 부모의 우울감 비교

단위: 점, %(명)

구분	1차년도(2022년)			한국아동패널		
	M	계(명)		M	계(명)	
만 2세반 영아	2.37	100.0	(100)	1.96(모)	100.0	-
만 5세반 유아	2.38	100.0	(100)	1.84(부)	100.0	(1,541)
				1.94(모)	100.0	(1,614)

주: 한국아동패널의 만 2세만 영아 데이터는 모의 우울만 측정됨.
자료: 1) 이정림·이정원·김진경·송신영·왕영희·이예진·신나리·김영원(2010). 한국아동패널 2010 사업보고서. p.102. 〈표 Ⅱ-3-19〉.
2) 최윤경·배윤진·송신영·임준범·이예진·김소아·김신경(2014). 한국아동패널 2014. p.119. 〈표 Ⅲ-4-13〉.

나) 부부 갈등

2차년도 참여자인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부부갈등의 전체 평균은 5점 척도에서

2.05점으로 갈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점수는 1.84점~2.38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부부갈등의 전체 평균은 5점 척도에서 1.75점으로 갈등 정도가 낮았으며, 만 3세반 유아 부모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경향을 보인다. 한편 한국아동패널의 해당 연령 시기의 부부갈등 정도와 비교하면, 만 3세반 유아 시기의 부부갈등 정도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초등 1학년 아동 시기의 부부갈등에 비해 본 연구참여 부모의 부부갈등 정도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V-2-2〉 한국아동패널과 2차년도(2023년) 부모의 부부갈등 비교

단위: 점, %(명)

구분	2차년도(2023년)			한국아동패널		
	M	SD	계(명)	M	SD	계(명)
만 3세반 유아	2.05	1.02	100.0 (88)	2.21(부)	0.73	100.0 (1,623)
				2.10(모)	0.76	100.0 (1,697)
초등 1학년 아동	1.75	0.98	100.0 (55)	2.06(부)	0.74	100.0 (1,467)
				2.59(모)	1.18	100.0 (1,545)

자료: 1) 김은설·도남희·왕영희·송요현·이예진·정영혜·김영원(2012). 한국아동패널 2012. p.132. 〈표 Ⅳ-3-19〉.
2) 김은설·배윤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 p.128. 〈표 Ⅱ-4-13〉.

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2차년도 참여자인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전체 평균은 5점 척도에서 2.24점으로 스트레스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전체 평균은 5점 척도에서 1.98점으로 스트레스가 별로 크지 않으며 만 3세반 유아 부모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다. 한편 한국아동패널의 해당 연령 시기의 양육 스트레스와 비교하면,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는 유사하였으며,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본 연구참여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인다.

〈표 V-2-3〉 한국아동패널과 2차년도(2023년) 참여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

단위: 점, %(명)

구분	2차년도(2023년)			한국아동패널		
	M	SD	계(명)	M	SD	계(명)
만 3세반 유아	2.24	1.05	100.0 (88)	2.44(부)	0.62	100.0 (1,626)
				2.76(모)	0.68	100.0 (1,702)
초등 1학년 아동	1.98	1.06	100.0 (55)	2.21(부)	0.63	100.0 (1,469)
				2.42(모)	0.68	100.0 (1,556)

자료: 1) 김은설 외(2012). 한국아동패널 2012. p.140. 〈표 Ⅳ-3-28〉.
2) 김은설 외(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 pp.144-145. 〈표 Ⅱ-4-36〉.

라) 주관적 행복감

2차년도 참여자인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의 전체 평균은 7점 척도에서 5.47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행복감은 5.55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은 5.50점, 아주 행복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5.24점, 아주 불행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5.58점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 행복감보다 약간 낮아졌지만 아주 행복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더 낮아진 반면 아주 불행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의 전체 평균은 7점 척도에서 5.55점으로 만 3세반 유아 부모보다 살짝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행복감은 5.60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은 5.51점, 아주 행복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5.35점, 아주 불행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5.76점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 행복감보다 약간 낮아졌지만 아주 행복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더 낮아진 반면 아주 불행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한국아동패널의 초등 1학년 아동 시기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은 5.25점(父), 5.23점(母)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Ⅴ-2-4〉 한국아동패널과 2차년도(2023년) 참여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비교

단위: %(명)

구분	2차년도(2023)			한국아동패널			
	M	SD	계(명)	M	SD	계(명)	
초등 1학년 아동	5.55	1.03	100.0 (55)	5.25(부)	1.02	100.0	(1,469)
				5.23(모)	1.07	100.0	(1,556)
전반적인 행복감	5.60	0.91	100.0 (55)	-	-	-	-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행복감	5.51	0.98	100.0 (55)	-	-	-	-
아주 행복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	5.35	1.06	100.0 (55)	-	-	-	-
아주 불행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의 행복감	5.76	1.15	100.0 (55)	-	-	-	-

주: 한국아동패널의 만 3세반 유아 시기의 자료가 측정되지 않아 비교하지 않음.
자료: 김은설 외(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 p.124. 〈표 Ⅱ-4-6〉.

마)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대한민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평균은 10점 척도에서 6.20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대한민국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평균은 10점 척도에서 6.69점으로 만 3세반 유아 부모의 인식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한편 한국아동패널의 초등 1학년 시기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인식을 비교하면,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 1학년 아동 부모의 인식이 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의 한계로 제시한 바 있듯이 본 연구참여 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2-5〉 한국아동패널과 2차년도(2023년) 참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 인식 비교

단위: 점, %(명)

구분	2차년도(2023년)			한국아동패널		
	M	SD	계(명)	M	SD	계(명)
대한민국	6.69	1.65	100.0 (55)	4.86	1.36	100.0 (1,598)
지역사회나 공동체(직장, 교회, 친인척 일가, 친구, 동호회 등)	7.09	1.53	100.0 (55)	5.20	1.40	100.0 (1,597)

주: 한국아동패널의 만 3세반 유아 시기의 자료가 측정되지 않아 비교하지 않음.
자료: 김은설 외(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 p.178. 〈표 Ⅱ-5-22〉.

2) 아동 특성 비교

가) 신체발달

본 연구의 참여자인 만 3세반 유아의 체질량 지수는 15.74점, 한국아동패널의 만 3세반 유아 시기의 체질량 지수는 15.75점으로 유사하다.

〈표 V-2-6〉 한국아동패널과 2차년도(2023년) 참여 만 3세반 유아의 키, 몸무게, BMI

구분	2차년도(2023년)			한국아동패널		
	M	SD	사례수	M	SD	사례수
키(cm)	102.95	5.81	(88)	96.87	3.74	(1,753)
몸무게(kg)	16.72	2.48	(88)	14.78	1.69	(1,754)
체질량 지수(BMI)	15.74	1.55	(88)	15.75	-	(1,754)

주: 한국아동패널의 만 3세반 유아 시기의 체질량 지수는 본 연구에서 산출함.
자료: 김은설 외(2012). 한국아동패널 2012. p.106. 〈표 Ⅳ-2-1〉, p.107. 〈표 Ⅳ-2-2〉.

초등 1학년 아동의 체질량 지수는 16.25점, 한국아동패널의 초등 1학년 아동 시기의 체질량 지수는 16.50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Ⅴ-2-7〉 한국아동패널과 2차년도(2023년) 참여 초등 1학년 아동의 키, 몸무게, BMI

구분	2차년도(2023년)			한국아동패널		
	M	SD	사례수	M	SD	사례수
키(cm)	123.72	6.06	(55)	123.51	5.10	(1,559)
몸무게(kg)	24.97	5.02	(55)	25.28	4.54	(1,556)
체질량 지수(BMI)	16.25	2.61	(55)	16.50	2.26	(1,556)

주: 한국아동패널의 만 3세반 유아 시기의 자료(키, 몸무게)가 측정되지 않아 비교하지 않음.
자료: 김은설 외(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 p.67. 〈표 Ⅱ-3-28〉, p.68. 〈표 Ⅱ-3-29〉.

나) 또래 놀이행동

1차년도 참여자인 만 5세반 유아의 또래놀이행동(4점 척도) 중 놀이상호작용은 3.05점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각각 1.81점, 1.59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아동패널의 만 5세반 유아 시기의 또래 놀이행동 점수와 비교하면, 놀이상호작용(3.07점), 놀이방해(1.93점), 놀이단절(1.57점) 모두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Ⅴ-2-8〉 한국아동패널과 1차년도(2022년) 참여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비교

단위: 점, %(명)

구분	1차년도(2022년)		한국아동패널	
	M(SD)	계(명)	M(SD)	계(명)
놀이상호작용	3.05(0.68)	100.0 (100)	3.07(0.40)	100.0 (1,215)
놀이방해	1.81(0.86)	100.0 (100)	1.93(0.45)	100.0 (1,215)
놀이단절	1.59(0.75)	100.0 (100)	1.57(0.47)	100.0 (1,215)

자료: 최윤경 외(2014). 한국아동패널 2014. p.88. 〈표 Ⅲ-3-40〉.

다) 집행 기능

2차년도 참여자인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의 집행기능은 3점 척도에서 1.21~1.41점 범위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부주의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행동통제 곤란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한국아동패널 초등 1학년 시기의 집행기능 점수와 비교하면, 계획-조직화 곤란(1.57점), 행동통제 곤란(1.30점), 정서통제 곤란(1.40점), 부주의(1.49점) 항목 모두에서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2-9〉 한국아동패널과 2차년도(2023년) 참여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 집행기능 비교

단위: 점(명)

구분	2차년도(2023년)			한국아동패널		
	M	SD	사례수	M	SD	사례수
계획-조직화 곤란	1.36	0.55	(55)	1.57	0.40	(1,556)
행동통제 곤란	1.21	0.45	(55)	1.30	0.32	(1,556)
정서통제 곤란	1.27	0.45	(55)	1.40	0.41	(1,556)
부주의	1.41	0.61	(55)	1.49	0.42	(1,556)

자료: 김은설 외(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 pp.86-87. 〈표 II-3-59〉.

라) 학교 적응

교사가 인식하는 초등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5점 척도)을 학교생활 적응, 학업수행 적응, 또래 적응, 교사 적응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교사 적응이 4.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생활 적응과 또래 적응이 각각 4.30점, 학업수행 적응이 4.29점으로 전반적으로 높았다. 한편 한국아동패널의 초등 1학년 시기와 비교하면, 학교생활 적응(3.62점), 학업수행 적응(3.86점), 또래 적응(3.97점), 교사 적응(3.53점) 모두에서 본 연구참여 아동의 점수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V-2-10〉 한국아동패널과 1차년도(2022년) 참여 초등 1학년 아동의 학교 적응 비교

단위: 점(명)

구분	2차년도(2023년)			한국아동패널		
	M	SD	(명)	M	SD	(명)
학교생활 적응	4.30	1.00	(18)	3.62	0.76	(1,031)
학업수행 적응	4.29	1.03	(18)	3.86	0.83	(1,031)
또래 적응	4.30	0.99	(18)	3.97	0.79	(1,031)
교사 적응	4.34	0.93	(18)	3.53	0.63	(1,031)

자료: 김은설 외(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 p.118. 〈표 II-3-84〉.

마) 학업수행 능력

초등 1학년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을 국어, 수학, 전반적인 능력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수학이 4.54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반적인 능력이 4.39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국아동패널의 초등 1학년 아동 시기와 비교하면, 국어 4.16점, 수학 4.34점, 전반적인 능력이 4.26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참여 아동 점수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Ⅴ-2-11〉 한국아동패널과 1차년도(2022년) 참여 초등 1학년 아동의 학업수행 능력 비교

단위: 점(명)

구분	2차년도(2023년)			한국아동패널		
	M	SD	(명)	M	SD	(명)
국 어	4.52	1.05	(18)	4.16	0.96	(1,031)
수 학	4.54	1.03	(18)	4.34	0.89	(1,031)
전 반	4.39	1.14	(18)	4.26	0.90	(1,031)

자료: 김은설 외(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 pp.91-92. 〈표 Ⅱ-3-63〉.

나. 한국아동패널의 특성 및 분석 방법

본 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비상한 환경이 영유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을 주목적으로 하나, 후술 될 연구결과에 외적 타당도(external validity)를 담보하기 위해서 상시적 상황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분석되는 아동 표본이 특정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선택(selection)적 표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논의의 잠재적 확장을 위해 본 절에서는 조금 더 대표성 있는 상시 표본을 이용해 일반적인 영유아기 발달의 격차 요인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상시적 상황에서의 영유아 발달을 분석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을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출생한 2,150명의 신생아를 표본으로 한 추적조사로서, 아동별 가정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면밀하게 조사되었다. 또한 아동들의 연령에 따른 발달 상황과 부모의 양육 행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대표성 있는 표본 집단에 대한 포괄적 자료가 수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본 보고서의 주요 관심 대상에 상응하는 4세(2012년, 5차) 및 7세(2015년, 8차) 아동과 선행연구인 최은영 외(2022)의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Ⅰ)〉의 표본에 해당하는 3세(2011년, 4차), 6세(2014년, 7차) 아동들을 표본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황에 따른 아동의 발달 차이를 요약하고, 그 잠재적 행태 기전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배경뿐만 아니라 아동발달 영역 또한 잠재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개별 변수 간 쌍대적 분석을 열거식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주요 회귀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변수의 가용성에 따라 조금씩 편차가 있으나 회귀분석

에서 아래(식 1)와 같은 식별 전략을 사용하였다.

$$\begin{aligned} 아동발달_{it} = \beta_0 + \beta_1 양육행태_{it} + \beta_2 사회경제적환경_{it} \\ + \beta_3 고정효과_i + \beta_4 시간효과_t + \epsilon_{it} \end{aligned} \qquad (식\ 1)$$

우선적으로 패널에서 조사된 각종 아동발달 지표들을 종속 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아동발달에 관한 지표들은 크게 신체적, 언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안타깝게도 영유아기의 특성상 해당 연령층에 적용될 수 있는 측정법이 조사 회차마다 다른 경우가 많으나 최대한 일관되게 조사된 지표들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는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조금 더 외생적인 요인일 것으로 간주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수들에는 부모의 노동 시장 참여, 학생 여부, 가정의 소득 및 지출, 자녀들에 대한 지출 변수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였다. 추가로 고용 유형 등 변수를 포함한 분석 또한 진행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본고에 보고하지 않았다.

위의 분석에 더해 양육 행태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관된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추가로 탐색하였다. 여기에는 아동의 시간 사용과 부모의 정서적 상황, 잠재적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노동시장 참여 시간을 포함하였다. 이는 위 변수들이 아동에게 부모가 제공하는 자원의 질적 혹은 양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양육 행태 변수들은 어느 정도의 제약은 있으나 4차의 조사에서 비교적 일관성 있게 조사된 변수들이라는 기술적 장점이 고려되었다. 이상의 변수들은 아래 [부록 4. 분석사용 변수 설명]에 요약하였다.

4차의 조사에 일관되게 측정되지 않아 독립변수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으나, 여전히 잠재적으로 아동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변수의 추가 양육 행태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종속 변수로 하여 사회경제적 환경 변수와의 상관성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식 2)을 진행하였다. 이 변수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계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 양육 행태 변수의 변화가 아동발달 격차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고려된 변수들은 [부록 4. 분석사용 변수 설명]에 요약하였다.

$$추가양육행태_{it} = \gamma_0 + \gamma_1 사회경제적환경_{it} + \gamma_2 고정효과_i + \gamma_3 시간효과_t + \nu_{it} \quad (식\ 2)$$

차후 기술되는 복수의 회차를 사용한 모든 분석에는 패널의 조사 회차에 대한 시간 효과를 통제하였으므로 연령 효과를 제거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아동별 고정 효과 또한 통제하여 해석에 있어서 유전적 요인 등을 제거하여 최대한 외생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음 두 개 소절에서는 이 분석의 주요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다. 한국아동패널 아동의 발달의 격차 요인 및 행태적 기전

1) 가정 내 환경에 따른 발달 격차 요인

〈표 Ⅴ-2-12〉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과 언어적 발달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한다. 신체발달에 체중과 신장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다만 체중의 경우 자녀에 대한 소비성 지출이 큰 가정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이러한 영양 상태의 차이가 소득 격차에 의한 발달의 지체는 아닌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언어발달의 경우 어머니가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아동의 언어발달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언어발달에 있어 단순한 보육보다도 직접적이고 집중적인 양육 혹은 성인과의 소통 경험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아버지의 양육과 언어발달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는 독립변수의 변동성이 낮은 데에 기인한 통계적 결과로 추측된다.

〈표 Ⅴ-2-12〉 신체·언어적 발달에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

변수	(1) 체중	(2) 신장	(1) 수용어휘점수	(2) 수용어휘상	(3) 표현어휘점수	(4) 표현어휘상	(5) 발화점수
모학생	0.323	−0.552**	0.473	−0.145*	4.098**	0.163**	0.0401
	(0.214)	(0.260)	(1.807)	(0.0795)	(1.593)	(0.0730)	(0.291)
모노동	−0.124	−0.0686	−0.564	−0.0675*	−1.261*	−0.00348	−0.234**
	(0.0911)	(0.110)	(0.872)	(0.0377)	(0.757)	(0.0346)	(0.109)
부학생	−0.205	0.250	−0.173	0.0222	−2.593	−0.0273	−0.147
	(0.313)	(0.376)	(2.813)	(0.122)	(2.411)	(0.112)	(0.418)
부노동	−0.0212	−0.000508	0.526	0.0131	0.456	−0.00508	−0.0817

변수	(1) 체중	(2) 신장	(1) 수용어휘점수	(2) 수용어휘상	(3) 표현어휘점수	(4) 표현어휘상	(5) 발화점수
	(0.0943)	(0.114)	(0.828)	(0.0358)	(0.715)	(0.0328)	(0.252)
가구소득	0.00490	0.00810	0.0521	-0.000350	0.0239	-0.00210	0.0373
	(0.00628)	(0.00761)	(0.0476)	(0.00208)	(0.0398)	(0.00191)	(0.0354)
가구지출	-0.0897**	0.00941	0.496	0.00453	0.408	-0.0156	-0.117*
	(0.0380)	(0.0460)	(0.372)	(0.0162)	(0.354)	(0.0149)	(0.0679)
자녀지출	0.215***	0.0396	-1.142	-0.0375	0.195	0.00678	0.0859
	(0.0787)	(0.0954)	(0.733)	(0.0315)	(0.659)	(0.0289)	(0.114)
Constant	14.81***	96.73***	6.063***	0.649***	3.952***	0.429***	3.316***
	(0.0983)	(0.119)	(0.828)	(0.0356)	(0.728)	(0.0326)	(0.263)
Observations	6,099	6,099	3,059	3,147	3,003	3,147	1,353
R-squared	0.871	0.968	0.971	0.033	0.981	0.113	0.006
Number of N_ID	1,821	1,821	1,773	1,793	1,772	1,793	

* $p < .1$, ** $p < .05$, *** $p < .01$.

〈표 V-2-13〉 학습에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

변수	(1) 학습준비_인지	(2) 학습준비	(3) 학업능력_수리	(4) 학업능력
모학생	0.0801	0.0875	0.00232	-0.0126
	(0.0601)	(0.0542)	(0.136)	(0.120)
모노동	-0.00160	-0.00132	0.0178	0.00991
	(0.0226)	(0.0204)	(0.0510)	(0.0452)
부학생	-0.0193	-0.0163	-0.244	-0.183
	(0.0834)	(0.0752)	(0.188)	(0.167)
부노동	-0.0463	-0.0542	0.0758	0.0911
	(0.0524)	(0.0473)	(0.118)	(0.105)
가구소득	0.0219***	0.0179***	0.0670***	0.0559***
	(0.00734)	(0.00662)	(0.0165)	(0.0147)
가구지출	0.00614	3.28e-05	-0.0213	-0.0115
	(0.0142)	(0.0128)	(0.0320)	(0.0283)
자녀지출	-0.0102	0.00874	0.0970*	0.0550
	(0.0235)	(0.0212)	(0.0530)	(0.0470)
Constant	3.573***	3.508***	2.922***	3.191***
	(0.0550)	(0.0496)	(0.124)	(0.110)
Observations	1,448	1,448	1,448	1,448
R-squared	0.014	0.014	0.030	0.025

*** $p < .01$.

일반지식(학습준비도 하위영역)과 논리성(취학전 학업능력 하위영역)을 추가로 살펴보았는데, 안타깝게도 이상의 지표들이 모두 7차 조사에 한차례 조사되어 고정효과는 통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가정의

소득수준이 인지적 발달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는 유전적 요인과 같은 관찰되지 않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결과일 수 있으나, 아동 대상 지출과도 약한 유의성을 발견할 수 있어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안정적인 가정환경이 아동의 학업·학습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성과 정서성 및 주관적 행복감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탐색해 보았다. 〈표 Ⅴ-2-14〉는 아동 문제행동(Child Behavior Checklist, CBCL)의 점수의 백분율을 종속 변수로 한다. 백분율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빈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8개의 하위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의 인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득과 지출 변수를 통제하였음에도 여전히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경제활동이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물질적 투자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가정환경 등을 통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질적 요인들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병리적 문제행동(ADHD)의 경우 오히려 통계적 유의성이 약하고 추정 계수의 크기가 작다. 이는 ADHD 외 일반적 문제행동 지표들이 아버지의 경제활동으로 대표되는 가정환경요인으로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표 Ⅴ-2-15〉는 문제행동에 대한 평가 외에 아동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평가 지표들을 추가로 검토해 보았다. 문제행동과는 달리 관통하는 결정 요인의 추세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분석에서 고려된 잠재적 사회경제적 배경이 단독으로 아동의 정서적 상태를 규정짓지 않는다는 것과 사용된 평가 지표들이 사실은 다차원적인 정서적 상태의 단면을 일관되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컨대 어머니의 학생 신분이나 경제활동 참가가 자아존중감에는 제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반면,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평가에서는 유의하지 않으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사하게 (잠재적으로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에서 기인한) 높은 가계소득이 자아존중감에는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치나, 사회적 유능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5].

5) 본 보고서에 보고하지 않으나, 가구소득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평정자를 불문하고 하위분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정서에 대한 요인분석의 비일관성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여러 기전을 통해 대체적 혹은 보완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염두에 둬서 보았을 때도 가구소득의 감소로 사회적 유능감이 떨어질 수 있는 반면, 부모와의 유대와 자아존중감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 간 동태적 상호작용의 효과는 단일 연구로 밝혀내기 어렵다. 또한 가정환경에 의한 내생적인 양육 행태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외생적 충격에 의한 효과가 상시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 소절에서는 잠재적인 내생적 양육 행태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외생요인에 따른 양육 행태의 결정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겠다.

〈표 Ⅴ-2-14〉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수	(8) 문제행동_총	(9) 문제행동_내재	(10) 문제행동_외현	(11) 문제행동_정서	(12) 문제행동_불안	(13) 문제행동_발달	(14) 문제행동_adhd	(15) 문제행동_반항
모학생	3.872	1.279	0.387	5.133	-2.762	0.662	4.079	5.542
	(3.912)	(4.017)	(3.927)	(4.209)	(4.266)	(4.089)	(4.259)	(4.190)
모노동	0.168	1.129	-0.646	1.058	-1.656	0.510	-1.402	-0.866
	(1.618)	(1.662)	(1.625)	(1.741)	(1.765)	(1.692)	(1.762)	(1.733)
부학생	-4.147	-1.743	-3.667	2.782	-1.081	-4.808	-8.056	0.0422
	(5.566)	(5.717)	(5.588)	(5.989)	(6.071)	(5.819)	(6.060)	(5.962)
부노동	-6.752***	-6.298**	-4.986*	-6.354**	-7.360***	-4.463*	-2.933	-7.428***
	(2.569)	(2.638)	(2.579)	(2.764)	(2.801)	(2.685)	(2.797)	(2.751)
가구소득	-0.142	-0.118	-0.0996	-0.240	-0.0411	-0.0348	-0.0661	-0.285
	(0.191)	(0.196)	(0.192)	(0.206)	(0.208)	(0.200)	(0.208)	(0.205)
가구지출	0.252	0.0611	0.380	-0.623	0.862	-0.604	-0.406	1.349*
	(0.671)	(0.689)	(0.674)	(0.722)	(0.732)	(0.702)	(0.731)	(0.719)
자녀지출	0.673	0.497	0.628	0.454	-0.736	1.919	0.575	-1.113
	(1.393)	(1.430)	(1.398)	(1.499)	(1.519)	(1.456)	(1.516)	(1.492)
Constant	54.11***	55.05***	52.58***	55.03***	53.12***	53.62***	54.80***	55.73***
	(2.931)	(3.010)	(2.942)	(3.153)	(3.196)	(3.063)	(3.191)	(3.139)
Observations	3,038	3,038	3,038	3,038	3,038	3,038	3,038	3,038
R-squared	0.154	0.099	0.169	0.094	0.035	0.070	0.084	0.120
Num of N_ID	1,696	1,696	1,696	1,696	1,696	1,696	1,696	1,696

* $p < .1$, ** $p < .05$, *** $p < .01$.

〈표 Ⅴ-2-15〉 사회경제적 배경이 아동의 정서 및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변수	(3) 자존_또래	(4) 자존_모	(5) 자존_전체	(6) 주관적행복	(7) 또래상호작용	(16) 유능감_교사	(17) 유능감_부모
모학생	-0.111	-0.157*	-0.0904**	0.0782	0.0728	0.0663	0.0467
	(0.0726)	(0.0817)	(0.0432)	(0.0868)	(0.0737)	(0.0622)	(0.0448)
모노동	-0.0659**	0.0249	-0.00524	0.0260	0.0735***	-0.00579	-0.0174
	(0.0268)	(0.0302)	(0.0160)	(0.0469)	(0.0284)	(0.0234)	(0.0168)
부학생	0.0754	-0.0522	0.00327	-0.0485	0.0626	-0.0401	-0.0699
	(0.0976)	(0.110)	(0.0581)	(0.112)	(0.0963)	(0.0829)	(0.0621)
부노동	0.0171	-0.0687	-0.0294	-0.00222	-0.00136	-0.0506	-0.0169
	(0.0623)	(0.0701)	(0.0371)	(0.0682)	(0.0271)	(0.0543)	(0.0390)
가구소득	-0.0165*	-0.00248	-0.000955	0.00222	-0.000751	0.0114	0.0214***
	(0.00870)	(0.00979)	(0.00518)	(0.0161)	(0.00328)	(0.00781)	(0.00546)
가구지출	0.0351**	0.0109	0.0113	-0.0179	0.00477	-0.00838	-0.0170
	(0.0168)	(0.0189)	(0.0100)	(0.0195)	(0.0115)	(0.0148)	(0.0106)
자녀지출	-0.0507*	-0.00761	-0.0218	0.0359	-0.0254	-0.00803	0.0169
	(0.0282)	(0.0317)	(0.0168)	(0.0384)	(0.0254)	(0.0247)	(0.0175)
Constant	2.291***	2.431***	2.518***	3.586***	2.456***	2.537***	2.239***
	(0.0654)	(0.0736)	(0.0390)	(0.0961)	(0.0337)	(0.0574)	(0.0410)
Observations	1,397	1,397	1,397	2,801	2,839	1,088	1,449
R-squared	0.013	0.004	0.005	0.269	0.026	0.004	0.014
Number of N_ID				1,544	1,508		

* $p < .1$, ** $p < .05$, *** $p < .01$.

2) 아동발달의 영향요인 및 행태적 기전

앞서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아동발달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사회경제적 변수는 1) 외생성이 비교적 강할 것으로 추측되고, 2)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다양한 요인들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예컨대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는 아동의 발달 상황 이외에 어머니의 능력과 근로의욕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훨씬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는 아동을 직접 돌보는 시간을 양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양육의 질적 수준이 감퇴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소득을 이용하여 육아 기자재를 구매하거나 질 높은 보육시설 이용을 가능케 할 수 있으며,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있는 등 단일 요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지 분명하지 않다.

본 보고서에서 궁극적으로 답하고자 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부모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보육시설의 이용에 외생적인 제한이 되거나 혹은 부모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외부 접촉을 줄이고 실내활동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양육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었을 경우 지연되는 아동발달을 갈음하고자 가정 내 양육 행태를 내생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배경에 덧붙여 직접적인 양육 행태 대한 의사결정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기전에 관여하는 잠재적 매개변수를 추가로 고려하여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흥미로운 결과들을 선별적으로 소개한다.[6)]

앞 소절의 〈표 Ⅴ-2-12〉에서 어머니의 경제활동이 아동의 언어발달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같은 분석에서 아동의 시간 사용을 분석에 포함하였을 때 어머니의 경제활동에 따른 유의성과 일관성이 희석되는 반면, 시간 사용에 따른 유의한 발달 차이를 볼 수 있어 이를 〈표 Ⅴ-2-16〉에 소개하였다.

6) 〈표 Ⅴ-2-5〉에서 〈표 Ⅴ-2-7〉의 회귀분석에는 [부록 4. 분석사용 변수 설명]의 "독립변수"로 분류된 모든 변수들이 통제변수로 포함되었으나 지면 공간의 제약상 유의한 변수들을 중심으로 보고함.

〈표 V-2-16〉 양육 행태가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변수	(1) 수용어휘점수	(2) 수용어휘상	(3) 표현어휘점수	(4) 표현어휘상	(5) 발화점수
가구소득	0.0974	0.00422	−0.0283	0.00178	0.0700
	(0.132)	(0.00557)	(0.120)	(0.00518)	(0.0569)
가구지출	1.028	0.0302	1.318	0.00168	−0.117
	(0.676)	(0.0282)	(0.828)	(0.0262)	(0.107)
자녀지출	−2.773*	−0.143**	−1.086	−0.0324	0.0473
	(1.538)	(0.0613)	(1.537)	(0.0569)	(0.169)
실내활동	−0.464	0.0439	−1.034*	0.00459	0.121
	(0.641)	(0.0266)	(0.587)	(0.0247)	(0.103)
어른보호	−0.513	−0.0594**	−0.127	−0.0152	0.0296
	(0.624)	(0.0256)	(0.566)	(0.0238)	(0.146)
또래활동	−0.0699	0.00483	0.0961	−0.0145	0.316*
	(0.638)	(0.0264)	(0.573)	(0.0245)	(0.161)
학습시간	0.461	0.0913**	0.0820	−0.0138	0.316
	(1.004)	(0.0412)	(0.932)	(0.0383)	(0.196)
총교육시간	1.834	−0.0679	2.379	0.0914	−0.261
	(1.659)	(0.0673)	(1.508)	(0.0626)	(0.215)
지원기관	−1.200	0.0639	−1.957	−0.0821	
	(1.625)	(0.0656)	(1.481)	(0.0610)	
모우울	2.923**	0.0959*	1.188	0.0308	−0.318**
	(1.294)	(0.0537)	(1.181)	(0.0499)	(0.161)
부우울	−3.049**	−0.0472	−1.245	−0.0746	0.153
	(1.203)	(0.0498)	(1.071)	(0.0463)	(0.135)
Observations	1,103	1,136	1,072	1,136	582
R-squared	0.971	0.137	0.980	0.213	0.042
Number of N_ID	828	844	810	844	

* $p < .1$, ** $p < .05$.

다소 의아한 결과일 수 있으나, 어른과 보내는 시간(어른보호)이 언어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오독의 소지는 없어야 한다. 어른보호는 주양육자와의 기본생활, 방문교육, 학원, 복지관,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 등 어른의 보호와 감독이 개입된 모든 시간 사용을 포함하나, 성인과의 밀접한 접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반면 구체적인 학습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시간 사용(학습시간: 교육, 숙제, 공부, 책읽기, 방문교육, 전자매체를 이용한 교육 등을 포함)이 오히려 아동의 언어발달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머니의 경제활동 비참여는 단순한 가사노동과 아동보호는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적극적인 양육 및 교육활동이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7)]

〈표 Ⅴ-2-17〉 양육 행태가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변수	(1) 학습준비_인지	(2) 학습준비	(3) 학업능력_수리	(4) 학업능력
가구소득	0.0177	0.0107	0.0420	0.0373
	(0.0111)	(0.0102)	(0.0260)	(0.0229)
가구지출	0.00353	0.0101	0.0173	0.0252
	(0.0213)	(0.0194)	(0.0497)	(0.0439)
자녀지출	0.00805	-0.00209	0.0762	0.0357
	(0.0336)	(0.0306)	(0.0785)	(0.0692)
실내활동	-0.0171	-0.0160	-0.118**	-0.125***
	(0.0204)	(0.0186)	(0.0476)	(0.0420)
어른보호	0.00603	-0.0117	-0.0537	-0.0816
	(0.0287)	(0.0262)	(0.0669)	(0.0590)
또래활동	0.00953	0.0310	-0.0215	-0.0742
	(0.0318)	(0.0290)	(0.0741)	(0.0654)
학습시간	-0.0120	0.00163	-0.00468	-0.0779
	(0.0386)	(0.0351)	(0.0899)	(0.0793)
총교육시간	-0.0220	-0.00322	0.0594	0.121
	(0.0425)	(0.0387)	(0.0991)	(0.0874)
모갈등	-0.0892***	-0.0660***	-0.126**	-0.131**
	(0.0267)	(0.0243)	(0.0622)	(0.0548)
모노동시간	-0.0187*	-0.0241**	-0.0140	-0.0151
	(0.0103)	(0.00941)	(0.0241)	(0.0212)
모스트레스	-0.0719**	-0.131***	-0.139*	-0.146**
	(0.0337)	(0.0307)	(0.0787)	(0.0694)
부스트레스	-0.0509	-0.0292	-0.169**	-0.136*
	(0.0351)	(0.0320)	(0.0818)	(0.0722)
Observations	619	619	619	619
R-squared	0.087	0.125	0.083	0.100

* $p < .1$, ** $p < .05$, *** $p < .01$.

〈표 Ⅴ-2-13〉에서 인지적 발달의 경우 사회경제적 변수 중 가구소득 요인이 결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추가로 양육 행태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도 이러한 배경 요인은 희석되었으나 소득 및 지출에 대한 부호의 방향성은 유지되었다(표 Ⅴ-2-17 참조). 부모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갈등 인식은 인지적 발달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인지적 발달에 기여하는 추가적인 환경요인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이 길수록 인지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시간 사용 변수 중에는 수면과 실외 활동을 제외한 실내활

7) 아동 지출과 언어발달 사이의 역의 상관관계는 어머니의 경제활동에 따른 추가 지출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부모 우울감의 유의성은 역의 인과관계 혹은 가정 내 책임의 분업에 의한 것일 가능성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특정할 수 없으나, 분석에 대한 독자의 비판적 해석을 위해 함께 보고함.

동(실내활동)이 높은 경우 인지적 발달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습 준비도와 학업능력이 언어와 의사소통, 사회정서발달을 포함하기 때문에 아동의 실내 생활 혹은 어른의 단순 보호 감독이 언어발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앞의 분석 결과(표 V-2-15 참조)와 일관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특히, 유의한 결과가 나온 학업능력의 경우 총점(학업능력)이 수리적 사고 영역(학업능력_수리)에 비해 실내활동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단순 실내활동에 의해 인지발달 보다 언어발달이 예민하게 큰 폭으로 저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Ⅴ-2-18〉 양육 행태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변수	(8) 문제행동_총	(9) 문제행동_내재	(10) 문제행동_외현	(11) 문제행동_정서	(12) 문제행동_불안	(13) 문제행동_발달	(14) 문제행동_adhd	(15) 문제행동_반항
부노동	-4.766	-4.537	-4.776	-3.829	-6.587	-4.808	-0.635	-6.979*
	(4.115)	(4.177)	(4.118)	(4.437)	(4.340)	(4.296)	(4.646)	(4.187)
가구소득	-0.259	-0.152	-0.266	0.0517	-0.271	-0.121	-0.294	-0.411
	(0.308)	(0.312)	(0.308)	(0.332)	(0.325)	(0.321)	(0.347)	(0.313)
가구지출	1.158	0.753	0.568	-0.437	2.402**	0.568	0.433	1.910*
	(1.025)	(1.040)	(1.026)	(1.105)	(1.081)	(1.070)	(1.157)	(1.043)
자녀지출	-0.410	0.308	-0.396	-1.587	-2.831	1.495	-0.556	-2.315
	(2.521)	(2.560)	(2.523)	(2.719)	(2.659)	(2.633)	(2.847)	(2.566)
모갈등	0.871	1.733	2.512	-0.215	-0.482	1.792	1.470	3.259
	(2.282)	(2.317)	(2.284)	(2.461)	(2.407)	(2.383)	(2.576)	(2.322)
부갈등	2.007	1.487	1.297	4.531*	5.080**	0.660	1.462	1.999
	(2.324)	(2.360)	(2.326)	(2.507)	(2.452)	(2.427)	(2.625)	(2.365)
모주중노동	-16.99	-16.09	-9.692	-4.975	-10.28	-15.40	9.541	4.634
	(15.90)	(16.14)	(15.91)	(17.14)	(16.77)	(16.60)	(17.95)	(16.18)
모주말노동	-10.45***	-8.309**	-9.825***	-10.98***	-4.990	-6.328*	-11.13***	-6.292*
	(3.622)	(3.677)	(3.625)	(3.906)	(3.821)	(3.782)	(4.090)	(3.686)
Observations	1,233	1,233	1,233	1,233	1,233	1,233	1,233	1,233
R-squared	0.273	0.221	0.261	0.189	0.138	0.163	0.149	0.220
Number of N_ID	847	847	847	847	847	847	847	847

* $p < .1$, ** $p < .05$, *** $p < .01$.

앞서 아동의 문제행동이 아버지의 경제활동 미참여에 의해 강화되는 양상을 발견하였다. 〈표 V-2-18〉에서 추가적인 행태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버지의 실업은 여전히 아동의 문제행동을 강화하는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그 강한 유의성은 희석되었다.

흥미롭게도 〈표 V-2-14〉의 결과와는 달리 어머니의 노동시간을 주일과 주말을 분리하여 통제했을 때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경감사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주말 노동 변수에서 유의성이 두드러졌다. 이는 아버지의 경제활동 참가 혹은 가구의 소득이 문제행동을 경감시키는 것과 유사한 소득 기전으로 추측된다. 다만, 주중에 일하는 어머니의 경우 유아의 문제행동이 유의하게 낮아지지는 않았는데, 이는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가 양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수 아버지가 어떤 형태로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상황에서 잠재적인 주양육자 역할을 맡게 되는 어머니의 부재는 소득효과를 어느 정도 상쇄하는 효과가 있어 부모를 포함한 주양육자와의 괴리가 문제행동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의 이러한 아동 양육에 있어서 보호를 위한 분업은 〈표 V-2-20〉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데 마지막 두 열에서 아버지의 경제활동 참가가 어머니의 주중 노동은 감소시키는 반면, 주말 노동은 증가시키는 양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 또 다른, 중복되거나 추가적인 경로로, 아버지의 경제활동 미참여와 연관된 아버지의 부부 간 갈등 인식이 아동의 문제행동, 그중에서도 정서적 안정성과 연관된 문제행동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상은 양육에 있어 가구 내 주 소득원과 주양육자의 분업적 양육 행태가 아동 행동 발달에 미치는 잠재적 기전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검정력의 부족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분석되지 않은 행태적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표 V-2-19〉와 〈표 V-2-20〉은 상 분석에서 해석 과정에서 사용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양육 행태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재확인하고, 데이터의 한계로 분석되지 못한 추가적인 행태 변수들에 대한 분석을 보여준다.

예상대로 부모의 경제활동 참가와 아동의 시간 사용 사이에 가장 일관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표 V-2-20 1열-6열). 아버지의 경제활동은 아동의 보육기관 및 교육활동을 높이지만 단순히 보호자 혹은 또래와 어울리는 시간을 줄인다. 반면

어머니의 경제활동은 보육기관, 교육활동, 어른/또래와의 시간을 모두 증가시킨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경제활동은 보육기관과 개인 대리양육자 이용 확률을 모두 높이지만(표 Ⅴ-2-20 7열-8열) 어머니의 경제활동은 개인 대리양육의 이용에만 작용하여, 보육기관과 개인 대리양육의 이용 동기가 다름을 암시하였다. 유사하게 엄마가 학생일 경우 아동의 특별활동 이용 빈도와 시간이 낮았다. 가구소득이 통제된 상황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현상은 개인 대리양육이나 특별활동은 상시적 보육기관과는 달리 사치재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에 사회적 지원의 충분성에 대한 가구별 격차가 있는지 〈표 Ⅴ-2-19〉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가구의 소득의 지출 낮은 경우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원이 높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취약계층에서 보상작용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상호부조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닌지 추측하게 한다. 예외적으로 아동 지출이 높은 경우 사회의 정보적 지원이 더 높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보육 시장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정보교환을 통한 부가적 상호부조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머니를 비롯한 양육자들 간의 정보교환 네트워크가 약화되었다면, 이는 가정 내에서 양육의 비가시적인 질적인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므로, 관련 연구에서 양육의 질적인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Ⅴ-2-19〉 사회경제적 배경이 양육지원 인식과 노동 양태에 미치는 영향

변수	(18) 지원_정서	(19) 지원_도구	(20) 지원_정보	(21) 지원_사교	(24) 모주중 노동	(25) 모주말 노동
모학생	−0.0118	0.0902	0.0535	0.106	0.0131	0.0564**
	(0.0957)	(0.0803)	(0.0807)	(0.0980)	(0.0166)	(0.0256)
모노동	0.0772*	0.0341	0.00264	−0.0391	0.952***	0.213***
	(0.0465)	(0.0389)	(0.0390)	(0.0474)	(0.00709)	(0.0109)
부학생	−0.139	0.180	−0.0353	0.0764	0.0129	0.0149
	(0.136)	(0.113)	(0.115)	(0.139)	(0.0241)	(0.0372)
부노동	−0.109**	−0.0410	−0.0282	0.150***	−0.0164**	0.0233**
	(0.0464)	(0.0388)	(0.0389)	(0.0473)	(0.00735)	(0.0113)
가구소득	−0.00623**	−0.00550**	−0.00275	−0.00377	0.000407	0.000354
	(0.00306)	(0.00257)	(0.00258)	(0.00313)	(0.000493)	(0.000760)
가구지출	−0.0393**	−0.0292*	−0.0338**	−0.0227	−0.000621	0.00500
	(0.0193)	(0.0162)	(0.0163)	(0.0198)	(0.00296)	(0.00457)
자녀지출	0.0577	0.0512	0.0761**	−0.0493	0.0228***	0.00849
	(0.0383)	(0.0321)	(0.0322)	(0.0392)	(0.00608)	(0.00938)

변수	(18) 지원_정서	(19) 지원_도구	(20) 지원_정보	(21) 지원_사교	(24) 모주중 노동	(25) 모주말 노동
Constant	3.856*** (0.0452)	3.893*** (0.0379)	3.768*** (0.0382)	3.904*** (0.0464)	-0.0271*** (0.00764)	-0.0111 (0.0118)
Observations	4,490	4,503	4,550	4,550	6,189	6,189
R-squared	0.134	0.045	0.019	0.362	0.820	0.098
Number of N_ID	1,790	1,789	1,790	1,790	1,824	1,824

* $p < .1$, ** $p < .05$, *** $p < .01$.

〈표 Ⅴ-2-20〉 사회경제적 배경이 양육 행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변수	(1) 실내활동	(2) 어른보호	(3) 또래활동	(4) 학습시간	(5) 총교육시간	(6) 지원기관	(7) 대리양육	(8) 보육기관	(9) 특활횟수	(10) 특활시간
모학생	0.0272	-0.103	-0.344**	-0.0716	-0.273	-0.307**	-0.0916	-0.000242	-1.893**	-103.9***
	(0.153)	(0.175)	(0.155)	(0.0935)	(0.201)	(0.148)	(0.0887)	(0.0748)	(0.836)	(35.45)
모노동	0.527***	0.628***	0.376***	-0.0384	0.527***	0.585***	0.0296*	-0.0205	-0.347	-9.669
	(0.0652)	(0.0747)	(0.0662)	(0.0399)	(0.0857)	(0.0639)	(0.0157)	(0.0279)	(0.297)	(12.56)
부학생	-0.118	0.190	0.162	-0.0454	0.0968	0.243	0.208*	0.110	0.925	68.44
	(0.222)	(0.254)	(0.225)	(0.136)	(0.291)	(0.215)	(0.106)	(0.102)	(0.982)	(41.95)
부노동	-0.702***	-0.854***	-0.631***	-0.0371	1.047***	0.284***	0.0634***	0.131***	0.336	16.32
	(0.0676)	(0.0775)	(0.0686)	(0.0414)	(0.0889)	(0.0684)	(0.0114)	(0.0259)	(0.283)	(12.00)
가구소득	0.00590	-0.00411	0.00184	0.00303	0.00534	0.000655	6.33e-05	-0.000821	0.0154	0.729
	(0.00453)	(0.00519)	(0.00460)	(0.00277)	(0.00596)	(0.00450)	(0.000677)	(0.00164)	(0.0166)	(0.697)
가구지출	0.0132	-0.0226	0.0116	-0.0120	-0.00504	0.00202	-0.00219	-0.00671	0.00831	-2.886
	(0.0272)	(0.0312)	(0.0276)	(0.0167)	(0.0358)	(0.0267)	(0.00598)	(0.0113)	(0.113)	(4.784)
자녀지출	-0.0623	0.193***	0.0231	0.0873**	0.230***	0.195***	0.0370***	-0.0103	0.526**	26.52**
	(0.0559)	(0.0641)	(0.0567)	(0.0342)	(0.0735)	(0.0555)	(0.0135)	(0.0234)	(0.267)	(11.26)
Constant	2.699***	1.863***	1.543***	0.574***	5.894***	6.744***	-0.0163	0.807***	2.436***	69.40***
	(0.0703)	(0.0806)	(0.0713)	(0.0430)	(0.0925)	(0.0728)	(0.0154)	(0.0279)	(0.336)	(14.18)
Observations	6,189	6,189	6,189	6,189	6,189	5,892	3,308	4,759	2,635	2,608
R-squared	0.934	0.851	0.857	0.697	0.246	0.046	0.053	0.285	0.309	0.357
Number of N_ID	1,824	1,824	1,824	1,824	1,824	1,815	1,790	1,817	1,519	1,509

* $p < .1$, ** $p < .05$, *** $p < .01$.

라. 시사점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보았을 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기전들이 존재한다. 경기위축과 경제구조 변화로 인한 구조적 실업과 소득감소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발육부진과 (학업과 학습 영역의) 인지적 발달 부진이 가능하다. 이러한 영향은 고용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어머니 등 주양육자의 실직으로 인해 보호자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아동의 언어발달 등이 단기적으로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기전 분석(표 V-2-16, 표 V-2-17)에서 보였듯이 언어와 인지 발달은 단순히 보호자와의 시간적 공유가 아니라, 적극적인 학습활동으로 이어져야 실효성을 갖는다. 특히 밀접 접촉을 기반으로 한 학습 기회가 제한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경기 부진으로 인해 가정 내 이차적 노동자(secondary worker)까지 생업 전선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 대안적 학습 기회는 매우 축소되어 학습 격차를 심화시켰을 수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 또한 인지적 발달과 유사하게 아버지의 경제활동의 참가 혹은 잠재적으로는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가구 내 경제적 안정성이 악화되고, 가정 내 소득활동과 양육 활동 사이의 분업이 이루어진다면 주양육자의 부재로 인한 아동의 문제행동이 더욱 강화될 수 있어 이는 동태적인 발달 지체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보육시설의 이용에 제약이 있을 경우 효율적 분업결정에도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이러한 한계(margin)상황은 사회적인 취약계층이 더 크게 노출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차별적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 마주하는 경기 악화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일정 수준의 사회적 격리 상태 마주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부모의 스트레스와 가정 내 갈등을 고조시킨다면, 아동의 문제행동과 정서적·인지적 발달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1차년도 결과를 집단 특성에 따라 심층 분석하여 제시하고, 2차년도 결과와 종단 비교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을 해석하기 위해 코호트 집단인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와 1, 2차년도 집단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요약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참여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주관적 인식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모의 인식이 교사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만 2세반 영아 시기(1차년도)와 만 3세반 유아 시기(2차년도)의 부모와 교사 간 정서발달에 대한 인식 차는 2차년도에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만 3세반 유아 시기의 언어발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1차년도와는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만 5세반 유아 시기(1차년도)와 초등 1학년 아동(2차년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은 만 5세반 유아 시기의 정서발달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높았으나 초등 1학년 아동 시기에는 신체발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둘째, 1, 2차년도 참여자의 인지발달과 적응행동을 비교한 결과, 인지발달은 전반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큰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 1학년 아동은 언어이해 지표에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행동 또한 전반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유의한 점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 생활기술 영역, 사회성 영역에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졌다. 반면 수용, 표현 하위영역과 의사소통 영역은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 모두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만 3세반 유아의 1, 2차년도 결과를 비교하면, 인지발달의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그림명명 항목이 2차년도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응행동은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졌는데 특히, 생활기술과 사회성 영역의 점수가 상승하였다. 성별에 따른 인지발달의 1, 2차년도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적응행동 조합점수, 생활기술과 사회성 영역의 점수가 상승했고, 표현 하위영역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인지발달은 1, 2차년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적응행동 조합점수와 대처기술, 대근육 하위영역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도 인지발달은 1, 2차년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 생활기술과 사회성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초등 1학년 아동의 1, 2차년도 결과를 비교한 결과, 인지발달 전체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언어이해지표 점수가 다소 하락하였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 생활기술과 사회성 영역에서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인지발달 점수는 차이가 없었으나 상식 소검사 점수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고, 적응행동 조합점수, 생활기술과 사회성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하위영역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인지발달은 1, 2차년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적응행동 조합점수, 생활기술 영역에서의 차이가 유의했으며, 개인, 가정, 대근육 하위영역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도 인지발달은 1, 2차년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양맞추기 소검사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 생활기술과 사회성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과 차수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인지발달의 전체 점수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시공간지표와 위치찾기와 모양맞추기 소검사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적응행동에서는 대근육 하위영역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다섯째, 본 연구 집단의 비교군으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모의 경제활동 참가와 아동의 시간 사용 사이의 일관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아버지의 경제활동은 아동의 보육기관 및 교육활동을 높이는 반면, 보호자 혹은 또래와 어울리는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경제활동은 보육기관, 교육활동, 성인과 또래와의 시간을 모두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어머니 등 주양육자의 실직으로 인해 보호자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아동의 언어발달 등이 단기적으로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밀접 접촉을 기반으로 한 학습 기회가 제한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경기 부진으로 인해 가정 내 이차적 노동자(secondary worker)까지 생업 전선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 대안적 학습 기회는 매우 축소되어 학습 격차를 심화시켰을 수 있다.

VI

논의 및 제언

01 요약 및 논의
02 제언

Ⅵ. 논의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누적된 2022년 시점에서 영유아기에 팬데믹을 경험한 취학 전-후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발달, 학습 및 자녀 양육 가구의 돌봄과 교육·보육 현황과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으며(1차년도), 2차년도(2023년) 연구의 목적은 2년에 걸쳐 종단적으로 추적·조사하여 영유아에게 미치는 누적적인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국내외 연구 동향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분석한 결과, 신체·건강 발달 측면에서는 미디어 노출 시간과 좌식 생활의 증가,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수면 등으로 인해 비만과 유병률을 증가시켰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임산부의 건강 상태에 따른 아동의 발달과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들도 발육부진, 사망, 산모 빈혈 등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대다수의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간의 격리 또는 이동 제한이 끝나더라도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과 중간 소득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언어·인지 발달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환경 변화가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미디어를 활용한 자녀와의 독서가 증가하였으며, 부모들은 문해력의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고, 독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은 교사가 자료를 맥락에 맞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여 주변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 언어

발달 지연, 이후의 학습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한편 사회·정서발달 측면에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감내해야 했던 스트레스 상황이었으나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환경이 아동에게 더 큰 스트레스 요인을 작동했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초점을 둔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는 가정, 기관(학교), 정부의 노력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가 상쇄되기도 하지만 급격한 디지털로의 전환에 따른 계층, 지역, 국가 간 격차로 아동의 발달과 학습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상기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아동발달과 학습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겪은 아동의 종단 추적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미치는 큰 영향력을 고려하여 특정 집단에 초점을 둔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연구참여자 부모 및 임상사례 전문가 대상 심층면담 결과

본 연구의 참여 부모와 임상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집한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가정의 양육환경 변화와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과 학습의 요인으로 작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정에서의 돌봄 시간을 증가시켜 주양육자(특히 어머니)의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며, 주양육자의 관심 정도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엄마표' 학습 지원과 사교육 이용의 증가와 맞물려 결과적으로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발달과 학습 격차의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지발달 측면에서는 가정의 관심과 경제력이 높은 경우에는 발달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반면 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관심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해 가구의 상황에 따라 기초 학력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언어발달 측면에서는 마스크의 사용으로 영유아기의 언어발달 지연의 우려가 있었으나 언어발달 지연 문제는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과 양육환경에 따른 표현어휘의 격차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언어·인지 발달은 가정

의 양육환경, 부모(특히 母)의 관심에 따라 격차 요인을 상쇄하거나 빠른 회복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을 연구참여자 부모와 임상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은 학생일수록 더 장시간 사교육을 받았고, 사교육 시간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여건이 좋은 가정은 보호자가 자녀의 학습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오히려 사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었다는 연구결과(박미희, 2020)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가정에서의 돌봄에 따른 영향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격차를 심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정서발달에 있어서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과 무기력, 소통의 어려움, 혼자놀이의 선호 등과 같은 문제들을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로 나타나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다. 2차년도 발달검사 결과

본 연구에서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만 3세반 유아는 전반적으로 부모의 인식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정서발달에서 부모와 교사 간 인식의 격차가 다른 영역보다 크게 나타났다. 반면 초등 1학년 아동은 부모와 교사 간의 인식 차이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으나 신체발달에 대해서는 부모보다 교사의 인식이 더 높았다. 또한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점수는 1차년도와 동일하게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도 평균 수준이었으나 생활기술 영역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초등 1학년 아동의 인지발달도 평균 수준이었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도 평균 수준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성별, 부모의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점수 평균, 적응행동 조합점수 전체는 차이가 없었고, 인지발달의 일부 소검사(선택하기 등)와 인지효율성 지표에서 여아가 높았고, 공통성, 그림명명 소검사에서 맞벌이 가구 유아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 중 일부 하위영역(수용, 표현, 대인관계)와 주영역(의사소통 영역과 사회성 영역)에서 가구소득이 600만 원 이상 가구 유아의 점수가 더 높았다. 한편 초등 1학년 아동은

인지발달 평균 점수와 적응행동 조합점수 모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영역인 대근육에서 남아가 더 높았으며,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인지발달의 전체 평균은 차이가 없었으나 소검사(모양맞추기)과 시공간지표에서만 외벌이 가구 아동의 점수가 더 높았다. 반면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인지발달 전체 평균과 적응행동 조합점수 모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전체 점수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만 3세반 유아의 인지발달과 적응행동의 세부 항목에서 성별, 부모의 맞벌이 여부,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고, 초등 1학년 아동의 적응행동은 하위영역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사례 수의 제한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적응행동과 같은 정서적 측면은 심층결과에서 나타난 부모의 인식과 임상전문가의 사례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 1, 2차년도 결과의 횡종단 비교 결과

1, 2차년도 참여자의 인지발달과 적응행동을 비교한 결과, 인지발달은 전반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큰 차이가 없으나, 초등 1학년 아동의 경우 언어이해지표에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행동 또한 전반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유의한 점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응행동 조합점수, 특히 생활기술과 사회성 영역에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유의하게 높아졌다. 반면 수용, 표현 하위영역과 의사소통 영역은 만 3세반 유아와 초등 1학년 아동 모두 1차년도와 2차년도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 1학년 시기의 언어이해지표 점수 하락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인지발달은 유전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Shaffer & Kipp, 2013)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은 반면, 언어발달의 경우 입력 즉 경험이 중요하며 특히 영유아기의 경우 언어발달의 민감기임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연구와 장기적인 종단 추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 집단의 비교군으로 한국아동패널의 해당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기전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더불어 경기위축과 경제구조 변

화로 인한 구조적 실업과 소득감소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발육부진과 인지적(학업과 학습 영역의) 발달 부진도 심화될 수 있어 고용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어머니 등 주양육자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아동의 언어발달 등이 단기적으로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데, 언어와 인지 발달은 단순히 보호자와의 시간적 공유가 아니라, 적극적인 학습 활동으로 이어져야 실효성을 갖는다. 특히 밀접 접촉을 기반으로 한 학습 기회가 제한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경기 부진으로 인해 가정 내 이차적 노동자(secondary worker)까지 생업 전선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고려하면,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 대안적 학습 기회는 매우 축소되어 학습 격차를 심화시켰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부모의 스트레스와 가정 내 갈등을 고조시킨다면, 아동의 문제행동과 정서적·인지적 발달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양육자와 보내는 시간의 질, 발달과 학습에의 관심이 높은 집단과 고용불안의 위험 등으로 부모의 스트레스가 높고,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발달과 학습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정서적인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발달 영역별 지원, 가정환경요인으로써의 부모 지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영향 추적 및 지원, 생애 초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세대의 중장기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구분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Ⅵ-2-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터의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

영역	과제
아동의 발달 영역별 지원	- 언어발달의 종단 추적 - 또래관계(사회성 발달) 기회 확대 - 아동의 정서발달 우선 지원 - 신체활동(운동) 기회 제공
부모 지원	-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 아동발달 시기별 맞춤형 지원 -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 주양육자의 심리적 소진 완화 지원

영역	과제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 및 기초학습 지원 강화 - 취약계층 중점 지원 예산 확대 - 삶의 질 전반에 대한 격차 완화
코로나19 팬데믹 세대의 발달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영유아 건강검진과 연계한 발달 모니터링 - 시·도 교육청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 드림스타트 센터 등과의 영유아 발달 연계 지원 - 발달 및 학습에서의 지역 격차 요인 등을 고려한 후속연구 추진

가. 아동의 발달 및 학습 지원

1) 언어발달의 종단 추적

언어발달은 개념 형성 및 추상적 사고력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지적 능력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미래의 지능을 예측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으며, 언어발달장애는 2세에서 4세 소아의 발달 장애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데 유병률은 전체 소아의 5-10%로 알려져 있고, 남아의 빈도가 여아보다 더 높다(김소연, 정연경, 정혜리, 김우택, 신임희, 박정한, 김행미, 김진경, 2004). 언어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의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되기도 하나 언어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발음이나, 정서, 행동, 학습 문제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김소연 외, 2004: 496). 본 연구결과, 만 3세반 유아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초등 1학년 아동의 언어이해지표에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전문가들이 언급한 심층면담 사례에서도 전문가들은 2023년에는 언어발달 지연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학령기 이후 언어발달 지연은 다소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표현언어 측면에서 발화하는 양 대비 표현어휘의 수준 저하, 늦은 발화, 부적절한 억양 등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이 다소간 이견이 있는 결과는 초기 언어발달이 인지 발달과 학습 간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의 회복 현상에 안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을 통해 해석되고,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또래관계(사회성 발달) 기회 확대

사회성 발달 이론에 따르면 유아기는 사회적 관계망의 폭을 확장시키는 시기로

서 이 시기 유아는 부모-자녀 관계를 넘어서서 다른 성인과의 관계,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를 활발하게 형성하게 된다. 유아가 어린이집과 같이 또래집단이 존재하는 양육환경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유아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또래 간의 사회적 관계 형성의 필요에 노출된다(장영은, 성미영, 2015: 2). 유아가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학령 전기의 핵심적인 발달과업이며, 이후 학교 준비도 및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선행연구들은 밝혀왔는데, 학령전기 유아가 보이는 또래유능성의 부족, 즉 부정적인 또래관계가 이후 학업성취 및 행동문제와 관련된다고 언급하였다(Coolahan, Fantuzzo, Mendez, & McDermott, 2000; Denham & Holt, 1993; Doctoroff, Greer, & Arnold, 2006; 장영은, 성미영, 2015에서 재인용).

본 연구의 참여 부모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외부활동을 제한하였고, 이로 인한 공간적 제약은 아동의 놀이기회 부족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아동은 혼자 놀이를 선호하고, 친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을 우려하기도 했다. 임상전문가들도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는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피해 의식이 증가하였으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갈등 시 공격성을 보이거나 위축된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또래관계에서도 특히 유아의 경우, 혼자놀이에 익숙한 경향을 보이며, 또래관계에 관심이 부족하고, 방법을 잘 몰라서 과잉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임상 전문가들은 말하지 않는 아동을 모범적으로 인식하는 교육환경, 기관이나 학교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인한 소통의 기회 부족, 안전을 우선시하는 통제적인 환경이 또래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현상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기회와 경험의 부족으로 위축된 코로나19 팬데믹 세대를 위해 가정과 기관(학교)에서 또래와의 다양한 형태의 놀이 기회와 또래와의 활동을 보다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아동의 정서발달 우선 지원

김선숙과 김진숙(2020: 204)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아동들의 우울과 불안이 급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개입의 시급성을 보고하였으며, 아동

은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경험하게 되는 데 반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하여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으며, 이는 우울과 불안의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아라, 2020).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구소득의 감소 정도가 아동의 감정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의 식습관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부정적 감정 발달이 감소하며, 보호자의 가정 내 어려움과 불안,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보호자의 소득감소가 지속되는 경우 아동의 부정적 감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이화조, 이봉주, 임선영, 2023).

본 연구의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임상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정서발달 변화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과 대면접촉에 대한 불안이 있으며, 외부환경을 위험하게 지각하여 무섭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불안이 위축된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하며, 경험부족으로 인한 양육자와의 분리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의 아동의 외부 적응에 대한 불안이 신체화 증상(섭식, 배변 관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선택적 함묵증상이 발견되기도 하며, 문제 발생 시 해결하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와 같은 무기력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서 증상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방역중심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책으로 인해 일상성이 저해되고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 욕구가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 영향력의 크기보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의 경험이 세대 특성과 맞물려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가정과 기관(학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아동 개개인의 정서에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신체 활동(운동) 기회 제공

코로나19 팬데믹에 관한 연구들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활동량이 더욱 감소하였고(남수미, 박혜연, 김형남, 김민주, 2021; Lee et al., 2022), 부족한 신체 활동은 심리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강병관, 박성제, 2020; Parfitt, Pavey, & Rowlands, 2009). 이화조,

이봉주, 임선영(2023)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아동의 신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식습관과 온라인 게임시간, 보호자의 가정 내 어려움과 불안, 양육스트레스, 소득감소가 아동의 신체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발달검사 참여 아동들도 가정에서 좌식 생활하면서 활동량이 감소하고,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운동(활동)의 감소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 결과, 만 3세반 유아의 체질량 지수는 평균 15.74로 정상 범위(유아 BMI 지수)에 속하며, 전년 만 2세 때보다 0.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 1학년 아동의 체질량 지수는 평균 16.25로 전년 만 2세 때보다 0.30 늘어났으나 정상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아동의 신체발달과 관련하여 김지현(2022)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아동의 균형 있는 식생활, 운동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하며, 아동의 비만 상담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아동비만 클리닉을 확대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체질량 지수와는 다르게 심층분석에서는 아동이 가벼운 산책 등 일상적인 걷기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가정과 기관(학교)에서 아동의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제한되었던 활동(운동)의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나. 부모 지원

1)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정보 제공

본 연구의 참여 부모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기본생활습관 형성 부족을 언급하였으며, 임상전문가들도 경제력이 큰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여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학력이 저하되었고, 과잉보호의 증가가 자기조절을 학습할 기회를 감소시켰으며, 가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감염 예방과 학습에 집중하여 사회정서발달 측면을 간과한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 부모들은 다른 아이와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자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양육정보의 편향으로 해석의 오류를 가지고 있음이 언급되었다. 다양한 정보들이 공존하는 온라인상의 육아와 학습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에 의존하여 아동발달과 학습에 대한 오해

나 오개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 등)과 학교의 부모교육을 내실화하고, 아동발달과 관련된 신뢰할 만한 정보를 담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2) 아동발달 시기별 맞춤형 지원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학습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유아 맞춤형 지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저해된 유아 행복감 회복 및 언어·정서·신체발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과후 과정 모델 운영, 유아의 충분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후 유치원의 놀이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 바 있다(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 2021). 본 연구에서 임상전문가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발달지연의 우려가 크며, 발달지체나 장애를 가진 경우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측면에서 지적 자극의 결여와 제한, 소통의 부족, 과잉보호, 잘못된 양육 정보(인터넷 자료, 카페의 비전문적 지식, 선택적 정보 취득 등)로 인한 문제를 발달과 학습의 저해 요인으로 인식하였고, 양육자(특히 어머니)의 교육 열의를 긍정적 요인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아동 연령에 따라 영향을 받는 요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동의 발달 시기별로 필요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요즘 세대에게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만 훈육한다면 디지털 과의존 문제 해결 전에 자녀와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이라(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는 지적과도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미디어 활용의 증가가 영유아기 미디어의 조기 이용과 과이용을 허용하게 된 계기가 된 측면도 있다. 특히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학력 수준이 높은 경우, 그 자녀는 유해 정보보다 정보 이용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인터넷을 더 잘 활용하고(김은미, 정화음, 2007; Eynon, 2009),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의 자녀는

게임이나 친구와의 연락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나(Koivusilta, Lintonen, & Rimpelä, 2007) 긍정적인 미디어 활용방법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김은미, 정화음, 2007).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미디어 노출은 불가피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세대 특성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 등)과 학교의 부모교육과 홍보자료를 통해 미디어 사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미디어 교육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4) 주양육자의 심리적 소진 완화 지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주양육자의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의 경험은 배우자 갈등이나 자녀 학대 등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어 부모 소진에 관련된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김영희, 김선미, 김유미, 정혜숙, 2022)는 장기적인 재난 상황과 경제적 상황에 따른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보호자의 심리적 소진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통의 관심을 가진 부모들이 온오프라인 자조모임을 통해 정서적 지원과 심리적 소진 완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진단되는 소진과 우울에 대한 기제를 밝히고,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 취약계층 조기 개입 강화

1)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 및 기초학습 지원 강화

아동은 성장 과정에 있으므로 스트레스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요인들에 대한 우선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부정적인 발달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이화조, 이봉주, 임선영, 2023).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주양육자의 관심과 사교육 이용에 따라 인지발달과 기초학습에서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음을 국내외 연구와 본 연구의 심층분석,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임상전문가들도 학년 상승에 따른 기초학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비해 학업 우수아와 부진아

의 격차가 커지고, 학업의 평균 수준의 분포가 감소하고 있음을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본 연구를 포함한 국내외 여러 연구들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생애 초기 격차 완화를 위한 조기 개입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김경근(2005)은 교육격차가 학교의 교육여건보다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 초래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며, 현재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의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드림스타트의 아동 연령별 대상자 현황을 보면, 드림스타트 전체 대상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영유아의 수와 비중은 감소한 반면, 취학대상 아동의 수는 증가하였고, 드림스타트의 영유아 대상 지원이 축소되었다는 지적도 있다(박은정, 유해미, 2020).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집단을 임의 표집하기 위해 드림스타트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 의향을 밝힌 센터나 지원자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을 구성하지 못해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한 시점으로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한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취약계층 중점 지원 예산 확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시, 정책적 방향이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 아동발달을 고려한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동은 발달적으로 성인과 다른 양상의 충격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오혜영, 안현의, 김은영, 2012),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취약 대상을 지원함에 있어서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이화조, 이봉주, 임선영, 2023)는 지적도 있다. 2019년 5월 30일 뉴질랜드 의회는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예산인 '2019년도 행복 예산(The Wellbeing Budget 2019[8])'을 심의·의결하였는데, 행복 예산은 "경제적으로 잘되는 것이 모든 국민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8) New Zealand Government. (2019). The Wellbeing Budget 2019 https://www.treasury.govt.nz/sites/default/files/2019-06/b19-wellbeing-budget.pdf에서 2024. 1. 30. 인출.

인정하였다(허종호, 2023). 즉,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 발전 지상주의로는 정신건강 위기, 아동 빈곤, 가정폭력,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문제에 의미 있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로 2018년 12월에 발표한 예산정책성명서에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여섯 가지 핵심 분야(정신건강 증진, 아동빈곤 개선, 마오리족과 남태평양 주민 보호, 국가생산성 증진, 경제구조 전화)를 제시하였다. 2023년에도 행복예산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과 자연 재난 등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있다(허종호, 2023)는 점은 보편지원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책 기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3) 삶의 질 전반에 대한 격차 완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 자체로 학업성취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간접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자녀는 경제자본 외에도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의 결핍으로 인해 다각도로 열악한 여건에 처하게 되고, 그 결과 학업성취가 낮아지게 된다(김경근, 2005).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격차 관련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발달과 학습 격차를 강조하고 있으나, 다차원적인 삶의 질 전반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에 따라 주관적 행복감,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연구들도 자기 삶에 대한 평가, 학업 등을 비롯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한 걱정, 여러 영역에서의 낮은 만족도, 그리고 주양육자의 부재로 인한 돌봄 공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계층에서 더 부정적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할 때 삶의 전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라. 코로나19 팬데믹 세대의 발달 모니터링 체계 구축

1) 영유아 건강검진과 연계한 발달 모니터링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발달 단계(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에 있었는지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코로나19 팬데믹 세대의 사회·정서발달 지원 연령대의 아동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증거 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이 도입되어야 한다(이화조, 이봉주, 임선영, 2023)는 지적은 여러 차원의 종단 추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육부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유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유아를 조기 개입이 필요한 유아로 선별하여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관계부처합동, 2023: 17). 중앙부처의 정책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영유아 건강검진을 보완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

2) 시·도 교육청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 드림스타트 센터 등과의 영유아 발달 연계 지원

교육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유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지연 및 정서 위기 유아에 대한 치료 지원 프로그램 안내하고, 유아교육진흥원과 연계 상담 지원, 수업 지원 교사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3: 17). 또한 보건복지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를 위한 보육 및 양육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으로(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23: 480)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과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및 양육서비스, 양육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및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사업, 유관기관 연계사업 등 다양한 보육·양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23: 498).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세부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Ⅵ-2-2〉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내용

구 분	사 업
어린이집 지원사업	• 어린이집 지원 – 어린이집 컨설팅, 열린어린이집 지원, 부모모니터링 지원,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취약보육 지원,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등 •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 표준보육과정 연수, 누리과정 집합연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보수교육 실시 위탁), 보육교직원 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사업	• 부모교육 – 부모교육 (가정 내 양육환경 점검, 부모 양육태도 점검, 자녀권리존중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유아 발달 이해 교육, 양육 스트레스 관리 등), 부모·자녀 체험활동,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 – 육아콘텐츠 개발 및 지원 • 양육서비스 – 부모상담,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지원, 도서·장난감 등 제공 및 대여,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영유아 발달 검사**, 양육관련 정보 제공 등
기타 사업	•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연계사업 • 보육교직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 • 보육 및 양육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023). 2023년 보육사업안내. p. 498.

한편 저소득층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가정환경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예방과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드림스타트의 주요 사업은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발달 지원 서비스와 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로 구분된다.

〈표 Ⅵ-2-3〉 드림스타트 사업 내용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예시)
신체·건강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 • 아동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정보 제공	•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영양교육 등
인지·언어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 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배양, 경제교육, 독서지도 등
정서·행동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사회성 발달 및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교육	• 사회성발달프로그램, 아동학대예방, 심리상담 및 치료, 돌봄기관 연계 등
부모·가족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부모취업지원, 산전산후관리 등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예시)
	• 부모의 양육기술 지원 •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소개, 아동성장·돌봄,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사업안내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27&cntntsId=1055에서 2023. 10. 16. 인출

영유아 발달 지원이라는 공통의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유아교육진흥원, 보건복지부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모든 영유아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선술한 바 있듯이 위기에 보다 더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

3) 발달 및 학습에서의 지역 격차 요인 등을 고려한 후속 연구 추진

일반적으로 교육격차 논의의 주된 대상은 계층 간, 지역 간 격차로 계층 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업성취 사이에 강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은 교육사회학의 오래된 명제이다(김경근, 2005: 4). 그러나 한국의 지역 간 교육격차에 관한 논의는 주로 도·농간 격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지역 간 교육격차가 곧 계층별 격차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지만 지역 간 교육격차는 계층 간 격차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김경근, 2005).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동안 아동발달과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아동의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연환경에 많이 노출된 아동들은 좀 더 자유롭게 신체활동이 가능했지만, 주로 도시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아파트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충분한 신체활동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Dunton, Do, & Wang, 2020)는 지적도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영향을 받은 서울과 경기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소득을 고려하여 표집하였으나 예산상의 한계 등으로 연구참여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향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종단 추적하는 연구는 지역, 연령, 계층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구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민아, 이영신(2020). 디지털 영상매체 이용시간과 가정문해환경 수준에 따른 영아의 언어발달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9), 973-999.

강병관, 박성제(2020). 코로나 19 로 인한 배드민턴 동호인의 운동참여여부에 따른 정신건강과 생활만족 차이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15(4), 579-588.

강세미, 엄정애(2007). 만 3세 유아의 정서지능과 유치원 적응간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2(1), 5-22.

강수정(2021). 아버지의 유아기 양육참여가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실행기능 곤란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2(2), 173-183.

강하라(2022). 코로나19와 영유아 보육 경험 및 요구. 부산여성가족브리프, 57, 1-4.

계보경, 김혜숙, 이용상, 김상운, 손정은, 백송이(2020). COVID-19 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기초 통계 결과를 중심으로.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부처합동(2023).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2021).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 -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

구인회(2021). 팬데믹과 양극화. 교육정책포럼(332호, 2021. 2.1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구인회, 박현선, 정익중(2006).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10(3), 269-295.

권소정, 이강이(2018). 부모-자녀 상호작용, 직·간접 돌봄지원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모의 근로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12(2), 57-81.

권순애, 강주원(2021).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어

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G지역 새일센터 사례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3(2), 47-73.

권유진, 박준홍, 우연경, 이재진, 정연준, 홍미영, 김미지(2021). 초·중학교 원격수업에서의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김경근, 강영혜(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원인.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723-747.

김미숙, 배화옥(2007). 한국 아동빈곤률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27(1), 3-26.

김선숙, 김진숙(2020). Covid 19 상황에서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기대: 아동복지 종사자 인식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52, 203-229.

김성식(2019).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학업수행에 대한 가정배경, 유아시기 교육경험 학생 교사 관계 변인의 영향. 초등교육연구, 32(1), 15-36.

김성현(2022). 어머니의 코로나 19 스트레스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 181-194.

김소연, 정연경, 정혜리, 김우택, 신임희, 박정한, 김행미, 김진경(2004). 언어발달 지연아의 발달지수와 후기 지능과의 관련성.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47(5), 496-504.

김순환, 조해연, 김민정(2013). 만 4세 유아의 언어능력, 정서지능과 유치원 적응. 어린이미디어연구, 12(2), 97-121.

김영란(2020).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KWDI Brief, (60), 1-7.

김영미(2021). 유아와 부모의 행복감 잠재집단유형에 따른 학교준비도 및 사회적 유능감 차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8(2), 115-131.

김영천(2012). 질적연구방법론1. 아카데미프레스.

김영천, 김진희(2008).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분석-소프트웨어 접근의 이해. 교육인류학연구, 11(1), 1-35.

김영희, 김선미, 김유미, 정혜숙(2022). 어머니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

계에서 부모역할 스트레스와 부모소진의 매개효과: 사회적 지지의 다중집단 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31(4), 477-490.

김위정(2020). 코로나19가 던진 교육격차 문제와 과제. 서울교육, 특별기획 겨울호(241).

김유리(2021. 8. 18). 코로나19 전후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 변화: 서울학생들을 중심으로. 서울교육이슈페이퍼, (32),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김은미, 정화음(2007).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격차에 관한 탐색. 언론정보연구, 43(2), 125-161.

김은설, 도남희, 왕영희, 송요현, 이예진, 정영혜, 김영원(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배윤진, 조숙인, 이예진, 송신영, 임준범, 박은영, 김신경, 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 (한국아동패널 Ⅱ). 육아정책연구소.

김정화, 송미령(2014). 저소득 가정의 조기개입 프로그램 참여유무에 따른 영유아 발달 및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6), 123-141.

김지우, 김나영, 남재현(2021). 코로나19와 불평등 -코로나19가 아동의 인적자본 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70(2), 167-195.

김지현(2022). 한국아동, 코로나19 전후의 여가시간 사용 및 생활습관의 변화. 육아정책 Brief, 제91호. 육아정책연구소.

김진미, 홍세영(2017). 유아의 학교준비도 영향요인 분석. 육아정책연구, 11(2), 169-194.

김태동(2016).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사의 지지 변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99, 19-34.

김혜랑, 정애경(2022) 코로나19 시기 초등교사의 생활지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초등상담연구, 21(2), 205-228.

남수미, 박혜연, 김형남, 김민주(2021). COVID-19 상황에서 무용전공 대학생의 신체활동 및 심리상태. 한국무용학회지, 21(3), 15-29.

노혜진(2022). 코로나19 이후 아동가구 부모의 우울 변화에서 빈곤 여부에 따른 격차. 보건사회연구 42(3). 199-219.

류방란, 김성식(2006).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민미희(2018).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및 통제적 양육과 아동의 집행기능 곤란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3), 91-121.

박경호, 김지수, 김창환, 남궁지영, 백승주, 양희준, 김성식, 김위정, 하봉운(2017). 교육격차 실태 종합분석. 한국교육개발원.

박근주(2014).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 어머니-유아 간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자아존중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미희(2020).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0(4), 113-145.

박병영, 김미란, 김기헌, 류기락(2011).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Ⅲ): 교육계층화와 사회이동 추이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박유영, 홍지명(2010). 유아의 유치원 적응력과 자기조절능력 및 또래상호작용과의 관계. 유아교육 · 보육행정연구, 14(4), 289-309.

박은영, 조은정, 정주선(2015). 만 3세 유아의 유치원 적응과 놀이성 및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9(3), 193-218.

박은정, 유해미(2020). 영유아를 둔 빈곤가구의 양육실태 및 지원방안. 육아정책포럼, 63(10). 6-15.

박인우(2021). 교육격차와 수업설계. 샤교육저널, 3, 33-42.

박주호, 백종면(2019). 교육격차 실증연구의 체계적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7(1), 213-238.

박찬옥, 안은정(2008). 3세 유아에게 적합한 자율성 교육방향 모색. 아동과 권리, 12(3), 331-360.

박창남, 도종수(20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2, 281-303.

박현선(2004). 학업중퇴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청소년상담연구, 12(2), 69-82.

박혜원, 이경옥, 안동현(2015). WPPSI-Ⅳ 기술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박희현, 노복순(2015). 놀이치료자가 지각하는 긍정적인 치료자 특성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8(1), 21-37.

방소영, 황혜정(2011). 가정형태에 따른 유아의 발달수준 비교 연구: 다문화 저소득 일반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육아정책연구, 5(2). 1-22.

배한진, 허청아(2019). 유아기의 가정환경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의 차이, 육아정책연구, 13(1), 75-99.

백윤희, 정경희(2017). 영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성격·양육태도에 따른 영유아 언어발달 차이. 유아특수교육연구, 17(3), 173-194.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023). 2023년 보육사업안내.

서소정, 송지연(2021). COVID-19 상황에서 만 2-3세 영유아가 시도하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영유아의 연령, 기질 및 발달수준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41(5), 181-204.

손고은, 신동주(2023).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幼兒敎育論集, 27(1), 5-29.

손승아, 안경숙, 김승경(2006).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심리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 127-148.

손정화, 최예린(2022). 코로나 19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언어재활사의 경험적 인식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61(1), 349-378.

안영은, 권연하(2022. 6. 13). 위드코로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서울 학생의 건강 실태 분석. 서울교육이슈페이퍼, (37),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여유진(2008).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가회연구, 28(2), 53-80.

연은모, 최효식(2020). 학교준비도 잠재계층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학교적응 및 심리적 특성 차이 검증: 부모, 교사의 중다 평정 자료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6), 41-50.

오새니, 이상희(2019). 성별에 따른 유아기 발달이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8(3), 135-149.

오성숙(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과 가정환경자극이 유아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2), 522-531.

오혜영, 안현의, 김은영(2012). 재난피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개입모델에 관한 개관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2), 335-359.

우연경, 최정순, 김경령, 노언경(2021). 코로나19 시기 경험에 따른 초 · 중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특성. 2021 KICE 이슈페이퍼, ORM 2021-40-16.

유리향, 김세훈(2022). 유아의 사회적 기술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1학년 학교적응의 차이. 초등상담연구, 21(4), 309-329.

유안진(2004). 아동발달의 이해. 문음사.

유한구(2006). 사회계층과 교육격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윤민종(2018). 생애 초기 교육격차: 만 3세 유아의 어휘력과 학습 태도가 아동의 언어발달 및 학업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6(4), 317-342.

은선민, 권소정, 이강이(2018). 가정 및 기관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사회적 행동 격차-부, 모 양육행동의 군집 예측 가능성. 인간발달연구, 25(2), 203-222.

은선민, 박영아, 김충일, 이강이(2019).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을 활용한 초기 아동기 체질량 지수 변화 궤적의 유형화-사회·정서발달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6), 135-157.

이근영, 김미남, 김성희, 김유리, 서명희, 양경화, 주문희, 최지현(2021). 코로나19 전후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 변화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정보원 현안보고.

이동규, 한은상, 유기범(2016). 운동강도의 차이가 초등학생의 뇌파와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교육 27(1), 253-267.

이상순, 이완정(2019).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초기적응 간 관계에서 교사 – 영아관계의 조절효과: 수직적 전이집단과 수평적 전이집단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2), 21-36.

이시효(2020). 코로나19 이후 거주환경의 차이가 초등학생의 학습, 게임, 놀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천시 소사구 세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공간환경학, 30(4), 172-207.

이영애, 황옥경, 노은선(2023).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 연구. 청소년학연구, 30(2), 399-421.

이완정, 김미나(2018). 비빈곤가정과 빈곤가정 유아의 문제행동 발달궤적과 학습준비도 및 학교적응.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6(2), 157-165.

이윤미(2007).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의 전이경험(transition experience)

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 고찰. 초등교육연구, 14(1), 117-134.

이정림, 이정원, 김진경, 송신영, 왕영희, 이예진, 신나리, 김영원(2010). 한국아동패널 2010 사업보고서.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연(2021). 조사로 본 코로나19와 교육격차, 그 실태와 과제. 교육정책포럼 제332호, 14-20. 교육정책네트워크.

이정연, 박미희, 소미영, 안수현(2020). 코로나19와 교육: 학교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철순, 서지영, 박장호, 장형윤, 방수영(2015). 재난 전 후 소아청소년에서의 정신사회적개입과 실제경험. 신경정신의학, 54(3), 276-281.

이혜영, 김미란, 한준(2006). 학교교육이 사회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이화조, 이봉주, 임선영(2023). 장기적인 재난 상황에서 아동발달과 영향요인. 한국아동복지학, 72(2), 33-66.

임아름, 최영(2021). 영아기 돌봄유형에 따른 유아기 행동발달 변화 궤적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8(1), 283-311.

임영신, 최성수(2022). 불평등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초기 아동기 인지능력 발달에서 나타나는 가족배경 격차 추세. 한국사회학, 56(2), 1-44.

임진유, 심숙영(2023). 어머니 코로나 스트레스가 유아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육스트레스를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4(2), 1219-1234.

임현주(2014). 영아의 발달 상·하위 집단별 영아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1), 225-247.

임현주(2017). 유아의 자아개념 군집에 따른 유아의 발달 차이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7(2), 81-102.

임현주, 최항준(2017). 유아의 개인변인, 모의 양육변인, 사회적 지원 군집에 따른 유아의 수용·표현언어발달 차이 연구. 유아교육연구, 37(1), 179-200.

임현주, 최항준, 이대균(2014). 어머니의 양육방식 유형 집단 간 가정 내· 외적 지원, 유아의 언어발달, 또래와의 상호작용 차이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9(5), 191-214.

장영숙(2018). 유아의 놀이성, 또래유능성, 유치원 적응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논총 38(4), 203-222.

장영은, 성미영(2015). 유아의 가정환경과 또래유능성의 관계에서 언어발달의 역할.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1-18.

장혜진, 김은설, 송신영(2014). 아동 개인 및 가정환경에 따른 초등학교 1 학년 학기 초 학교적응 차이 연구. 초등교육연구, 27(2), 95-122.

정광순, 박채형(2017).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인식하는 관점 탐색. 통합교육과정연구, 11(4), 121-143.

정부자(2011).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부진아동의 읽기능력 및 읽기관련변인에 대한 종단연구. 언어치료연구, 20(1), 103-121.

정연아, 김수정(2019). 취학 전 유아의 학교준비도 유형과 초등학교 시기의 학교적응과의 관계: 잠재계층분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8), 875-895.

정연아, 박해미(2022). 취학 전 유아기 가정환경자극과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학교준비도와 학교적응 간의 차이. 아시아여성연구, 61(3), 95-126.

정연아, 유준호(2022). 유아의 학교준비도와 또래놀이행동 군집 유형에 따른 학교 적응 차이 연구. 인문사회 21, 13(6), 367-379.

정용주(2021).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서울: 교육공동체벗.

정익중(2020). 코로나19 전후 아동 일상변화와 행복. 제17차 아동복지포럼 코로나19가 바꾼 일상변화와 아동행복 자료집, 12-37.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복지학, 69(4), 59-90.

정익중, 이수진, 정수정, 유다영(2022). 코로나19 시기, 아동의 일상균형과 빈곤가구 여부에 따른 행복감 비교. 보건사회연구, 42(1), 299-315.

정혜린(2018). 유아의 가정환경, 유치원 적응 및 학습준비도의 구조적 관계. 아동교육 27(1), 241-265.

주정훈(2021). 코로나19 시대 격차 담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교육 이슈페이퍼, 제4호.

천희영(2014). 맞벌이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성별 방과후보호, 가정환경과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 10(6), 265-289.

최아라(2020). 코로나 19, 아동돌봄 쟁점과 과제. 인문사회 21, 11(4), 1379-1389.

최윤경(2020). 코로나19와 아동의 교육·보육·돌봄(ECEC) 전략, 보건복지포럼 290호(2020.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윤경, 김근진, 정익중, 최영, 송신영(2021). 포스트코로나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윤경, 배윤진, 송신영, 임준범, 이예진, 김소아, 김신경(2014). 한국아동패널 2014.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김은영, 구자연, 조혜주, 정윤경, 심영규(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은희, 정지현(2022).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발달격차에 대한 영유아교사 인식. 구성주의유아교육연구, 9(2), 137-165.

최지현, 박혜원(2010).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 개인특성이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1), 113-124.

최항준(2021). 유아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유아의 학습준비도 차이. 인문사회 21, 12(2), 2227-2239.

최혜영, 유준호, 권수정, 장경은(2021). 코로나19 시대의 보육환경 내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 한국보육지원학, 17(2), 29-46.

최혜정, 김형관(2021). 코로나 19 스트레스가 아동의 정서와 학업발달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 10(1), 83-105.

한혜원, 이정민(2021).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가 인식한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어려움과 비대면 상담 장벽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사교육연구, 60(1), 51-66.

한희진, 양정호(2016).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2(1), 5-23.

허종호(2023). 뉴질랜드 행복예산의 현황 및 의의. 국회미래연구원, Futures Brief, 23-14호.

홍예지(2022). 어머니가 지각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 19 영향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어머니의 사회적 유대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순차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3(1), 19-32.

황순택, 김지혜, 홍상화, 배성훈, 조성우(2015). 바인랜드 적응행동 척도 2판(K-Vineland-Ⅱ) 표준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4), 851-876.

황옥경, 김형모, 이영애, 정선영, 노은선(2021).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황혜영, 김수윤(2023). 초등학교 교사들이 인식한 코로나19가 초등학생의 사회정서 역량에 미친 영향과 극복 과제.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8(1), 1-25.

Abreu-Lima, I., Leal, T., Cadima, J., & Gamelas, A. M.(2013). Predicting child outcomes from preschool quality in Portugal.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28*(2), 399-420.

Akseer, N., Kandru, G., Keats, E. C., & Bhutta, Z. A. (2020). COVID-19 pandemic and mitigation strategies: implications for maternal a nd child health and nutrition. *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112*(2), 251-256.

An, R. (2020). Projecting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disease-2019 pandemic on childhood obesity in the United States: A microsimu lation model. *Journal of Sport and Health Science, 9*(4), 302-312.

Anderson, R. W., Neumann, A. U., & Perelson, A. S.(1993). A Cayley tre e immune network model with antibody dynamics. *Bulletin of M athematical Biology, 55*(6), 1091-1131.

Araújo, L. A. D., Veloso, C. F., Souza, M. D. C., Azevedo, J. M. C. D., & Tarro, G. (2021). The potential impact of the COVID-19 pand emic on child growth and development: a systematic review. *Jor nal de Pediatria, 97*, 369-377.

Ashikkali, L., Carroll, W., & Johnson, C. (2020). The indirect impact of COVID-19 on child health.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30*(12), 430-437.

Becker, G. S., & Tomes, N. (198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1-39.

Bhat, S. S., & Milne, S. (2008). Network effects on cooperation in desti nation website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29*(6), 1131-1140.

Blair, C., & Razza, R. P. (2007). Relating effortful control, executive function, and false belief understanding to emerging math and literacy ability in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78*(2), 647-663.

Bromley, K.(2012). The next step in vocabulary instruction. Scholastic.

Carroll, N., Sadowski, A., Laila, A., Hruska, V., Nixon, M., Ma, D. W., Haines. J., & Guelph Family Health Study. (2020). The impact of COVID-19 on health behavior, stress, financial and food securit y among middle to high income Canadian families with young c hildren. *Nutrients, 12*(8), 2352.

Chang, T. H., Chen, Y. C., Chen, W. Y., Chen, C. Y., Hsu, W. Y., Cho u, Y., & Chang, Y. H. (2021). Weight gain associated with COVI D-19 lockdow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Nutrients, 13*(10), 3668.

Chen, P., Mao, L., Nassis, G.P., Harmer, P., Ainsworth, B.E., & Li, F. (2020). Coronavirus disease (COVID-19): The need to maintain regular physical activity while taking precautions. *Journal Sport Health Science, 9*(2), 103-104.

Coolahan, K., Fantuzzo, J., Mendez, J., & McDermott, P. (2000). Preschool peer interactions and readiness to learn: Relationships between classroom peer play and learning behaviors and conduc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3), 458.

Courtney, D., Watson, P., Battaglia, M., Mulsant, B. H., & Szatmari, P. (2020). COVID-19 impacts on child and youth anxiety and depr ess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e Canadian Journal of P sychiatry, 65*(10), 688-691.

Deák, G. O.(2004).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flexibility and language abilities. In R. Kail(Ed.),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Vol. 31, pp. 271-327). San Diego: Academic Press.

Deci, E. L., & Ryan, R. M. (2013).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Kluwer Academic/ Plenum Publishers.

Deighton, J,, Lereya, S. T., Casey, P., Patalay, P., Humphrey, N., & Wolpert, M. (2019) Prevalence of mental health problems in schools: poverty and other risk factors among 28 000 adolescents in England.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215*, 565–567.

Denham, S. A., & Holt, R. W. (1993). Preschoolers' likability as cause or consequence of their social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29*(2), 271.

Deoni, S. C., Beauchemin, J., Volpe, A., D'Sa, V., & Resonance Consorti um. (2021).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early child cog nitive development: initial findings in a longitudinal observationa l study of child health. MedRxiv.

Diamond, A.(2013). Executive func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4*(1), 135-168.

Doctoroff, G. L., Greer, J. A., & Arnold, D. H.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behavior and emergent literacy among preschool boys and girl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 (1), 1-13.

Dunton, G. F., Do, B., & Wang, S. D. (2020). Early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physical activity and sedentary behavior in child ren living in the US. *BMC Public Health, 20*(1), 1-13.

Egan, S. M., Pope, J., Moloney, M., Hoyne, C., & Beatty, C. (2021). Missi ng early education and care during the pandemic: The socio-emo tional impact of the COVID-19 crisis on young children. *Early Ch ildhood Education Journal, 49*(5), 925-934.

Elmer, T., Mepham, K., & Stadtfeld, C. (2020). Students under lockdown: Comparisons of students' social networks and mental health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crisis in Switzerland.

Plos One, 15(7), e0236337.

Engzell, P., Frey, A., & Verhagen, M. D. (2021). Learning loss due to school closur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8*(17), e2022376118.

Eynon, R. (2009). Mapping the digital divide in Britain: implications for learning and education.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34*(4), 277-290.

Fegert, J. M., Vitiello, B., Plener, P. L., & Clemens, V. (2020). Challenges and burden of the Coronavirus 2019 (COVID-19) pandemic for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 narrative review to highlight clinical and research needs in the acute phase and the long return to normality.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14*, 1-11.

Flavell, J. H.(1979). Metacognition and cognitive monitoring: A new area of cognitivedevelopmental inquiry. American Psychologist, 34(10), 906-911.

Garm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George, G., Dilworth-Bart, J., & Herringa, R. (2021). Potential socioeconomic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neural development, mental health, and K-12 educational achievement. *Policy Insights from th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8*(2), 111-118.

Glynn, L. M., Davis, E. P., Luby, J. L., Baram, T. Z., & Sandman, C. A. (2021). A predictable home environment may protect child mental heal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Neurobiology of Stress, 14*, 100291.

Gruber, J., Prinstein, M.J., Clark, L.A., Rottenberg, J., Abramowitz, J.S., Albano, A. M., & Weinstock, L.M.(2020). Mental Health and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Time of COVID-19: Challenges, Opportunities, and a Call to Action. *Am Psychol,*

76(3), 409-426.

Gupta, S., & Jawanda, M. K. (2020). The impacts of COVID-19 on childr en. *Acta Paediatrica (Oslo, Norway: 1992), 109*(11), 2181.

Gusti. (2021). Pakar Linguistik UGM Soroti Penurunan Kemampuan Bah asa Siswa Selama Pandemi. Universitas Gajah Mada.

Harrington, N. (2006). Frustration intolerancebeliefs: their relationship with depression, anxiety, and anger, inaclinical population. Cog nitive *Therapy and Research, 30*(6), 699-709.

Hayre, J. (2023). COVID-19, education and child health. *BMJ Paediatrics Open, 7*(1).

Hughes, C., & Ensor, R. (2005). Executive function and theory of mind in 2 year olds: A family affair?. *Developmental Neuropsychology, 28*(2), 645-668.

Imran, N., Zeshan, M., & Pervaiz, Z. (2020). Mental health consideration s for children & adolescents in COVID-19 Pandemic. *Pakistan Jou rnal of Medical Sciences, 36*(COVID19-S4), S67.

Jenssen, B. P., Kelly, M. K., Powell, M., Bouchelle, Z., Mayne, S. L., & Fiks, A. G. (2021). COVID-19 and changes in child obesity. *Pediat rics, 147*(5).

John C. Mutter(2016). 재난불평등: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 장 상미(역). 동녘.

Koivusilta, L. K., Lintonen, T. P., & Rimpelä, A. H. (2007). Orientations in adolescent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 y: a digital divide by sociodemographic background, educational career, and health.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5*(1), 95-103.

Kuhfeld, M., Soland, J., Tarasawa, B., Johnson, A., Ruzek, E., & Liu, J. (2020). Projecting the potential impact of COVID-19 school closu res on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al Researcher, 49*(8), 549 -565.

Lee, E. P. X., Man, R. E. K., Gan, T. L. A., Fenwick, E. K., Aravindhan, A., Ho, K. C., Sung, S. C., Wong, T. Y., Ho, C. S. H., Gupta, P., & Lamoureux, E. L. (2022). The longitudinal psychological, physic al activity, and financial impact of a COVID-19 lockdown on olde r adults in Singapore: The PIONEER-COVID population-based stud y.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37*(1).

Lee, J. (2020). Mental health effects of school closures during COVID-1 9. *The Lancet Child & Adolescent Health, 4*(6), 421.

Liu, Z., Tang, H., Jin, Q., Wang, G., Yang, Z., Chen, H., Yan, H., Rao, W., & Owens, J. (2021). Sleep of preschoolers during the coronavi rus disease 2019 (COVID-19) outbreak. *Journal of Sleep Research, 30*(1), e13142.

Moore, S. A., Faulkner, G., Rhodes, R. E., Brussoni, M., Chulak-Bozzer, T., Ferguson, L. J., Mitra, R., O'Reilly, N., Spence, J. C., Vanderlo o, L. M., & Tremblay, M. S. (2020). Impact of the COVID-19 virus outbreak on movement and play behaviours of Canadian children and youth: a national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17*(1), 1-11.

Murray, A. D., & Yingling, J. L.(2000). Competence in language at 24 months: Relations with attachment security and home stimulatio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1*(2), 133-140.

Neumann, E. (1973). *Amor and psyche: The psychic development of the femine, a commentary on the tale by apuleius* (R. Manheim, Tra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53).

OECD(2017). Starting Strong V: Transitions from Early Childhood Educ ation and Care to Primary Education.

Osendarp, S., Akuoku, J. K., Black, R. E., Headey, D., Ruel, M., Scott, N., Shekar, M., Walker, N., Flory, A., Haddad, L., Laborde, D., Ste gmuller, A., Thomas, M., & Heidkamp, R. (2021). The COVID-19

crisis will exacerbate maternal and child undernutrition and child mortality in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Nature Food, 2*(7), 476-484.

Panchal, U., de Pablo, G. S., Franco, M., Moreno, C., Parellade, M., Arango, C., & Fusar-Poli, P. (2023). The impact of COVID-19 lockdown on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ystematic review.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2,* 1151-1177.

Parfitt, G., Pavey, T., & Rowlands, A. V. (2009). Children's physical activity and psychological health: the relevance of intensity. *Acta Paediatrica, 98*(6), 1037-1043.

Paterson, D. C., Ramage, K., Moore, S. A., Riazi, N., Tremblay, M. S., & Faulkner, G. (2021). Exploring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movement behaviors of children and youth: A scoping review of evidence after the first year. *Journal of Sport and Health Science, 10*(6), 675-689.

Pokhrel, S., & Chhetri, R. (2021). A literature review on impact of COVI D-19 pandemic on teaching and learning. *Higher Education for the Future, 8*(1), 133-141.

Popping, R.(2000). Computer-assisted text analysis. London: Sage.

Prime, H., Wade, M., & Browne, D. T. (2020). Risk and resilience in family well-be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merican Psychologist, 75*(5), 631-643.

Ravens-Sieberer, U., Kaman, A., Erhart, M., Devine, J., Schlack, R., & Ot to, C. (2022).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quality of lif e and mental health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Germany. *Eur 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1*(6), 879-889.

Read, K., Gaffney, G., Chen, A., & Imran, A. (2021). The impact of COV ID-19 on families' home literacy practices with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1-10.

Rubin, A. & Babbie, E. R. (2007). Survey Research Methods. Pracific

Groce, CA: Brooks/Cole.

Samji, H., Wu, J., Ladak, A., Vossen, C., Stewart, E., Dove, N., Long, D., & Snell, G. (2022). Mental health impacts of the COVID-19 p andemic on children and youth–a systematic review.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27*(2), 173-189.

Sasser, T. R., Bierman, K. L., & Heinrichs, B.(2015). Executive functioning and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onal role of pre-kindergarten learning-related behaviors. *Early Child Research Quarterly, 30*(Pt. A), 70-79.

Save the Children. (2020). Protect a generation. The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s lives. Retrieved August 24, 2023, from https://w ww.savethechildren.org.au/getmedia/c3cf8443-37bc-4420-b53b6 de6800d4dbaa/ProtectAGeneration_1189391475.pdf.aspx

Shaffer, D. R. & Kipp, K. (2013).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Singapore, Cengage Learning.

Sihombing, L. R., Fithri, R., & Wilyanita, N. (2021). Analisis Perkemban gan Bahasa Anak Usia Dini Di Masa Pandemi Covid 19. *Jurnal T alenta: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2*(2), 15-23.

Sparrow, S., Cicchetti, D., & Balla, D., (2005). Vineland-ll: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Survey forms manual (2nd ed.).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s.

Stanton-Chapman, T. L., Chapman, D. A., Kaiser E. A. P., & Hancock. T. B. (2004). Cumulative risk and low-Income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4*, 227-237.

United Nations. (2020). Policy brief: Education during COVID-19 and b eyond.

Urbina-Garcia, A. (2020). Young children's mental health: impact of so cial isolation during the COVID-19 lockdown and effective strat egies.

Wen, J., Zhu, L., & Ji, C. (2021). Changes in weight and height among

Chinese preschool children during COVID-19 school clos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45*(10), 2269-2273.

Werner, E. E., & Smith, R. S.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Wheeler, D. L., & Hill, J. C. (2021). The impact of COVID-19 on early childhood reading practic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Literacy,* 14687984211044187.

Whitley, J., Beauchamp, M. H., & Brown, C. (2021).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learning and achievement of vulnerable Canadian children and youth. *Facets, 6*(1), 1693-1713.

Xiang, M., Zhang, Z., & Kuwahara, K. (2020).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children and adolescents' lifestyle behavior larger than expected. *Progress in Cardiovascular Diseases, 63*(4), 531.

Yeasmin, S., Banik, R., Hossain, S., Hossain, M. N., Mahumud, R., Salma, N., & Hossain, M. M. (2020).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in Bangladesh: A cross-sectional stud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7*, 105277.

Yeung, W. J., Linver, M. R., & Brooks-Gunn, J. (2002). How money matters fo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Parental investment and family processes. *Child Development, 73*(6), 1861-1879.

Yoshikawa, H., Wuermli, A. J., Britto, P. R., Dreyer, B., Leckman, J. F., Lye, S. J., Ponguta, L. A., Richter, L. M., & Stein, A. (2020). Effects of the global coronavirus disease-2019 pandemic 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Short-and long-term risks and mitigating program and policy actions. *The Journal of Pediatrics, 223*, 188-193.

Zartler, U., Dafert, V., & Dirnberger, P. (2022). What will the coronavirus do to our kids? Parents in Austria dealing with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ir children. *Journal of Family Research, 34*(1), 367-393.

Zhou, S. J., Zhang, L. G., Wang, L. L., Guo, Z. C., Wang, J. Q., Chen, J. C., Liu, M., Chen, X., & Chen, J. X. (2020). Prevalence and socio-demographic correlates of psychological health problems in Chinese adolescents during the outbreak of COVID-19.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 749-758.

[웹사이트]

아동권리보장원, 사업소개, 아동성장·돌봄,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사업안내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27&cntntsId=1055에서 2023. 10. 16. 인출.

New Zealand Government. (2019). The Wellbeing Budget 2019 https://www.treasury.govt.nz/sites/default/files/2019-06/b19-wellbeing-budget.pdf에서 2024. 1. 30. 인출.

Abstract

A Study on How to Resolve the Gap in Development and Learning of Young Children after COVID-19(II)

Eun-young Choi, Eunyoung Kim, Tae-woo Kim, Jeong-hwan Yun,
Young-ae Lee, Hui-hyun Park, Yoon-kyung Choi

This study considered young children who experienced the pandemic during their early life in 2022 when the lasting influence of the COVID-19 pandemic had been realized. This study examines this impact on their current status and progress of change not only in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s growth, development and learning, but also in child-rearing households' caring, nurturing and education.(1st year) The purpose of the 2nd year (2023) study is to analyze cumulative factors of influence on young children, and to suggest support measures accordingly by following up and investigating longitudinally over two year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related studie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ents of children participating in the development tes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clinical experts to understand the actual problem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In addition, the Korean version of the Wechsler Early Intelligence Test (K-WPPSI-IV) and the Vineland Adaptation Behavior Test (K-Vineland-II) were conducted in the same manner as in the first year to track changes in children's development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parents and teachers of the child were surveyed on family and institutional (school) variables. Additionally,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is study and the results of the first year was conduct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 were compared by analyzing the age cohort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reported that obesity and prevalence rate have increased in terms of physical and health development due to increased media exposure time, sedentary lifestyle, and irregular lifestyle and sleep as a result of analy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on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In addition, there are concerns that environmental change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negatively affect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in terms of language and cognitive development. Whereas, reading with children using the media has increa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parents also reported that they value the practice of literacy and recognize the value of reading. On one hand, the unexpected global COVID-19 pandemic was a stressful situation that everyone, including children, had to endure in terms of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particular, it has had a greater impact on low-income families who are struggling economically and emphasizes the need for early intervention focused on specific groups because this environment has worked as a greater stress factor for children.

Second, the result of in-depth interviews with participating parents and clinical experts in this study confirms that social change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were linked to changes in the domestic nurturing environment. As a result, the social changes via the pandemic acted as a factor in children's overall development and learning. On one hand, the use of masks raised concerns about delays in language development in infancy in terms of language development,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problem of delayed language development is decreasing and the gaps in expression vocabulary depending on the parenting environment are being found. On the other hand, it is found that difficulties such as anxiety, lethargy, difficulty in communication, and preference for playing alon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ere

commonly experienced regardless of the domestic economic situation when it comes to social-emotional development.

Thir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perceptions of parents and teachers on the overall development of children in the 3-year-old class and the first grader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the 3-year-old class tended to have high parental awareness in general, and the gap in perception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in emotional development was larger than in other areas. On the other hand, first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did not generally hav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but teachers' perception of physical development was higher than that of parents. In addition, the cognitive development score of children in the 3-year-old class was the same as in the first year. The score of the combination of adaptation behavior was also at the average level, but the area of life skills tended to be a little higher. Meanwhile,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first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was also at the average level, and the score of the combination of adaptation behavior was also found to be higher than the average level.

Fourth, comparing the cognitive development and adaptation behavior of participants in the first year and second years drew a result that cognitive development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year and the second year overall. However, the statistic score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second year compared to the first year regarding the first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in the language comprehension index. Adaptation behavior was also found to hav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cores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years overall. In the area of adaptation behavior combination scores, i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second year than in the first year in particular areas of life skills and social skills.

Fifth,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concerning mechanisms to affect child development due to the COVID-19 pandemic by analysing the data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as a comparison group of this study group. In addition to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structural

unemployment and income decline due to economic contraction and economic structural changes may intensify the slump of physical develop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academic and learning) of children, which is feared to deal a bigger blow to the vulnerable groups with unstable employ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henceforth tasks were presented by dividing them into support for children's developmental areas, parental support as a family environmental factor, tracking and supporting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for the vulnerable social groups, and establishing a medium- and long-term monitoring system for the generation who suffered from the COVID-19 pandemic in their early lives. First, areal support for children's development suggested language development should be followed longitudinally, expanded peer relationship (social development) opportunities, priority support for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and physical activity (exercise) opportunities. Second, parental support suggested the need to provide education and information for the formation of children's basic lifestyle, customized support for each child's development period, enhance parents' media literacy, and ease the psychological burnout of the main caregiver. Third, support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is presented to strengthe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and basic learning of vulnerable children, expand the budget for supporting the vulnerable, and ease the gap in the overall quality of life. Finally, To establish a development monitoring system for the COVID-19 generation, it is suggested that development monitoring linked to young children health checkups, linked support for young children development with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childcare support center, and regional Dreamstart Center and promotion of follow-up research in consideration of gap factors in development and learning.

Keyword: COVID-19 pandemic, young children, development and learning

부록

부록 1. 부모용 설문지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II) 현황 및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3년도 일반과제인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 방안 연구(II)」의 일환으로, 팬데믹 전후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양육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누적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차년도 참여 영유아 및 가구를 추적하는 종단 연구입니다. 따라서 2차년도 연구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본 조사는 약 1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3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 락 처 : 김태우 연구원 02-398-7783

조사수행기관 : Ipsos
연 락 처 : 이민영 수석 02-6464-5333
이경희 팀장 02-6464-5473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Ⅰ. 아동 특성

○○○(이)의 작년(2022년)과 올해(2023년) 키와 몸무게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언제 측정하였습니까?

※ 영유아 건강검진 기록 참고하여 작성요청 드립니다.

	1. 2022년	2. 2023년
측정일	2022년 __월 __일	2023년 __월 __일
키	_____cm	_____cm
몸무게	_____kg	_____kg

3. (초등 1학년만 해당) 다음의 문장을 읽고 지난 6개월 동안 자녀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께서 각 문항에 해당하는 ○○(이)의 모습과 행동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1)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를 힘들어 한다.	①	②	③
2) 해야 할 일(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한다.	①	②	③
3) 해야 할 일(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이 있을 때 거의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4)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①	②	③
5)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끝까지 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미리 예측하지 못한다.	①	②	③
6) 머릿속으로 생각은 잘 하는데(나름대로 계획은 하는데) 실천은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7)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행동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①	②	③
8) 어떤 내용을 이해할 때 부분적으로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①	②	③
9) 스스로 알아서 앞장서서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10) 어떤 활동이든 순서대로 차근차근 계획해서 행동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①	②	③
11) 숙제나 공부 혹은 심부름 등 일을 할 때 집중해서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12) 또래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13)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14) 너무 거칠게 행동한다.	①	②	③
15) 어른이 곁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 숙제, 공부 혹은 심부름 등을 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16) 글쓰기를 어려워한다.	①	②	③
17)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	①	②	③
18) 앉아서 집중해야 할 때 자리에 잘 앉아 있지 못한다.	①	②	③

문 항 내 용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19) 줄서서 있어야 할 때 서 있지 않고 잘 벗어난다.	①	②	③
20) 자신의 행동이 남을 귀찮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알아채지 못한다.	①	②	③
21) 누가 옆에서 지키지 않으면 숙제나 공부를 꾸준히 앉아서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22)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이 야단을 치거나 핀잔을 주어도 별 상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23) 사소한 일에도 화를 쉽게 폭발한다.	①	②	③
24) 상황에 따라 기분 변화가 심하다.	①	②	③
25) 잘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낸다.	①	②	③
26) 자주 울컥한다.	①	②	③
27) 그럴 일이 아닌데도 잘 투덜거린다.	①	②	③
28)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29) 원래 계획한 일에 변화가 생기면(원래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면) 순간 화를 벌컥 낸다.	①	②	③
30) 기분 변화가 심하다.	①	②	③
31) 자신의 물건을 챙기지 못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	①	②	③
32) 옷, 안경, 양말, 장난감, 책, 연필 등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①	②	③
33) 방의 정리정돈을 못한다.	①	②	③
34) 숙제를 다 해가도 선생님께 제출하는 것을 잊고 온다.	①	②	③
35) 소지품이나 숙제 등을 잘 잃어버린다.	①	②	③
36) 잘 잊어버린다.	①	②	③
37) 해야 할 일을 잘 잊는다.	①	②	③
38) 방이 늘 어질러져 있다.	①	②	③
39) 방안이나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 못한다.	①	②	③
40) 물건이나 방을 잘 어질러서 다른 사람이 치워야 한다.	①	②	③

4. (공통) 또래들과 비교하여 OO(이)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해당 칸에 표시해주십시오.

구분	1	2	3	4	5
	매우 늦음	약간 늦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1) 언어발달					
2) 인지 발달					
3) 정서발달					
4) 사회성 발달					
5) 신체발달					

II. 부모 특성

1.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항 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전반적으로 나는 …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	→	보통이다	→	→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매우 행복하지않다	→	→	보통이다	→	→	매우 행복하다
3)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	→	보통이다	→	→	매우 그렇다
4)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하다.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나는 …	매우 그렇다	→	→	보통이다	→	→	전혀 그렇지 않다

2.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 부부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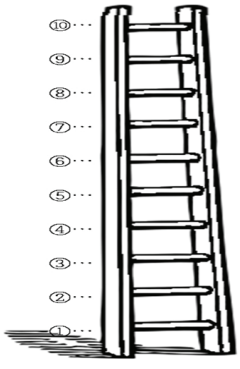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2) 남편(아내)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남편(아내)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남편(아내)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남편(아내)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 때문에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사다리가 우리사회의 구조를 나타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최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재산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사다리의 맨 밑에는 최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거의 없고, 교육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으며, 누구도 원치 않거나,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4-1. 이 사다리가 대한민국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2. 이 사다리가 귀하가 속해있는 지역사회나 공동체(직장, 교회, 친인척 일가, 친구, 동호회 등)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나 공동체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Ⅲ. 기관 이용 특성

1. ○○(이)가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기관 이용 기간을 적어주십시오.

1-1. 이용 기관 및 이용 기간

☐ ① 유치원(　　년　　개월)　　☐ ② 어린이집(　　년　　개월)
☐ ③ 반일제 이상 학원(　　년　　개월)
☐ ④ 기타(적어주세요.　　년　　개월)

1-2. (③에 응답한 경우) 해당 기관의 이용 기간을 적어주십시오

☐ ① 영어학원(　　년　　개월)
☐ ② 놀이학교(　　년　　개월)
☐ ③ 유아체능단(　　년　　개월)
☐ ④ 기타(적어주세요.　　년　　개월)

2. ○○(이)의 현재 이용 기관에 응답해주십시오.

☐ ① 공립유치원　　☐ ② 사립유치원
☐ ③ 어린이집(국공립)　　☐ ④ 어린이집(국공립 외)
☐ ⑤ 반일제 이상 학원
☐ ⑥ 공립 초등학교　　☐ ⑦ 사립 초등학교

3. ○○(이)가 현재 이용 중인 사교육 교과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사교육 서비스: 정규수업 이외에 추가로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함.

① 미술(그림, 공작, 서예 등)
② 음악(피아노, 바이올린 등)
③ 체육(발레, 수영, 태권도 등)
④ 과학
⑤ 수학(숫자, 산수, 주산 등)
⑥ 국어(한글, 동화구연, 웅변, 논술 등)
⑦ 컴퓨터
⑧ 한자
⑨ 영어
⑩ 기타 외국어(중국어 등)
⑪ 창의성 프로그램(호기심 놀이 등 포함)

⑫ 기타1(　　)
⑬ 기타2(　　)
⑭ 없음(해당없음)

3-1. ○○(이)가 현재 이용 중인 사교육 프로그램 수 (　　개)

4. ○○(이)가 현재 이용하는 교육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어떠합니까?

이용 기관	교육서비스 이용 여부	
		일주일 총 이용시간
① 유치원·어린이집·반일제 이상 학원, 초등학교	□	(　　시간)
② 학원	□	(　　시간)
③ 가정내 개인/그룹지도(과외)	□	(　　시간)
④ 학습지(방문교사)	□	(　　시간)
⑤ 인터넷/화상 강의	□	(　　시간)
⑥ 교내 방과후교실(초등학생의 경우)	□	(　　시간)
⑦ 문화센터, 종교기관 등 사설기관에서 하는 교육	□	(　　시간)
⑧ 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	□	(　　시간)
계		(　　시간)

Ⅳ. 가구 배경

1. 귀댁의 경제 상황과 아동의 가정에서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1) 가구 총 지출(월평균)	(　　만 원)
2) ○○○ 자녀의 교육비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월평균)	(　　만 원)
3) ○○○ 자녀의사교육비 지출(월평균)	(　　만 원)
4) 父의 자녀와 보내는 시간(주당 평균 양육시간)	(　　시간)
5) 母의 자녀와 보내는 시간(주당 평균 양육시간)	(　　시간)
6) 자녀의 TV/미디어 이용시간(주당 평균)	(　　시간)
7) 야외활동 시간(주당 평균)	(　　시간)
8) 자녀의 수면시간(일 평균)	(　　시간)

V. 응답자 배경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 ② 남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 ② 대학교 졸업 ☐ ③ 대학원 졸업 이상

4. 귀하의 취업 상태를 표시해 주십시오.
4-1 ☐ ① 정규직 ☐ ② 비정규직 ☐ ③ 자영업 ☐ ④ 비취업
4-2 ☐ ① 맞벌이 ☐ ② 외벌이

5. 귀하의 주 평균 근로시간 총 몇 시간 입니까?
예) 주 5일 평균 8시간 근무이면, 주 총 40시간
주 총 [ ]시간

6. 귀하의 월평균 소득(세전)은 얼마정도 입니까?
☐①100만원 미만 ☐②100-150만원 미만 ☐③150-200만원미만 ☐④200-250만원 미만
☐⑤250-300만원미만 ☐⑥300-350만원미만 ☐⑦350-400만원미만 ☐⑧400-450만원미만
☐⑨450-500만원미만 ☐⑩500-600만원미만 ☐⑪600만원이상

7. 자녀
총 자녀수( ) 미취학 자녀수( )

본인 배우자에 대해 답을 해주세요.

8. 배우자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 ]세

9. 배우자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 ② 대학교 졸업 ☐ ③ 대학원 졸업 이상

10. 배우자의 취업 상태를 표시해 주십시오
10-1 ☐ ① 정규직 ☐ ② 비정규직 ☐ ③ 자영업 ☐ ④ 비취업

11. 귀하의 **배우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총 몇 시간 입니까?

예) 주 5일 평균 8시간 근무이면, 주 총 40시간

주 총 [ ] 시간

12. 귀하의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세전)은 얼마정도 입니까?

□①100만원 미만 □②100-150만원 미만 □③150-200만원미만 □④200-250만원 미만
□⑤250-300만원미만 □⑥300-350만원미만 □⑦350-400만원미만 □⑧400-450만원미만
□⑨450-500만원미만 □⑩500-600만원미만 □⑪600만원이상

13. 귀 댁의 월평균 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은 얼마입니까? 세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월평균 [ ] 만 원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2. 교사용 설문지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II)
현황 및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3년도 일반과제인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 방안 연구(II)」의 일환으로, 아동의 기관(학교) 적응, 기관(학교)에서의 전반적인 생활 및 발달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누적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차년도 참여 영유아 및 가구를 추적하는 종단 연구입니다. 따라서 2차년도 연구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본 조사는 약 5~7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3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 락 처 : 김태우 연구원 02-398-7783

조사수행기관 : Ipsos
연 락 처 : 이민영 수석 02-6464-5333
이경희 팀장 02-6464-5473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Ⅰ. 아동 특성

1. (초등 1학년만 해당) 다음 문항을 읽고 ○○(이)의 평소 모습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이)는 급우들에 비해...	하위 20% 이내	하위 21% ~40%	중간 50% 내외	상위 21%~40%	상위 20% 이내
이 아동의 읽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이 아동의 말하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이 아동의 쓰기 능력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이 아동은 선생님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이 아동의 수세기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이 아동의 덧셈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이 아동의 뺄셈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이 아동의 비교 능력(길이, 무게 등)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이 아동은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이 아동의 학업 수행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초등 1학년만 해당) 다음 문항은 ○○(이)의 학교 적응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이)의 평소 모습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수업 중 안절부절 못하고 계속 앉아 있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에서 질서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3)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4) 실외활동시간에 질서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5) 주어진 상황에 참을성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하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자기 물건 정리를 잘하고 교실의 물건을 잘 정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선생님의 안내(지시)와 요구에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9) 등교시간, 수업시간, 쉬는 시간 등을 지켜서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며 잘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이에 비해 어리게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매사에 의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의사표현이 확실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자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발표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과제를 잘해오며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①	②	③	④	⑤
16) 학교에서 놀이를 할 때 놀이(분위기)를 주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사고하고 탐구하려는 의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8) 수업시간에 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표정이 밝으며 쾌활 명랑하다.	①	②	③	④	⑤
20) 모둠별 활동이나 전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주어진 일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좌절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장난감을 친구들과 나누어 가지고 논다.	①	②	③	④	⑤
24) 친구를 잘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5) 친구들의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가져 오면 함께 보거나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26) 친구가 슬퍼할 때 위로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7) 친구들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다른 친구들이 사귀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아이이다.	①	②	③	④	⑤
29) 친구들과 친하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30) 친구들과의 생활에서 통솔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 선생님을 지나치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선생님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33) 가정이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선생님께 인사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필요로 할 때 선생님께 도움을 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만 3세만 해당) OO(이)의 평소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에 √표 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을 잘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친구들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잘 협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장난감 등을 다른 친구들과 잘 나누어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자기 차례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친구가 어려워할 때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6) 쾌활하고 명랑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친절하고 우호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편안하며 안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매사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같이 놀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른 유아들이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놀이친구로서 다른 유아들에게 인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진행되고 있는 놀이 중간에도 쉽게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친구들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대체로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려 논다.	①	②	③	④	⑤
16)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독립심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자기주장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교실활동이나 역할에 새로운 제안을 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지구력이 있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하루의 일과를 잘 이해하고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23) 대체로 교사에게 잘 협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활동 중에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5)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선생님을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26) 하루 일과 활동의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교사에게 관심과 도움을 적절히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공통) 선생님께서 또래들과 비교하여 OO(이)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해당 칸에 표시해주십시오.

구분	1	2	3	4	5
	매우 늦음	약간 늦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1) 언어발달					
2) 인지 발달					
3) 정서발달					
4) 사회성 발달					
5) 신체발달					

II. 응답자 배경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 ② 남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 ② 전문대졸 ☐ ③ 대학교졸
☐ ④ 대학원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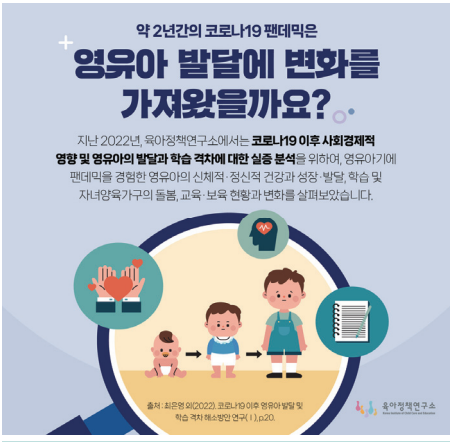
4. 귀하의 교육·보육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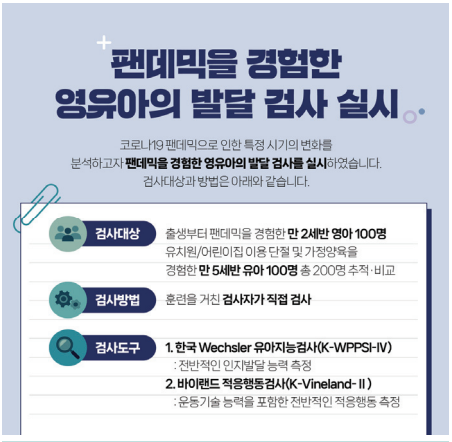
☐유치원	☐ ① 3년 미만	☐ ② 3~5년 미만	☐ ③ 5~10년 미만	☐ ④ 10년 이상
☐어린이집	☐ ① 3년 미만	☐ ② 3~5년 미만	☐ ③ 5~10년 미만	☐ ④ 10년 이상
☐초등학교	☐ ① 3년 미만	☐ ② 3~5년 미만	☐ ③ 5~10년 미만	☐ ④ 10년 이상
☐반일제 이상 기관	☐ ① 3년 미만	☐ ② 3~5년 미만	☐ ③ 5~10년 미만	☐ ④ 10년 이상
☐기타1	☐ ① 3년 미만	☐ ② 3~5년 미만	☐ ③ 5~10년 미만	☐ ④ 10년 이상
☐기타2	☐ ① 3년 미만	☐ ② 3~5년 미만	☐ ③ 5~10년 미만	☐ ④ 10년 이상
☐기타3	☐ ① 3년 미만	☐ ② 3~5년 미만	☐ ③ 5~10년 미만	☐ ④ 10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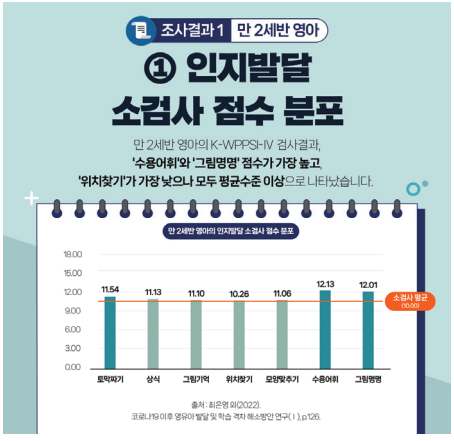
5. 현재 근무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유치원 ☐ ② 어린이집 ☐ ③ 반일제 이상 기관
☐ ④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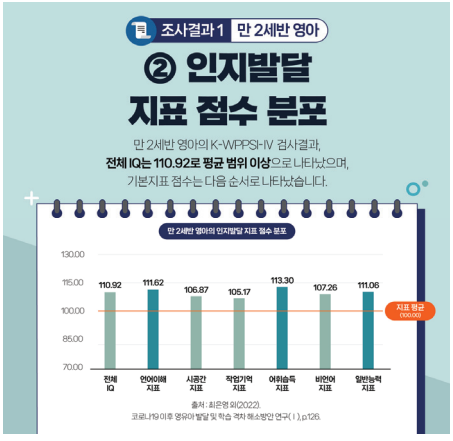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3. 1차년도 주요 결과에 대한 카드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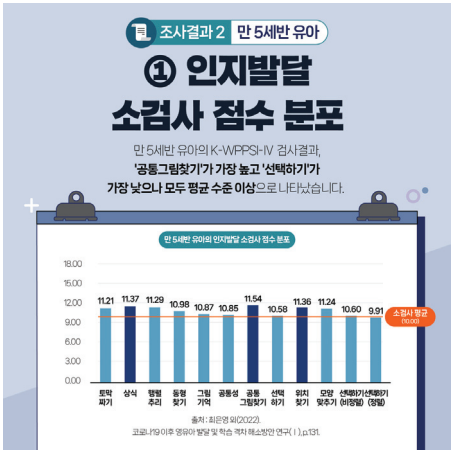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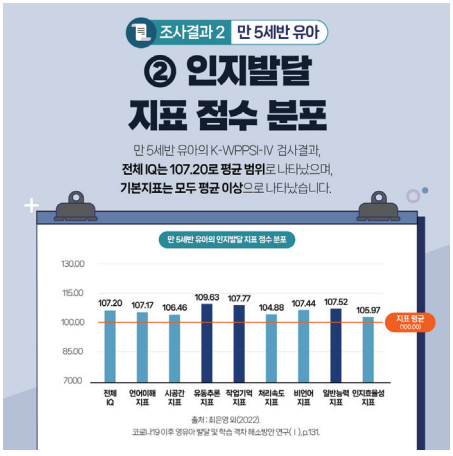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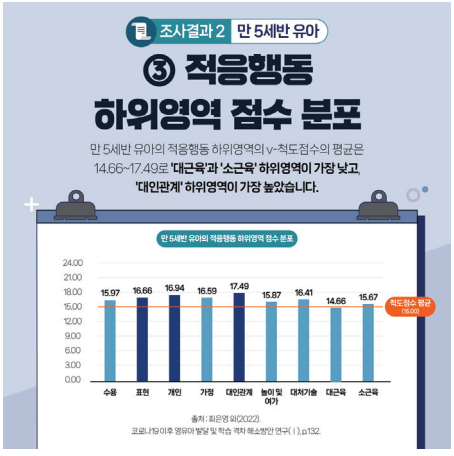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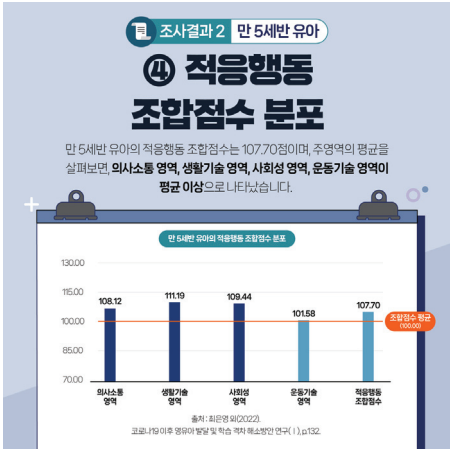





조사결과 2 만 5세반 유아
① 인지발달
소검사 점수 분포
만 5세반 유아의 K-WPPSI-IV 검사결과,
'공통그림찾기'가 가장 높고 '선택하기'가
가장 낮으나 모두 평균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소검사 점수 분포
18.00
15.00
12.00
9.00
6.00
3.00
0.00
11.21
11.37
11.29
10.98
10.87
10.85
11.54
10.58
11.36
11.24
10.60
9.91
소검사 평균
(10.24)
토막 짜기
상식
행렬 추리
동형 찾기
그림 기억
공통성
공통 그림찾기
선택 하기
위치 찾기
모양 맞추기
선택하기(선택찾기 어휘정합) (정합)
출처 : 최은영 외(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I), p.131.


조사결과 2 만 5세반 유아
② 인지발달
지표 점수 분포
만 5세반 유아의 K-WPPSI-IV 검사결과,
전체 IQ는 107.20로 평균 범위로 나타났으며,
기본지표는 모두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지표 점수 분포
130.00
115.00
100.00
85.00
70.00
107.20
107.17
106.46
109.63
107.77
104.88
107.44
107.52
105.97
지표 평균
(100.00)
전체 IQ
언어이해 지표
시공간 지표
유동추론 지표
작업기억 지표
처리속도 지표
비언어 지표
일반능력 지표
인지효율성 지표
출처 : 최은영 외(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I), p.131.


조사결과 2 만 5세반 유아
③ 적응행동
하위영역 점수 분포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하위영역의 v-척도점수의 평균은
14.66~17.49로 '대근육'과 '소근육' 하위영역이 가장 낮고,
'대인관계' 하위영역이 가장 높았습니다.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하위영역 점수 분포
24.00
21.00
18.00
15.00
12.00
9.00
6.00
3.00
0.00
15.97
16.66
16.94
16.59
17.49
15.87
16.41
14.66
15.67
척도점수 평균
(16.00)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출처 : 최은영 외(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I), p.132.


조사결과 2 만 5세반 유아
④ 적응행동
조합점수 분포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는 107.70점이며, 주영역의 평균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영역, 생활기술 영역, 사회성 영역, 운동기술 영역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 분포
130.00
115.00
100.00
85.00
70.00
108.12
111.19
109.44
101.58
107.70
조합점수 평균
(100.00)
의사소통 영역
생활기술 영역
사회성 영역
운동기술 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
출처 : 최은영 외(2022).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I), p.132.


육아정책연구소
결론
선행 연구(Zeanah et al, 2009)에 따르면, 가변적이고 대처능력이
뛰어난 영유아의 뇌는 발달이 늦더라도 이후에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이상 지속된 범세계적 팬데믹 현상이 영유아의 발달에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팬데믹 경험 영유아 등 영유아의
생애초기 발달 격차 완화를 위하여 발달 영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2차년도 발달검사 참여 동의서 QR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영유아의 발달의 영향을 밝히기 위해서는
1차년도 참여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심층면담 지원 희망 QR
1차년도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부모님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소정의 사례금 지급 예정).

부록 4. 분석사용 변수 설명

분류	세분류	설명	변수명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가공
독립변수	사회경제적 배경	어머니 학생 여부	모학생	6,579	0.02	0.14	0	1	1: 학생
		어머니 경제활동 참가여부	모노동	6,579	0.43	0.5	0	1	1: 노동시장 참여 (자영업 포함)
		아버지 학생여부	부학생	6,309	0.01	0.09	0	1	1: 학생
		아버지 경제활동 참가여부	부노동	6,309	0.8	0.4	0	1	1: 노동시장 참여 (자영업 포함)
		가구소득	가구소득	6,649	4.84	5.03	0	214	월(백만원)
		가구지출	가구지출	6,640	2.33	1.2	0.1	24	월(백만원)
		자녀전체 지출	자녀지출	6,663	0.97	0.63	0	12	월(백만원)
	양육행태	실내활동 시간	실내활동	8,600	7.49	5.61	0	21.5	혼자 실내에서 놀기, 오락, TV시청, 컴퓨터, 책읽기, 아무것도 안함, 육아지원기관, 방문교육, 전자매체, 실내놀이, 기본생활, 낮잠
		어른과 보내는 시간	어른보호	8,600	5.45	4.23	0	16	주양육자와 보내는 시간, 방문교육, 육아지원기관
		또래와 보내는 시간	또래활동	8,600	4.66	3.72	0	15	친구, 형제자매, 육아지원기관, 실외활동
		학습시간 (육아지원기관 시간제외)	학습시간	8,600	1	1.32	0	8	방문교육, 책읽기, 전자매체를 이용한 교육
		육아지원기관/학교 시간	지원기관	7,904	5.82	3.17	0	14	
		총교육시간	총 교육시간	8,600	6	3.76	0	15	학습시간+육아지원기관 시간
		어머니 우울	모우울	6,496	1.93	0.75	1	5	5: 우울 심함
		아버지 우울	부우울	6,185	1.88	0.7	1	5	5: 우울 심함
		어머니 부부 갈등	모갈등	6,472	2.11	0.8	1	5	5: 가정내 갈등 심함

분류	세분류	설명	변수명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가공
		아버지 부부 갈등	부갈등	6,178	2.09	0.74	1	5	5: 가정내 갈등 심함
		어머니 주중 노동 여부	모 주중노동	8,600	0.31	0.46	0	1	1: 주중 근무함
		어머니 주말 노동 여부	모 주말노동	8,600	0.08	0.27	0	1	1: 주말 근무함
		어머니 노동시간	모노동 시간	2,675	5.58	1.8	0	14.86	주간 (주중 &주말) 평균, 노동시장 참여 조건부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모 스트레스	8,600	1.99	1.27	0	4.82	5: 스트레스 심함
		아버지 양육 스트레스	부 스트레스	8,600	1.7	1.18	0	4.73	5: 스트레스 심함
아동 발달 변수	신체 발달	체중	체중	6,563	19.58	5.2	10	48.7	Kg
		신장	신장	6,563	109.76	11.41	85	144	cm
	언어 발달	수용어휘력 총점	수용어휘 점수	3,248	43.37	40.68	1	180	
		수용어휘력 중위값 이상	수용 어휘상	4,300	0.65	0.48	0	1	
		표현어휘력 총점	표현어휘 점수	3,177	42.28	42.06	1	175	
		표현어휘력 중위값 이상	표현 어휘상	4,300	0.6	0.49	0	1	
		발화능력 수행검사	발화점수	1,496	3.11	1.89	0	6	놀이동산 따라말하기 선별검사, 중위값 달성 실패 영역갯수 높은점수: 발달지연의심
	인지 발달	학습준비도 (인지 발달 및 일반지식)	학습준비 _인지	1,603	3.63	0.4	1	4	4: 준비도 높음
		학습준비도	학습준비	1,603	3.55	0.37	1.7	4	4: 준비도 높음

분류	세분류	설명	변수명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가공
		학업능력(수리적 사고)	학업능력_수리	1,603	3.36	0.92	0.2	5	5: 능력높음
		학업능력	학업능력	1,603	3.56	0.81	1	5	5: 능력높음
	정서성/사회성	자아존중감(또래수용)	자존_또래	1,557	2.23	0.48	0.86	3.43	4: 존중감 높음
		자아존중감(어머니 수용)	자존_모	1,557	2.37	0.54	0.83	3.5	4: 존중감 높음
		자아존중감	자존_전체	1,557	2.48	0.28	1.13	3.28	하위 4개 영역 평균 4: 존중감높음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	3,117	3.4	0.56	1	4	4: 행복함
		또래상호작용	또래상호작용	3,021	2.53	0.38	0.7	3.38	하위 3개 영역 평균 높은점수: 또래들과 잘 어울림
		사회적 유능감(교사평정)	유능감_교사	1,203	2.51	0.36	1.04	3	3: 유능하다고 느낌
		사회적 유능감(부모평정)	유능감_부모	1,605	2.29	0.3	1.22	3	3: 유능하다고 느낌
	문제행동	문제행동_총문제행동	문제행동_총	3,299	42.88	28.89	0	100	백분율, 100=문제행동 심함
		문제행동_내재화	문제행동_내재	3,299	45.31	28.73	3	100	백분율, 100=문제행동 심함
		문제행동_외현화	문제행동_외현	3,299	42.66	28.74	3	100	백분율, 100=문제행동 심함
		문제행동_정서	문제행동_정서	3,299	43.09	27.41	9	100	백분율, 100=문제행동 심함
		문제행동_불안	문제행동_불안	3,299	43.87	28.24	6	100	백분율, 100=문제행동 심함
		문제행동_전반적 발달	문제행동_발달	3,299	46.34	28.02	10	100	백분율, 100=문제행동 심함
		문제행동_주의력결핍/과잉행동	문제행동_adhd	3,299	46.55	28.2	9	100	백분율, 100=문제행동 심함

분류	세분류	설명	변수명	관측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가공
		문제행동_반항행동	문제행동_반항	3,299	43.96	27.36	13	100	백분율, 100=문제행동 심함
추가 양육행태 변수		개인대리양육 이용여부	대리양육	4,300	0.03	0.17	0	1	1: 이용함
		양육지원기관/보육기관/학교 이용여부	보육기관	6,450	0.45	0.5	0	1	1: 이용함
		특별활동 이용횟수	특활횟수	2,801	4.23	3.68	1	44	보육기관내 특별활동 주당 이용횟수 *과목별 응답을 총합하여 사용
		특별활동 이용시간	특활시간	2,774	163.92	164.92	10	1920	보육기관내 특별활동 주당 이용시간(분) *과목별 응답을 총합하여 사용
		사회적 지원_정서적	지원_정서	4,833	3.67	0.84	1	5	5: 지원수준이 높음
		사회적 지원_도구적	지원_도구	4,849	3.91	0.73	1	5	5: 지원수준이 높음
		사회적 지원_정보적	지원_정보	4,911	3.74	0.71	1	5	5: 지원수준이 높음
		사회적 지원_사교적	지원_사교	4,911	3.52	0.94	1	5	5: 지원수준이 높음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 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3330
9 791168 650732
ISBN 979-11-6865-073-2